차 례

소 설 편

수 필 편

시 편

《1940년대문학작품집》(해방전편)에 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화건설분야에서는 민족문화유산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우리의 문화를 민족적바탕우에서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당의 문예정책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우리 당문예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를 빛나게 관철하는데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발굴평가사업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지난 시기 해방전의 진보적문학예술작품에 대한 평가소개사업에서는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러나 1940년대문학에 한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미진된것이 적지 않다. 그것은 이 시기가 진보적문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그 어느때보다 가혹해진 시기였던것만큼 유산이 많지 못하다는 사정과 중요하게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일제의 폭압이 극도에 이른 정세하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량심적인 작가들은 문학의 본도에 어긋나지 않게 창작활동을 벌려나가기 위한 고심참담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 인민대중에 대한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지는 작품들을 일정하게 내놓음으로써 우리 나라 진보적문학의 명맥을 끊임없이 이어나갔다.

이 작품집에는 그 정형을 보여주는 소설, 시, 수필들의 일부가 실려있다.

작품들에 대한 리해를 옳게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작품창작당시의 시대상에 대한 일정한 파악이 필요하다.

1940년대 전반기는 이미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중국의 넓은 지역을 강점한 일제가 더욱 기고만장하여 태평양전쟁(1941. 12. 8. 시작)을 일으켜 침략의 불집을 보다 확대시키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착취와 략탈, 탄압을 훨씬 강화하고 우리 민족을 영원히 노예화하기 위한 《황국신민화》책동에 더 광분한 시기였다.

일제는 징용제를 실시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살인적인 로동현장에 끌고가 악착하게 부려먹었는데 그 수는 놈들이 패망할 때까지 근 수백만명에 이르렀다.

일제는 1940년대에 들어와 전쟁비용의 충당을 위해 농산물에 대한 강제적인 수탈만행을 저지르고 나중에는 녀성들의 비녀와 가정들에서 쓰는 밥그릇과 수저까지 빼앗아갔다. 그리고 징병제를 공포하여 청장년들을 전쟁터에 내몰았으며 20여만명의 녀성들을 일본침략군의 성노리개로 끌어가는 특대형의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

일제의 책동은 사상문화분야에서도 매우 우심하였다.

놈들은 중일전쟁도발직후부터 《내선일체》, 《동조동근》사상을 주입시킬 목적밑에 《황국신민의 서사》를 조선사람들이 외우도록 강요하고 일본천황의 사진을 학교들에 내걸게 하였으며 광신적인 일본군국주의 두목놈을 《충군충효》의 표본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조선말 대신 일본말을 사용할것을 강요하면서 이에 불복하면 벌금을 물리고 행패를 가하고 기차표를 팔아주지 않는 등으로 고통을 주었다.

일제는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기 위한 《창씨개명》을 실시하는 한편 조선글로 씌여진 주요신문들인 《조선일보》, 《동아일보》그리고 저들의 정책실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지는 출판물들을 모두 없애버리였다. 그리하여 조선어학회의 기관지 《한글》이 폐간되고 잡지《삼천리》가 친일잡지《대동아》로 개제되는 등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모든것이 무참하게 유린말살되였다.

특히 일제는 문학예술이 사람들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것을 악용하려고 책동하였다.

놈들은 1939년말 리광수를 비롯한 친일어용작가들을 내세워 《조선문인협회》를 조작하여 《내선일체》를 실현하는 《새로운 국민문학의 건설》을 제창하게 하였으며 1943년 4월에는 《조선문인협회》, 《조선하이꾸작가협회》(하이꾸―일본민족시가형식의 하나), 《조선시가련맹》 등 3개의 어용문학단체를 통합한 《조선문인보국회》를 발족시키였다.

《조선문인보국회》는 회장을 비롯한 요직에 거의 모두가 왜놈들이 틀고앉은 단체로서 그의 반동성은 《조선문인협회》를 훨씬 릉가하였다. 회장으로 선출된 왜놈은 취임사에서 《전시하〈국민〉들에게 전쟁정

신을 고취시키는데서 우리 작가들에게 기대되는바가 크다.》고 지껄이면서 《황도문화수립》에 조선문학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고아댔다.

이러한 문화적배경하에서 1941년 11월에 창간된 잡지 《국민문학》은 일제의 《국책》실현에 앞장선 친일어용출판물로서 문자자체에서부터 민족적형식을 없애버리고 전부 일어로 씌여졌다.

원래 《국민문학》이라는 용어는 《카프》시기에 민족주의문학을 가리켜 씌여졌는데 1940년대가 시작될무렵부터는 그 의미가 완전히 전도되였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을 치르는데 저들의 본토력량뿐아니라 식민지조선의 모든것을 총동원하려고 《국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던것만큼 이 시기 《국민》이라는 말에는 《일본제국의 황민》이라는 뜻이 담겨지게 되고 따라서 《국민문학》은 왜놈들의 《국책문학》과 다름이 없는 성격을 띠였다.

일제의 침략야망과 민족동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모든것이 짓밟힘으로써 이 시기 조선민족은 민족으로서 계속 존재하는가 마는가 하는 심각한 운명의 기로에 놓이게 되였다.

1940년대 전반기문학의 주제사상적내용이 프로레타리아문학을 비롯한 전 시기의 진보적문학에 비하여 현저한 퇴보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게 된데는 작가들의 준비정도에도 기인되지만 당시의 이와 같은 정세와도 많이 관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작가, 문필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과 그 기치밑에 진행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 반일지하조직들의 활동 등에서 고무를 받으며 애국적이고 량심적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들가운데는 일제에게 아부굴종하는 글을 써내는것을 치욕으로 간주하고 문단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조건이 어렵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과 정의와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능한껏 문학예술작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놓고볼 때 1940년대 전반기의 진보적작품들은 전 시기에 비해 미숙한데가 적지 않고 편수로도 그리 많지 못하지만 일제식민지통치하의 현실에 대한 불만과 비판적태도를 드러내고 시대의 지향과 념원을 일정하게나마 구현한것으로 하여 소중히 여겨진다.

이 작품집에는 먼저 10편의 단편소설이 실려있다.

단편소설 《봉황산》은 리기영이 1940년 3월 잡지 《인문평론》에 발표한것이다.

리기영(1895. 5. 29－1984. 8. 6. 필명 민촌)은 충청남도 아산군에서 태여나 어린시절 사립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문학적소양을 키웠다. 그는 1911년 봄에 집을 떠나 5년간 탄광, 공사판 등에서 로동을 하는 과정에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많이 보고 잘 알게 되였다. 1922년부터 1년간 일본에서 고학을 한 후 귀국하여 소설창작에 전심하였다. 그는 잡지 《조광》의 기자생활도 하고 1925년 8월 《카프》가 조직될 때에는 주요성원이 되여 프로레타리아문학건설을 위해 노력하다가 1934년 여름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1년간 감옥생활을 하였다. 출옥후에도 그는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소설창작에 힘을 넣었고 1940년대에 들어와 일제의 탄압에 의해 진보적인 문학작품을 계속 써내기 어려워지자 강원도 금강산밑에 있는 산속에 들어가 농사를 지었다.

해방후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로 인민주권기관과 사회단체, 문학예술부문의 중요직책을 맡아보면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사업에 적극 헌신하였으며 주체61(1972)년 **김일성**상을 수여받았다.

그는 1924년 첫 작품인 단편소설 《오빠의 비밀편지》를 현상응모에 당선시킨 때로부터 련이어 단편소설 《가난한 사람들》(1924), 《민촌》(1925), 《쥐이야기》(1925), 《농부 정도룡》(1926), 《민며느리》(1927) 등 무산대중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항거의식을 반영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프로레타리아문학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우수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품들인 단편소설 《원보》(1928), 《제지공장촌》(1930), 장편소설 《고향》(1933) 등과 기타 비판적사실주의작품을 비롯하여 경향성이 좋은 작품들인 중편소설 《쥐불》(1933), 장편소설 《인간수업》(1936), 《봄》(1940), 《생활의 륜리》(1942) 등 적지 않은 작품을 써내였다. 그리고 《〈혁명가의 안해〉와 리광수》(1933), 《문예적시감수제》(1933), 《창작방법문제에 관하여》(1934)를 비롯한 진보적평론들과 기타 희곡, 산문들을 발표하는것을 통하여 일제의 비호밑에 조장류포되는 부르죠아문학

예술의 반동성과 해독성을 폭로비판하고 문학예술의 계급성과 진보성을 적극 옹호하였다.

1940년대에 이르러 그의 소설에서는 일련의 부족점이 간혹 나타났지만 그는 총체적으로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시기의 창작리념을 기본상 유지하면서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경향에로 나갔다.

단편소설 《봉황산》은 강원도에 위치한 봉황산기슭에서 소작농으로 고달프게 살아가는 치수네 일가의 생활을 안해인 보배의 시점을 많이 빌어 보여주었다.

가난한 보배네 집은 앓고있는 시어머니의 병구완까지 하느라 더욱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었다. 보배네 가족들은 봉황사중인 지주에게 빚과 리자를 합쳐 20원을 물어야 하겠으나 농사가 잘 안되여 늘 걱정인데다가 15원을 얻어다 쓴 읍내의 강주사로부터 제때에 돈을 물지 않으면 집을 빼앗겠다는 독촉까지 받으며 시달림을 당한다.

작품은 봉황산의 물이 환자의 병치료에 좋다기에 희망을 안고 찾아왔던 보배네 집식구들이 그곳에서 더는 살수 없어 집을 팔아 빚을 갚은 후 끝내 병을 못 고치고 죽은 늙은이의 장례를 치르고나서 정처없이 떠나가는것으로 이야기를 마치였다.

작가는 이들의 어려운 생활을 돈 있는자들의 유흥생활과 대조시켜 보여주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현실의 불합리성을 폭로하였으며 빈부의 격차가 왜 생겨나는가를 밝히기 위한데도 일정한 힘을 넣었다.

보배는 처음에 자기가 못살고 고생하는것이 앓는 시어머니탓이라고 여기였으나 곧 생각을 고쳐가진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병을 만나지 않았던 지난날에도 《남편은 1년내 농사를 짓기에 허덕이였》고 자기 또한《방아찧고 김매고 밥짓고 빨래하고 오줌동이 이기에 도무지 눈코뜰새가 없》었으나 고생하기는 《그때나 이때나 일반》이라는 것을 알기때문이였다.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던 보배의 의식에서는 겹쳐드는 가난과 불행을 겪는 과정에 점차 변화가 일어난다.

그는 봉황산경치구경을 하러 오군 하는 돈많은 사람들을 자주 보아왔던것만큼 일을 잘하면 죽어서 천당에 간다고 아무 생각없이 말하는 남편에게 그럼 왜 《판판 놀고서도 잘사는 사람이 있고 일하기보담도

놀기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고 물으면서 놀고도 잘사는 사람들은 버드나무에 붙어 기생하는 겨우살이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보다싶이 남의 피땀을 빨아먹으며 호화생활을 누리는 착취계급에 대한 불만과 증오심을 직접적인 묘사로는 드러내지 않았으나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나타내고있는것을 알수 있다.

작가는 1920－1930년대에 발표한 일부 작품들에서도 그러하였던것처럼 이 소설의 주요인물들도 가난과 불행앞에서 맥없이 눈물만 흘리며 주저앉는 성격으로 그리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가겠다는 굳은 마음을 지닌 인물들로 그리였다.

집을 빼앗기면 당장 죽을것만 같이 생각하던 보배는 어떻게 하나 돈을 벌어 다시 생활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남편의 결심을 리해하고는 (다 사는데 왜 우리만 못살것인가. 땅이 두쪼각이 나더라도 끝까지 살아보자.)고 다짐하면서 따라나서는바 여기에는 우리 인민들의 근면하고 강직한 성품에 대한 긍정과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의 행복한 앞날을 념원하는 인도주의적립장이 구현되여있는것으로 리해할수 있다.

단편소설 《피의 교재》, 《강교장》, 《범의 굴》은 재중조선인작가인 김창걸의 작품들이다.

중국동북지방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의 발자취가 많이 깃들어있는 곳으로서 이 지방 인민들의 반일기운은 매우 높았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반일민족의식을 구현하고 항일유격대에 대한 지지성원을 표명한 작품들이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와 중국동북지방을 무대로 하여 더 많이 창작된 사실은 그를 잘 말해준다. 김창걸의 소설들은 당시의 이와 같은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김창걸(1911－1991)은 1930년대 후반기부터 1940년대 전반기 중국동북지방에서 조선문학발전에 기여한 작가의 한사람이다. 함경북도 명천군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어릴 때에 부모를 따라 중국간도의 룡정시 장재촌으로 갔다. 빈곤하게 살면서도 정의감을 가지고 있던 그는 점차 자라면서 사회운동에 관여하는 한편 문학에 큰 관심을 두고 작품창작을 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거의 모두가 일제와 괴뢰 《만주국》의 반인민적정책을 신랄하게 폭로비판하고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나타낸것으로 하여 당시로서는 공개출판물에 낼수 없었으므로 그는 무산아동들의 교육에 그

것들을 일부 리용하였다. 해방후 그는 중국에서 조선문학에 대한 연구와 후대교육사업, 문학작품창작활동 등을 하다가 생을 마치였는데 그 과정에 자기가 오래전에 써놓았던 소설원고들을 정리하여 작품집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 작품집에서는 거기에 수록된것들중에서 3편을 소개하였다.

단편소설 《피의 교재》(1940)는 반일투쟁에 나섰다가 원쑤들에게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의 굳은 절개와 비장한 최후를 보여준 작품이다.

왕청일대에서 활동하던 김동무와 정동무는 변절자의 밀고에 의하여 적들에게 붙잡혀 호송되여가는 길에서 동요와 비관을 모르고 오직 생을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생각만을 한다.

소설은 비장한 결심을 내린 그들이 조직의 비밀을 지키고 원쑤들에게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칼로 목을 베여 자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연을 전하는 나의 말을 통해 이들의 굳은 절개와 의지를 피의 교재로 삼고 따라배워야 할것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단편소설 《강교장》(1942)은 일제가 괴뢰《만주국》을 내세워 조선인민의 반일정신과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해 진보적인 사립학교들을 페쇄해버리는 악랄한 책동을 보여주면서 해방전 우리 나라의 민족교육이 겪은 수난상과 그에 대한 인민들의 항거의식을 반영하였다.

주인공 강교장은 원래 농사군으로서 젊었을 때에는 의병투쟁에 참가하였다가 대세가 기울어지자 할수없이 집에 돌아온 사람이였다. 그는 일제의 《토벌》에 의하여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아 마을의 청소년들이 옳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는것을 방임해둘수 없어 스스로 앞장에 나서서 아무러한 보수도 받음이 없이 이악하게 노력하여 새 학교를 일떠세웠었다.

그가 명예교장으로 되여있는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반일애국정신을 심어주는것을 주요한 교육내용으로 하고있었다.

소설은 이러한 생활경위와 립장을 가진 강교장과 그를 따르는 선진적인 교원들이 일제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교단에서 밀려나게 된데 대하여 묘사하면서 일제의 비렬한 행위에 대한 반항심을 《사립학교페쇄 망세!》, 《공립학교개편 망세!》라고 웨치는 그들의 형상속에 구현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제와 괴뢰당국의 정책을 두고 망할 놈

의 정치라고 개탄하는 의미에서, 어서 콱 망해버리라고 야유하는 뜻에서 겉으로는 《만세》라고 부르는척 하면서 실지로는 《망세》라고 부르는것이다.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것은 항일유격대에 대한 묘사이다. 작가는 강교장을 애국적인 교육가로서만이 아니라 항일유격대와 련결된 인물로 그리였는바 다음의 대목은 그를 잘 나타내고있다.

《하루아침 일어나니 지난밤에 내 있는 학교동네에 산손님들이 왔다갔다는 소문이 짜하게 들려왔다.

그 산손님들은 하나둘이 아니라 10여명이, 빈손으로가 아니라 총까지 메였다고, 그저 막옷이 아니라 누런 군복차림으로 왔댔다는것이다. 잠시 들린것이 아니라 밤참까지 먹고 두시간이나 있다가 갔다는것이다.》

그다음에도 계속하여 묘사한데 의하면 산손님들은 의젓하고 위풍있는 군대로 돋보이고있다. 그들은 선동연설을 하고 혁명가를 부르고 춤까지 추었으며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키워주는 강교장의 일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그리고 강교장은 그들의 부탁대로 많은 지하족들을 마련하여 보내준것으로 되여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산손님들에 대한 형상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의 활동과 그에 대한 인민대중의 원호정신에 대한 예술적반영이라는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우선 작품에서 나가 마을인민들과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홍범도의 독립군에 대한 이야기와 그와는 구별되는 《지금의 산손님》들에 대한 이야기로 명백히 갈라지고있는데서 그 론거를 찾을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김창걸과 다름이 없이 1930년대에 간도지방에서 많이 생활한 녀류작가 강경애의 경우에도 단편소설 《모자》(1935)에서 항일유격대를 가리켜 《산》이라고 표현한 실례를 놓고서도 그렇게 볼수 있다. 이것은 결국 김창걸의 창작활동이 항일유격대의 혁명적영향을 받으며 진행된것이 분명하다는데 대하여 알수 있게 해준다.

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이와 결부시켜 항일유격대를 인민의 군대로 찬양하고있는 여기에 이 작품이 거둔 두드러진 성과와 문학사적의의가 있다.

단편소설 《범의 굴》(1941, 해방후 정리하여 작품집에 낼 때에는

제목을 《도망》으로 하였음.)은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야만적인 학대와 멸시, 비인간적만행에 대하여 폭로비판한 작품이다.

소설은 조선에서 농사를 짓던 장셋째가 만주의 G탄광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일제와 그 주구들의 허위선전에 속히워 그리로 갔다가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고역을 치르고서야 고향을 떠나온 자기의 실책을 뉘우치고 도망치게 되기까지의 사연을 그리였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조선인로동자들을 인간이하로 취급하면서 마구 부려먹는 일제의 죄악상을 신랄히 폭로하였는바 인부들이 탄광에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로 트집을 잡아 욕을 퍼붓고 발로 차는데 대한 묘사와 그들에게 수수밥과 무우를 썰어넣은 소금물을 주면서 먹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직 배에 기름이 져서 투정질을 한다고 뇌까리는데 대한 묘사 그리고 장셋째에게 석탄덩이에 치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누구도 모르게 내다버리라고 시키면서 그가 죽은것이 본인의 불찰때문이였다고 꺼리낌없이 말하는 감독놈의 처사에 대한 묘사 등은 그 구체적인 실례들이다.

작품은 일제가 떠벌이는 《황국신민화》정책에 대하여서도 폭로비판하였다.

인부들이 기차를 타고 G탄광으로 가는데 같이 렬차에 오른 일본십장놈은 비상시국에 왜 각반을 치지 않았는가, 《대동아성전》을 하는데 왜 전투모를 쓰지 않고 머리를 서양식으로 길렀는가고 하면서 상스러운 욕을 퍼붓는가 하면 그것도 성차지 않아 장셋째의 뺨을 치고 머리카락을 쥐여 뽑는다.

소설은 일제와 조선인민간의 첨예한 민족적모순과 갈등을 심각하게 추구한 결과 반일적성격을 두드러지게 하고 조선인민에게 끼친 일제의 죄과가 얼마나 큰것인가를 만천하에 고발하였다.

단편소설 《갈매기》(김소엽, 《조광》1940. 4, 5)에서는 M중학교 4학년생인 조병호의 출학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을 기본으로 묘사하면서 일제통치하의 불합리한 교육실태를 폭로하고 그에 대한 량심적인 지식인들의 불만과 정신적고충을 보여주었다.

작품은 M중학교 교원이였던 주인공 장기호가 가족과 함께 온천려행길에 오른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기호가 려행을 하게 된것은 학교에

서 있었던 불쾌한 일과 퇴직후 일자리가 없어 근심속에 날을 보낸데로부터 오는 울적한 심정을 다소나마 달래보기 위해서였다.

어느날 조병호는 장난삼아 손거울로 M중학교의 근방에 위치한 T학교의 창문유리를 비쳐보았는데 교무주임 박두일은 그것을 두고 품행이 바르지 못한 엄중한 행위라고 락인하면서 출학시킬것을 제기한다. 그는 조병호가 평시에 결석이 많았고 말썽을 자주 일으켰으므로 이번 기회에 아주 내쫓아야 한다고 들고나온다.

그러나 기호의 눈에 비낀 조병호는 문학에 남다른 소질이 있고 사내답게 교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바른 말을 하기를 꺼려하지 않는 대바르고 총명하며 장래가 기대되는 학생이였다.

작품에서는 학생이 가지고있는 일시적인 결함과 그 학생의 장래가운데서 어느것을 먼저 보고 중시해야 하는가 하는 관점과 립장에서 서로 대립되여있는 기호와 박두일간의 마찰에 형상의 초점을 모으고있다. 박두일이 문학공부에 열중하는 조병호에 대하여 련애소설에 빠져있다고 속단하며 비난할 때 기호는 병호에게서 일단 품은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는 장점을 발견하고 키워주려 하며 박두일이 되알진 소리를 주저없이 하는 조병호앞에서 망신을 당할가봐 꺼려하는것과는 반대로 기호는 거기에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기를 펴고 살아가는 조병호의 정직하고 강직한 품성을 엿보게 된다.

작가의 주장은 기호가 교원모임에서 한 대사내용을 통해 집중적으로 밝혀지고있다.

그는 학생의 잘못에 대하여 추궁을 하고 필요한 처벌도 주어야 하지만 중학교시절은 가장 원기왕성하고 꿈많은 좋은 시절인데 그들의 자유와 희망을 억지로 구속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그것은 자라나는 싹을 무거운 돌덩이로 지질러버리는것과 같이 도리여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미래가 창창한 학생의 앞날을 신중한 고려가 없이 아주 꺾어버리는것은 교육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절절하면서도 강경하게 이야기한다.

작품은 끝내 조병호에게 출학처분이 내려지자 사직서를 낸 기호가 이 사실에 대하여 안해에게 숨기고 직업이 없이 앞으로 살아갈 일을 걱정하면서 정신적고충을 겪는데 대한 묘사를 통하여 당대 현실이 뜻있고 대바른 사람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안정된 생활과 정신적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것을 폭로하였다.

단편소설 《락일홍》(김정한, 《조광》1940. 6)은 미래를 떠메고나갈 아이들을 옳게 가르쳐야 할 책임적이고도 신성한 교단이 불량배들의 권모술수와 당국의 그릇된 조치에 의하여 더럽혀지고있는 현실에 대하여 개탄하고있다.

현재 S분교의 수석교원으로 있는 주인공 박재모는 6년전 지금의 학교터전을 닦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였다. 그는 학교가 없어 변변치 않은 마을의 한곳에다 정해놓은 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자기의 고생에 대하여서는 생각지 않고 가난한 집 자식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배워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늘이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심으로 애써왔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S분교가 독립되여 교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틀림없이 박재모가 되리라고 믿으며 또 그렇게 해주도록 당국에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장으로 임명된것은 그가 아니라 요다 사부로라고 하는 인물이였다. 요다 사부로는 박재모와 ××보통학교에서 같이 교원생활을 한적이 있었는데 그는 쩍하면 실내화로 학생들의 뺨을 때리거나 주산으로 머리를 마구 치군 하여 동맹휴학을 야기시킨 장본인이였지만 우에다가 아첨을 하여 무사히 지내였고 나중에는 한 녀학생의 신세를 망쳐놓은것때문에 더는 배겨내지 못하고 교단에서 물러난자였다.

소설은 당국이 이런자를 교장으로 임명하고 오히려 적임자인 박재모를 다른데로 조동시킨것으로 사건을 결속함으로써 참과 거짓이 뒤바뀌고 불의가 정의를 내리누르는 암흑의 현실, 불공평한 식민지교육실태를 폭로비판하였다.

단편소설 《실명》은 엄흥섭의 작품으로서 잡지 《조광》의 1940년 7－8호에 발표되였다.

엄흥섭은 1906년 9월 경상남도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여나 어릴때부터 농사일을 하고 부모를 다 잃은 후 얼마동안 머슴살이를 하였다. 그는 소작농인 삼촌의 도움으로 어렵게 보통학교를 다니면서 문학적소양을 키웠다. 그후 높은 성적으로 사범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한 그는 1926년에 졸업하여 보통학교 교원생활을 하는 과정에 농민들과 무산아동들의 생활처지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그는 교원시절에 《카프》작가들과 련계를 가지고있던 사실이 알려져 교원생활을 더 할수 없게 되자 서울로 가서 《카프》에 가맹하여 중앙위원으로 선거되였다.

《카프》성원으로 있던 시기와 그후에 그는 단편소설 《흘러간 마을》(1929), 《출범전후》(1930), 《숭어》(1932), 《안개속의 춘삼이》(1932), 《힘》(1936), 《가책》(1936), 《아버지소식》(1936), 중편소설《정열기》(1936), 장편소설 《봉화》(1940) 등 많은 작품을 써내여 프로레타리아문학을 비롯한 진보적문학발전에 기여하였다.

해방후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출판기관과 문학예술부문의 중요사업을 맡아보면서 80고령에 이를 때까지 사회주의건설과 주체적문학예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엄흥섭의 소설은 적지 않은 작가들의 경우와 거의 마찬가지로 1940년대에 들어와 전시기에 비해 주제사상적내용에서 미숙성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당시로서는 일정하게 교양적가치를 가진것으로 하여 주목되는 작품들도 일부 있는바 단편소설 《실명》은 그 실례의 하나이다.

작품은 주인공 원칠의 운명을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구속하는 당대의 숨막히는 현실을 폭로비판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였다.

그리스도교자선사업회가 운영하는 맹아원에는 원칠이라는 청년과 명희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들은 다 같이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이며 여러해동안 같이 지내는 과정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였다. 원칠은 자기가 비록 소경이지만 남들 못지 않은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인간인것만큼 마땅히 한 처녀를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같은 처지에 있는 처녀와 깨끗한 사랑의 정을 나누며 지내는것으로써 때없이 고독하게 느껴지는 마음속 상처의 아픔을 덜어보려는 한가닥 희망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맹아원원장과 기숙사사감은 원내의 규칙을 운운하면서 이들의 관계에 련애니 풍기문란이니 하는 따위의 감투를 씌우고 허용하지 않는다. 사감은 명희를 원칠이가 아닌 다른 청년과 결혼시키는 대가로 잘사는 집안인 명희의 부모에게서 돈과 물건을 받아내려고 하는자이며 원장은 남들 몰래 녀성들과 치정관계를 맺고있는 호색한이다.

이런자들이 귀맛좋게 광고하여 운영하는 맹아원에서는 원아들에게 인간의 건전한 발육에는 도움이 되지 않게 맹목적으로 기도문이나 외우게 하고 기계적인 규칙생활을 강요하며 옷도 제때에 깨끗한것으로 갈아입히지 않는다. 그리고 식탁에 놓아주는것도 보리밥과 좁쌀밥 같은 보잘것없는 음식뿐이다.

작품은 원칠이가 자기를 천대하고 아름답게 가꾸려 하는 사랑의 꿈을 무지막지하게 짓밟는 사감과 원장의 위협과 횡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며 명희마저 원칠이를 애타게 부르다가 병상에 누워 숨을 거두는 비극적결말을 보여주는것을 통하여 돈과 권세를 가지고 미사려구를 써가며 저들의 욕심만 차리는 위선자들의 죄행과 반인륜적정체를 까밝히였으며 주인공의 성격속에 이와 같은 사회악에 대한 항거심을 일정하게 구현하였다.

소설의 앞부분에 주어진 원칠의 출생경위에 대한 묘사와 맹아원에서 나온 그에게 하는 이름 모를 한 사나이의 대사내용도 중요한 형상적기능을 수행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성병을 만난 어떤 부자가 자기네 집의 식모인 처녀를 릉욕하여 낳게 한 생명이 바로 원칠이였다. 저주로운 아버지의 몸에 붙어있던 더러운 병균이 그대로 원칠의 몸에 옮겨진 결과 그는 태여난 후 인차 소경이 되고 그 집에서 쫓겨난 어머니는 동냥살이와 품팔이끝에 일찍 죽고말았다. 그리하여 나어린 원칠은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맹아원에 들어오게 된것이였다.

한편 맹아원에서 나간 원칠은 길가에서 만난 어떤 사나이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말의 내용은 자못 의미심장한것이다.

《당신은 장님이니까 눈을 뜨고 세상구경을 해봤으면싶으리라만 별수 없수. 두눈가진 놈이 되려 불행하우. … 두눈깔이 있기때문에 도적질을 하구 남의 계집 탐을 내고…노름을 하고 문건을 위조해서 남을 속이고 하다가 결국 큰 죄를 짓게 되여 제 일생을 망치는 녀석들이 좀 많소! 세상에 장님처럼 팔자 편한 사람은 없는줄 아우. …내가 오죽하면…장님행세를 해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소?》

소설의 앞뒤부분에 형상된 이러한 내용들은 맹아원안에서의 생활내용과 전후관계를 가지고 작품의 폭을 더 넓히면서 온갖 패륜패덕과 범죄가 살판치는 식민지자본주의사회의 암흑면을 여실히

발가놓고있다.

단편소설 《안달소전》(리무영, 《조광》 1940. 10.)은 3대를 이으며 소작살이를 해오는 한 일가의 불우한 운명을 권안달의 현재 생활을 위주로 하여 반영하였다.

작품의 기본줄거리는 서울에서 백리 떨어진 곳에 있는 오봉산기슭의 궁말에서 할아버지대부터 소작살이를 해온 주인공 권안달이 땅을 뚜져먹고 사는 자기의 고된 처지를 개선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를 실현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자기 조상이 묻힌 선산마저 잃게 되기까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원래 권안달의 먼 조상은 리조 중엽때에 한다하는 량반이였는데 점차 몰락하여 남의 토지에 얽매인 처지에 이르렀다. 그의 아버지는 자식에게만은 자기처럼 소작살이를 하며 등에 지게를 지고 다니는것과 같은 힘든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어려운 살림에서도 글방에 보내여 공부를 시켰으나 소원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추한 놈의 세상!…네게다 또 지게를 지우다니…아버지가 내 등에다 지게를 지우실 때도 이렇게 우셨다드니.》하고 통곡하면서 안달의 자식에게만은 지게를 지우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한 후 세상을 떠나고말았다.

작품은 이와 같은 사연을 안고있는 권안달이 가난과 고생을 면해보려고 소처럼 억척스레 일을 하면서 푼돈과 재산을 극력 아껴쓰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였다. 권안달의 형상은 지주의 땅에 얽매여 대대로 힘겹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고달픈 생활에 대한 예술적일반화이며 제땅을 가지고 제힘으로 농사지으며 단단하게 살아보려고 하던 해방전 농민들의 숙망에 대한 사실주의적반영이다.

그러나 주인공의 기대와 념원이 실현되지 못하는것으로 사건을 결속지은데서 작품의 사회적문제성이 더 두드러지고있다. 그것은 이러한 형상이 돈과 권력이 없으면 아무리 피땀흘려 일을 해도 가난과 고생을 면할수 없었던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우리 나라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보이는 축도로 되기때문이다. 결국 권안달은 3대째 내려오는 지게살이신세를 4대째가 되는 아들 창식에게 또다시 물려줄수밖에 없게 되고 사기협잡과 강권이 횡행하는 와중속에서 자기 조상의 뼈가 묻힌 땅이 돈 있는자의 손에 넘어가는것도 막아내지 못하게 된다.

작가는 서울에서 살기가 힘들어 궁말에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살아

가려고 하는 나의 시점을 통하여 가난한 모든 농민들과 나자신의 어두운 앞날에 대하여 불안감을 표시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겉보기에 화려하고 부자들에게는 살기가 좋으나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수 없는 도시형편, 서울생활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드러내보이였다.

이로써 작품은 도시와 농촌의 어디를 가나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가난과 불행만이 차례지는 착취사회의 불평등을 폭로비판하였다.

단편소설 《하복》(김영석, 《조광》 1941. 9.)에서는 어느 회사의 직원인 윤오의 생활을 통해 당대 현실을 비판하였다.

윤오는 변변한 옷이 없어 여름에도 때가 낀 동복을 입고 다니다가 창피를 면하려고 겨우 여름양복 한벌을 샀지만 별로 입어보지 못한채 못쓰게 만든것으로 하여 울적한 기분을 털어버리지 못한다.

작품은 옷 한벌 제대로 갖추지 못해 회사의 돈 많은자들에게서 조롱당하는 그의 가련한 처지와 서글픈 심정, 새옷을 보란듯이 입고 나가 자기의 체면을 잠시라도 세워보고싶어하는 소박한 기대감, 그러나 우산마저 변변한것이 없어 새옷을 비에 적시고 나중에는 천이 찢어져 다시 입을수 없게 되자 그것을 대동강물속에 내던지고마는 측은한 모습 등을 섬세한 필치로 묘사하였다.

윤오의 형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 한푼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꺼리낌없이 멸시하고 천대하는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불공평한 사회에 대한 폭로비판으로 된다.

단편소설 《물오리섬》은 1942년 1월 잡지《국민문학》에 발표된 김사량의 작품이다.

김사량(본명 김시창)은 1914년 3월 평양에서 자그마한 기업가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평양고등보통학교시절에 광주학생사건이 일어나자 반일운동에 참가하였으며 5학년때인 1932년에는 학교의 일본인교원을 배척하는 동맹휴학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퇴학당하였다. 다음해에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6년동안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니면서 문학예술활동도 벌리였다. 그후 귀국하여 신문기자로 있으면서 작품창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는 패망을 앞둔 일제가 조선인작가들을 저들에게 협력하는 《종군》작가로 내몰 때 그 마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진하여 중국의 북

부지역에 나갔다가 탈출하여 항일유격대를 찾아떠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쓰신바와 같이 김사량은 조선인민혁명군에 참군할것을 결심하고 유격대를 찾아 만주지방을 헤맸으나 종시 부대를 찾지 못하고 연안에 가서 항일유격대를 《태양부대》라고 칭송한 장편기행문 《노마만리》를 써냈다.

해방전 그는 첫 작품인 단편소설 《토성랑》(1936)으로부터 시작하여 단편소설 《빛속에》(1939), 장편소설 《무궁일가》(1940), 《태백산맥》(1943)을 비롯한 20여편의 소설들과 기타 평론을 비롯한 산문들을 발표하였다.

해방후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주로 문학예술부문사업을 맡아보았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인민군대 종군작가로서 군대와 인민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글들을 써내던중 1950년에 전사하였다.

잡지 《국민문학》은 일제의 승인하에 1941년 11월 합법적출판물로 나온것으로서 모두 일어로 씌여졌으며 거기에 실리는 작품들은 친일적인 내용으로 꾸며지도록 되여있었다. 그러므로 이 잡지는 우리 나라의 문학발전에 큰 해독적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 잡지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와 거기에 실린 작품들의 경향성을 하나씩 건당으로 분석평가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것을 김사량의 창작경우가 말해준다.

반일의식이 강했던 그가 이 잡지에 소설을 발표한 의도는 친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록 일본어로 작품을 써서라도 조선민족의 전통과 우리 인민의 생활모습을 가능한껏 세상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데 있었다.

실지로 그는 조선문학은 응당 조선말로 씌여져야 한다는 립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편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조선인에 관해 그리고 그밖의 생활이나 감정을 넓게 리해시》키려면 일본어로라도 글을 써서 내야 한다고 보았다.

단편소설 《물오리섬》은 그런 취지에서 창작발표한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이 《국민문학》에 실리였고 더우기 일본어로 씌여진 치명적인 약점을 시인하면서도 작가의 고충과 긍정적시도에 대하여서는 응당하게 평가해야 하는것이다.

작품은 대동강하류의 섬들에서 사는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처지와 파국적인 재난을 보여주었다.

기본이야기는 벽이섬과 물오리섬에서 지주의 땅과 돈에 얽매여 하루도 마음 편안히 살지 못하던 주인공 미근이 나중에는 홍수에 의하여 안해까지 잃고마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작가는 주인공의 생활을 평양성안에서 살고있는 고리대금업자인 지주와의 갈등속에서 많이 그리였다.

미근네가 소작살이를 하는 벽이섬의 땅은 모두 그 지주의 소유였다. 가물이 들어 농사를 망친 미근은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칠 날자를 미루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지주는 거절하였고 물지 못한 소작료대신 미근이 씨름에서 우승하여 얻은 송아지를 빼앗아갔다. 그후 큰물때문에 또 농사를 망쳐 당장 먹고 살수가 없게 된 미근이 굴욕감을 애써 누르며 다시 지주에게 찾아가 돈을 꾸어줄것을 요구했을 때에 그자는 그냥 빌려주지 않고 원래 무인도였다가 미근이 제 손으로 개척하여 자기의 소유로 만든 물오리섬의 2만 5천평의 땅을 저당잡고서야 빌려주었다. 또한 지주는 벽이섬에서 살던 가난한 집 처녀인 봉구네를 자기네 집의 하녀로 부리다가 후에는 첩으로 만들어 자기의 수욕을 채웠다.

여기에는 어려운 섬사람들의 생활형편에 대하여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호색질에만 눈이 어두워 돌아가는 착취자, 권세가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태도가 구현되여있다. 작가는 이러한 태도와 립장을 송아지를 빼앗기고 《참기 어려운 분노와 슬픔을 누를길 없어 외양간을 마구 짓밟으며 미친듯 날뛰》는 미근의 몸부림에 대한 묘사 그리고 지주의 첩이 된 봉구네에게 하는 그의 다음과 같은 대사에 집중적으로 구현하였다.

《내 소를 빼앗고 게다가 섬사람들로부터 밭과 돈을 몽땅 빼앗더니 이번엔 또 내 섬까지 빼앗으려는것이지. 너희들 년놈이 둘이서 아무리 침을 흘린다 해도 난 결코 섬을 빼앗기진 않겠어. 빼앗기지 않겠단 말이야!》

이와 같은 원한과 울분에 휩싸여있던 미근이였기에 그는 비록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지주가 자기네의것을 다 빼앗았으니 이제는 내가 지주에게서 봉구네를 빼앗을 차례라고 생각하면서 봉구네와 같이 지주

집을 나와 도망을 치는것으로써 항거를 표시하는것이다.

작품에서 미근의 안해인 순이의 죽음이 홍수에 의한것으로 되여있는데 이에 대한 리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다. 순이를 비롯한 섬사람들은 큰물이 나면 농사를 망치고 지어 생명의 위협도 받는다는것을 잘 알고있으면서도 섬을 못 떠나고 소작살이와 물고기잡이같은것을 계속한다. 그것은 섬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댔자 처지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것을 알기때문인것이다. 벽이섬과 물오리섬뿐아니라 부자들이 행세하는 온 나라의 그 어디에 가도 돈 없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수 없었던것이 해방전의 현실이였다. 통치배들이 섬사람들의 농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놓았더라면 페농이 되거나 재산을 잃거나 또는 순이와 같이 홍수에 휘말려 목숨까지 잃는 참사가 빚어지지 않았을것이다.

소설은 일제의 검열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직접 묘사할수 없었으리라는 점을 독자들은 헤아려보아야 할것이다.

이 작품집에는 1940년대 전반기에 집필발표된 수필과 시의 일부도 들어있다.

수필과 시들에도 소설들에서처럼 식민지사회현실의 이모저모와 그에 대한 인민들의 생활감정, 미학적견해 등이 반영되여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수필과 시의 사상적경향은 소설에 비해 떨어지지만 인간생활과 사회현실, 력사와 미래 등에 대한 당시 인민들의 긍정적인 견해와 립장이 일정하게 표현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유산적가치를 가진다.

수필중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우선 당대 사회의 계급적모순관계를 무산대중의 관점에서 보고 대한것이다.

수필 《산고양이와 서서방》(리무영, 《조광》1940. 4.)에서는 산고양이가 자기네 집의 알낳는 닭을 물어간데 대하여 분한 마음을 삭이지 못해하는 서서방의 모습에서 《닭 두마리에 이렇듯 치가 떨려하는 사람들이 1년동안 지어놓은 곡식을 지주한테 눈 뻔히 뜨고 뺏길 때의 그 치떨려할 심정》을 헤아려보고 《내것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일가. 이 소중한 내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 찾으려고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고 생각하는 작가의 견해와 립장을 밝히였다. 이것은 빈부의 차이를 낳는 착취사회의 모순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된다.

수필 《계절의 감촉》(엄홍섭, 《조광》 1941. 11.)에서는 《새벽 5시나 혹은 6시에 출근하여 밤 6시, 7시, 심한 경우에는 자정까지 야업을 하고 돌아오는 류의 생산기관의 근로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여유와 물질적여유가 결핍》되여있기때문에 사계절마다 자연경치를 구경할수 없는 반면에 《호화로운 생활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주 도시교외로 나가 자연경치를 부감하며 문명생활을 누리는것 같지만 실지로는 그들의 《계절에 대한 감촉이란 수박겉핥기식》에 불과하다는것, 《도시의 유한계급》은 고상한 정신을 가지고 《계절을 감촉하는것이 아니라 입으로써 감촉》하는 《식도락》의 향유자, 《향락적인 생활의 소비》자일뿐이라는것을 밝히였다.

보다싶이 작가는 정신문화적재부의 창조자들인 근로하는 인민들을 동정하고 그들이 마련한 재부를 탕진하며 유흥에 들떠 돌아가는 기생충들인 착취계급의 저속한 생활과 몰취미에 혐오감을 표시하였다.

수필들에서는 또한 악을 경계할데 대한 내용(《소문초》 박로갑, 《문장》1940. 12.), 참과 거짓을 분별해볼데 대한 내용 (《까마귀》 권환, 시집 《륜리》 1944.) 등 교훈적인 문제들을 취급하였다.

시작품들에서도 일련의 긍정적인 점들을 찾아볼수 있다.

시 《내가 만일 왕자이라면》(리찬, 《조광》 1940. 4.)에서는 청년들을 왕자와 같은 위엄이 있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그들이 앞날에 대한 포부와 희망에 넘쳐 열정과 투지를 발휘하며 억세게 나아갈것을 호소하였으며 시 《차돌》(윤곤강, 시집 《빙화》 1940. 8.)에서는 모진 압박과 구속을 받을지라도 비관하지 말고 《뜻을 쇠날보다》더 굳세게 세운데 기초하여 살며 분투할데 대한 지향을 노래하였다.

또한 시 《단상》(김동석, 시집 《길》 1943.)에서는 의인화된 방법으로 자유를 구속당한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하였고 시 《눈은 내린다》(김동석, 시집 《길》 1944.)의 경우에는 서울의 거리들을 《죄많은 거리》라고 읊으면서 깨끗하고 정갈한 눈송이들이 내려와 어지러운 모든것을 없애버릴데 대한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밖에 고향과 조국, 벗과 애인 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지조를 노래한 작품들과 민족의 우수한 문화재보를 노래한 작품을 비롯하여

당시 인민들의 진실하고 소박한 감정을 반영한 시들이 더 소개되였다.

1940년대 전반기 작품들은 창작가의 세계관적제한성과 일제의 가혹한 출판물검열제도에 의하여 주제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상에서 적지 않은 결함을 가지고있다.

작품들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현실과 무산계급해방운동정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사회악에 대한 비판과 항거의식을 두드러지게 형상하지 못한 미숙성을 가지고있다. 일부 경우에는 전형화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자연주의적요소를 발로시킨 편향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작품의 우단점들을 옳게 리해하고 주체적인 립장에서 그것을 대하여야 한다.

1940년대 전반기에 창작발표된 진보적경향의 문학예술작품들은 패망을 앞둔 일제의 폭압의 도수가 극도에 이른 엄혹한 시기에 나왔지만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감정, 근로인민의 생활처지에 대한 동정과 불공평한 현실에 대한 불만, 앞날에 대한 기대와 념원 등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진보적인 우리 문학의 명맥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진 정형을 잘 보여주고있다.

학사 심 경 섭

소 설 편

봉 황 산

리 기 영

1

아침해가 솔밭우로 찬란히 떠오른다. 새날의 빛나는 광선은 때마침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숲새로 더욱 령롱하게 반사된다.

《깟깟! 깟깟깟!》

울안에 선 버드나무가지가 흔들리며 별안간 까치 한마리가 지붕마루를 내려다보고 영악스레 운다. 치수는 그밑에서 풋벼바심(타작)을 하고있었다.

《반가운 손님이 올락하나, 무슨 까치가 저리 우짖노!》

화로불에 미음을 데우던 보배는 행주치마로 코를 씻으며 처마밖을 내다본다. 까치는 또 한번 꽁지를 달싹대며 울다가 가지를 옮겨앉는다. 거기는 저으사리(겨우살이)가 새둥지처럼 시퍼렇게 엉켜붙었다.

《반가운 손님이 어디서 와. 내사 그런 손님이 올것 같잖다.》

안해의 목소리를 듣고 치수는 퉁명스레 대답한다. 그는 여전히 도리깨질을 하기에 분주하다.

《혹시 알수도 없지…》

보배는 전에없이 음성이 아름답다. 청명한 가을아침을 맞이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명랑한 기분이 든것 같다. 그러나 보배는 남편의 말을 다시금 새겨보았다. 과연 이 집엔 반가운 손님이라고는 찾아올 아무도 없었다. 하긴 친정에서 누가 있다면 보배에게는 그들이 제일 반가운 손님이 될수 있고 이런 때에 그들이 왔으면 얼마나 반가우랴마는 홀로 있는 친정아버지마저 작고한터이니 다시 또 바랄 사람이 누가 있으랴.

그런가하니 보배는 새삼스레 자기의 신세가 여지없이 고달픈것 같다. 그는 친정만 그런게 아니라 시집 역시 고단하다.

시집도 지금 사는 식구들뿐이였다. 먼 촌일가는 더러 있다지만 그들은 있으나마나하다. 어쩌다 몇해만에 한번씩 다녀가면 고만이다. 하긴 만주가서 산다는 그중 가까왔다는 일가는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시어머니는 벌써 5년째나 속병으로 고통고통한다. 시어머니만 그렇지 않아도 집안꼴이 이 지경은 안되였을것이다. 그 역시 가운이 불길하다면 고만이겠지만—

몇해전만 해도 이 산중으로 이사를 오기 전까지는 농사를 광작하고 소바리나 세웠던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부질없는짓을 한것뿐이였다. 낫지도 않는 약을 쓰다가 빚구렁에만 들었기때문이다. 그랬으면 집을 팔더래도 그 근처로 주저앉던지 하지 않고 무얼 하러 이 산골로 피접을 온다고 들어왔을가. 시아버지는 봉황산이 명산이요 피난처로 유명하다고 그전부터 이사를 못 가서 애를 썼다. 그래 그 좋은 월화감나무가 열그루나 따른 가대(집과 집터전의 총칭)를 뎅경 팔아버리고 강원도 오색이 물보다도 더 좋다는 이 산속을 찾아들어왔다. 그러나 소득이라고는 살림을 더욱 망친것뿐이요, 병주머니는 그대로 처져있다. 글쎄 약으로 못 고친 병을 맹물로 어떻게 고친다는것인가?

그들은 명산을 찾아와서 산전이나 파먹고 좋은 약물을 장복하면 병이 나을것 같았고 그러면 사는 재미도 있으리라싶었지만 세상일이 어디 그렇게 뜻과 같이 되느냐 말이다.

하긴 이곳 물이 나쁘진 않았다. 산골물이 어디는 나쁘랴마는 시어머니도 물을 갈아자신 뒤로는 한동안 우선한듯(병이 좀 나은듯)하였다. 그러더니만 웬걸 몇달뒤에는 도루 전과 마찬가지로 악화할뿐인데야… 그게 무슨 까닭이였는지는 모르나 보배의 생각에는 물대신 밥이 나쁘기때문인가 하였다. 이 산중에서야 큰 절 중들은 모르지만 누가 무슨 형세로 쌀밥을 먹을수 있는가. 시어머니도 음식이나 잘 봉양했으면 그길로 병줄을 놓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성한 사람도 먹기가 어려운 조밥과 메밀당수(메밀가루를 끓여 미음같이 만든것)만 우겨대자니 아무리 물이 좋다기로 중병든 로인이 어떻

게 원기를 차릴수 있으랴? 그는 날이 갈수록 낫기는커녕 병이 점점 더 골수에 박여서 인제는 호정(집뜨락)출입도 못하고 아주 몸담아 드러눕게 되였다.

2

《아이고… 얘야, 응… 아무도 없니? 아이고…》

보배는 그동안 무심히 서서 까치가 올라앉은 버드나무를 쳐다보고 있는데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것 같다. 그것은 다 죽어가는 실낱같은 음성이다.

(와 또— 뭐할락고 불르노… 원쑤놈의 병이 기어쿄 집안을 망치고 말게다! 두고 보랑이…)

보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살을 찌프린다. 그는 인제 고만 병치닥거리엔 몸서리가 쳐진다. 무슨 놈의 병이 그전 단골(무당을 말함.)의 말과 같이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참말 알수 없다. 낫지 못할 병이거든 차라리 얼른 죽기나 하던지, 이건 노상 한대중으로 성한 사람까지 달달 볶아가며 무작정 끌어가는것은 마치 무슨 심사로 부지깽이 하나도 이 집에 안 남기고 죄다 없애는 꼬락서니를 보고야만 죽겠다고 부러 심청을 부리며 버티고있는것 같았다.

《아이고야— 아, 나좀… 이…일으켜다고…아이고…》

목안에서 가래가 가릉가릉 끓는다. 피골이 상련한 얼굴은 두눈이 움푹 패이고 반백이 넘어 세인 머리가 화투바구니처럼 엉켜붙었다. 그것은 대낮에 보아도 산귀신같이 무시무시하다. 오랜 동안을 병객으로 있은 로파는 병끌이 몸에 박혀서 성한 사람과는 아주 다른 어떤 이상한 체취와 분위기를 발산한다. 그는 해소병까지 겸했다.

《와 일어날락고… 가만 누워있지!》

《아이고… 가슴이 갑갑해서… 나 물좀 다고. …》

병인은 두손을 허공으로 저으며 어서 일으켜달라고 시늉을 한다.

보배는 그를 벽으로 기대서 일으켜 앉혔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미음을 한술 떠다 먹이였다. 그는 미음도 잘 못 마신다. 욕지기가 나서 못 먹겠다 한다.

《령감은 장에 갔나?》

《네, 장에 갔대요.》

《아이고… 약을 지어오지 말락허지… 그까짓…약을 먹으면 뭘한다고… 암만 먹어야 낫지도 않는걸… 원쑤의 귀신은, 아! 아! 다 뭘하는지…》

병인은 여기까지 간신히 말을 이어가다가 고만 기침이 나와서 한바탕 콜록콜록 자지러진다. 그러더니만 고만 기진한듯이 자리에 픽 쓰러진다.

보배는 한동안 어쩔줄을 모르고 서서 보기만 하였다. 그가 쓰러지자 이불자락을 덮어줄뿐이였다. 병인은 죽었는지 아무 기척이 없다. 숨쉬는 소리도 안 들린다. 그러나 보배는 별로 놀래지도 무섭지도 않았다. 그는 그런 경험이 많았기때문이다.

일순간 그는 시어머니의 일생이 가엾다 생각해본다. 성한 사람이 고생을 하다가 죽는것도 남들은 다 불쌍하다 않는가. 항차 저런 몹쓸 병을 오래 앓다가 죽으면 여북하랴싶었다.

그러나 그는 일순간 그 생각을 자기에게로 옮겨다본다. 불쌍해보이던 시어머니가 별안간 불구대천의 원쑤처럼 미워진다.

참으로 시어머니만 아니였다면 집안은 살기도 넉넉했고 병구완과 약시중하느라고 이렇게 신역이 고될것도 없지 않는가? 아니, 그보다도 그는 먼저 살던 감나무골을 떠나서 이 산중으로 처량하게 올 까닭도 없었고 청춘의 5～6년간을 아무 경황없이 지내지도 않았을것이다. 그런 생각은 보배로 하여금 별별 생각을 다 들게 한다. 어려서 같이 크던 동무들은 지금 다 잘되였을것 아닌가? 그들은 제가끔 시집을 잘 가서 모두가 잘살것 같았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남모르는 고생을 하며 이 산속에서 처량히도 고목과 같이 썩는것 같았다. 왜 하필 시어미 있는데로 시집을 보냈을가? 그는 오늘날 자기의 신세는 원쑤의 시어머니가 똑 망쳐준것만 같았다. 그런줄 알았으면 왜 진작 양재물이라도 타서 저 산귀신을 몰래 못 먹였던가 하는 악독한 생각이 치받치기도 한다.

그러나 보배는 다시 가슴을 진정하고 랭정히 생각을 돌려보았다. 아까까지는 모든것을 시어머니탓이라 하였지만 과연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자기의 신세가 나아졌을가? 그것은 물론 그랬을것이다. 아니, 그것은… 그럴것 같기도 하였고 또 안 그럴것 같기도 하였다. 왜 그

러냐 하면 시어머니가 병나기 전에도 그의 신세는 별반 나은것 같지 않았기때문이다.

그때도 남편은 1년내 농사를 짓기에 허덕이였다. 자기는 안에서 그 뒤치닥거리로 또 그러했다. 방아찧고 김매고 밥짓고 빨래하고 오줌동이 이기에 도무지 눈코뜰새가 없지 않았던가! 고생되기는 그때나 이때나 일반이였다.

그렇다면 자기의 일생은 누가 망쳤는가? 친정어머니는 일찍 돌아가고 완고한 아버지는 훈장질로 돌아다니다가 금년에 작고했다. 보배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뼈가 아프다. 그도 어려서는 남과 같이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이를 악물었었다. 그랬건만 인생의 기구한 운명은 부지중 그의 찬란하던 젊은 꿈과 희망을 어디로 빼앗아갔나. 그리고 그대신 지금은 지는 꽃과 같은 시들은 청춘에 오직 아귀같은 어린것을 두서넛 매달아서 이 산속에다 훽 내던진 신세가 되지 않았는가? 아, 과연 자기를 이 산중으로 집어내던진자는 누구일가?…

별안간 남편의 기침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어느 틈에 밖으로 나와서 버드나무에 붙은 저으사리를 맥없이 쳐다보고 섰다. 저으사리는 언제 보아도 신기한 생각이 든다. 지금도 그래서 무의식중에 쳐다본 모양 같다. 그것은 비록 미물이라도 자기보다는 훨씬 훌륭한 생활을 한다싶었다.

다른 나무에 붙어서 남의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놈이 도리여 원나무보다도 싱싱하게 사철을 살고있다는것은 얼마나 이상스런 일인가? 그래서 저으사리는 기생초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거니와 보배는 미물인 저으사리만도 못한 신세를 다시금 애달퍼할뿐이였다.

해살이 차차 퍼지면서 좌우의 우중충하던 산그늘이 활짝 걷히우고 맑은 추공(가을하늘)우로 백옥같은 태양이 번뜩인다.

봉황산단풍은 자고로 유명했다. 그러나 교통이 불편하던 옛날에는 근처의 사람들과 시인, 묵객(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간혹 찾아들뿐이였는데 금년에 신작로를 내고 자동차가 개통된 뒤로부터는 명산을 찾아드는 먼데 손들이 도리여 더 많아지는것 같았다.

그래서 해마다 단풍철이 되면 철도국에서는 탐승객을 이곳으로 유

인하려고 머리를 쥐여짜는 모양이였다. 올해도 그들은 ××도내의 각 역마다 오색으로 인쇄한 선전포스타를 내걸었다. 그것은 기생이 활옷을 입고 단풍가지밑에서 춤을 추고있는 광경이였다.

산밑까지는 정기로 두차례씩 래왕하던 자동차가 요새는 네차례를 왕래한다. 그것은 철도국에서 직영하는 뻐스를 림시로 운전한다는것이였다.

따라서 봉황산은 단풍이 들기 전부터 각처에서 모여드는 탐승객으로 복잡하다. 나날이 붉어가는 단풍이 무르녹는 요즈음에는 더욱 그들의 발자취가 시끄러워서 날마다 이때쯤 되면 벌써 구경군들이 산우로 치미는것이였다.

아니나다를가 지금도 산밑에서 자동차소리가 뿡— 하고 난다.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들 쫓아나간다.

(순식이도 거기를 따라갔는가?)

산골아이들은 구경군들이 내버린 사이다병과 우유갑과 통졸임통과 벌레먹은 실과쪽을 마치 무슨 보물처럼 줏는 재미로 몰려간다. 그리고 어떤 날은 기생들이 춤추며 노래부르는 구경을 하기도 한다. 그런 때에는 희떠운 손님들한테서 먹던 과자봉지를 재수좋게 얻어먹을수도 있어 처음에는 지청구를 하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버려둔다. 그것은 다른 아이들이 모두 그렇대서뿐아니라 그런 자존심을 꺾인지도 이미 오래전이기때문이다.

그의 집은 바로 봉황산 큰 절밑에 있다. 좌우로 계곡을 끼고 앉은 개울바닥엽이였다. 물소리가 사철 귀에 떠나지 않는다. 먹을건 없어도 경치만은 훌륭한 곳이다.

먼저 온 구경군들의 한패가 절우로 올라온다. 고요하던 산중이 별안간 떠들썩해진다. 앞뒤로 둘러싼 푸른 솔과 잣나무, 전나무가 쭉쭉 뻗어올라간 산허리, 그사이로 동학(산과 내가 있어 경치 좋은 곳)을 이룬 골짜기마다 무성한 수림이 마치 술취한 군중처럼 서로 얼크러지고 비틀어지고 한 거기에 또한 빨건칠, 노란칠을 해서 일면으로 시뻘겋게 빛나는 색갈의 아릿다움은 참으로 무어라 형용할른지…

다시 그우로 톱이같은 련봉이 하늘을 치받는가 하면 땅밑으로는 한줄기 벽계수가 굽이굽이 폭포를 매달고 옥을 부시며 떨어진다. 이때

의 만산홍엽과 맑은 공기와 빛나는 하늘빛과 산중의 청허한 정적과 거기에 다시 그윽한 물소리와 문득 이름모를 새소리의 반주는 음향과 색채가 한데 어울린 위대한 음악이요, 미술이요 또한 장엄한 자연계에 누구나 머리를 숙이게 하는 무엇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산을 명승지라 한다.

그러나 보배는 이런 경치를 무시로 보아야 아무런 감상이 나지 않는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들과는 감정의 세계를 달리한 딴나라 사람같이 보이는것이였다. 그의 이와 같이 무딘 감정은 도리여 구경군들을 미친 사람으로 보았다. 요새 과연 그들은 단풍에 미친것 같았다.

하긴 그도 여기 와서 단풍의 장관을 처음 볼 때는 남과 같이 좋은가부다 하였다. 그러나 어느틈엔지 그런 생각은 없어져버렸다. 마치 그에게서 청춘과 행복을 빼앗아간 때처럼… 인제는 그런것과는 아주 상관없는것으로밖에 더 안되였다. 그는 단풍을 구경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옷 한가지를 더 해입지 않나싶었고 그만큼 저게 무슨 지랄들인가싶었다. 그는 모든것이 시들해보였다.

그동안 치수는 벙어리처럼 서서 도리깨질만 부지런히 하고있다. 댓마지기 논에서 모처럼 지은것이라 워낙 마냥모(늦게 심는 모)를 심었지만 다 타버린게 아주 모지락스럽게 되여먹었다. 난쟁이키같은 홰기(이삭이 달린 줄기)에 벼알이 간혹 두세개씩 붙었을가. … 그래도 그것이 일년내 지은 농사라고 베여들이긴 했다. 개상(타작하는데 쓰는 농기구)질을 하기도 난처해서 펴놓고 검부레기채 두드리는것이였다. 지주는 봉황사 중이였다. 소작료는 간신히 반감을 시켰다. 그러나 논농사를 시작한다고 올해 공연한 생빚을 진것이 리자를 합치면 20원이 된다. 그 돈을 갚을 일이 난감하다. 치수는 지금도 그 생각에 가슴이 뻐근하다. 그는 논농사를 지으면 좀 나을줄 알았는데 올같은 해에는 공연한 헛수고를 한것뿐이였다.

점심전에 한참을 쉬면서 담배 한대를 피우자니까 누가 문앞에 와 어른거리며 찾는다.

《주인 집에 있소?》

《누구요?》

치수가 나가보니 뜻밖에 그는 걱정하던 빚쟁이였다. 올봄에 돈

15원을 얻어쓴 읍내 강주사집 차인(장사일을 시중드는 사람)으로 있는 김선달이였다.

《아! 령감님 나오십니까? 좀 들어오시지요.》

치수는 떫은 표정을 짓다가 어찌할수 없이 그를 마당안으로 인도한다.

《부친은 어디 출타하셨소?》

《저, 약지으러 장에 갔습니다.》

《와? 누가 병났는데?》

《네, 저의 오마니가 벌써부터 속병을 앓으십니다. 좀 들어앉아야 할건데 방이 더러워서 원…》

치수는 민망한 모양으로 둘러보다가 《참, 여기라두 좀 앉으시오.》 하고 짚토매(짚단)를 갖다놓는다.

《아니, 괜찮소. … 그런데 오늘 일부러 나온건 당신도 알겠지만 그 차금쪼간을 기한안에 해야겠소. 어련히 온량하겠소만 그래도 미리 통지를 해두는것이 좋겠고… 또 나중에 딴말이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예 참, 그런줄은 잘 압니다. 아버지도 매우 걱정을 하시면서 오늘 장에 리자라도 만들어가지고 한번 찾아가보겠다고 합디다. …》 하고 치수는 불안한듯이 머리를 긁는다.

《리자라니? 그건 안될 말이고… 본전을 다 받아야겠소.》

《그렇지만 이 나락된것 좀 보소. … 이통에다가 집에 액화까지 들었으니 시방은 아무 경황이 없습니다. 한즉 래년 가을로 좀 연기를 해주시오.》

치수는 부친대신으로 이렇게 사정을 해보았다.

《그건 당초 안될 말이라카니 그래! 그까짓 돈 15원을 래년까지 누가 미루겠소.》

김선달은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그렇지만 사정이 딱하지 않소? 더구나 올같은 해에…》

《그거야 당신 집 사정이지. 우리야 알배있소?》

치수는 허망한 웃음을 지어본다.

《그럼 어찌겠소? 없는 돈을 난중에 변통할수 있어야지요. 소작료도 못 치르겠는데요.》

《글쎄 그런 말은 소용없다니께. 인제 와서 무슨 소리요? 만약에 기한안에 아니물면 지불명령을 해서 재산차압을 할것이니 당신 부친한테 그렇게 말하소. 더 길게 말할것없이…》

《앙이 무엇, 차압을? 하…》

《뭣이 무어야? 뻔한 일이 아닌가! 당신이 줄수 없으면 보증인한테 받아도 될것이니까… 당신 집에서 물든지 보증인이 물든지 기한안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안되오. 자— 그럼 난 가겠소.》

김선달은 이 말을 던지고 휙 나갔다. 치수는 그 당장 사지가 얼어붙은 사람처럼 장승같이 한동안을 우두커니 섰을뿐이였다.

3

빚쟁이가 개울을 건너가는것을 보던 보배는 남편앞으로 한걸음 선뜻 다가들었다.

그러나 그도 말문이 꽉 막혔다.

보배는 그들의 수작을 부엌문안에 숨어서 낱낱이 듣고있었다.

차압! 차압을 한단 말을 들었을 때는 사지가 금방 벌벌 떨리였다. 차압! 그것은 호랑이보다도 얼마나 더 무서운 괴물인가? 그는 자기의 친정에서나 시집을 와서도 그 괴물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솥단지를 떼우고 풍지박산하는 이웃사람들을 무수히 보아왔다. 그때는 그래도 남의 일이라 가엾단 말이나 할뿐이였더니 아, 이 무서운 괴물이 자기 집 대문안까지 들어올줄은 뜻밖이였다.

그는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와 같이 두눈이 뒤집히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여보, 어찌겠소?》

《뭘 어찌여— 제길헐, 당하면 당했지 별수 있나!》

치수는 그 안해와는 반대로 아주 무표정한 거동을 보인다.

《옹?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오? 아이고, 이 산골에 들어와서 인제는 집까지 뺏기는가부다. … 장차 이 치운 겨울에 어디로 빌어먹어 나갈락고…》

보배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또 한번 한숨을 내쉰다. 치수는 아무말없이 담배만 뻐금뻐금 피운다.

《에이 빌어먹을것, 듣기 싫어. 청승맞구먼. …》
《방정맞은 놈의 까치! 난 누가 반가운 손님이나 온닥고…》
보배는 애꿎은 까치한테 분풀이를 하려든다.
《그러니 내가 뭐락하데! 우리 집에 빚쟁이밖에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다고…》
치수는 자기의 말이 맞은것이 신통해서 안해에게 오금을 박다가 제풀에 그도 웃음이 나와 징그럽게 웃었다.
《당신은 뭣이 좋아서 웃음을 다 웃는기오?》
《그럼 웃음도 내 맘대로 못 웃는가, 체!》
치수는 담배대를 빼여들며 가래침을 탁 뱉는다. 집어내던진 마음—되는대로 되거라, 새삼스레 겁날것도 없다싶다.
《사람은 와 밥만 먹고 산다고 이 야단인지 몰라…》
누구나 흔히 너무 벅찬 힘에 눌릴 때 그것을 항거하지 못하면 애상적으로 흐르기 쉽다.
보배도 지금 갑자기 뭉클하여지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시름없이 버드나무고목을 쳐다보다가 혼자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린다.
《흥! 밥 안 묵고 사는건 귀신이나 있지. …》
치수도 공연히 심사가 뒤틀려서 엇서는 말이 나간다.
《그럼 저으사리는 저렇게 가만히 붙어서도 잘 처먹고 살지를 않나.》
《그놈은 남의 몸에 덧붙어서 사는 놈이니까 말할것도 없지…》
치수는 또 한번 가래침을 탁 뱉었다.
《덧붙어서라도 고생않고 잘살기만 한다면 좋겠드라.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은 저으사리만도 못하지 뭐!》
《넌 그럼 이담에 죽결랑 부처님한테 저으사리나 되게 해달락하라문!》
《누가 이담 말인가, 지금 말이지!》
보배는 남편에게 눈을 흘긴다.
《그대신 지금은 일을 많이 하지 않나. 이 세상에서 일 많이 한 사람은 죽어서 천당가고 극락간다드라.》
《아이고! 어느 시러베친구가 그럽디까?》

보배는 남편의 말이 같잖아서 웃음이 나오고말았다.
《누가 그래여, 다 그러지. 그럼 일하는게 나쁘다는 사람은 누가 있등가? 이 세상에 일해서 나쁘다카는 사람이 하나나 있능가보지!》
보배는 남편이 들이대는 말에는 대답이 막힌다. 그러나 그 말은 옳은듯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수긍되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럼 와 판판 놀고서도 잘사는 사람이 있고 일하기보담도 놀기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응기요?》
《흥, 그건 저으사리같은 사람들이라!》
치수는 무심히 이런 말이 제절로 튀여나왔다. 그것은 자기도 무슨 의사로 한 말인지 모른다. 그래 그도 버드나무우를 쳐다본다.
그러나 보배는 남편의 지금 말이 머리속을 번개같이 환히 비치며 지나갔다.
저으사리는 아무 나무나 높다란 가지에 붙는다. 그리고 그것은 흠집있는 가지만 골라붙는다. 그놈은 그런 가지의 흠집에다 제씨를 붙여서 키운다. 그래 그놈은 원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살아간다.
따라서 그놈은 뿌리가 없다. 뿌리가 있어야 소용없다. 왜 그러냐 하면 남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얻어먹고 붙어살기때문에—그래서 이놈을 꺾어보면 대밑둥이 원나무가지에 붙었다가 그대로 살찍이 묻어나서 떨어진다. 그것은 마치 원나무가지를 꺾는것과 같이 붙어있던 자리에 흠집을 나게 한다. 한데 이놈이 사철 살아서 지금같이 락엽이 지는 가을에도 시퍼런 잎사귀와 노랑구슬같은 열매를 맺고있다.
보배는 이런 생각을 하자 이 세상에서 놀고도 잘사는 사람들은 저으사리와 같지 않는가 하는 신기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럼 또 일하는 사람은 뭣같을고?》
보배는 남편의 엉뚱한 말에 잠간 현실의 자기를 잊고 동화의 나라같은 꿈속을 더듬는다.
《당신같이 일하는 사람은 돼지! 하하…》
《뭣이라고?》
보배는 주먹을 둘러멘다.

《안 그런가보지, 돼지는 밤낮 코로 땅을 쑤시며 먹을것만 찾지안해? 그러니 돼지 아니고 뭐이가?》

보배는 무슨 말을 할려다가 생각이 잘 안 나와 그만두었다. 그리고 남편이 마치 술먹은 사람처럼 롱담하듯 하는통에 상대하기가 싫어졌다. 그러나 그의 한가지 의심은 저으사리도, 돼지도 아닌 사람이 따로 있을가? 함이였다. 하긴 그런 사람이 있어야 정말 옳은 사람일것 같기도 하였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남편의 점심을 차리려 조밥덩이— 조, 보리, 팥이 절반씩 섞인 삼위일체를 솥안에 넣고 푹푹 삶았다.

4

그후 며칠뒤 치수의 부친 서로인은 차금에 대한 변리를 간신히 변통해가지고 읍내로 들어갔다. 그길로 강주사를 만나보고 사정을 해보았으되 그는 예상했던바와 같이 두말도 못하게 거절하였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안해의 병은 점점 덧쳐만 간다. 암만해도 이 겨울을 못 넘길것 같다.

보배는 귀찮은 생각만 나서 그전에는 시어머니가 어서 죽기를 남몰래 축수하였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딱한 형편에는 그가 죽을가봐서 겁도 났다. 죽으면 더 큰일이다.

빚을 물리고 먹을것은 없는데 초상마저 나면 장례를 어떻게 치러내느냐. 이왕 병줄을 오래 끌었으니 래년 가을에 농사나 잘 짓거든 로파가 죽었으면 하였다. 아닌게아니라 제발 그래줍시사고 그는 심중으로 무수히 빌었다.

그래 그는 남편과 완고한 시아버지를 우겨서 큰 절로 불공을 가보았다. 그것은 주지되는 중의 말이 이 절밑으로 들어와서 부처님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불공 한번 안 올리니 무슨 병이 나을수 있느냐고 하기때문이다. 미상불 그 말에 찔리기도 하였다. 인제는 약쓸 돈도 없으니 정성이나 드려보자는 최후로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하였다.

보배의 리기적인 그런 정성에는 부처님이 감동할리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난치의 병근이 박인것을 불공한다고 나을턱이 없

었다.

그러니 한편으로 빚갚을 걱정할라, 병인을 간호할라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 또 입에 풀칠할것까지 다급하니 이야말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겠다. 보배는 저녁마다 이 밤이 영구히 새지 말았으면 하였다. 그것은 날이 밝으면 조석을 끓일 걱정이 크기때문이다.

그렁저렁하는 동안에 빚갚을 기한은 닥쳐왔다.

보증을 선 이웃집 박서방은 안팎으로 드나들며 애를 바글바글 태운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수로 20여원을 장만하는가? 그들은 지주에게 소작료를 래년으로 미루어달라고 간청해보았다.

지주편에서는 사정은 딱하지만 절반이나 감한것을 금년에 못 받으면 되느냐 한다. 그러니 거기도 할말없고 다른 수는 도무지 없다.

그렇다고 보증인에게 물릴수도 없었다. 보증을 선 박서방도 물론 가난하지만 설사 넉넉한 형편이 되더라도 남의 빚을 물어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것도 본인이 정히 갚을수가 없다면 채권자에게 눌려서라도 대신 무리꾸럭(남의 빚이나 손해를 대신 물어주는 일)을 하겠지만 명색이 집안이라도 지닌터에 그럴수도 없는 일 아닌가. 그래서 치수는 부친과 의논하고 집을 잡히든지 팔아서 빚을 청산하자 하였다. 집을 판다는 말에 누구보다도 먼저 보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날은 차차 추워가는데 집을 팔면 어떻게 살라고… 여러 식구가 어디서 잔단 말이요? 내사 모르겠소. …》

보배는 토라져서 남편에게 역정을 내며 대들었다.

《아니 또 집을 잡힌다면 그 돈 변리는 누가 갚겠소. 공연히 헐값으로 잡혔다가 리자도 못 물고보면 집만 날아갈것이니 내 말은 차라리 돈이나 더 받고 팔아버리자는게요. 사정이 안 그런가?》

부친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두편 말이 다 옳았다. 그러니 어느 편을 들어야 할른지 모르겠다. 그래 그는 검다쓰다 말이 없이 오직 담배만 피우고 앉았다. 생계에 아무 능력이 없는 로인은 젊은이들의 의사에 맡길수밖에 없다는듯이…

《그렇지만 당장 은신할데도 없으니 답답하지 않소?》

보배는 최후까지 우겨본다.

《그건 어떻게 변통할수도 있겠지.》

《무슨 변통을 한단 말이요? 백주에 집도 없이…》

《무슨 집이 없다노? 내 말 들어보라니… 집은 팔려면 당장 팔되 집 내놓는걸 래년 봄까지 미루자고 하잔 말이요. 그런다면 래년까지 있다가 이 집을 내놓게 되거들랑 그때 가선 또 어떻게 하던지 림시 변통을 할수 없겠는지… 혹시 만일에 그때 가서도 별도리가 없다면 뒤집 곁방을 얻어들더라도… 또 박서방한테라도 방 한칸 빌려달락하면 안 빌려줄가? 세개나 방을 쓰면서…》

《그야 그렇지만…》

이리하여 그들은 집을 아주 팔기로 결정하였다. 치수의 말대로 집을 아주 판다면 빚을 갚고도 몇십원 떨어진다. 그러면 그 돈으로 무슨 대책을 세우자는것이였다.

남편의 이런 심중을 모르는 보배는 초조한 가슴을 쥐여뜯고싶었다. 그는 절박한 사정으로는 집을 부득불 팔아야겠고 그래서 자기도 동의를 하였지만 막상 최후를 그렇게 작정하고보니 오열이 북받친다. 인제는 집도 없는 신세가 되였는가? 아니, 그보다도 이 집을 쫓겨나면 여러 식구들이 당장 어디다 의지를 한단 말이냐! 명산을 찾아왔다 집도 없이 되였구나!

그래 그날 밤에 보배는 아이들을 재우고나서 남편의 의사를 또 한번 물어보지 않을수 없었다. 죽든지살든지 량단간 무슨 결판을 내야할 최후의 막다른 골목이 닥쳐왔다.

《집을 팔고나면 그래 어찌겠소? 그까짓 돈 얼마 더 받는다 한대도 입에 묻은 밥티를 며칠꺼정 가겠는가요? 그럼 그뒤는 어찌한단 말이요? 병든 어무이와 어린 새끼들하고… 식구나 한둘이래야 얻어나 먹는다 하지…》

《그러기에 나도 생각한바가 있거등. 집을 팔고나면 그 일을 당신과 의논하작고 마음을 묵고있는터야!》

치수는 전에없이 침착히 말을 꺼낸다.

《아니, 어떻게 할 작정으로? 지금 조용하니 좀 이야기해보소!》

보배는 남편의 턱밑으로 바싹 다가들었다. 참으로 그는 무슨 수가 있는가?

치수는 한참 침울한 표정으로 희미한 등잔불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슨 결심을 간단히 한 모양이다. 이윽고 《나는 로자를 장만해가지고 집을 떠나겠소!》 한다.

《아니, 뭐? 집을 떠나다니, 어디로요?》

보배는 남편의 의외의 말에 더욱 놀래지 않을수 없었다.

《아무데나 돈을 좀 벌러 가보지. 만약에 조선안에서 돈을 못 벌게 되면 만주라도 가볼밖에…》

《뭐, 만주?》

남편은 점점 더 놀라운 말만 하지 않는가.

《와— 만주는 못 가 사능가? 만주가면 쌀밥 묵는다더라!》

《만주는 좁쌀곳이라는데…》

《조선사람이 들어가서는 쌀농사를 짓는다 해.》

쌀밥! 지금의 보배로서는 이 얼마나 행복스런 소리냐? 아이들은 벌써 언제부터 쌀밥을 먹는것이 소원이였다.

치수는 느럭느럭 다시 말을 잇는다.

《전엔 만주라 하면 나도 조선안에서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 갈락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더라. 그러니 오늘날 이 지경에 어디 간들 못살겠소. 아무데나 살수만 있으면 뿌리박고 살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을것없는 이 산속에서 경치만 좋으면 뭘하겠소. 그러니 아버님이 이리로 들어오자고 할 때도 나는 애초부터 반대했거던. 그것은 당신도 그때 그랬지만 짐승은 산중으로 가고 사람은 대처로 가락했는데 항차 지금같은 개화세상에서 산중으로 들어가면 무슨 수가 있겠소 했지만 이곳은 물이 하도 좋다기에 나는 어무이병환이나 낫기를 바라고 그 하나때문에 앙그랬던가. 인젠 그 소망도 없이, 집도 없이 되였지만…

그러니 나는 벌이를 나갈수밖에 없는데, 내야 튼튼한 몸이 어디 간들 설마 내 한몸 감당 못하겠소마는 집에 있는 당신을 생각하면 떠나잔 맘도 잘 내키지 않소. 그러나 어찌겠소. 고스란히 앉아서 굶어죽길 기다리는것보담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야 하잖겠소? 그러니 내가 나가서 몇달이 되든지간에 당신을랑 그동안 고생을 참아가며 내 소식을 기다려주소! 여러 식구를 당신 몸에 떠맡기고 가는것 같아서 안되였지만 설마 한달에 다만 몇원씩이야 못 보

내겠소. 한달에 5원씩만 보내준다 해도 그냥더냥 목숨은 부지할게니까… 만약 그것도 여의하게 안된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만주로 들어가보겠소. 그전부터 살수 없걸랑 들어와 농사를 지어보라던 일가사람이 북만주에 사는줄 아니께. 나는 그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찾아가겠소.》

어느덧 남편도 눈물이 글썽해서 말을 그치며 한숨을 내쉰다.

보배는 가슴이 짝 걸린다. 그것은 남편의 말이 마디마디 페부에 찔리기때문이였다.

그렇다! 만일 남편이 그런 결심을 갖는다면 나도 어떠한 고생이든지 참고 기다리마. 나도 몸이 성하니 무슨 장사인들 못할게 무엇이냐! 인제는 체면이니 량반을 찾을 시절도 아니다. 그렇다! 무슨 장사라도 해보자. 남들이라고 다 사는데 왜 우리만 못살것인가. 땅이 두쪽이 나더라도 끝까지 살아보자!

《당신이 정말로 그런다면 나도 집에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기다리겠어요. 감장사를 하든지, 도토리묵장사를 하든지… 그래서 어디든지 살수만 있다면 쫓아가겠어요. 만주를 말고 세상끝이라도!》

보배는 남편의 말에 뒤를 이어서 이렇게 감격한 말로 부르짖었다. 그러고나니 그들은 전에없이 새 용기가 난다.

그들은 마치 생활의 새 출발을 시작하는 희망과 기쁨과 용기가 자신도 모르게 용솟음치는것이였다. 그래 그들은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콜롬부스와 같이 남모르는 희망을 품고 명일의 새생활을 동경하고있었다.

5

며칠뒤에 치수는 예정대로 집을 팔았다.

그는 시세보다 약간 헐값을 받았다. 그것은 첫째 속히 팔게 된 원인도 있었지만 몇원쯤 더 받을수 있었으나 그만두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은 집을 속히 내놓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하지만 80원이나 받았으니 큰 돈이다. 그래 치수는 우선 빚진 돈과 산밀 가게의 외상값을 모조리 갚아버렸다. 장래일은 어찌 되든지 그

들은 무거운 짐을 벗고나니 시원하였다. 그랬어도 50여원이 남아있다. 그런데 마치 돈 생긴 싹수를 잘 보았다는듯이 돈쓸 구멍이 뜻밖에 생기였다. 치수는 옷을 해입고 며칠뒤에 집을 떠나기로 하였는데 모친의 병세가 갑자기 더해진다. 서두는품이 암만해도 이번에는 무슨 일을 당할것만 같다.

그래 치수는 하루이틀 미루어가며 동정을 살피고있는데 하루밤을 밤새도록 기침을 되게 하더니만 그뒤로는 아주 인사불성이 되였다. 그들은 망지소조(어찌할바를 모름)했다. 최후로 약을 또 써보았다. 그러나 다섯첩 약을 다 써보기 전에 모친은 마침내 한많은 한생을 마치고말았다.

뜻밖에 상사를 당한 그들은 며칠동안 또 정신을 못 차리게 되였다. 서로인은 간단하게 상포(초상때 쓰는 포목)를 준비해서 안해를 이튿날 불식으로 화장을 지내였다. 그바람에 돈 몇십원이 쑥 들어갔다.

초상을 치른 집은 쓸쓸하였다. 살았을 때는 죽기를 바라던 시어머니라도 인제 턱 죽고나니 불쌍하고 잘못 모신것이 후회된다. 그러나 보배는 은근히 시어머니가 제집에서 돌아간것이 감사하였다. 참으로 래년 봄에 아들도 없고 집도 없이 쫓겨난 뒤에 큰일을 당한다면 어찌할번 했나? 죽은 령혼인들 그러면 얼마나 서러울것이며 산 식구인들 또 얼마나 참혹한 정상이랴!

보배는 남편의 바지저고리 한벌을 새로 몰래 꾸몄다. 치수는 장사를 치르고 남은 돈에서 로자로 쓸 5원만 떼놓고 몽땅 안해에게 맡겼던것이다.

헌옷은 한두벌 있지마는 타관으로 나가서 더구나 로동판을 쫓아다닐것을 생각하니 아무래도 든든한 새옷이 필요할것 같다. 그것도 돈이나 넉넉하다면 당장 사입을수도 있겠지만 겨울철에 더군다나 무슨 벌이가 있다고 옷 사입을 여유가 있으랴! 밥은 한때 굶더라도 옷주제는 성해야만 우선 남보기에도 궁상맞지 않을것이다. 그래 그는 축낸 돈은 자기가 물어놓을셈치고 남편 몰래 무명 한필을 끊어다가 바지저고리 한벌을 새로 지었다. 하긴 상중이 아니라면 아래우를 검정물을 들이려 했던것을 할수없이 흰옷으로 그냥 지었다.

이럭저럭 모든 준비가 다 되였다. 치수는 집상(부모상사에 례절을 지킴)을 할 형편도 못될바에야 하루바삐 떠나고만싶었다.

남편이 떠난다는 날자가 림박해질수록 보배의 마음도 그에 따라 썰렁해간다.

헤여질 일을 생각하면 그이를 붙들고싶다. 그러나 집안형편을 생각하면 어서 보내고싶다. 그는 이렇게 무시로 두가지 마음에 사로잡혔다.

치수가 떠나던 전날 밤 보배는 눈 한번을 안 붙이고 곱다랗게 새웠다. 그것은 그의 남편인 치수도 그러했다. 그들은 서로 헤여진 뒤의 앞일을 생각하니 아득한 장래가 안개가 낀것 같다. 어쩌면 피차간 무슨 수가 생겨서 불과 몇달안에 서로 만날것도 같고 어쩌면 또 그와 반대로 이 길이 아주 영구히 갈리는 최후가 아닌가도싶었다.

《편지나 자주 하고 몸조심하소.》

보배는 오늘 하루동안에도 열번을 더 이 소리를 하였으리라.

《그래, 내 걱정은 말고 당신이나 아버님 모시고 아이들과 잘 지내소.》

남편도 그와 마주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어느덧 이밤도 밝아오나부다. 큰 절에서는 새벽 례불을 드리는 종소리가 뎅뎅 울려온다. 보배는 어린것을 남편의 자리우로 밀어눕히고 가만히 일어나서 치마를 입었다. 그는 먼길을 떠나는 남편에게 새벽밥을 지어주어야 한다. 남편은 여기서 100리를 걸어서 ○○정거장을 당일에 대여야 한다는것이다.

그는 오래간만에 쌀밥을 지어본다. 아침거리를 떠가지고 부엌으로 나갔다. 바깥은 아직도 캄캄하다. 새벽공기는 쌀쌀하게 품안으로 스며든다. 그는 잠을 안 잤어도 조금도 졸리지가 않다. 정신은 오히려 또릿또릿해진다. 그리고 알지 못할 가냘픈 피로와 흥분이 그의 전신을 휩싸고 흐른다.

그들은 해가 돋기 전에 아침을 다같이 먹었다. 아이들도 깨워서 떠나가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인사도 시킬겸 밥상앞에 주런이 앉혔다. 일곱살먹은 순식이, 네살먹은 태식이, 그들은 졸려서 눈을 부비고 하품을 한다.

그는 어제 받아온 술을 부친에게 올렸다. 무언중에 그들은 비극적

작별을 이렇게 하고있었다.

치수는 아침을 먹고나자 옷보따리를 둘러메고 나섰다. 아직도 해는 뜰려면 멀었다.

그는 부친에게 하직절을 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씩 하나씩 따로 쓰다듬으며 《할배랑 음매말 잘 듣고 잘 있으라이!》하였다.

그가 문밖으로 나서자 식구들은 죄다 따라나왔다.

《아배! 갔다오이소이…》

보배는 자기 대신으로 아들에게 인사를 시켰다.

《응! 그래!》

보배는 남편이 개울을 건너가서 그림자가 다 사라지도록 삽짝문에 우두커니 붙어서있다.

《아!…》

그는 가냘픈 한숨을 또 쉬였다.

그리하여 치수는 이날도 저으사리같은 구경군들이 봉황산으로 단풍놀이를 하러 들어오는 자동차에 길을 비키면서 보짐을 짊어지고 먼길을 떠났다. 집에는 어린애들과 젊은 안해와 늙은 부친을 두고 그리고 지금은 령혼이 되여서 어디로 떠나가있는지 모르는 모친의 림종하던 광경을 눈앞에 그려보면서…

그러나 그들은, 떠나보낸 안해나 떠나가는 남편이나 절망하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생활의 새 출발을 위하여 전에 느끼지 못하던 명일의 희망에 불타고있었다.

이날도 일기는 명랑하였다.

《인문평론》 1940. 3.

피의 교재

김 창 걸

나는 오랜만에 옛동창 P를 만나 《피의 교재》에 대한 눈물나는 비장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바람 세찬 동지달 그믐께 다른 한동무와 함께 껌벅거리는 석유등잔불밑에서 말입니다.

본디 감성적인 나는 눈물없이 들을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속한 나의 느낌을 적는다면 오히려 그 주인공들의 형상을 손상시킬가봐 P가 말한 그대로 적었습니다. 물론 어디에 발표하려는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발표되기는새려 《필화》(글쓴것이 문제시되여 받는 화)로 되고말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입니다. 그저 글쓰는것이 버릇처럼 되여 쓰지 않고는 못 견디겠기에 쓸뿐입니다. 일후 먼 후일에 나의 후대나 보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김한규동무에 대해서지요! 그때 D중학에 다닌 사람치고 김한규라고 하면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 잘차고 연설 잘하고 강판글씨 잘 쓰고 우스개말 잘하고 그리고 대담하고 강직한 그 동무를 말입니다.

어쩐지 그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눈물부터 앞섭니다그려! 참말 아까운 동무였지요.

193×년 겨울, 설을 며칠 앞두고 생긴 일입니다. 당시 혁명의 불길은 연변일대를 휩쓸고있었지요. 왕청현 ×××지방도 혁명투쟁이 매우 치렬했습니다. 유격구는 아니였지만 혁명세력이 절대 압도적이였지요. 우리 무장대도 자주 다녔지만 지방에 있는 동무들이 4.6제 투쟁, 3.7제투쟁, 주구청산, 군중선전, 삐라살포 등 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야말로 혁명이 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위단 10여명이 혁명자를 붙잡으려고 왔댔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끄나불들이 고자바치기도 했겠지만 그렇게도 운동이 치렬한 곳을 모를리 있었겠습니까? 그 무지막지한 인간백정들은 그저 미쳐날뛰였지요.

놈들은 온 동네를 휘딱 번졌댔지요. 짖어대는 개를 총탁으로 후려갈기면서 《공산당을 잡는다》고 떽떽거렸지요. 그러나 《저 사람이 공산당입니다.》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공산당이다》고 나설 사람은 더욱 없었지요.

놈들은 등이 달아났습니다. 《이 집에 공산당이 있지?》라고 하며 제 에미벌 되는 할머니들을 총탁으로 갈기기도 하고 《이놈, 공산당을 못 봤어?》하고 코빠는 어린애들을 발길로 차기도 하면서 미쳐날뛰였지만 결국 헛물만 켜고말았습니다.

그때 김한규동무는 다른 한동무와 함께 주요한 선전사업을 하고있었습니다. 즉 삐라나 선전문을 써서 등사판에 박아내는 일을 하였댔습니다.

아무리 혁명세력이 강하다고 하지만 백색구역이 아닙니까? 어디 버젓이 내여놓고 할수야 있습니까? 그래서 커다란 짚낟가리밑에 굴을 파고 그속에서 비밀리에 일하고있었지요. 그렇지요. 보통 백성이야 알리가 없었지요. 근거지같으면 드러내놓고 하겠지만 백색구야 어디 그렇습니까?

그날도 김한규동무네는 등사판과 중요한 문건을 가진채로 굴속에 숨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위단놈들은 온 동네를 개싸다니듯 뒤지다가 나중에는 그 짚낟가리에 불을 질렀지요.

옳습니다. 거기에 무슨 조화가 붙은것이지요. 그 숱한 짚낟가리가운데서 하필 보이지도 않는 토굴우의 그 짚낟가리에 불을 지를것이야 무엇입니까? 《개》들이 고자바친것이 분명했지요.

놈들은 불을 지르고는 짚낟가리두리에 둘러서서 지키였습니다. 불이야 사정이 없지요. 그저 시커먼 연기를 풍기며 타들어가기만 했습니다그려! 김동무네는 그속에서 타죽을판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김동무네는 어째야 합니까? 길은 두길뿐이였지요. 고스란히 거기서 재더미로 되든지 아니면 내뛰든지 말입니다. 물론 혁명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인 이상 그 자리에서 타죽는것을 겁낼리야 없었지요. 그렇지만 내뛰는데는 물론 총에 맞아 죽거나 붙잡혀서 죽을 경우가 많겠지만 요행으로 어쩌다 살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찌를듯이 훨훨 솟아오르는 불길, 서북풍에 몰아치는 검은연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여드는 최후의 운명… 놈들은 몹시 긴장해지키기는 하지만 꼴기없이 입을 헤 벌리고 서있습니다그려! 소용돌이치듯 하는 연기가 낮판대기를 휩싸면 놈들은 눈을 문지르고 눈물을 씻으면서 몇걸음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이런 찰나에 짚가리 남쪽켠에서 시커먼 연기와 빨건 불길이 풀썩 튀여나왔습니다. 김동무네 두사람이 벼락같이 내뛴것입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판이였지요. 곁에 있던 동네 사람들중에 누군들 놀라지 않을수 있었겠습니까? 누군들 손에 진땀을 쥐지 않을수 있었겠습니까? 가슴에서 너럭바위가 쿵 하고 떨어지는듯 하였을것입니다. 무사히 도망치기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퍼뜩 놀란 놈들은 그제야 구접스럽게 메였던 총을 내리웠습니다. 김동무네는 물론 연기가 쫙 덮인 방향으로 내뛰였지요. 쏜살같이 말입니다.

탕, 탕 하고 총소리가 났습니다. 놈들은 김동무네가 내달린 쪽으로 몰켜갔습니다. 결국 붙잡히고말았지요. 뭐, 총앞에 달음이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놈들은 소 탄 개처럼 우쭐렁대면서 어깨를 들썩거렸습니다. 공산당 두목을 잡았다는것이였습니다. 놈들은 우선 김동무네를 한바탕 조겨대였습니다.

그저 무지막지하게 말입니다. 그렇구말구요. 선자리에서 반주검은 되도록 말입니다. 눈이고 코이고 어디 사정을 둡니까. 어디를 어떻게 때리면 생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말하자면 고문학을 알기나 합니까? 그저 때리면 장대인줄만 아는 놈들이지요.

김한규동무와 함께 붙잡혀 생주검이 된 동무는 본디 왕청사람인 정동무였지요. 김동무보다 뉘살 아래인 순박한 농민동무랍니다. 김동무처럼 강직한 동무였는데 벽이라도 툭툭 찌르고 나갈 성격이였지요.

암, 그렇지요. 물론 취조랍시구 마구 들이대였지요. 《공산당이 어디 있나?》, 《여기 와서 무슨짓을 했나?》, 《누구를 잡아 죽이려나?》, 《지금 공산당이 있는데가 어디냐?》, 《너희들 패거리 공산당이 누구누구냐?》, 《요전 목도고개에서 순사를 죽인 놈이 너였

지!》 하고 갈피도 못 차릴 취조를 하는판이였지요. 워낙 맞아서 반주검이 된 그 동무네는 또 재벌주검을 당했지만 그저 《모른다》, 《어서 죽이면 그뿐이 아니냐?》 이런 외마디대답뿐이였지요.

놈들은 동네사람들을 모여놓고 남의것을 거저 빼앗아 먹으려는 이런 공산당들에게는 감장콩알을 먹인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또 수굿하고 제 농사나 지어 량민이 되라는 훈시를 떠벌이고나서 김동무네를 묶어가지고 왕청현본부로 호송하려 했답니다. 동네의 한 늙은이가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자 《이 늙다리새끼야, 너도 공산당이로구나!》하고 놈들은 사정없이 발길을 날리고 귀쌈을 때렸답니다.

십상팔구 살아나오지 못할 길을 반주검이 된채 쩔룩거리며 포승에 묶여 끌려가는 김동무와 정동무, 가장 믿어오던 혁명동지들을 인간지옥으로 빼앗겨보내는 동네사람들, 얼마나 처참한 정경이였겠는가를 동무가 눈을 감고 생각해보십시오. … 더구나 그를 보내는 부모처자의 심정을 말입니다. 《동네 여러분들, 저희들은 아마 몇해 착실히 고생을 하고야 돌아올것 같습니다. 그동안 락심을랑 마시고…》라는 말을 하다가 김동무는 놈들에게 또 귀쌈을 얻어맞았습니다. 《잔말 말고 얼른 걸엇!》놈들은 총박죽으로 그들을 떠밀었습니다.

당시 부녀회장 전춘옥이란 처녀동무도 군중속에 끼여섰더랬지요. 평시같으면, 생각대로 할수 있었더라면 벌써 김동무가 놈들에게 무리한 된매를 맞을 때 뛰여나가 몽둥이와 총탁을 거머쥐고 놈들을 조겨줬겠지만 어디 그럴수가 있었나요? 그저 눈물을 속으로 삼키면서 그 광경을 쏘아볼수밖에요. 김동무는 놈들의 총탁에 밀리여 걷게 되자 주위의 군중속을 하나하나 더듬어보았습니다. 물론 정든 동네의 군중들을 떠나기 아쉬운것도 있었겠지만 사랑하는 전춘옥의 두 눈과 한번 마주쳐 리별을 고하자는것이였지요. 우는 웃음, 눈물어린 웃음이란 말을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요. 두사람의 눈물어린 웃음은 마주쳤댔지요. 그러나 순간이였고 뒤에 따르는것은 리별이였지요. 끝내 김동무네는 놈들에게 끌려서 동네를 떠나고말았지요.

그곳에서 왕청현성까지는 백리가 넘다보니 도중에서 서산해를 맞이하게 된 놈들은 길가에 있는 자그마한 촌거리에서 부득이 묵게 되였

답니다. 한 과부집 술막에는 놈들이 들었고 이웃집 방에서는 김동무네가 자게 되였답니다. 놈들은 《대역무도의 죄인》과 한방에서 잘수는 없었던것이지요. 놈들은 툰장을 부른다, 태장을 부른다 하더니 (툰장, 태장—괴뢰 《만주국》의 지방행정관리명) 흰쌀밥에 닭을 잡아 기껏 처먹었지요. 놈들은 김동무와 정동무에게 식은밥 몇술을 주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다음날 또 끌고가지 않겠습니까! 뭐, 뛰다니 어디 뛸수 있게 됐어야지요! 녹초가 되게 맞은것은 둘째치고 포승으로 잔뜩 결박해놓은데다 총 가진 놈이 옆에서 지키는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동무네는 가물거리는 석유등잔불아래 덤덤히 앉아있었습니다.

서로 말도 못하게 했는가구요? 그렇기도 했겠지만 그 경우에 말을 해야만 됩니까? 서로 뜻이 통하는 그들은 눈과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소리없이 마음속으로 숱한 말을 바꿀수 있었답니다. 그들은 담배만 풀썩풀썩 피웠던것입니다. 담배를 어떻게 피웠던가구요? 왜놈들이라면 어림이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해뜩 발가진 왜놈들보다는 보위단놈들이 좀 어수룩한데가 있었지요. 포승으로 결박은 한다고 해도 뒤로 손목을 꽁꽁 얽어매는것이 아니라 팔굽우를 뒤로 돌려매였기에 두손을 앞으로 맞대일수도 있고 담배도 말아피울수 있었지요. 특히 저녁식사때 좀 어설피 느슨하게 맨 까닭도 있었겠지요.

김동무네는 아무 말도 없이 쭈그리고 누웠습니다. 그들은 약속도 없이 같은 생각을 하고있었던것입니다. 이번에 가면 어떻게 될가? 사는가? 죽는가? 물론 같은 값이면 살아야지요. 사는 길은 간단할수도 있습니다. 유격대는 어데 있다, 동무는 누구누구다, 자기네는 무슨 임무를 맡고있다 하고 조직의 일을 다 자백하면 몇해 징역이나 살고 살아나볼수가 있지요. 한걸음 더 나아가 놈들의 앞잡이가 되여 동무들잡이에 나선다면 살기만 하겠습니까, 《국록》을 타먹으면서 호강스레 살수도 있지요.

동무,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고비를 당하면 진짜와 가짜가 확연히 갈라지는 법입니다. 동무, 김동무네가 이런 비루한 생각을 했다는것이 아닙니다. 행세로 혁명에 참가한 사람이라면 흔히 이렇게 될수 있다는것을 말했을뿐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면 어째야 합니까? 우선 야만적인 고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직과 아무런 련계도 없다, 아무 일도 안하면서 그저 굴속에 숨어있었다고 하면 놈들이 곧이 들을리 있겠습니까? 그렇게 속아 넘어갈 바보는 아니니깐요. 그렇기에 어떤 사람들은 말을 안하려고 제 혀를 물어끊기도 하고 틈을 보아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또 극심한 고문에 생사람이 죽는 일은 얼마겠습니까?

김동무네는 작년 겨울에 생사람이 맞아 죽은 일—허××의 일을 잘 알고있었지요. 당시 옹성라즈에서 활동하던 허××동무가 하루는 보위단놈들에게 붙잡혀가게 되였는데 십리길을 끌려가는 동안에 악독한 놈들의 물매를 어찌나 맞았던지 끝내 길에서 숨지고말았지요.

어쨌든 백색공포속에서 혁명에 투신한 사람으로서는 목숨을 선뜻 바칠 각오가 없이는 안되는것이지요. 적들과 맞다들어 싸울 때에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것은 물론이고 적에게 붙잡혔을 때에도 조직을 위하여, 동지들을 위하여 제 한몸을 희생하기에 서슴지 말아야 되지요.

김동무네는 생각했습니다. 조직의 비밀을 사수하려면 취조받다가 죽든지, 아니면 절반이나 병신이 되여 징역살다가 죽든가 어쨌든 죽고만다는것입니다. 기왕 죽을바에는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이건 동무가 잠간 생각해보십시오. …

그들을 지키고있는 보위단놈은 때론 졸려서 머리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때론 혼자 지키는것이 너무 무료해서인지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기도 했지요. 심지어 동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노름판에 한몫 끼웠다가 엉뎅이를 툭툭 털고 오기도 했답니다.

김동무는 곁에 있는 정동무를 나직이 불렀습니다. 《어째야 하는가?》 하고 정동무는 한참만에야 《살기는 틀렸는데…》하고 대답했습니다.

한참후에 김동무는 《더럽게 놈들 손에 죽어야 하는가? 3년전 서울의 서대문형무소에서 자살한 차××동무의 이야기를 동무는 들었소?》하고 정동무한테 물었습니다. 그 차동무란 당시 예심중에 있었는데 주전자부리를 목에 틀어넣어가지고 비틀어서 자살한 동무였습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잘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다거니, 뭐니 하면서 당시 신문에서까지 벅작 고아댄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 말이지요.

정동무는 김동무를 나직이 부르더니 《그게 있지.》하고 물었습니다. 《암, 있구말구. 동무도 그렇게 생각했수?》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던 김동무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게란 무엇이겠습니까? 권총? 권총이라면 바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숨겨둘수 있었겠습니까? 돈? 그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물론 당시 혁명자들은 약간의 비상금을 지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혹시 보위단에 붙들리면 돈을 먹이고 빠져나갈수 있었기때문이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돈이 없었습니다. 아편? 아편이면 돈보다 더 좋아했을터이지만 아편도 떨어진 형편이였습니다.

그때 백색구역에서 일하는 동무들은 흔히 이렇게 했습니다. 즉 그들은 수시로 불의에 적에게 붙잡힐 위험이 있으므로 만일 붙잡힌다면 막부득이한 경우에 대처할 준비를 누구나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깨끗이 자살을 하는 방법이였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먹고 죽을만큼씩 아편을 가지고있든지 그러찮으면 자그마한 배코칼(주머니칼)을 감춰가지고있었습니다. 억지로나마 목을 베여 자살할수 있도록 말이지요.

당시 김동무는 지하족속에 자그마한 배코칼을 넣어둔것이 있었지만 정동무는 없었습니다. 사람 둘에 한치도 되나마나한 주머니칼이 하나뿐이였지요.

《먼저 내 목을 베여주오. 다음에 동무 혼자서…》

정동무의 말이였습니다. 진정으로 하는 말이였지요.

《바꿔할수는 없겠소?》

김동무의 대답이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진정이였습니다. 여기에 어찌 세속사람들의 거짓이나 체면이 있겠습니까?

정동무는 대답이 없이 자기자신을 가늠해보았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김동무가 더 강직하고 대담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뒤에 자기가 죽지 못한다면 공연히 동무만 죽이는것이 되고만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무가 하는것이 낫겠소!》하고 정동무는 딱 잡아떼였습니다.

이때 보위단 다른 놈이 갈려왔습니다. 김동무네는 터벅거리는 발자취소리를 듣고 자는듯이 가만히 누워있었습니다. 그놈은 들어와 두리번거리다가 한참만에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동지의 목에 직접 칼을 대겠소? 내가 먼저 죽을테니 그 칼

로 동무는 제 손으로 하도록 하우!》
김동무는 또 김동무대로 이렇게 사양하였답니다.
사실 단꺼번에 목을 썩 베일수 있는 길쭉한 면도칼이라면 몰라도 다섯번에 될지, 열번에 될지 알수 없는 작디작은 주머니칼이였으니깐요.
《실수없이 하기 위해 김동무가 맡아주오.》하고 정동무는 굳이 떠미는것이였습니다.
그후 김한규동무가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다시 뜨고는 더 사양하지 않았으니 그가 먼저 손쓰기로 응낙한셈이 되였답니다. 김동무는 다리를 구부려 무릎을 올려가지고 지하족신발밑창에 감춰두었던 주머니칼을 끄집어내였습니다. 줌안에 드는 자그마한 칼이였습니다. 이미 날을 잘 세운 칼이기는 하지만 정작 결딴하려고 쥐고보니 너무나 하찮은 칼이였습니다. 두 동무는 슬며시 일어나 앉았습니다. 김동무는 손바닥을 폈습니다. 두 동무는 잠간 손바닥에 놓인 그 작은 괴물—주머니칼을 응시했습니다.
김동무네는 비상히 엄숙해졌습니다. 동시에 약속도 없이 저절로 눈에 눈물이 맺혀졌습니다. 죽기가 무서워서일가요? 아니지요. 이미 그런 계제는 뛰여넘을 수양을 쌓은 동무들이였으니깐요. 그들은 혁명의 승리를 못 보고 죽는것이 원통스러웠던것이지요. 조금 뒤에 두 동무는 서로 맞받아 보면서 히죽이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가구요? 그런 숭엄하고 비장한 경우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야 어찌 알수 있겠습니까?
《동지의 목을 칼로 찌른다?》—이것은 김동무의 말. 《동무의 손에 깨끗이 죽는것이 내게는 소원이요!》—이것은 정동무의 말. 그것이 바로 아무런 가식도 없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그들의 말이였답니다. 정동무는 김동무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그다음은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할가요! 아, 글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 장면은 동무의 상상에 맡깁니다. 글쎄요, 한두번에 될리야 천만 없는 일이지요. 아이구소리 한마디 안 지르고 정동무는 고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붉은 피가 홍건히 바지저고리를 잠그고있었지요. 그다음은?
그다음엔 김동무가 피묻은 칼을 자기 목에 대였습니다.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마침내 깜박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
김한규동무는 원래 사랑하는 처녀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전

춘옥이 말이지요. 몇시간전 김동무가 보위단놈들에게 끌려갈 때 눈물어린 웃음으로 갈라진 전춘옥, 몇달후이면 아니, 몇해후이면 고생을 겪다가 놓여나와 다시 만날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바래주던 전춘옥이 말입니다. 그런데 몇시간후에 이렇게 생사람이 죽다니! 김한규동무의 림종의 심정을 당사자 아닌 여느 사람이 어찌 알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제 목에 칼을 댈 때 얼마나 춘옥이가 보고싶었겠습니까!

김동무의 그런 정신, 그런 행동, 그런 용기 뭐 여기 꼭 맞는 말이 없을가요? 김동무네도 어쨌든 사람이 아닙니까? 손가락을 좀 베여도 피가 흐르고 아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의 몸이든지 모두 뼈우에 물렁물렁한 살이 붙어있기 마련이지요. 그러기에 자그마한 수술을 해도 몽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한치도 되나마나한 배코칼로 어떻게 제 목을 한두번도 아니고 연거퍼 여러번을 찌를수 있었겠습니까? 또 어찌하여 동지의 목을 찔렀겠습니까? 또 어찌하여 동지에게 목을 찔리우면서도 가만히 참고있었겠습니까? 그 힘이, 그런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동무의 사색에 맡깁니다.

보위단놈들은 벅적 고아댔습니다. 《독한 사람들!》하고 눈이 휘둥그래지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옳습니다. 적과 용감히 싸우고 죽어도 적에게 굴할줄 모르는 그 면에서는 독하다는 말이 맞지요! 보위단놈들은 부리나케 수레를 얻어오더니 아직 가슴이 뛰는 김동무를 왕청현성병원까지 실어다가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시간도 못되여 도중에서 김동무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숨이 지고말았습니다. 그의 온몸은 붉은것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 옳습니다. 김동무의 피는 당시 우리들의 정치교재였습니다. 우리 어찌 김한규동무네가 남겨준 이 피의 교재를 잊을수 있겠습니까!

1940.

강 교 장

김 창 걸

오늘도 나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따라 걸치기 짤막사래밭에 가서 조발 세벌김을 매고 늦은 아침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왔다. 누군가 한 40되는분이 나를 찾아왔다가 내가 김매러 밭으로 갔다고 해서 잠간 나갔다가 다시 오겠으니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는것이였다.

누가 찾아왔댔는가고 물었지만 그저 허수룩한 맥고모를 쓰고 흰두루마기를 입은분이라는것밖에 알수 없으니 집에서는 그저 그렇게 대답할뿐이였다.

나는 밭에서 일하다가 씀바귀에 좁쌀알이 좀 섞인 죽을 이른아침이라고 대강 설치고났더니 배가 고파 견딜수 없었다. 어머니가 뜯어온 완두를 한가마 삶아서 좁쌀이 쌀에 뉘만큼 섞인 완두청대에 멀건 삽주국물을 들이마시며 주린 배를 달래는판이다.

《허선생 집에 계십니까?》

누군가 문앞으로 다가온다.

《아까 오니까 김매러 가고 안계시기에…》

나는 방금전에 찾아왔다던 손님이 강교장임을 짐작하고 《이거 참, 루추한 방이지만 어서 들어오십시오.》하면서 밥그릇 아니, 완두청대그릇을 비키고는 방으로 모셔들이였다.

《이처럼 우리 집에 행차하시여 죄송합니다.》하고 깍듯이 대접하였다.

워낙 나는 강교장과 친면이 못된다. 그저 피차에 누구라는것을 아는 정도인, 말하자면 서먹서먹한 사이이고 또 같은 동네인것이 아니라 우리 집과는 한 8리쯤 떨어져있는 따로운 갑(행정상의 구역)에 살고있는 처지이지만 다만 그분이 그곳 S소학교 교장이란것만 알고있는 형편이다.

나는 완두청대이지만 끼니를 함께 들자고 권했으나 그는 굳이 사양하고나서 《허선생님께 긴히 청탁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저…》하고

넙적한 이마에 빡빡 깎은 머리를 조아리는것이였다.
《선생이라니? 낮추어 말씀하십시오. 방금 김매고 오는 농사군인데 무슨 선생이겠습니까?》
거기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고 곧 상담할 본문제를 꺼내는것이였다.
《저, 다른게 아니라 허선생님을 우리 학교에서 모실가 해서 왔는데 생각이 어떠실지?》하고 승낙을 받으려는듯이 나를 뻔히 쳐다본다.
《이사람 학선이(내 이름) 대답하렴, 아무렴 김매기보다야 낫겠지!》
아버지는 당사자인듯이 가로채여가지고 또 묻는다.
《그래 학채(글방선생에게 주는 보수)는 얼마나 되우?》
아버지는 무엇보다 그것이 알고싶은 모양이다. 그 심정은 리해할만하다.
결정도 안되였는데 월급부터 따진다는것이 당치 않은 일이기는 하나 너무도 가난에 쪼들리는 형편이여서 그런가보다고 눌러볼수밖에 없었다.
《뭐, 저야 어디 자격이 자라는가요? 동네야학교에서 좀 가르치기는 하지만…》
《저, 선생님실력이야 언녕 알고있지요. 아무 딴 생각 말고 그저 와서 수고해주었으면 합니다.》
생각하면 어쩐 떡이냐싶다. 원체 우리 집에서 한 2～3리 되는 이웃에 학생이 많고 규모가 큰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당당히 중학교를 꼴꼴히 졸업한 사람이라야 채용되고 또 신봉(봉급－편자주)도 25원씩 받으나 중학교도 채 마치지 못한 나같은 사람에게는 도무지 곁에 가 설 자리도 없다. 지금 형편없이 작은 학교이기는 하지만 자리가 있어 초청하러 오니 미상불 기쁘지 않을수 없다.
《글쎄요. 중학도 채 못 마친 저를 알고도 쓰신다면 하다가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해볼가 합니다.》
더 오래 생각할것도 없이 승낙하였다. 강교장은 매우 만족스런 웃음을 짓고있었다. 그의 손을 보니 우리 아버지손보다도 더 험악한 상농사군의 손이였다. 마치 솔옹지같이 부풀어오른 막벌이군의 손이였다.

《방금 댁의 어르신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학채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원체 학생이 많지 않고 밑천도 없는 가난한 학교인지라 한달에 겨우 좁쌀값이나 드리지요. … 십원입니다. 어떠실지요?》

물론 우리 웃마을 큰 학교보다 5분의 2의 월급이다.

그러나 좁쌀로 치면 오승두로 스무말은 될것이니 그것이면 우리 식구가 풀뿌리는 안 먹게 될것이고 또 나도 인제는 선생이 되고 목천이나마 양복도 입을수 있어 좋지 않은가고 승낙하고말았다.

이렇게 되여 나는 강교장과 직접 관계를 가지게 되였다.

듣건대 강교장은 어릴적부터 농사일로 자라난 순전한 판농사군이지만 일찍 혈기와 기백이 왕성할 그때에 의병에 참가하여 서너해동안 보내면서 이리저리 싸우다가 시세가 글러지는 바람에 의병운동을 계속할수 없게 되자 슬그머니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지내는중이라고 한다. 그때 왜놈들은 의병운동을 하다가도 그저 쭈크러뜨리고 제집에 와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연히 자는 범을 코침줄것 없다고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감시나 하는 정책이여서 집에 와서도 딴 활동이 보이지 않아 내버려둔것이였다.

나는 꾸기여진 헌 목천양복을 입은 꾀죄죄한 주제에 밥곽 싸가지고 8리되는 S학교에 부임하였다. 원체 그 학교는 학생이 한 50명 되나마나한 4년제학교인데 학교통학구역이 산구에 린접된 한 70호쯤 되는 곳이였다. 교원이 나까지 둘, 그중에 내가 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수석교원으로 된셈이다.

강교장은 원체 전임교장인것이 아니라 농사일이 원직업이고 간혹 학교를 돌아보거나 학교에 무슨 일이 있을 때면 드문드문 나와 보는, 말하자면 월급은 끄물만큼도 없는 명예교장인셈이다.

그 다음날 강교장선생은 학교에 나와 학생들앞에서 나를 새로 온 선생이라고 소개하였다. 그것도 단지 소개인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잘했고 동네에서 교육사업도 몇해 하였다고(야학교원노릇한것을 말함) 또 세상경난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잔뜩 춰올려주었다.

내가 S학교에 교원으로 있게 되였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에는 쌀 한되 없노라고 잡아떼던 동네사람들도 좁쌀말씩이나 갖다먹으라고 해서

밥곽이 무직하게 조밥이나마 싸가지고 된장에 풋마늘대나 반찬으로 가지고 가게 되였다.

며칠이 지나 강교장은 돈 5원을 주면서 《돈이 그리울터인데 먼저 쓰오. 쌀도 사고…》라고 말하였다.

《쌀도 사고…》하는 말은 강교장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맨 완두만 삶아먹는것을 보고 미리 돈을 변통하여준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5원이면 오승두 열말은 남아 살터이니 얼마나 생광스럽게 쓸것인가!

이미 있던 선생은 1학년과 2학년을 맡고 나는 3학년과 4학년을 맡았다. 그것은 내가 좀 지식이 더 있다고 해서 이미 있던 선생이 기어이 그렇게 하려고 했기때문이였다.

나는 교수사업을 착실히 하여 어쨌든 쫓겨나지는 말리라고 마음먹었다. 왜냐하면 내 먼저 있던 교원은 지식이 부족한것이 아니라 품행이 병(10간에서의 세번째 글자로서 작품에서는 순위가 낮은 상태를 표현함－편자주)이기때문에 학부형들에게 쫓겨간것이였으니까 말이다. 나는 기필코 품행을 갑(10간에서의 첫 글자로서 작품에서는 앞선 순위를 가리킴－편자주)으로 지키리라고 다짐했다. 워낙 순박한 농촌학생들이고 끄나불같은것이 섞여있는 거리의 학교와는 달라 아무 말이나 해도 상관없는 판이다. 즉 당시 《만주국》에서 만든 교과서이외의 이야기도 마음놓고 할수 있는 점도 좋았다. 이렇게 나는 하루에 왕복 시오리 넘는 길을 다니면서도 꽤 즐겁고 유쾌하게 지냈다.

×

나는 차차 학교의 일을 알게 되였다. 무엇보다 강교장의 일을 알게 되였다.

강교장은 신봉은 고사하고 명절에 수당금 한푼도 심지어 술 한잔 차례지는것도 없다. 그런데 왜 교장노릇을 할가? 그리 유식한것도 아니고 제 이름자나 아는 막벌이 농사군이다. 그러면서도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선다. 룡정에 가서 무슨 학교짐같은것을 좀 실어올라치면 아무말없이 자기 집 소수레로 실어온다. 물론 지난날 의병

운동에 종사한탓도 있겠지만 너무나 보람차지 않은가?
원체 학교통학구역이 한 70호 되나마나한 여기에는 학교가 없었다. 간도땅에서 신문명을 받아들인다고 특히 의병운동의 영향하에 간도에서도 유명한 M학교가 일어날 때에 자그마한 산간벽지에도 우후죽순마냥 신식학교가 일떠서게 되였었다. 그때 이 마을에도 현이라는 유력자가 S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배양했는데 그 현이란 유지가 징역살이 가게 되자 그 나머지 사람들도 흐지부지하게 되여 학교는 저절로 문이 닫겨졌다. 그뒤 왜놈들의 《토벌》대가 조선족촌락을 되는대로 불지르고 학교도 《배일》하는 곳이라고 해서 역시 마구 불지르거나 문에 못을 박고 할 때에 이 학교는 영영 서리맞은 나무잎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그뒤로 방향과 지향을 잃은 젊은 사람들이 도박에 불리였다. 그래서 이른바 《야회》(도박의 한가지—편자주)가 성행하게 되였다. 이것은 순전히 꿈을 꾸어 그 꿈을 풀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어느 문에나 돈을 대이는 놀음인데 젊은이들은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무슨 꿈을 꾸었는가고 서로 의논이 자자하고 지어는 꿈을 팔고 사기까지 하는판이였다.
이 마을 젊은이들도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첫인사가 《난 청운(〈야회〉 문의 하나)꿈을 꾸었어!》, 또는 《아니, 난 근옥(역시 〈야회〉의 문)꿈을 꿨는데…》하고 란상공의(여러 사람이 모여 진지하게 의논하는것)가 벌어지자 젊은이들에게 물젖어 여라문살 되는 어린애들까지도 그 《야회》가 화제의 중심이 되는것이였다.
한번은 그런 광경을 한참 멍하니 바라보고있던 강교장이 후—한숨을 쉬였다.
《이게 무슨 세상이람? 젊은이들이 의병은 못될망정 모두 도박군이 되다니… 음, 어린애들도 놀음졸업을 시키는구나!》
눈물이 글썽글썽해진 강교장은 《음! 이게 다 우리 어른들의 죄란 말이야!…무슨 방법이 없을가? 음, 어쨌든 학교를 다시 일궈세워야지!》하고 생각을 더듬는것이였다. 강교장은 동네에서 한문지식이 제일 있고 동네시비깨나 한다는 최교감을 찾아가서 기막힌 사정—동네의 젊은이들이나 장년들은 물론이고 코빠는 어린애들까지 모두 《야회》바람에 불리여 놀음쟁이로만 되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고, 우리 나이먹은 사람들이 후대를 놀음군으로 만든 죄

책을 어쩔셈인가고 장황히 이야기해서 설복시키고 다시 학교를 세우기로 하였다.

사흘후 그 학구내의 주민대회를 열었다. 거의 한 40명 모이였다. 강교장이 학교를 다시 열어야 할 형편과 의견을 내니 한사람도 반대하는 반론이 없이 《참 좋은 일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속으로 꿍꿍했을뿐이였지. …》라고 그야말로 만장일치로 학교를 다시 열기로 결정지었다.

《저, 교장이 있어야 하잖겠수? 학교를 주관하는 책임을 진 교장이!…》

누구 한사람이 제의하자 모두들 강교장이 좋으리라고 해서 교장으로 되였다.

《뭐, 저는 글도 별로 못 읽고 무식해서…다른분을 천거하도록 하시우다.》

강교장은 굳이 사양했으나 중망(여러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망이나 촉망)이 그런데야 할수 없었다.

당장에서 학교를 회복시키기 위해 의연금을 내기로 되였다. 건너마을 밥술이나 넉넉히 먹는다는 리도유사가 선참으로 10원을 희사하는 바람에 최하로 50전까지 모두 손을 들고 나와서 150여원이 모여졌다.

교원을 초빙하면 월급도 줘야 할터이니 그 돈을 써버리지 말고 땔나무산을 사서 땔나무그루세를 받아가지고 학교운영에 보태여 쓰기로 하였다.

그러니 학교의 총밑천이란 학생 한사람에게 매달 받는 월사금 40전(한집에 둘이상이면 절반을 낸다) 하고 땔나무그루 판돈 얼마하고 그뿐이다. 겨우 분필과 철필대나 사쓰는 정도인것이다. 그러나 학구내의 주민들은 모두들 즐거워하였다. —우선 애들을 어린 도박군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는 다시 열려졌던것이다.

내가 학교에 간 뒤 강교장은 드문드문 농사여가에 틈을 내여 학교사무실에 나와서는 학교에 별일이 없는가, 당국(현정부나 경찰서를 말함)에서는 별말이 없는가, 학생이 줄지는 않는가. … 물어보며 아무런 딴일이 없다고 하면 웃수염을 비탈아꼬면서 허허 하고 기뻐하는것이였다.

그리고 학교운동장도 한바퀴 돌아본다. 학생들은 물론 교장선생을 잘 알고있기에 깍듯이 경례를 붙이면 《응, 아버지 무사하냐?》라든가 《집이 다 무고하지!》 또는 《김매기가 어찌되였다던가?》하는 말들로 친절히 물어보군 하였다.

어느 하루는 막벌김도 거의 끝나 농사일이 좀 뜸해졌는데 강교장이 소수레에 커다란 돌멩이들을 싣고 학교교사옆에 부리운다. 왜 돌을 거기다 부리우는가고, 무슨 일에 쓸 돌인가고 물으니 강교장은 히죽 웃고나서 웃수염을 비빈다.

《글쎄, 쓸데있을것 같아 그러지요!》하고는 딴말이 없었다. 그뒤 연거퍼 며칠이나 실어들이는것을 보고 《응, 그렇게 쓰자고 그리는구만!》하고 깨달았다. —학교 교사의 서쪽벽이 막 구멍이 뚫어져있었던것이다. 그것을 기워바르려고 그러는것이였다. 그런데 하루이틀도 아닐터인데 어떻게 혼자서 이런 벅찬 일을 시작했는가 해서 물었다.

《교장선생님, 그걸 어떻게 혼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동네에 부역이라도 내시면 될것인데요!》

《흥, 부역? 내가 무슨 관청이라고 부역을 다 내겠소? 일을 시작하노라면 뜻있는분들이 절로 와서 해주면 그건 모르지만. —》

그뒤에는 소수레를 끌고 룡정 가서 세멘트와 판유리를 실어오는것이였다. 정말 뜻있는분도 있는 법이여서 동네에서 몇사람이 나와 일을 도와주어 서쪽벽을 모조리 헐어치우고 산뜻하게 새로 집을 고쳐놓았다. 그러자 여름방학이 되여 학생들도 오지 않게 되니 강교장은 또 목재를 한수레 싣고 왔다. 말이 학교이지 책상, 걸상도 잃어지고 마사지고 찌그러지고 해서 말이 아니여서 책상과 걸상을 새로 만들어놓으려는것이였다.

강교장은 여름이나 겨울에는 별로 할만 한 부업이 없기도 하지만 원체 할념도 없이 몽땅 학교일에 바치는것이였다. 목수도구를 평소에 가지고있는 강교장은 누구에게도 아무말없이 교구를 만드는판이였다. 동네에서 깎개질이나 좀 한다는 도끼목수들이 간혹 와서 한 반날씩 거들어줄뿐이다.

우선 교탁을 볼만하게 수리해놓고 책상, 걸상 스무개나마 짜놓았다. 도끼목수재주로 짠것이지만 제법 틀이 갖춰져있었다.

나는 너무나 미안스럽고 고마와 하루는 한근에 18전씩 하는 배갈 둬근 사가지고 강교장댁을 저녁에 찾아갔다.

《뭐, 술은? 내 의례 할일인데 돈팔아 술을 왜 사왔소? 처음이니 받소마는 다시 그런다면 그대로 돌릴테니 그리 알란 말이요!》

하고는 동네에서 요새 나와 수고한 장년 두사람이나 더 청하여다가 내가 술까지 사왔다고 치사하면서 한잔 드는것이였다.

나는 강교장을 점점 더 존경하게 되였다. 우선 먹물먹은 선비도 아닌데 순전한 농사군으로서 후대를 위하여 자기 리해타산을 떠나 몸바치는것이 얼마나 가상한지 알수 없었다. 나갈은것은 그래도 월급이라고 받으면서도 좀더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있는데 정말 피천 한잎 안 받으면서, 제 돈을 써가면서 남 다 쉬는 농한기에도 제 우차를 가지고 나와서 일하다니 얼마나 거룩하고 고상한 일인가? 《의병이 다르기는 달라!》하고 감동되였던것이다.

《흥, 애들까지 〈필덕〉(야회문의 하나)이다, 근옥이다 하던걸 생각하니 제몸이 고달픈줄 모르겠수다. 까딱하면 후대에 커다란 죄를 짓게 되지 않겠수?》

강교장은 곰방대에 담배를 꾹꾹 눌러담으며 자못 흐뭇해하는것이였다.

×

그해 늦은 가을, 단풍잎이 한창 붉게 물들어 강산이 더욱 아름답다. 살풍경이던 산과 들이 따스한 가을볕에 아늑한 안정감을 주고 있다.

새로 맡길만 한 사람도 별로 없어 나는 동네의 야학교도 계속 맡아보고있는판이다. 하루 시오리나마 되는 왕복길을 다니면서 낮에는 두반이나 복식으로 교수를 하고 밤에 집에 돌아가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동네의 야학교에 꾹꾹 나가군 한다. 집이 가난해서 원판 학교에 못다니고 야학교에 나오는 농사군 실학청소년을 상대해서 글을 가르친다는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마을사람들도 학생들도 순진해서 아무 말이나 마음대로 하는것이 무엇보다 좋았다.

리순신장군의 거북선이야기, 행주치마전설에 대한 이야기, 홍범

도장군의 봉오골전투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지금의 산손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라치면 목에 굵은 침을 삼키며 정신차려 듣는것이 더욱 기뻤다.

하루 아침 일어나니 지난밤에 내 있는 학교동네에 산손님들이 왔다갔다는 소문이 짜하게 들려왔다.

그 산손님들은 하나둘이 아니라 10여명이, 빈 손으로가 아니라 총까지 메였다고, 그저 막옷이 아니라 제법 누런 군복차림으로 왔댔다는것이다. 잠시 들린것이 아니라 밤참까지 먹고 두시간이나 있다가 갔다는것이다.

S학교동네는 원체 두릉봉을 끼고있는 산간 산재부락이 있는 곳으로서 평소에도 산손님들이 다닌다는 두릉봉에 왔다가 S학교에까지 내려온 모양이다. 동네사람들을 학교안에 모여놓고 (물론 더러는 학교 교사바깥에 서있었다.) 선동연설을 하고 혁명가를 부르며 거기 맞춰 사바께딴스(춤의 한가지)랑 추며 즐겁게 놀다가 가버렸다는것이다.

거기 엊저녁에 온 대원가운데 두사람이 강교장댁을 찾아가서 한참동안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갔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들은 사람이 없고 강교장도 워낙 입이 무거운분이라 말을 아니내고 하여 곁에서는 모르지만 강교장이 학교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것을 고마운 일이라고 치사하고나서 그들의 일을 도울수 있는데까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선 지하족이란 신발을 몇백켤렌가 사서 아무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뜬소문이 있기는 하나 이것은 한갖 추측일뿐 셋이 가만히 한 일이니 쥐도새도 모르는 일이였다.

그 산손님들이 떠나갈 때, 이튿날 일찌기 달라즈경찰서에 가서 그들이 엊저녁에 왔다갔다고 보고하라고 일렀다. 만일 보고하지 않으면 뒤에 놈들이 지랄할것이라고 말하더라는것이다. 나는 물론 이날 아침에 학교에 가서야 이런 자세한 소식들을 얻어들었다.

그런데 그 동네사람들은 그 산손님들이 강교장을 만난것을 직접 보지도 못했거니와 서뿔리 아는체 말했다가 경찰이 묻게 되면 더 딱하게 될것이라고 해서 아무런 일도 없은체 하고 입을 다물었다.

물론 산손님이 왔다간 그 이튿날 느지감치 해가 뒤발이나 떠서야 경찰서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왜놈순사랑 《만주국》경관이랑 10여명이 들이닥치였다.

《몇이나 왔어?》, 《무얼 어떻게 입었어?》, 《계집년도 섞여있던가?》, 《무슨 딴말이 없던가?》, 《노래는 무슨 노래를 부르던가?》 《딴스라니 무슨 딴스를 어떻게 하던가?》그저 이러루한 보통의 말들을 물을뿐이였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눈을 부르대는것이였다.

《응, 그래 왜 엊저녁에 인차 보고하지 않았나 말이야? 그 즉시로 보고했더라면 몽땅 붙잡는것인데, 응?》

그러자 강교장이 나서서 대답했다.

《글쎄 엊저녁으로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사와요.》

왜놈순사가 구두발을 탕 구르며 《뭐, 어찌구 어째? 너희들 그 사람들 말을 할아비말같이 아는가말이야, 응?》 하고 말하였다.

《백성들이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엊저녁으로 보고하면 후에 큰일날거라고 하였사와요.》

《응, 너희같은 겁쟁이들만 있으니… 일이 이렇게 되였단 말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곁에 있던 키다리순사는 코방귀를 뀌였다.

《흥, 엊저녁에 보고를 받았으면 너도 죽을가봐 머리도 못 들었을걸, 공연히 큰소리치는구나. 오늘도 그들이 갔다니 늦게야 인제 와서 무슨 우통이야?》

그 경찰서놈들은 마침내 강교장을 데리고 경찰서로 올라갔다.

아무리 심문해보았댔자 아침에 들은 말 그대로였다. 산손님들이 강교장을 가만히 만나보았다는것은 아무도 몰랐고 또 고자질할 끄나불도 없어 경찰들은 꼬물도 몰랐고 묻지도 않았다.

《일후엘랑 그런 사람들이 오면 보고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심부름도, 말하자면 무슨 물건을 사달라든지 하면 듣지 말고 보고해야 하는거야, 알겠어?》

순사놈은 코를 실룩거리면서 위협하듯 당부하는것이였다.

《네, 이렇게 하지우. 오기 전에도 보고해야 하지요?》

《뭐, 온 다음에 인차 보고하란 말이다!》

강교장은 그날로 놓여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모두들 모여들어 어떻게 무사히 되였는가고 위로한다.

《그놈들이 실없이 하는 수작이지. 뭐 당일에 알게나 하면 죽을가봐 헛총질이나 할 놈들이 공연히 흰목을 써보는셈이지!》하고 아주 시치미를 뗀다.

강교장은 그뒤에도 열심히 학교일에 달라붙었다. 곁에서는 그처럼 제일도 제쳐놓고 학교일만 하니 참으로 송구스럽다고들 말하고있었다. 그러나 강교장은 듣는둥마는둥 학교의 책상, 걸상을 손질한다, 유리를 맞춰넣는다 하며 날마다 한번씩은 학교두리를 살펴보며 운동장에 난 풀 한대라도 뽑아주군 하였다.

그뒤로 강교장은 룡정에 가서 지하족을 수레속에 박아싣고 왔다는 뜬소문이 났다. 사실 그런지 아닌지는 알길 없다. 다만 뒤에서 쉬쉬거리다가 말뿐이다. 강교장이 만일 지하족을 몇십컬레가 아니라 몇백컬레를 사왔다면 또 어디로엔가 운반할터인데 그것을 본 사람은 없다. 그렇다는 소문도 전혀 나지는 않았다. 강교장자신이 한 일은 강교장자신밖에 알 사람이 없고 곁에서 묻기는 고사하고 그런 소문이 터무니없이 나서 강교장한테 무슨 덤터기라도 씌울가 저어하여 오히려 걱정이라도 하는 형편이였다.

나도 물론 모르는체 하고있었다. 그런걸 아는것처럼 하는 내색은 내지도 않았다. 그저 덤덤히 시치미를 떼고있을뿐이였다.

×

그뒤 한 반년 거의 되여 강교장의 외아들인 대룡이가—아직 20도 안되는—학교로 놀러 왔다. 그는 나한테 무슨 말을 할듯말듯 한 눈치를 보인다. 나는 곁에 있는 다른 선생 한분이 있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가싶어 그 선생이 밖으로 나간 다음 대룡에게 말을 먼저 걸었다.

《무슨 할말이 있소? 대룡이!》하고 물었다.

그는 어물거리다가 끝내 말은 하지 않았다. 《뭐 별로, 선생님, 그저…》하며 강교장의 아들 대룡이는 아무렇지도 않은듯 바깥을 멍하니 내다보는것이였다.

그날 나는 학생들의 숙제도 정리하고 또 무슨 관청에 내는 보고를

쓰노라고 저녁늦게 혼자 앉아 사무를 보고있는데 아까 제집에 들어갔던 대룡이가 또 나왔다.

《허선생님, 아버지께서 좀 보시자고 하시니 저의 집으로 들어가시지요!》 한다. 나는 쓰던 공문을 얼른 끝내고 그를 따라 강교장댁으로 들어갔다.

《어서 앉으시우, 허선생님!》 하고 그는 반갑게 인사하고 나서 말했다.

《저, 선생님과 하나 상의할 일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수다.》

강교장은 죄송한듯이 자리를 한번 고쳐앉으며 나를 쳐다보고 또 그 아들 대룡이를 흘끔 건너다본다.

《무슨 말씀이신지 말씀하십시오. 들을만 한것이면… 어서 말씀하십시오.》

《저, 다른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저 애를 귀해하시고 저 애도 선생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나 듣기에…》

《네, 무슨?》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벙벙해졌다.

《저 애가 정신이 쭐 나가서 그 개뿔같은 순사보시험을 치겠다는구먼!》

《순사보시험? 언제?》

나는 들으매 초문이여서 놀랍기 그지없다. 언제부터 무슨 궁리로 그런 생각을 먹었을가? 이때까지는 한마디도 그런 뜻을 내비치지 않았는데… 나는 대룡이를 힐끗 건너다보았다, 그럴수 있겠는가고. ㅡ

《글쎄 저놈, 개같은 자식이 어찌 한뉘를 풀밭에 머리를 틀어박고 살겠는가고, 그래 월급쟁이가 되겠다고 하며…》

《그래 어쨌어유? 승낙하셨습니까?》

강교장은 펄쩍 뛰며 무릎을 세우고 대통으로 상앗대질을 한다.

《승낙이라니, 뭐요? 저 자식이 제 애비 낯짝에 똥칠을 해도 분수가 있지. 원, 그런 법이 있겠수? 내가 그래두 젊어서는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날뛰던 사람이라우. 이놈아, 대룡아, 다시 그런 말을 내였다간 사등때기(등골뼈)를 분질러놓겠다. … 선생님께서 잘 교육해서 바른 백성이 되도록 해주시우다!》

나는 처음 아무 말도 못했다. 어떻게 돌려야 할지, 강교장의 노염을 어떻게 풀며 대룡의 그릇된 생각을 어떻게 설복할지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다.

《대룡이.》
나는 대룡이를 불러놓고 한참 생각해보았다.
《대룡이, 정말 순사보를 지망했소?》
《예, 너무나 살아갈 길이 막연해서. 남들처럼 월급쟁이나 되여보려고… 나같은게 어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 허름한 순사보나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응, 그러니 제사람 잡아먹는 순사질을 할려고 했구나. 이 자식아, 응!》
강교장은 계속 분이 내려가지 않아 말소리를 높이였다. 나는 꽥 소리를 쳐서 될일이 아니라고, 조용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타일러서 강교장을 좀 주저앉히였다.
《저 대룡이, 순사란 어떤 일을 하는건지 아오? 누굴 잡아 누구에게 바치는건지 알기나 하오?》
《이놈아, 알기나 하니? 개질이란 말이야! 똥먹는 개질이면 좋기나하지, 사람 잡아먹는 개질이란 말이다!》
또 강교장이 불뚝거리며 나선다. 나는 강교장을 억눌러 말리였다. 대룡이는 묵묵히 앉았다가 《누구를 잡아 누구에게 바친다?》, 《사람 잡아먹는 개질?》이란 말을 입속으로 외우고나서 나직이 말하는것이였다.
《잡긴 누굴 잡겠어요? 착한 순사도 있지 않나요. 순사라고 다 죽일놈인가요? 제만 맘 잡으면 좋은 순사가 되지 않겠어요? 난 착한 순사가 되여 월급도 받고 할 작정인데요!》
《응, 잘 생각했다! 똥 안 먹는 개가 있다던? 사람 안 잡아먹는 순사가 있다던? 옛말이면 듣기나 좋겠다!》
강교장은 부르쥔 주먹을 떨고있다.
《대룡이, 잘못 생각했소! 내 말을 들어보오!》하고 나는 대룡이를 상대로 하고 내 재주껏 이야기하였다. 나는 사실을 들어가며 도리로 따지였다.
—풀속에 골을 틀어박지 않고 살고싶다는것은 리해할만 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은 리지가 있는 생명체이다. 선악을 가릴줄 알아야 한다. 사는것이 죽는것보다 더 수치스러울 때에는 죽어야 한다. 좋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선량한 순사가 되려는것은 망상이다. 부처같은 순사

를 어디서 보았는가? 백성을 해치지 않는 순사는 약에 쓰려고 해도 없다. 아버지 강교장의 얼굴에 똥칠하는것이다. 왜놈편에 붙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김매는것이 허리는 아프고 고달프기는 하나 그것이 얼마나 마음편하고 신성한가? 남들은 사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잡아먹는 죄인이 되면 하늘도 용서하지 않는다. 한때의 부귀를 위하여 일생동안 아니, 자손후대에게까지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 …

이런 말들을 체계는 안 서지만 토막토막 하였다. 강교장은 가담가담 《음, 그렇구말구!》하고 께낀다. 특히 대룡이는 민족의 죄인이 되면 이다음 새세상이 닥쳐올 때 인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에 몸을 움츠리며 떨었다.

《나같은것이 순사보가 된다치고, 그래 하치라졸이니 사람잡이 안하고 되겠습니까? 울며불며 사람잡이를 할겁니다!》

《응, 그렇구말구. 너 생각을 다시 해봐라!》

강교장의 노염은 좀 누그러진 모양이다.

《글쎄 선생님, 돈이 있으니 장사를 하겠습니까? 한뉘를 소궁둥이만 두드릴걸 생각하니 정말 너무나 애타서 그런 궁리를 했습니다. 정말 남들은 산에 가서 총들고 몸바쳐 싸우는데 저는 너무 옹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곱도록 살다가 곱도록 죽는게 옳을것 같습니다.》

대룡이는 눈굽에 눈물이 핑 돈다.

《잘 생각했소. 대룡이, 인제부터는 딴 궁릴랑 하지 마오!》

《네, 알겠습니다. 깨닫습니다. 선생님, 참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도 너그러이 보살펴주십시오.》

부자간의 의견다툼은 칼로 물베기였다. 강교장은 웬간히 노염이 풀어져 시무룩이 웃으며 말했다.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거던!》하고 딴 말을 꺼내였다.

《무슨?》하고 묻자 계속 말하였다.

《어떤 망할놈의 세상인지 정말 착한 일하는 월급자리는 없고… 월급쟁이는 탐이 나지, 정작 되면 정말 사람을 잡아먹어야 하니 말이우다. … 그러니 선생도 월급은 몇푼 안될망정 교원사업하는게 그래도 마음이야 편안하지, 죄도 안 짓고말이외다.》

나는 대룡이가 생각했던 일을 곱씹어 생각해보았다. 정말 풀밭에 머

리 틀어박기는 싫고 월급쟁이가 되려니 자리는 없고 된다치고 착한 월급쟁이가 되려고 하면서 착하지 못한노릇을 하게 되는 일이 얼마인가?

나는 단돈 10원에 목을 매였다고 불평삼아 이야기해왔는데 다시 생각하면 교원이란 월급쟁이도, 특히 산골교원이란 월급쟁이도 타고난 행운이라고 느껴져 집으로 밤길을 더듬으면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절로 나왔다.

×

세월은 흘러만 간다. 1939년 봄.

만주국에 있는 사립학교는 모두 공립학교로 개편된다. 공립학교로 되면 많이 드는 학교운영비를 모두 정부에서 대이니 말하자면 국가의 통일적인 《황민화》교육을 받으면서도 교육비용이 백성들에게 돌려씌워지지 않으니 커다란 혜택을 주는것이라고 떠들어대였다.

S학교—한 50명 되는 산골학교, 복식교수로 월사금에 의하여 겨우 꾸려가는 작은 학교도 공립학교로 되는판이다. 공립학교로 넘어가게 되니 이른바 일본말을 잘 모르고 무자격교원은 도태되고 또 일본사람이나 적어도 일본사람식으로 창씨하여 이름과 성을 고친 사람이라야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여 오게 된다. 그러니 명예만 가졌던 교장은 깡그리 쫓겨나게 된다.

S학교 같은것은 세운지 거의 30년이나 되고 특히 돈 한푼 안 받고 학교일을 제일 제쳐놓고 하던 강교장 같은분들도 제 꼭지에 물러나 앉게 되였다. 학교구역내의 백성들은 아까와하나 할수 없는 일이였다. 더우기 강교장은 우선 글을 잘 모르고 일본말은 물론 모르고 해서 명예직교장으로 있을 때에 무슨 관청의 임명장이 있은것도 아니지만 이번에 명예직을 그만둘 때에도 무슨 통지는 고사하고 면직장이나 철직장도 없이 그저 새로운 교장이 부임되여 오니 그야말로 제 꼭지에 물러난셈이였다.

이번에 새로 온 교장은 나이 30이 되나마나한 조선사람이지만 벌써 창씨해서 일본놈의 성명을 가진 가네무라라는 사람인데 넋은 벌써

왜놈이 다된 그런 사람이였다.

서투른 일본말만 지껄이는 가네무라란 교장은 학교에 오자마자 그래도 그만한 례절은 아는 모양인지 강교장을 찾아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강교장이 일본말을 모를줄은 번연히 알면서도 처음 만나자 일본말로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곁에서 보기 딱해서 나는 조선말로 번역해주었다. 강교장은 그 가네무라를 뻔히 쳐다보다가 《교장선생이 그래 조선사람이요, 일본사람이요?》하고 쓴웃음을 짓는것이였다. 그 말에는 《조선사람이면 왜 조선말을 못하는가? 일본말을 하는것이 행세인줄 아는가?》하는 질책이 내포되였지만 그래도 가네무라는 일본말을 안다고 뽐내면서 《나는 조선사람이지만—》하고 역시 일본말로 대답하는것이였다.

나와 함께 있는 박선생이란 교원은 일본말을 잘 모른다고 해서 《뭐 안되겠는걸, 사람을 갈아치워야 하겠는걸!》하고 가네무라는 뇌까린다.

4월 어느날, 공립학교로 개편인가 승급인가 되였다는 경축대회를 하기로 되였다. 말할것없이 가네무라라는 교장이 오더니 학교와 자신의 위신을 돋구기 위하여 발론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것이다. 이 성대한 대회에 왕림해줍시사고 경찰서에 알리고 학부형들에게도 마지못해 통지를 내였다.

개편기념대회날이 되자 경찰서의 순사나부랭이들 둘이 래빈으로 축하하러 참가하였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내가 비칠게 뭐요?》하며 요새 학교에 발걸음도 안하면서 《뭐 새로 온 일본교장이(가네무라를 이렇게 부른다.) 의례 알아서 잘 처리하지 않을라구!》하고 은연중 비꼬기까지 하던 강교장도 이날만은 중절모를 받쳐쓰고 나왔다. 말하자면 오늘 이 대회는 강교장면직대회인셈이지만 강교장은 가타부타 아무 말도 없었다.

강교장이 밤을 낮으로 삼고 수리한 강당에서 정중한 ××학교공립개편대회가 시작되였다. 가네무라는 일본말로 개회를 선포하고 모임의 뜻을 이야기하고나서 강교장더러 말씀해달라고 청하였다.

강교장은 교단우에 올라서서 기침을 한번 하고는 연설을 시작했다.

《수십년동안 우리 백성들이 학교를 운영하노라고 애는 썼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운영할 권리와 자유는 없습니다. …》

이렇게 말하자 경찰들은 눈이 둥그래서 키작은 순사는 중지를 시키려고 엉뎅이를 들썩거리였다.

《그러나 얼마나 좋습니까? 정부에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여 공립학교로 개편하여주었습니다. …》

이 말을 듣고서야 경찰들은 《참 옳은 말이야, 그래도 원래교장이 다르기는 달라!》하고 기뻐하였다.

강교장은 물론 조선말로 하는 연설이였다. 몇마디 붙여 말하고는 《나는 일본말을 모르니까 조선말로 기쁨을 나타내겠습니다.》하고 일본말을 모른다는 말을 다시한번 되뇌이고나서

《사립학교 폐쇄 망세!》

《공립학교 개편 망세!》

연거퍼 부르는 망세소리에 맞춰 경찰들을 비롯해서 학부형들과 학생들, 심지어 가네무라교장까지도 목청껏 만세를 불러대였다. 그러나 《만세》가 아니라 《망세》(망할 〈망〉자를 씀－편자주)로 불렀다는것은 웬친 강교장본인은 의식적으로 한것이니 환히 아는 일이고 나와 박선생만은 《망세》와 《만세》를 가릴수 없는것은 절대 아니였다. 모두들 그저 그렇거니 하고 들었지만 강교장과 나와 박선생만은 가만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나는 《망세》를 부를 때 《망》자는 들릴락말락 낮게 부르고 그대신《－세》만은 말끄리를 좀 높이였다.

강교장은 한개 떡 안 먹은듯이 교단을 스적스적 내리는것이였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내가 비칠것이 무언가? 일본놈이 어련히 알아처리할것인데. －》

강교장은 이런 말을 하면서 그후부터는 학교일과 손을 끊고있었다.

강교장이 학교로 나오는것도, 학교운동장을 도는것도, 책상과 걸상에 못질하며 손질하는것도 다시는 볼수 없었다.

나는 그뒤 한 반년 있다가 그 학교에서 나오고말았지만 나의 반생에 강교장 같은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일는지도 모른다.

강교장, 존경하는 강교장, 그의 거룩한 형상은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1942년 교하에서.

범의 굴

김 창 걸

삑－하고 고동이 울리자 기차는 떠났다.

장상은 숨막히는 기차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려고 몸을 움직거리며 목을 빼여들었다. 그래서 겨우 뙤창만 한 창문으로 획획 지나가는 촌집들을 바라보면서 긴 한숨을 내쉬였다.

기차는 기차이지만 객차인것이 아니라 말이나 소같은 짐승들을 싣는 짐차에 사오십명이 콩나물시루마냥 빼곡이 들어앉아 가는판이다.

기차바퀴 굴러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길다란 차굴을 지나는 모양이라고 짐작되였다.

희끄무레한 전등 하나가 기차차량중간에 대롱대롱 달려있다.

우선 모자우판이 뾰죽스레 올라간 전투모에 큰 저고리같다면 너무 너르고 길고 그렇다고 두루마기같다고 하면 너무 짧은 일본옷 합바를 입은 일본사람 하나가 차칸가운데 책상을 놓고 걸상에 기대여앉아 같이 가는 사람들－인부들을 이리저리 휘둘러보며 감시하고있다. 딱 바라진 몸집으로 보아 심상한 보통내기가 아니란 느낌을 준다.

한참이나 무슨 명단인가, 대장인가 들여다보면서 한장한장 번져보던 야마모도란 일본사람 십장인가 하는 작자가 인부들의 아래다리를 살펴보다가 《너희들 각반 안 친 사람이 몇인가?》하고 턱없이 꽥 소리를 지르는것이였다.

《나도 없습니다. 미처 사지 못해서 못 쳤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나서는 인부 그는 이번에 처음 이런 로동자 모집판에 이름을 걸고 오는 장상이였다. 물론 그외에도 몇사람 잘 된다.

장상이란 성이 장가이고 상이란 일본말식으로 사람의 성명아래 붙는 무슨 씨라거나 무슨 동무라는 뜻의 상인데 조선말식으로 부르자면 장씨이고 일본말식으로 부르자면 죠상일터이나 이렇게 섞개로 부

르는것이 일본말을 잘 모르는 조선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식이였다. 그래서 장상이란 장상본인도 그렇게 부르거니와 곁의 사람들도 장셋째라는 원이름은 잘 모르고있다. 셋째란 이름이 일본말로도 잘되지 않아 장셋째라기보다 그저 장상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그러나 원명을 존중하여 장상이라 부르지 않고 장셋째라고 부르기로 한다.)

장셋째는 처음에 어찌 일인가고 눈이 둥그래졌다가 아마 각반이 없는 사람은 한컬레 사주려고 그러는가보다고 생각하면서 뒤끝을 기다렸다. 장셋째는 쭉 뻗은 코등을 만지면서 넙적한 어깨를 가볍게 들먹거리였다.

《응, 너희들은 황국신민이 아닌가?》

들창코 일본십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것이다. 모두 아무런 대답도 없으니 성이 나서 말하였다.

《응, 말이 해라. 시국도 모르는가? 각반 안 친 황국신민이 어디 있어, 응?》

그러자 장셋째가 성큼 나서며 대답하였다.

《미처 사지 못했사와요. 돈은 집식구들을 먹고살라고 맡겼사와요. 》

이 말을 듣자 들창코는 또 성을 버럭 내면서 지절거렸다.

《뭣이? 돈이나 각반도 안 사고 집에다 맡겼어? 나쁜 자식!》하고 장셋째의 귀쌈을 찰싹 쳤다.

《우리 대일본제국사람은 아무리 높은 량반이라도 모두 전시체제를 생각하고 각반치는거야! 알아있소까?》

모두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장셋째는 한대 얻어맞은지라 귀통을 한손으로 쓸어만지며 역시 입을 다물고있었다.

《그럼 너희들 센또보시(전투모) 왜 안 쓴 놈이 있는가 말이야?》

들창코는 또 으르댔다.

장셋째는 무심결에 모자에 손이 올라갔다. 원래 전투모를 사지도 않았으니—사실인즉 집에 맡긴 돈이 식구들 살아가기에 모자랄가보아 그대로 새로운 일터로 가는데 전투모나 하나 사려고 상점에서 머리에 맞음직한것을 써보다가 그만 안 사고 이미 있던 텁수룩한 캡을 그대로 쓰고 떠났던것이다.

《너희들 돈을 백원씩 선전(미리 치르는 돈)이나 줬는데 센또보시 하나도 안 사쓰고 그 돈은 어디다 다 쓰고말았는가? 응?》

전투모를 사쓰지 못한 인부들은 무슨 큰 죄나 지은듯 그저 머리를 숙이고 또 뒤끝이 어찌되는가 기다리고있었다.

들창코왜놈은 한참 노여움을 삭이는듯 씩씩거리면서 일어서서 퇴창문옆에 가서 바깥을 바라보다가 제자리에 와앉으며 또 고함지르듯 돼지멱따는 소리를 내질렀다.

《그럼 좋아, 너희들 모두 모자를 벗어!》하고 명령이나 하듯이 서두르고있었다. 인부들은 모자를 벗고 맨머리만 내들어보이는것이였다. 그가운데 장셋째를 비롯한 몇명은 머리는 내보이였으나 모자를 벗지 않고 손으로 머리를 가리우고있었다.

《응, 왜 어떤 사람 모자 안 벗는가?》하고 들창코가 호통질했다. 그러면서 들창코가 벌떡 일어서더니 장셋째의 모자―때가 다닥다닥 묻은 캡을 활짝 벗기였다. 머리밑이 빤빤한 중대가리가 되여야 할터인데 천만뜻밖에 텁수룩한 칼라머리가 나타났다.

《이 자식새끼, 너 황국신민 아니구나, 응?》하고 성이 바짝 나서 《우리 대동아성전을 하는데 너 지금도 서양식으로 칼라머리 하고 응, 이 망할놈의 새끼…》하고 또 벌떡 일어서더니 장셋째의 칼라머리를 덥석 쥐여 나꿔챘다. 장셋째의 머리카락이 한줌 뽑혀져나왔다.

《저 량반나리님, 제 머리 좀 보시오. 숭허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좀 자래운것이지 무슨 시국에 반대해서 그럴리 있겠습니까! 밝은 하늘이 알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왼쪽귀우의 어릴 때 불에 덴 허물자욱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것이 동정을 얻기는새려 도리여 더 심한 불벼락이 떨어졌다.

《너 조선 〈요보〉자식, 그래도 대일본제국신민이라고 일시 동인했는데 머리도 안 깎아? 우리 대일본제국을 반대하는 놈이 아니구 뭐야? 응, 말이 해라.》하고 장셋째의 머리카락을 또 쥐여뜯으려 날뛰고있었다. 들창코의 노기는 좀체로 갈앉으려 아니한다.

《네, 잘못되였습니다. 그저 머리의 허물만 생각하고 그렇게 되였습니다. 이제부터 머리깎고 썩 좋은 황국신민이 되겠습니다. 이번만

용서해주십시오.》

들창코왜놈은 용서한다는셈인지 다시 딴말이 없이 인부들의 명부를 뒤적거리다가 또 성이 발작했는지 《너 이름이 뭐냐?》하고 묻는다.

《저, 장셋째올시다. 민적에 그렇게 올랐습니다.》하고 머리숙여 공손히 아뢰였다.

《응, 셋째? 그래 일본말로 〈산사이〉라고 했구나. 산사이가 뭐야? 사부로라고 하는거 좋다. 성도 장이 안된다. 나가노라고 하든지 뭐, 일본식으로 고쳐야 한다. 그래야 황국신민이 되는거다. 알아있소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리하겠습니다.》

《응, 이번에는 용서해준다. 늘 그렇거니 하지 말아. 알아있소까?》하고 들창코는 크게 선심써서 용서한다고 하면서 새끼손가락으로 들창코 코구멍을 한번 쑤시고나서 권연에 성냥을 그어대였다.

×

장셋째는 원래 농촌태생이고 농촌에서 막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글도 학교로는 못 다니고 동네야학에서 국문이나 겨우 뜯어보는 30 남짓한 청년이였다.

농촌에서 버티다못해 원집에서 금융조합빚으로 차압을 당할 때 집달리한테 따귀개나 얻어맞고 그 동네를 떠나게 되자 원집 세번째아들인 셋째도 함께 큰집을 따라 거리로 나와 안해와 자식형제를 데리고 먹으며 굶으며 살아왔다.

《그놈의 지게짐도 있어야 해먹지. 짐지울 손님도 다 죽어없어졌나봐!》

어느 하루는 며칠째 일을 못하고 빈 지게만 지고 돌아와 누구에게라없이 장셋째는 두덜거리였다.

《그래도 어떻게나 해야지 뭐 돈이 있수, 글을 읽었수. 지게만 지면 무슨 할일이 있을건데유. 단꺼번에 돈이 막 쏟아지는 일이야 생길라구?》

안해의 말에 장셋째는 무슨 잘못이나 저지른듯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뜻같이 되지 않는 세상, 지게짐도 차례지지 않는 세

상이 귀찮아져서 안해의 말도 역하게 들리였다.
《그럼 돈있고 글있는 선비한테 시집가구려! 잘먹구 잘살게 말이우!》
남편 장셋째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안해도 지려 하지 않는다.
《참, 말 잘해 보배우. 아이새끼들이 있으니 그렇지 새끼들만 없어도 벌써 딴데 갔지 무얼 보고 붙어있는줄 아우?》
《그럼 새끼들랑 념려말구 어느 놈팽이하구든 떠나가라구! 내 참, 시름놓겠다. 원, 누가 붙들구 놓지 않나 원!》
《그래 새낄래 붙어있지 임자가 끔찍해서 못 가는줄 아나베!》
장셋째는 없던 밸이 더욱 꼴려올랐다.
《듣기 싫다. 골백번이라두 가라구. 내 원, 식구들때메 고생하는줄은 모르구!》
《그럼 새끼들 없애치우고 갈테니 혼자 잘살아보우. 입에 신물이 나서…》
《그만두구 어서 가라구. 내 춤추겠다!》
이런 말다툼이랄가 싸움이랄가. 이런 봉변이 며칠에 한번씩은 되풀이되는것이다.
그날도 역시 일은 안생겨 출출한 배에 빈 지게만 지고 저물녘에 집으로 어슬렁어슬렁 돌아오고있는데 한고향에서 같이 자란 거리의 장사군 황주사를 만났다. 뜻밖에 반갑게 맞아주었다.
《여보게 셋째, 생활이 좀 페워가는가?》
황주사는 웃음을 띠우며 관심하는것이였다.
《뭐, 생활이구 뭐구 쌀구경 못한지 사흘째나 된다우.》
《그거 안됐군그래. 한고향사람이니 좀 살만 해야 할텐데. …》
《황상, 말하기 거북하지만 저녁쌀값이나 돌려주구려. 쌀이나 사야하지유.》
황주사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들추다가 돈가방을 꺼내쥐고 말하는것이였다.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구만. 한고향사이에 그럴수 있나? 우리 쓴술이나 한잔 하자구!》하고 스적스적 목로술집으로 향하여 걸음을 떼였다. 장셋째는 돈도 좀 변통해줄것이고 게다가 출출하기도 하여 황주사를 따라갔다. 따라가니 소주를 한되나 사고 한턱 낸다는셈으로 먹

자는것이다. 장셋째는 쓸데없는 말들, 조금도 긴치 않은 시시껄렁한 말들을 술인사값으로 두루 하는판이다. 황주사는 술을 마시는체 하지만 장셋째 혼자서 잔을 연거퍼 내였다. 속상하는김이라 요행 생긴 술을 안 먹을수가 없었다. 도수가 묽은 소주이지만 거의 한되나 마시다 싶이했으니 웬간히 취기가 들며 눈이 게슴츠레해지는것이다. 그래서 안하여도 좋은 잔소리가 꽤 나오게 되였다.

한참후에 황주사는 입을 열었다.

《셋째, 돈벌이 가지 않을려나?》

《돈벌이? 없어 못하는데 있다면 왜 안 가겠수?》

《벌이는 좋은데 좀 기차타고 가야 할데란 말이야.》

《기차타고 간다? 기차가 아니라 걸어가는데라도 좋지우.》

장셋째는 눈이 둥그래지며 돈벌이소리에 정신이 버쩍 나는듯 하였다.

《아니 셋째, 정말이야, 장난의 말을 할수야 없지!》

《글쎄 말씀 좀 해주시우. 어떻거나 가야겠수다.》

셋째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저, 탄광일이야. 선전도 백원씩 준다고 하는데. —》

《선전 백원씩? 그렇다면 탄광이구 뭐구 가릴것 있나유? 당금이라두 가지유!》

《로비도 대여주구 가게 되면 흰쌀밥에 고기반찬만 먹인대!》

《아이구, 좋아라. 흰쌀밥에 고기국? 빨리 가도록 이야기해주시우!》

장셋째는 조르다싶이 하며 이게 무슨 호박인가 하였다.

《품삯도 하루에 2원이고 선전 백원이라도 50일치니 얼마 안있으면 선전몫은 다 벗을것이고 또…》

《또 뭣이 있나유? 또 무슨 좋은 떡이 있나유?》

《또 이태만이면 집으로 보낸다구 하더구만. 또 달마다 생활비로 20원씩 집에 보내주기도 한다더구만.》

《아, 인제는 살게 되였수다. 꼭 믿겠수다. 내 이름을 꼭 적어주시우!》

황주사는 자기 친구의 소개로 일본사람이 인부모집을 왔는데 탄광은 만주에 있는 G탄광이고 가기만 하면 대우가 어찌어찌 좋다고 장황히 이야기하고 자기가 말하면 선전 백원은 래일이라도 탈수 있다는

것, 그 돈으로 집식솔들의 생활비로 쌀이나 사면 그뒤로도 달마다 20원씩 꼭꼭 올테니 생활도 펴이고 돈벌이도 잘될것이니 얼마나 좋으냐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는것이였다.
그래서 장셋째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기어이 실수없이 처리하라고 천만번 당부하여 말짜듯되짜듯 약속해놓았다.
그날 황주사한테서 쌀값 일원돈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자 장셋째는 그 돈 한장을 쑥 내여놓으면서 《여보 애에미, 인제는 살게 되였어. 우선 이 돈으로 쌀하고 고기도 좀 사오구려!》하고 큰소리를 쳤다. 남편의 입에서 술내가 확 나는것을 본 안해는 《사촌 기와집 지어준다더니 참 기분좋게 잡쉈구먼!》 하며 그 돈 한장을 우선 손에 받아쥐고 쌀사러 나가려 한다.
《여보 애에미, 이제 뭉치돈 백원이 들어온대. 인제는 살게 됐어!》
장셋째는 호주머니안을 두루 손을 넣어 들춰보았다.
《응, 래일 가져오기로 했지. 난 또 오늘이라구! 내라구 늘 고생하라는 법이 어디 있나, 원!》
《여보시우, 그만하면 됐어유. 인제 누우셔서 한잠 주무시우. 그동안 저녁진지 지을테니. ―》
안해는 씽 달아 밖으로 나가고말았다.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아니야, 잘못 불렀어. 고기먹고 탕마시고 첩의 팔 베고 누웠으니 이만하면 대장부의 살림살이… 에 졸린다, 졸려!》
장셋째는 마침내 잠들어 코를 곤다.
이튿날 장셋째는 황주사를 통해 일본놈십장 들창코를 만나보고 정식으로 탄광인부가 되여 G탄광에 가기로 약속하고 선전 백원을 탔다.
셋째는 그 돈을 가지고 집에 와서 안해한테 탁 내여놓으면서 큰소리를 치는것이였다.
《여보, 내 언제 거짓말하던가? 이게 일원짜리 백장묶음이란 말이우!》
안해는 그 돈을 받아 세여보고나서 《백장은 옳소. 이게 어떻게 된 돈이우?》하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묻는것이였다.
《그게 선전이라우!》하고 말꼭지를 떼고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덧붙이여 말하였다.

《그러니 이태만 눈 딱 감고 혼자 고생하란 말이우. 그전에도 달마다 20원씩은 꼭꼭 부쳐줄테니 그리 알고 돈을랑 아껴쓰란 말이우. 헤피쓰지 말구, 이만하면 알겠수?》

《단돈 백원에 몸이 팔려…그 먼데로 간단 말이세요?》

안해는 그 말을 듣고 인차 옷고름을 눈으로 가져갔다. 장셋째는 안해를 달래여 세상 좋은 말은 다 늘어놓으면서 구슬려놓는다. 때로는 달래다가 안되면 위협도 한절반 섞인 말로 되뇌이였다.

《여보, 다른 사람이면 나도 안 믿소만 황주사어른이 술까지 사주며 하는 말이 아니우? 그 일본사람도 마음씨어진 사람같애!》

《흥, 믿기는 잘 믿었수. 황주사란분이 어떤분인가유, 우리가 잘 못살아 배아파난다우? 그 일본놈도 그렇지. 조선사람을 잘살라고 그리는줄 아시우? 선전을 주는게 다 뜻이 있어서 먼저 돈을 주는게라우! 그 선전을랑 당금 가서 물리고 오시우. 굶어도 난 좋아요. 그 선전도 뭣도 난 다치지도 않겠수!》

안해는 끝내 고집을 세우며 남편을 못 간다고 뻗대였다. 그러나 안해는 마침내 안해인지라 이 집식솔들의 목숨은 아마도 호주인 셋째가 쥐고있는판인지라 셋째의 말이 억지로라도 서게 되지 않을수 없었다.

장셋째는 백원돈을 한잎도 헛되이 쓰지 않고 꼭 필요한 생활비에만 쓰기로 하고 돈을 더러는 신용있다고 보이는 집에 세워두기로 하였다.

그 며칠후 장셋째는 이태동안이나 벌어주던 지게를 팽개치고 북행차에 몸을 실었다. 북행하는 객차로서가 아니라 짐차에 그곳에서 떠나는 인부 여럿이 들창코십장의 인솔하에 떠났던것이다.

×

기차는 앞으로 내달리기만 한다.

어느덧 두만강가의 이쪽역에 도착했다.

두만강 저쪽역에서보다 더 오래 정거하게 되였다. 인제는 고국을 리별하고 제법 만주땅으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서운한 느낌이 절로 났다.

집차칸의 나들문을 열어제끼고 모두 시원한 바람을 쏘이고있었다. 그러나 산책하는것이 아니라 의연히 짐칸에 갇히여있으면서 경찰복을 입은 경찰들이 짐칸문아래에 몇씩 모여서서 인부들을 감시하고있다. 인부들이 두만강 이쪽이 저쪽보다 어떻게 강산과 풍토가 다른가 보려고 내려보려고 해도 함부로 드나들거나 더우기 내려서 바람쏘이게는 도무지 엄두도 못 내도록 경계가 삼엄하다.

그때 마침 해여진 옷에 이불짐을 꾸려 멘 한족(중국사람—편자주)로동자 한패가 역시 사오십명이 대렬을 지어 정거장구내로 들어오고 있었다.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어느 공사장에라도 팔려가는가보구나!》하고 장셋째는 그 사람들쪽을 멍히 바라보고있었다. 그런데 아니나다를가 그중 앞에서 서너번째 끼여 걷던 한 로동자가 《이 자식, 짐은 똑바로 안 메고 무슨 딴눈질이야!》하고 역시 일본십장인듯 한 땅딸보의 발길에 걷어채우는것이였다. 그들도 장셋째네가 탄 짐차의 뒤로 몇차량 건너가 역시 짐차에 오르고있었다.

경계가 갑자기 삼엄해지는것을 보고 장셋째는 두려운 생각이 더럭 났다.—처음 짐차에 오를 때부터도 이상하다싶기는 했다. 우선 평시에 보통의 객차에 타던 때와는 전혀 판이한 기분이 났다. 왜 객차에 안 태우고 짐차에 태울가고.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보다고 생각했는데 또 각반이다, 전투모다, 머리다 하고 트집을 잡아 차안에서도 으르대고 심지어 자기는 귀통까지 얻어맞지 않았는가. 그런 봉변당한 일들과 갑자기 경계가 삼엄해지는 일련의 일들을 곰곰히 따져보지 않을수 없었다.

《아, 잘못 걸렸구나. 황주사를 잘못 믿었구나. 나를 넘겨주고 그놈이 구전(옛날 돈)을 받아먹었을테지, 음!》

이런 생각이 들자 장셋째는 갑작스레 무슨 도리나 깨달은듯 돈벌이길로 가는것이 아니라 무슨 멸망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져가는상 싶었다.

장셋째는 어쩐지 서운하고 야릇한 생각에 잠겨있는데 짐칸밑에서 《이 자식, 가 벌기는 싫고 무슨 이 지랄이야!》하고 버럭 성을 내는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정거장구내로 뚫고 들어왔는지 열서너살 되는 거지가 적선하라고 경찰한테 청들다가 귀통맞고 쫓겨가

는것이 보이였다.

그런가하면 정거장출구옆에서 60이 넘어보이는 늙은 거지가 역시 한푼만 적선하라고 사람에게마다 절을 하면서 구걸하는것이 보이였다. 제자신이 빈 지게만 지고 다니던 거기도 거지는 있는것이지만 여기 와서 보는 그 거지는 더욱 불쌍해보이였다.

장셋째는 《잘못 왔구나!》하는 생각이 더욱더 굳어져 어떻게든 도망칠수는 없을가? 하는 생각이 났다. 원체 남의 돈을 쓰고 물지 않거나 도망치는것은 법에 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어왔으나 지금 이 지경이 되고보니 마음에 그 굳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였다.

도망치고싶다는것은 마음뿐 쇠문이 잠겨져있는 짐칸에서는 안되는 일이였다.

마침내 G구역에 도착하였다.

탄광의 경무계사람들이 제법 경찰들옷처럼 차려입고 주런이 나와 맞이하였다. 일본인십장인 들창코 하고는 반갑다고 인사하며 지껄이지만 들창코가 데리고온 마흔몇이 되는 인부들은 한번 번호를 부르고나서 경무계원들에게 죄인처럼 호송되여 탄광사무실인듯 한 3층집에 들어갔다. 장셋째는 탄광이 처음이기도 하거니와 건물도 나다니는 탄부들도 살펴보노라고 헛눈 팔다가 경무원의 발길에 채웠다. 어찌 채웠던지 다리가 곱질린듯 다리를 절뚝거리며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경무원에게 귀쌈을 둬개 얻어붙이우고야 정신을 차린듯 달려갔다.

《참, 대우가 좋다더니 이런가?》 하고 장셋째는 속으로 뇌여보았다.

탄광로무계사람이 인부들의 명부를 한사람씩 맞춰보고는 번호와 성명까지 쓴 이름패를 가슴에 하나씩 달게 한다. 좀 있다가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게 되였다. 로무계사람이 우선 연설을 한다.

《풀뿌리와 나무껍질도 없어 못 먹던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 밥과 국과 반찬을 배불리 먹도록 탄광에서 선심을 쓰는것이니 그리 알고 일을 잘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도록 각별히 명심하라. …》

이윽고 식탁우에 점심을 갖다놓는다. 그것을 보니 흰쌀밥이라던것이 희기는 고사하고 불그스레한 수수밥이고 고기국이라던것이 소금물에 무우를 썰어넣은것이였다. 너무도 음식이 스산하고 또 첫날이여서 몇술 뜨다마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자 방금 연설하던 그 사람이 뻔히

바라보다가 또 연설을 하는것이였다.

《…왜 좋은 밥과 국도 안 먹는가? 두고봐라, 잡수라고 할 때는 안 먹다가 채우지 말라고 할 때는 먹겠다고 안하나! 너희들 아직은 배에 기름이 꼈구나.》

장셋째는 한숨을 후 내쉬였다.

《아, 속아 왔구나! 정말 속아 왔구나. 도망칠 방법은 없는가?》

그 이튿날부터 장셋째는 탄굴로 구루마를 밀고 들어갔다. 감독이란 놈은 더욱 혹독한 놈이였다. 빨리빨리 하라고 독촉이 자심하여 별명도 《빨리빨리》라고 하는 놈이다. 장셋째는 원체 노라리부릴줄 모르고 이때까지 살아온 사람이기에 힘껏 일했다. 남의 갑절이나 하는 성미였다.

한번은 석탄을 퍼서 구루마에 싣고있는데 감독이 불쑥 와서 《너 이걸 실어내다 가만히 던지라구. 구루마밑에 실으라구. 알았는가?》하며 파놓은 석탄속에 있는 거적을 가리킨다. 장셋째는 거적을 훌쩍 들었다. 그속에는 곧장 떨어지는 석탄덩이에 치워 죽은 어떤 젊은 사람의 시체가 놓여있었다.

《자식이 조심 안하다가 죽었어. 썩으면 냄새가 나 어찌나. 내여다 던지는게 상수야. 저 동쪽골짜기 구멍이속에 던지라구. 뭐 누구하구 말은 말란 말이야.》

어느 명령이니 어길수 있겠는가? 장셋째는 그저 하라는대로 할수밖에 없었다.

《그 젊은이의 운명만은 아니야. 누구든지 당할수 있는…》

장셋째는 그날 밤 거의 한잠도 못 자고 생각에 모대기였다. 그자신이 그 구렁텅이에 버림을 당하는 환상이 자꾸 떠올랐다. 그런가하면 고향에 있는 안해와 아이들 생각도 났다.

《도망칠수는 없을가?》 그 길만이 살길인듯싶었다.

그럭저럭 한달이 되여 하루는 약속한대로 한달이 되였으니 20원을 부쳐달라고 주소까지 적어가지고 갔다.

《이 자식 미쳤나, 돈은 무슨 돈? 네 선전 쓴것 다 벗자면 올 일년에도 잘 안된다. 숫구멍에 뜸이나 뜰 자식!》

탄광십장놈은 더 말을 붙이게도 못한다.

《도망치는 방법은 정말 없는가?》

장셋째는 몇십번이나 되뇌이던 생각을 또 다시다시 하여보는것이였다.

이불이고 옷견지고 다 싫다. 소지품은 원래 없으니 담배쌈지만 가지면 된다. 어떻게든 알몸만 빠져나가면 된다.

그날 밤 새로 2시, 밤대거리는 일하고있으나 낮대거리는 없으니 비교적 조용하다. 장셋째는 한달나마 벼르던 일을 하고야말았다. 산길을 타 몇정거장 가서 차를 타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범의 굴을 빠져나왔다.

1941년 교하에서.

갈 매 기

김 소 엽

우르릉, 덜컹, 덜컹.

흡사 제분소 기계소리같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경편차는 Y강 철교를 접어든다.

《야! 철교 봐라. 아유, 저 배 봐!》

소학교 4년급 다니는 큰놈이 반쯤 열린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고 신이 나서 떠들어댄다.

《배에 사람들이 꽉 탔네.》

《령감님두 있구 색시두 있구.》

《조놈 봐라. 우릴 보구 주먹질한다. 응, 죽갔지?》

성칠이가 먼저 창밖으로 주먹을 내흔들자 엄마곁에 있던 작은놈마저 덩달아 팔뚝을 흔든다.

《얘들아! 아서라, 위험하다.》곁에 있는 안해가 눈을 흘겨 큰놈을 꾸짖는다.

기호도 무심코 물우로 시선을 던졌다. 강심에 나막신처럼 떠있는 일엽편주. 그 조고만 배에 사람들이 남녀로소 빽 끼여있는것을 보면 나루배인게 분명하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뜻하지 않게 《여보! 저 물 좀 내려다보우.》하고 옆에 있는 안해를 재촉했다. 아무리 아름다움이 뭔지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라도 지금 저 물을 내려다보고는 응당 놀래지 않을수 없으리라.

황혼의 저녁하늘을 물들인 붉은 노을이 그대로 물속에 거꾸로 비쳐 물속이 온통 불바다를 이룬듯 붉게붉게 타고있었다. 뛰여들면 당장 죽을듯싶다.

《야! 곱다!》

큰놈이 어느덧 나루배보다는 그밑에 깔린 저녁노을에 흥미를 느낀듯 소릴 지른다.

《엄마! 참 곱지?》
《곱다. …》
어느덧 기차는 철교를 벗어나 산비탈을 끼고 돈다.
그러자 갑자기 시원한 바다바람이 창틈으로 기여들어 안해와 어린놈의 머리털을 날린다. 왼쪽은 험한 바위들로 위태로운 석벽을 이뤄 마치 굴속이라도 지나가듯 답답한 시간이 얼마동안 계속되였으나 그들이 앉은 오른쪽은 앞이 확 티여 넓으나넓은 S벌판이 상쾌하리만치 펼쳐있다.
거기다 눈을 좀더 멀리 보내면 까마득하게 바라보이는 지평선 저쪽에 어두워가는 황해의 저녁풍경이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바다인지 분간도 못하리만큼 꿈속같이 신비롭게 감추어있었다. 가까운 산너머로 잠기려는 마지막해가 그를 둘러싼 련봉의 이마를 불태우고 다시 갓 핀 모란꽃같은 진한 색채의 날개를 쭉 펼쳐가다가 바루 저 황해의 동북쪽에 뭉쳐있는 한장의 큰 검은구름에 꿰질려 돌연 붉은빛은 사라지고 게서부턴 진한 자회색의 장막이 황해일대의 삭막한 공간을 덮고있었다. 그런가하면 뭉청 건너뛰여 아까 그 검은구름과는 얼토당토않은 먼하늘 한구석이 동터오는 하늘같이 연붉게 타고있다. 그 옆은 붉은 색채와 진한 자회색이 교묘히 교차된 부분은 또다시 야릇한 색조의 층을 보이며 그 한끝이 각일각 어두운 황해의 검푸른 입술을 향하여 접근해가고있었다.
그것은 진배없이 한개의 꿈속세상이였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신비롭고 어렴풋하게만 생각되여 어느덧 그의 혼은 주위의 모든것을 잊고 그 아득한 검푸른 물결에 잠겨있었다.
《차표 끊어요.》
문득 안해의 목소리에 놀래 고개를 쳐드니 팔에 붉은 헝겊을 감은 차장의 너부데데한 얼굴이 등받이너머에 있었다.
차는 이따금 히스테리같은 짧은 기적을 울리며 나지막한 산과 들을 온몸을 까불며 경망스레 달음질친다.
기호는 어느덧 맞은켠으로 자리를 고쳐앉은 안해와 그옆에서 즐거이 캬라멜을 씹으며 창밖풍경을 바라보고있는 두 어린것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큰놈은 좀 넙적한 이마라든지 어글어글한 눈이며 다소 아

래로 처진 귀까지 제 어밀 닮아보이나 작은놈은 어디로 보나 되바라진게 아빌 많이 닮았다.

안해는 지금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지 그의 어깨만을 얼빠진 사람처럼 멀거니 바라보고있다. 뭘 생각할가?

그러나 쉽사리 기호는 안해가 골똘히 생각하고있는것이 뭣인가를 추측할수 있었다. 옥경일게다.

옥경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큰놈과 작은놈 사이에 난 딸이였다. 8년전 그가 황해도 U읍 고보에 있을 때 그곳에서 겨울에 난 딸이다.

그날은 솜뭉치같은 함박눈이 펑펑 내렸다. 옥경은 계집애답게 매우 사랑스럽고 재롱스러웠다. 원체 아들딸을 가릴줄 모르는 그는 아들만을 유독 더 두둔하려는 안해와는 반대로 아니, 그런 안해가 은근히 밉살스러워서라도 이 옥경이를 더 귀여워해왔다.

사실 무뚝뚝한 큰놈보다는 더 귀엽기도 했다. 옥경은 어린이치고는 퍽 령리하고 똑똑해 3살되던 가을엔 웬만한 그림책쯤은 펴들고 모자니, 아이니, 말이니, 강아지니 하고 용케도 알아냈다.

그러더니 그해 겨울에 급성페염으로 죽어버렸다. 그날도 이상하게 눈이 퍽 내렸다. 벌써 6년전 일이다. 안해는 필시 지금 그 계집앨 생각하는 모양이였다.

기호는 구태여 안해의 자유로운 마음을 방해하기도 싫어 그대로 모르는체 눈을 피하고있노라니 《아빠, 아직두 머우?》하고 작은놈이 불쑥 이런것을 묻는다.

《왜 지루하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럼 몇정거장 남았수?》

《이제 한정거장만 더 가면 된다.》

《에게? 아빠 더 타구가?》

《…》

기호는 잠자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안해는 어느덧 다시 즐거운 낯으로 작은놈이 묻는대로 저건 연자매, 저건 우물, 저건 잣나무 하고 가르쳐주며 전에없이 명랑해졌다.

그러자 그는 문득 저편 앞줄에 앉아있는 한쌍의 젊은 남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탄 다음정거장에서 오른듯싶은 그들은 첨부터 어디로 보나 신

혼려행을 나선 한쌍의 젊은 부부임에 틀림없었다. 계집은 펴들은 부인잡지너머로 가끔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무슨 말인지 한두마디 속삭이고는 해죽해죽 웃는다.

그럴 때마다 남자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함께 웃는 모양이였다.

5월! 황혼의 록음속을 달리는 맛이란 비할데없이 상쾌한것일지도 모른다. 여름처럼 칙칙하지 않고 그렇다고 가을처럼 쓸쓸하지도 않은 첫여름은 더욱 신혼려행에 알맞으리라.

허긴 그도 이렇게 모처럼 떠난 길을 털끝만치라도 우울하게는 지내고싶지 않았다. 우울한것이 되려면 애초에 떠났을리가 만무하다. 유쾌하자, 될수록 유쾌해보자. 어떻게든지 즐겁게만 보내자. 사실 그가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보긴 이번이 처음인것이다. 아이뿐아니라 안해와 함께 기차를 타보기도 결혼후 10여년만에 이번이 처음인것이다.

결혼 당시는 도리여 현재보다 어디로나 여유가 있었다고 볼수 있으나 그렇다고 완고한 부모들이 젊은것들의 신혼려행같은걸 승낙해주실리 없었고 설혹 승인했더래도 그는 그런것을 그리 탐탁히 생각지도 않았을게다.

그런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저 그쯤이였다. 그랬던것이 차차 해가 가고 나이가 들고보니 마음 한구석에 은근히 서운한 생각이 일어났다.

우선 생활의 여유도 여유려니와 그런 한가로운짓은 어느덧 꿈조차 꾸어볼수 없으리만치 그들과는 아주 먼데 이야기가 돼버렸다. 그랬던 길을 참 오래간만에 그것도 야릇한 고비에 떠나게 된것이다.

창으로 기여드는 서늘한 바람이 향긋한 풀향기를 풍기며 안해의 앞머리카락을 보르르 날려댄다. 애들도 잠잠하다. 조화된 그림처럼 차속은 아늑하다.

이렇게 앉아보니 아닌게아니라 신혼려행을 나선 부부의 행복감을 못느껴보는것도 아니다.

안해도 모처럼 떠나는 길을 즐거이 하자고 별렀겠지. …

전에없이 깨끗이 차린 옷매무시나 짙은 화장의 탓일게다. 얼른 보면 5～6년은 젊어보여 아일 셋이나 낳은 어미로는 생각지도 않을만치 제법 애되여보인다. 저걸 누가 그 진일, 마른일에 잠시도 몸을 추

어낼 틈이 없던 부엌데기안해로 생각하려들랴? 차리고 나서니 훤칠하다.

기호는 어느덧 아이들의 존재같은건 깨끗이 잊고 단둘이만이 신혼려행이라도 하는것 같은 오붓한 기분에 잠겨 안해의 옆얼굴을 첨 보기나 하는듯이 물끄러미 들여다보고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안해의 얼굴에서 시선을 돌려버렸다. 집에 들어서기 전에는 꿈에두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려던 앞날! 피뜩 앞날에 대한 어두운 불안이 조수같이 밀려오며 명랑한 안해의 얼굴이 비할데없이 측은해보였던것이다.

(이 려행에서 돌아와선?)

그러나 이때 갑자기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에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덧 기차길과 나란히 뻗은 신작로에 한대의 트럭이 먼지를 풍기며 마치 이 경편차와 경주라도 하려는듯이 속력을 주어 내닫고있었다.

일의 시초란 흔히 아침에 생겨지는지도 알수 없다. …

그날 아침 기호가 교원실에 들어갔을 때엔 아직 몇사람의 동료도 나오기 전이였다. 교원실안은 어제 그대로 구저분한채 소제와 정돈이 되여있지 않았다.

립춘도 지나 그다지 추운 날은 아니다. 기호는 난로의 불을 잠간 쪼이고 섰다가 책상앞으로 갔다. 주섬주섬 책상을 정리하다가 카네이숀이 꽂혀있는 꽃병을 들여다보고 물을 좀 떠오려고 할즈음에 교무주임 박두일이 가방을 끼고 들어오는게 보였다.

기호는 주전자를 기울여 꽃병에 물을 부었다.

《저런! 좀 똑똑히 보구려.》

등뒤에서 일어나는 박의 퉁명스런 소리에 소스라치듯 따르던 주전자를 쳐들었을 때엔 물은 이미 꽃병을 넘어 책상우에 랑자히 떨어지고있었다. 이때에야 기호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그건 자기 책상이 아니라 박의 책상이였다. 박과는 책꽂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책상을 맞대고 앉았던것이다.

《안됐습니다. …》

《원, 겨울에 꽃은 무슨…》

무안해 돌아선 기호는 귀결에 또 한번 이런 소리를 듣고 배속에서 무엇이 불끈 치밀어오르는것을 억제할수 없었다.

방금 박의 입에서 나오다만 그 짧은 말이 그런대로 얼마나 지독히 자기를 모욕하는 언사인가를 느낄수 있었던 기호는 어느새 달려와 책상을 훔치고있는 소사의 손에서 걸레를 잡아채듯 뺏아서는 《참 안됐습니다.》하고 같은 소릴 두번이나 되뇌이며 손수 박의 책상을 훔쳐주고있었다.

그러나 박은 박대로 기호의 이런 태도가 한층 거슬리게 뵐밖에 없는 모양이다.

《거 너무하시지 않소?》

《뭐가요?》

기호는 이때에야 비로소 박의 해쓱하게 질린 얼굴을 똑바루 맞쳐다보았다.

《흘린 물을 훔친게 왜 안됐습니까?》

《…》

《미안합니다. 겨울에 꽃을 꽂아서…》

그는 이 한마디로 좀더 커지려는 말을 삼켜버리고 묵묵히 자기 테블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꽃병에서 카네이숀을 뽑아내자 휴지처럼 꽁져서 석탄그릇에 팽개치고 밖으로 나와버렸다.

기호는 남달리 꽃을 사랑해서 언제나(심지어 겨울에도) 그의 꽃병엔 꽃이 떠나본 때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토록 불쾌한것은 단순히 자기의 취미나 인격만을 모욕당한데서 온것이 아니다. 하긴 그런 사소한데서도 쉽사리 충돌의 꼬투리를 잡힐수 있었을만치 둘의 사이는 이미전부터 은연중 악화된 상태에 놓여있었던것이다.

이 M중학교 교원가운데서도 박교무주임을 필두로 하여 오, 최, 김 세 선생의 소위 관학파와 장기호외 몇사람의 그 반대파가 은근히 서로 대립해온지도 오래이나 이런 불미한 공기가 한층 로골적으로 떠돌기는 지난봄 교우회잡지문제로 한바탕 풍파가 있은 다음부터였다.

바로 그날 오후였다. 방과후에 림시직원회가 있다 해서 교원들은 회의실로 쓰이여지는 교장실에 모이게 되였다.

정례회는 언제나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었다. 기호가 이 M중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생겨진 직원회는 늘 이렇게 한주일에 두

번씩 정해놓고 열렸다. 그러나 간혹 긴급한 일이 생긴 때같은 경우는 정해놓은 날자를 무시해버리고 림시로 열리는 때가 없지도 않았다.

모두들 오늘은 또 무슨 문제가 나올가 하는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교장실 가운데 놓인 난로를 멀리 타원형으로 둘러끼고앉았다.

자리가 정돈되자 얼굴이 숫돌같이 빤빤하게 생긴 교무주임 박두일이 금테안경너머로 실내를 한번 쑥 훑어본 다음 말문을 뗐다.

《오늘 이렇게 림시직원회를 열게 된건 다름아니라…》

례의 이런 허두를 꺼내고나서 계속했다.

《오늘 또 우리 학교에 한가지 재미 좋지 못한 사건이 생겨… 그 당자인 4학년 을조 조병호에 대한 처벌방침을 여러분과 의론하려는 겝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의 격이 없는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느때와는 달리 곧 본론을 끄집어냈다.

이날에 우선 교무주임과는 가장 먼 거리에 앉아있던 기호가 누구보다도 가벼운 놀람과 함께 얼굴이 약간 상기되는것을 느꼈다.

기호는 그것이 방금전 이리로 들어올 때부터 속으로 짚이던 예감이던것을 생각해내자 오늘따라 그 문제가 이처럼 속히 뛰여나오게 된것도 모두 자기와는 무슨 피할수 없는 운명같이만 느껴져 어느덧 등골로 흘러내리는 차디찬 오한조차 깨닫는것이다.

(조병호…)

그러나 그는 기호가 맡은 담임반의 학생은 아니였다. 관계가 있다면 영어선생인 기호는 다른 애들과 함께 그에게도 일주일에 너덧시간씩 영어를 가르쳐왔을뿐이다. 그에게 병호는 M중학교 4백명 가까운 학생가운데 한 학생일따름이였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기호는 열다섯명이나 되는 선생가운데 한 선생일따름이였다. 오직 그뿐이였다.

구태여 다른 점을 찾는다면 여기 앉아있는 어느 선생들보다 평소에 병호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왔다 할가. …

그는 어느덧 그 애의 모든 행동속에서 너무나 비스듬한 중학시절의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마치 어린 동생에게나 가질수 있는 그런 친밀감조차 느껴왔었다. 조군은 교내에서도 가장 말썽을 많이 일으켜온 학

생으로 선생의 눈총을 잘 받아 지금까지도 직원회때에 몇번 문제가 되였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늘 기호는 마치 데리고 들어온 자식이나 같이 조군을 변호하고 덮어주기에 혼자 애써왔었다.

기호는 이상한 긴장에 싸여 타오르는 난로의 불꽃에 시선을 준채 그의 담임 최선생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조병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그 상세한 보고가 끝나자 박두일은 《예, 지금 최선생 말씀과 같이 조군은 첫째, 결석한 날자가 출석일수보다 많을뿐아니라 또 교내에서의 품행도 늘 좋지 못해 교원 여러분을 괴롭혀왔든게 사실입니다. 예.… 물론 이런 조군의 행동은 다른 학생들에게 이미 좋지 못한 영향을 주어온게 사실이고 더욱 이번 겨울사건으로 말하면 신성해야 할 학원의 풍기를 크게 문란시킨 행동으로써…》

박두일은 여기서 잠간 말을 끊고 눈을 감았다가 운동장에서 《쿵ㅡ》하고 떠올라간 풋뽈소리가 다시 《쿵ㅡ》하고 들려오길 기다려 감았던 눈을 다시 뜨며 《거듭 말할 필요도 없으나… 에… 우리는 조군을 단연 출학시켜 금후 다시 이런 불상사가 다른 학생에게 생기지 않도록 징계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대해 여러분가운데 혹 이의라도 있다면?…》하고는 십여명교원을 쭉 훑어내려가다가 저끝에 고개를 떨어뜨리고있는 기호를 보자 문득 아침사건이 생각난듯이 약간 눈살을 찌프린다. 그러나 기호가 지금 생각하고있는것은 아까 점심시간의 일이였다.

변소에서 돌아오다말고 운동장 저쪽 철봉대밑에 학생들이 빙 모여선것을 보고 누가 싸움이라도 하는가싶어 거기로 발길을 옮겼다.

기호가 오는것을 보고 학생들은 하나둘 뿔뿔이 흩어져버리고 철봉대밑에 하나는 샤쯔가 찢기운채, 다른 하나는 이발에서 피를 흘리는채 서있는것을 발견했다.

같은 4학년 을조 아이들 조병호와 손철학이다.

(웬일일가?)

기호는 먼저 조병호가 그처럼 싸웠다는데 호기심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문학을 좋아하고 결석 잘하고 선생에게 되알진 소리 잘하는 그, 그러나 동무와는 그리 다투지 않던 그, 그런 병호가 오늘따라 그

체소한 몸으로 샤쯔를 찢기우면서까지 남과 다퉜다는 사실은 기호로도 도무지 알수 없는 일이였다.

《왜 다퉈? 못난것들…》

그러나 기호는 얼굴에 미소를 띠우며 한쪽에 떨어진 알이 깨진 안경(철학의것인듯싶었다.)을 집어올려 들여다보며 《글쎄 무슨짓들이야? 골통 크단것들이…》하며 짐짓 엄하게 물었다.

《…》

《다툴만 한 리유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괜히야 그렇게 피까지 흘리구 싸울것까진 없지 않어. 스포츠두 아니겠구…》

《…》

기호는 둘을 자기앞으로 불렀다.

그들이 싸운 리유를 알아냈을 때 기호는 철학의 그 사내답지 못한 행동에 끝없는 분개까지 느꼈으나 누굴 칭찬하거나 꾸짖는 법도 없이 그대로 교원실로 들어왔던것이다.

기호는 그 일의 귀결이 궁금한 한편 초조해지는 자기의 마음을 느끼게 될수만 있다면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눌러버리고싶은 충동을 걷잡을수 없었다. 그러나 문제가 벌써 이쯤되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는걸 깨달았던것이다.

첫째, 조군의 담임인 최선생과는 감정을 소통하는 사이가 못되는게 병호를 위해 슬프다면 슬픈 일이였다.

그는 오직 마음속으로 기회가 이르면 병호를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는 강경한 결심을 하고있었다. 그랬던것이 이처럼 속히 문제가 벌어질줄은 참말 의외였다.

《그럼 조군을 출학시킨다는데 이의가 없는가요?》

두일의 금테안경이 또한번 번쩍 빛난 순간이였다.

《아닙니다. 그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안경을 쓴 약간 창백한 얼굴이 입을 열었다.

기호였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좀더 신중한 태도로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잖을가요?》

《신중한 태도라뇨?》

두일은 갑자기 목덜미라도 잡힌것같은 불쾌한 생각에 기호를 마주

쏘아본다.

《그것은 이번 일이 박선생의 말씀과 같이 학교로나 조군 자신에게나 결코 조고만 문제가 아니라고 볼수 있는때문입니다. 물론 조군의 평소의 행동 이를테면 결석일수가 많다든가, 선생의 말씀에 잘 복종치 않는다든가, 성적이 좋지 못하다든가 이런 모든 점은 저 역시 퍽 유감스럽게 생각해오는바이며 더구나 이번 일로 말하면 학교로서도 그냥 간과할수 없는만치 어떤 형식으로든 징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저 역시 교육자의 립장으로 조군의 모든 행동을 결코 옹호하거나 두둔하려는건 아닙니다. 조군 같은 유위한 학생의 전도를 아주 끊어버릴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위하다뇨?》

박의 응결된 표정이 자칫하면 불을 뱉을것 같다. 그 말 한마디가 박의 귀엔 너무도 거슬리게 들렸던 모양이였다.

다른 교원들은 좀더 긴장한 눈으로 맞붙은 두 교원의 파리한 얼굴을 바라본다. 그러나 기호는 박의 질문을 귀등으로도 들은체만체 하던 이야기를 잇댄다.

《한 학생을 출학시킨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교원들의 특권(이 말을 기호는 좀더 힘을 들여 발음했다.)에 속합니다.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온 후로도 그렇게 희생된 학생을 한둘만 보아온게 아닙니다. 작년 1학기에 쫓겨나간 3학년학생이 그렇고 요전번에 나간 5학년학생이 또한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그때마다 그런 학교태도에 반대의 뜻을 표명해왔습니다만…》

이때 박은 더 듣고 앉았을수가 없다는듯이 벌떡 일어나며 《좀더 근본문제를 말해주시오. 오늘은 조군문제입니다. …》이렇게 기호의 말을 가로막으려 한다.

그러나 그는 한층 어세를 돋구었다.

《물론 조군의 일을 말하는 자리니까 이런 말도 하게 되는겁니다. 요컨대 이번 사건만 하드래도 한 학생이 장난삼아 남의 학교 교실창문을 손거울로 비쳐봤다는게(M중학과 T고녀와는 불과 200m밖에 상거되여있지 않다.) 뭐 그리 중대한 사건입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여

저쪽에서 시비라도 걸어왔다면 모르지만 애들끼리 잠시 장난으로 한 짓을 출학까진 심하지 않을가요? 아까 박선생은 학교의 풍기를 문란시킨다 하셨지만 이만한 일로 풍기문란이란 좀 도에 지나친 말씀같습니다. …》

《그럼 장선생은 그런걸 장려라도 하시죠?》

박의 입술은 빈정대듯 약간 모로 일그러진다.

《아니지요. 도에 지나친다는 말과 장려란 말은 전혀 그 뜻이 다르지요.》

《그럼 아까 유위한 학생이란건 무슨 뜻인가요?》

박은 꼬투리만 생기면 어떻게 하든 기호를 막힌 골목으로 몰아넣으려는 눈치였다.

그러나 기호는 그렇게도 조급히 추궁해오는 박의 태도가 좀더 불쾌스러워 쏘아붙였다.

《그런건 저의 말을 다 들으시면 알게 될테죠.》

일부러 이렇게 말하고 하던 말을 계속했다.

《요컨대 출학 말고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겁니다. 가령 근신이라든가 잘못한걸 징계하고 회개시키는건 옳으나 전정을 아주 꺾어버린다는건 결코 교육자의 취할 태도가 아닐겝니다.

저는 감히 여러 선생께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명의 말썽많은 학생을 쫓아낼 때 시원하다고 느껴본적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학생이 한번 교문밖에 나간 후에 어찌 됐다는걸 생각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흥분된 그의 말은 어느덧 연설조로 변해 좁은 실내를 찌릉찌릉 울린다.

《저는 일전 거리에서 우연히 S란 학생을 만나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작년봄 3학년 병조에서 쫓겨나간 학생 말입니다. 얼굴은 병든 사람같이 여위여 창백한데 머리는 되는대로 길게 자라 흡사히 그 몰골은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실성한 청년으로밖에 보이지 않었습니다. 마침 좀 시간이 있던 때라 저는 그 학생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자세한 얘길 들어보았지요.

그는 학교에서 쫓겨나온게 원인이 되여 몇번이나 부모와 충돌이 일어난 끝에 마침내 집에서까지 쫓겨나와 거리의 부랑자로 떠돌아다니

는 사이 남이 꺼리는짓을 두번이나 저지르고 천정높은 집까지 구경했다 합니다. 저는 S군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할지 알수 없어 쓸쓸히 헤졌던것입니다.》

《…》

《이건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S군을 만났던 그때부터 그의 초라한 몰골은 늘 저의 머리에 붙어서 떠나지 않았던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장선생은 어떤 경우이든 학생을 내보내면 안된단 말씀이지요?》

감독계 오선생의 말이다. 그는 첨부터 기호의 말이 아니꼽다는듯이 내내 박교무주임의 눈치만 살피다가 여기서 가로막고 나섰다.

《될수록 그래야 할게지요.》

《그럼 그것은 나쁜 학생들만 생각해 다른 좋은 학생을 모두 그르쳐놓아도 좋다는 말씀인가요?》

《그르쳐놓다뇨? 천만에요! 처벌을 하지 말자거나 나쁜짓을 은폐해두자는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더러운 변소담벽에 선생의 만화를 그려놓고 그밑에 성명까지 써논 학생을 처벌한게 잘못이란 말인가요?》

《처벌도 정도지요. 그만한 사소한 일로 한사람의 장래를 꺾어버렸다는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지요. 말하자면 그를 그렇게 만든것도 결국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볼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호의 얼굴엔 어느덧 아까와 같은 해쓱한 감정의 경련이 사라지고 어디까지나 옳은 길을 걸으려는 꿋꿋한 의지의 힘이 내솟아있었다.

《생각컨대 엄격한 교풍이 반드시 그 학교를 훌륭히 만들고 학생들의 장래를 좋게 하느냐 하면 도리여 효과에 있어선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중학시절은 첫째, 그 나이로 보아 가장 원기왕성하고 꿈많은 좋은 시절이 아닐가요? 이런 좋은 시절을 더구나 부쩍부쩍 자라나는 그들의 자유와 희망을 억지로 구속해버린다는건 마치 자라나는 싹을 무거운 돌덩이로 지질러버리는것과 같이 도리여 나쁜 영향을 끼칠줄압니다. 저는 학교에 다닐 때 선생에게 귀염을 못 받고 늘 말썽만 일

으키고 또 성적이 나빠 락제를 한 학생이 의외에도 사회에 나가선 크게 성공한 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 아까 조군을 유위한 학생이라고 한것도 기실은 그의 성격에서 남다른 싹을 보았기때문입니다. …》

이 말에 다른 교원들은 좀더 야릇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그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기호는 좋은 재료를 피력할 알맞는 기회라도 붙잡았다는듯이 조군이 하도 결석을 잘하는게 이상해 대체 집에선 뭘하고있나 알고싶어 어느날 그의 집을 방문했었던 사실을 말하기로 했다.

먼저 그의 방을 열어보고 중학교 학생으로는 너무도 많은 책을 꽂아놓은게 이상해 살펴보았더니 그 전부가 문학서적인것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는것, 그래 그는 학교에 빠지는 날을 이렇게 집에 파묻혀 자기가 즐기는 문학서적을 탐독하고있었더라는것 또 원고지에 무슨 소설 같은걸 써놓았기에 호기심에 끌려 읽어보았더니 과연 문학엔 비범한 소질을 가졌더라는것을 말하고 그러나 될수록 그런 공부는 차차 해나가도 좋으니 우선 학교에만은 부지런히 나와달라는것을 타일러주고 돌아온것을 고백한 다음 말을 맺았다.

《저는 조군이 꼭 문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두둔하려는게 아니라 학과성적은 비교적 좋지 못한 그로도 문학엔 남다른 싹이 뵌다는 사실입니다. …》

기호는 자칫하면 수습하지 못할 불행에 빠질 조군을 변호하기 위해선 혼자만 알고 숨겨두었던 이런 이야기까지라도 이 자리에서 발표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이런 보고가 조군에게 도리여 불리한 재료가 될줄은 기호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다. 난로의 불꽃을 들여다보며 그 말이 끝나기를 조급히 기다리고있던 박은 서둘러 말문을 열었다.

《알았습니다. 그럼 유위한 학생이란 말씀은 학교를 결석해가며 집에서 그런 련애소설이나 읽고있다는 뜻입니까? 또는 남들이 안하는 장난을 하는것이 유위하단겝니까?》

《그럼 박선생은 문학서적을 련애소설로만 해석하시나요?》

《그건 뻔하지요. 련애소설이 아니고야 그처럼 파고들수가 없지요. 그만 나이면…》

《흥…》
기호는 기가 막히다는듯이 한번 코웃음을 치고나서 말을 이었다.
《문학공불 련애소설 읽는것으로만 생각하시는건 오해지요. 그러나 제가 조군을 유위하다고 한건 뭐 문학공불 한대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것이든 한가지 뜻을 세우고 그리로 파고드는 그 열성 말이지요. 남다른 뜻말이지요.》
《그건 안될 말입니다. 그의 남다른 품행이 모두 그런 문학서적에서 받은 영향일게 분명하지요. 학교를 결석하면서까지 문학취미에 빠져있는 그런 애니까 또 이번 일같은 불상사를 저지르게 되는게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불량한 학생을 둬둔다는것은 다른 애들에게 큰 해독을 끼칠것이라고 단언합니다. …》
《해독?》
《물론 불량한 학생을 둬둘수 없다는게 그 까닭이지요.》
기호는 자기 목구멍에서 불길같은 뜨거운 무엇이 확 치밀어오르는 것을 깨닫자 다음순간 마치 현기증이 나는 사람처럼 눈앞이 아물아물해지는것을 느낀다.
《불량하다뇨? 동무의 신의를 배반하고 쥐새끼같이 선생의 비위나 맞추려드는 고런 녀석보단 선생의 앞에서라도 사내답게 할말을 콱콱 내쏘는 애가 차라리 열배 낫지 않을가요? 이번사건만 하드래도 그런 말이 저절로 교원실에까지 날려들어왔다곤 믿을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걸 들추어내서 코코 선생께 고자질하는 학생이 따루 있을겝니다. 그래 그런 학생의 태도래야 선량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급소를 찔러버렸다.
이 말에는 박도 어쩔줄 모르고 잠시 당황한 빛을 보이다가 《그건 이 자리에서 론할 문제가 아니요.》하고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려든다.
그러나 기호는 이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고 좀더 박에게 육박해들어갔다.
《어째 문제가 안된단 말씀인가요? 그런 애를 은폐해두는건 다른 학생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줄 압니까?》
잠간 실내가 조용하자 운동장에선 풋뽈 차는 소리가 한가롭게 들려온다.
박은 대답이 난처한 모양인지 잠시 눈을 감고있다가 《어쨌든 오늘

은 조군문제만을 결정짓기로 한게니까…》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리고 마주앉은 감독계 오선생을 바라보다가 거기서 즉시 무슨 좋은 궁리라도 생각해냈다는듯이 한결 침착한 음성으로《문제가 너무 딴길로 들어간듯싶습니다. 이제는 시간도 늦고하니 조군의 일을 결정적으로 결말을 짓고 헤여질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학시키자는 저의 의견을?…》

박의 이 말은 내가 찬성하니 모두들 손을 들라는 명령과도 비슷했다. 결국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호는 그 말이 나오자 변소에라도 가는척 하고 그곳을 빠져나와 직원실어구에 걸려있는 외투와 모자를 집어들고는 곧바루 집으로 돌아와버렸다.

투표결과는 보지 않아도 빤히 알수 있었고 그보다도 이제는 그런 속에 더 앉아있기가 기호에게는 참을수 없을만치 괴로왔던것이다.

그가 교장실에 사직원을 제출한것은 바로 조병호의 출학처분이 운동장 게시판에 발표되던 다음날이였다.

어느덧 두달이 지났다.

기호는 어떤 학교이든 다시 자리를 뚫러보려고 애써보았으나 모두가 뜻대로는 되지 않았다. 어느 사립녀학교에 한자리 그럽직한 자리가 있어 새학기까지는 틀림없으리라 믿었던것조차 틀어져버린 후에는 그나마 취직운동은 캄캄한 암초우에 얹혀버렸다.

어디서든 새로 교문을 나온 신식교육을 받은 청년들은 환영하나 기호같이 뻐젓치 못한 사립전문이나 나온 사람의 실력을 믿어주려 들지는 않았다. 그런걸 기호자신도 이미 모르고는 있지 않었다. 더구나 일단 자퇴까지 하고나온 교원생활을 다른 곳이라 하더라도 다시 자기 손으로 뚫러보고싶은 마음은 조금도 내키지 않았으나 M중학을 나온지 열흘이 못되여 손수 리력서를 들고 Y녀학교 교무주임 R씨를 찾아간것도 기실은 기호자신이였다.

닥쳐올 생활문제를 생각할 때 그는 마치 가시방석에라도 앉은것같이 잠시라도 마음을 진정하고 책줄이라도 읽을수가 없었다.

따루 저금푼이라도 해둔것이 있었다면 이런 때엔 그런대루 얼마동안 견디여갈수도 있겠으나 매달 생활비외에 동경모대학 경제과에 다니는 동생의 뒤를 거두고있었던 그는 M중학교를 나오자 얼마의 퇴직

수당외엔 달리 만져볼 용돈조차 궁한 형편이였다.
  안해에게만은 모든걸 숨겼다. 취직자리가 뚫리기 전에는 차마 입을 열어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것이다.
  한 사날은 병을 핑게하고 집에 누웠다가 다음날 아침부턴 여느때와 같이 밥곽을 끼고 집을 나섰다. 가는 곳은 학교대신 도서관이였다.
  온종일 책을 읽다가 거의 전등이 들어올무렵에야 빈 밥곽을 끼고 집으로 돌아오는것이다.
  그래도 얼마동안은 Y녀학교에 희망을 걸고 며칠에 한번씩 R씨를 찾아가보군 했다.
  바로 닷새전이였다. 기호는 R씨에게서 온 한장의 봉한 편지를 받았다. 피봉을 뜯는 손이 마치 수전증(자꾸 손이 떨리는 증세)에 걸린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렸다. 편지를 읽고나자 그는 나직한 한숨을 푹 쉬고 그대로 이불우에 벌렁 드러누워버렸다.
  《무슨 편지게 그래요?》
  옆에서 애들의 꿰진 양말을 깁고있던 안해가 의아해 묻는다.
  《아무런 편지면?》
  《너무 실심하시는게 딱해서요.》
  《실심이라… 허긴 실심이 안될수 있나. … 가까운 친구가 죽었다는걸…》
  기호는 이렇게 둘러대고 마침 날씨가 화창한지라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날 밤 기호는 홀로 어두운 거리를 헤매며 이틀이나 밥대신 쓰디쓴 술로 울적한 맘을 풀어보려 했으나 술이란 또 고약한것이여서 취하면 취할수록 우울은 더 깊어만 갔다. 그러면서도 다음날엔 또 술을 마셨다.
  닥쳐올 앞날들이 캄캄한 절벽같이 눈앞을 막아선채 가로세로 날뛰였다. 래일, 모레, 글피… 그 무수한 날의 행렬은 어느덧 어마어마한 수자가 되여 무서운 강박관념처럼 그의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그는 그만 두눈을 감아버렸다.
  오늘 아침이다. 기호는 조반을 먹다말고 문득 머리속에 떠오르는 한가지 즐거운 계획을 찾아냈다. 그것은 지금 캄캄한 그의 눈앞에 마치

화려한 꽃다발같이 되여 올랐다가 자칫하면 도루 쓰러지고말것처럼 아슬아슬한것이기도 했다.
《어디 한번 가볼가?》
그는 숭늉을 뜨러 일어서는 안해에게 물었다.
《어딜요?》
《먼데…》
《먼데가 어디예요?》
《P온천.》
안해 역시 갑자기 그런 먼델 가자는 속을 알수 없어 물끄러미 그의 얼굴만 쳐다보는것이다.
《갑갑할텐데 바람두 쐴겸 애들도 데리구 가잔 말이지, 마침 날두 좋구. …》
《…》
《왜, 싫소?》
《싫진 않어두…》
《또 뭐야? 가잘 때 가기나 해. 고만 부엌귀신 면허구…》
조반을 마친 뒤에 기호는 망설이는 안해를 재촉해 기어이 애들을 데리구 집을 나섰다.
정거장으로 가는 길에 그는 남은 돈 90원속에서 40원을 동경 가있는 동생에게 더 부쳐주고 돌아서며 이 려행에서 돌아올 때 나의 주머니에 대체 얼마의 돈이 남아있을가 하는 생각을 했다.
오래전부터 벼르기만 하고 좀체로 떠나보지 못하던 이 길을 이렇게도 쉽사리 떠나게 된것까지가 기실은 너무도 절박한 현실앞에 놓여진 자기의 피치 못할 한개의 코스같이 느껴지는것이였다.
P온천역에 내렸을 때에는 어슬어슬 땅거미가 질무렵이다.
원체 행장이랄게 없이 몸 가볍게 떠난지라 그들은 뒤에 따르는 두 어린것을 앞장세우면 고만이였다.
호텔이나 려관이름을 써넣은 금술달린 모자에 말쑥한 닫긴옷을 입은 미소년들이 한참이나 뒤를 따라오며 졸랐고 또 역앞에는 물에서 금방 나온 메기같이 미끈한 택시들이 등대하고있긴 했으나 그는 광장을 지나 그냥 걷기로 했다.
온천까지는 불과 3마장도 못되는 어푸러지면 코닿을 거리이기도 하

지만 줄등처럼 매달린 온천거리의 전등을 바라보며 어두워가는 낯설은 거리를 좀더 자유스레 걷고싶은 유혹이 앞섰던것이다. 길가에는 음식점, 려관, 리발관따위가 건성드문 있을뿐이고 그사이에는 말뚝 한개 박지 않은 넓은 공터가 거치른 잡초에 파묻힌채 다가드는 어둠을 기다리고있었다. 어슬어슬한 저쪽 물논에선 갓 나온 개구리들이 《깨르끄끄.》, 《깨르끄끄.》하고 울어댄다.

《저게 무슨 소리야?》

작은놈이 저으기 겁먹은 얼굴로 기호의 사채기를 파고들며 중얼거린다.

《승냥이울음인게지?》

《왜, 무서우냐?》

《또 우네. 아유, 무서워…》

《못난 놈, 저게 개구리지 뭐냐?》

그는 가벼이 성구를 꾸짖어보았으나 다시 귀를 기울여보고는 빙그레 웃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 역시 이런 먼데 와서 오래간만에 들어 그런지 마치 첨 듣는 소리같이 귀에 서투를뿐더러 또 해괴하다면 해괴하고 익살맞다면 익살맞은 그 둔탁한 소리가 잊었던 소리처럼 마냥 재미있고 반가왔다.

그때 작은놈이 암만해두 알수 없다는듯이 《왜 개구리가 저렇게 우나? 개굴 개굴 개굴 울지.》하고 그의 얼굴을 쳐다볼 때엔 《너 차타고 온 생각은 안나니? 개구린 갈대든? 먼데 오면 저놈까지 사투릴 쓴단다.》이렇게 얼버무려버리고 안해와 함께 웃는다.

이윽고 자질구레한 상점들틈에 새로 퍼런 뼁끼칠을 한 공설탕이 보이고 뻘건 우체통이 선 우편소모퉁이를 돌아서자 게서부터 제법 번듯한 려관들의 간판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한옆을 보니 화강석돌문이 파수병정같이 맞서고 잘다란 다박솔과 단풍나무가 량쪽으로 나란히 렬을 지어 들어간 어떤 오붓한 양관 뜰안에 방금 닿은듯싶은 택시 두어대가 서있고 그너머 현관문앞엔 해맑은 계집들의 얼굴이 저녁 어둠속에 박꽃처럼 피여있다.

기호는 문득 자기옆에 붙어오던 큰놈이 보이지 않길래 뒤를 돌아보았다.

큰놈은 맞은켠 어떤 마당간앞에 두손을 찌르고 서서 어둑한 그속을 열심히 들여다보고있다. 그속엔 우람스런 황소 한놈이 육중한 몸뚱이를 가죽끈으로 네 기둥에 붙들어매인채 그 커다란 두눈깔을 희번덕거리며 연해 흥흥 코김을 내쉬고있다. 다부지게 생긴 사내 하나가 구부려 매달은 그 소발굽에다 대고 딱딱 마치질을 할 때마다 황소는 네발을 버둥거리며 모지름을 쓴다.

《뭘 구경하니? 어서 가자.》

그는 구경하기에 정신이 빠진 같은 또래의 조무래기속에서 성칠이를 뽑아 앞장세우고 그새 얼마 앞선 안해의 뒤를 부랴부랴 쫓아갔다.

기호는 문득 가벼운 피로와 함께 맛있을 저녁밥맛을 생각하고 우선 려관을 하나 선택해볼밖에 없다고 두리번거리고있느라니 《선생님! 저 모르셔요?》하고 언제 쫓아왔는지 자그마한 키에 얼굴이 납대대한 소년 하나가 반갑게 인사를 하며 작은놈의 손목부터 이끈다.

기호는 맨머리바람으로 나온 그가 누군지는 알수 없어도 아까 정거장에 내릴 때부터 지분지분 자기뒤로 쫓아오던 려관아이인것은 틀림없어 《어디지? 조용하고 깨끗한 방이 있을가?》하고 물었다.

《네, 념려마소. 전에두 저의 집에 묵어보시구…》

《어딘데?…》

소년은 대답대신 서너집 건너 함석지붕한 2층집을 자랑스레 가리킨다.

《삼성려관?》

《네…》

기호는 갑자기 쓴침이 한덩이 꿀떡 목구멍으로 넘어가는걸 느꼈다.

아까 정거장에 내릴 때부터 어쩐지 어디서 한번 본 얼굴같이만 느껴지던 이 소년이 딴은 저 집 아이인걸 깨닫자 문뜩 지난 겨울 언제 한번 M중학교 몇몇 동료들과 함께 놀러와 하루밤 묵던 생각이 뒤덜미를 쳤다. 그리고 이제와서 그것을 마치 아물었던 자기의 고름이라도 쥐짜내는것 같애 불쾌한 감정이 확 얼굴로 치닫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선생님, 저희께루 가셔요.》

《…》

《마침 물두 새로 갈아놔서 썩 좋습니다.》

《…》

기호는 대답대신 뒤에 오는 안해를 힐끗 돌아보고 《뭐 념려말어. 요 아래 좀 댕겨 들어갈게.》하고는 옆에 따라오는 소년을 떼버리고 좀더 걸음을 빨리 걸어 마치 무슨 흉가나 되는듯 외면한채 그 집앞을 지나버렸다.

그리고는 뒤따라일어나는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도 알수 없어 그렇게도 즐겁던 그날의 기억이 이처럼 불쾌하게 된것을 슬퍼도 하면서 혹여 이런 맘속을 눈치채지나 않을가 아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자기는 벌써 전에 중학을 나왔다는것을 안해에게 고백하는게 옳지 않을가 하는 번뇌에 사로잡혔다.

아까 그 집은 돌아봐도 안 뵐 어떤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안에 마침 오붓해보이는 려관이 하나 눈에 띄였다.

오래간만에 반주까지 곁들여 맛있는 저녁을 마치였다. 안해도 제 손으로 짓지 않은 밥맛이 또 류달리 맛있는듯싶었고 아이들도 이것저것 신기한 반찬이 별나서 집에서보다는 많이들 먹는 모양이였다.

잠간 본 주인령감의 남도사투리는 좀더 구수한게 있었고 열어놓은 뒤창으로 바라보이는 장사봉의 우람스런 검은 륜곽은 밤이 되여 똑똑히는 알수 없어도 고향인 W섬(이곳에서 그는 지금의 안해와 결혼했다.)의 만리봉과도 같아 기호는 문득 이 방이 그 자기 집 뜰아래방이나 아닌가 하는 가당찮은 착각조차 일으킬번 했다.

《여보! 거 산모양이 어떠우?》

기호는 어둠속에 솟아있는 산을 가리켰다.

《내가 아나요.》

《어디 산과 같으냐 말야?》

《글쎄요. 알수 있어요?》

그러나 현관쪽으로 복도를 몇걸음 채 걸어가기도 전에 그의 지금까지 즐겁던 기분은 무참히도 깨지지 않을수 없었다.

《여! 이거 장선생 아냐?》

쫙 어깰 잡는 바람에 돌아보니 H전문학교때의 동창이던 같은 고향에서 인쇄소를 경영하고있는 현이란 친구다.

《언제 왔나?》

《딱 온 길일세.》

《그런걸 몰랐네그려. 그러니 이 사람 의뭉하게 혼자만 다녀?》

《왜 혼자야…》

《옳지, 허긴 동부인을 하셨으니까. … 참, 가는 길을 막아 안됐네. 그럼 댕겨서 좀 놀러 오게. 바루 저 7호실일세.》

그는 이렇게 말하며 무엇이 그리 유쾌한지 제법 큰 너털웃음을 치면서 제 방으로 걸어갔다. 기호는 가뜩이나 불쾌한데다가 더구나 그가 들어가는 방이 바로 자기 옆방인것을 보고는 《제―길헐, 또 떠나야겠군.》이렇게 입안으로 중얼거리고 신발을 찾아신고는 성난 사람같이 어두운 거리로 뛰여나갔다.

거리엔 좀더 상쾌한 밤바람이 얼굴을 간지럽혔으나 목간을 하고 돌아와선 무작정하고 자기 방을 좀더 으슥하고 조용한 구석방으로 옮기리라 결심한다. 만약 알맞는 방이 없다면 따로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그 집을 나와버리리라 맘먹는다.

그러나 다음순간 기호는 그처럼 그를 꺼려하는 제자신이 또 알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딴때 같으면 응당 반가울 친구가 갑자기 송충이라도 본듯 싫어지는 리유를 스스로도 알수 없었다.

그가 자길 싫어할 리치도 없거니와 이쪽에서 그를 피할 필요라곤 털끝만치도 있을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문에 자꾸 찌뿌둥하게 흐려지는 이 어두운 마음은 대체 웬일일가? 따라가서 그 상판대기에 침이라도 탁 뱉아주고싶은 이 심정은?…

기호는 피뜩 자기 마음이 지금 병적으로 우울해가는 도상에 있잖을가 생각한다. 그래 남의 얼굴이 보기 싫고 더욱 아는 놈의 상판대기는 쥐여뜯어도 시원치 않을만치 덮어놓고 미워지는게나 아닐가? 그리고 다음순간 이런 생각은 그의 마음을 좀더 깊은 어둠과 절망속에 집어넣고있었다.

그러나 이윽고 T호텔문앞에 이르러 탕표를 사가지고 층계를 밟아 2층으로 올라갈 때엔 마음은 다시 명랑해져서 성칠이와 작은놈이 제법 쿵쿵 복도를 울리며 병정입내를 내 떠드는것을 보고는 《너 예가 운동장인줄 아니? 말 태워줄게 가만있어.》하고 작은놈을 번쩍 추켜들어 어깨우에 얹고 《2층에서 목말을 타면 3층 부럽잖지!》하더니 그대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걸어가 가족탕 문앞에 이르러서야 내려주었다.

깨끗한 대리석욕조엔 맑은물이 더운 김을 올리며 철철 넘쳐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새똥 한개 떨어져보지 않은 산간의 호수처럼 맑고 깨끗해 그들을 기다리고있기나 한듯이 반가왔다.

기호는 아이들의 의복을 벗겨가지고 안해보다도 먼저 탕으로 성큼 들어섰다. 욕조에 몸을 담그자 좌르륵 하고 물이 넘치여 류달리 강한 류황냄새가 코에 확 끼쳐졌다.

《어떠우?》

《좋군요.》

《뭐가?》

《다 좋지 않어요, 물도 맑구.》

《아냐 아냐, 틀렸어. 온천기분은 그런게 아냐. …》

그는 물 한웅큼을 손바닥에 떠서 안해코앞에 바싹 들이댄다.

《어때? 무슨 냄새가 나지?》

다음날도 하늘은 맑았다.

어제 밤 들창으로 내다본 검은 장사봉의 륜곽이 밝은 날에 보니 만리산과는 비슷치도 않아 다소 실망하긴 했으나 옆방의 그 긴치 않은 친구가 차시간이 급해 아침일찍 떠나버린것은 퍽그나 다행한 일이였다.

그들은 늦은 조반을 치르고는 곧 차부로 달려가 경포로 떠나는 11시뻐스를 잡아탔다.

경포까지는 이곳에서 10리도 채 못되는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지만 그는 모처럼 떠난 길이니 화창한 첫 여름의 반나절을 바다까지 있는 경포에서 보내고싶었던것이다. 하긴 이곳 온천에 온 손님이면 목욕하고는 의례 그곳으로 놀러 나가는게 하나의 관습처럼 돼버리긴 했지만. …

뻐스는 오늘도 만원이였다.

둔한 차체는 만삭된 계집처럼 기우뚱거리며 온천거리를 벗어나서 무연한 벌판으로 뻗은 신작로를 일직선으로 달렸다. 열어놓은 차창으로 몰려드는 류달리 시원한 바람이 바다가 가까운걸 알리고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도 바다는 그림처럼 고요할것을 생각케 했다.

오래간만에 대하는 바다! 그것은 역시 바라만 보아도 시원한 풍경이였다. 료리집, 음식점따위가 새새 끼여있는 조고만 촌락을 지나자 그 넓은 바다는 바로 지척에서 그들을 부르고있었다.

갑자기 눈앞이 터지면서 끝없는 푸른 물결이 일제히 앞으로 달려들때 그는 날개라도 돋힌듯이 날것 같았다. 가뜩이나 비좁은 뻐스속에서 시달리던 그에게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넓은 바다야말로 오직 경이 그대로의 세계였다.

얼굴을 간지럽히는 바다바람이 류달리 시원한것을 깨닫자 기호는 양복 웃저고리를 벗어 어깨에 메고 유원지가 있는 저쪽해변가로 걸어갔다. 발에 밟히는 흰모래의 감촉이 보드랍다. 백사장이 끝난 저쪽 유원지에 꽂아놓은 기발이 바람에 펄럭거리며 어서 오라고 그들에게 손짓을 하고있다. 성칠이와 성구는 모래밭이 맘에 들어 토끼모양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좋아들 한다.

《참, 늬들 경주해봐라!》

기호는 두놈을 붙들어 작은놈을 큰놈보다 댓간이나 미리 앞세워놓고 《저기 저 기대 꽂은 나무앞에 바위가 뵈지? 그 바윌 먼저 짚어야 1등이다.》하고 일러주었다.

《상은?》

《암, 주구말구.》

그는 주머니에서 아까 P온천에서 사넣어둔 캬라멜 뒤갑을 꺼내보였다.

《1등은 이게 두갑.》

《…》

《꼬랑지는 없다.》

그러자 작은놈이 갑자기 돌아서며 싫다고 물러선다.

캬라멜을 보니 군침이 치미나 암만 해도 1등할 자신이 없는 모양이다. 할수없이 두간이나 더 앞세워주고 또 2등도 한갑을 준다니까 그때에야 나섰다.

《하나… 두울… 셋!》

두놈은 뛰였다. 뛰는대로 백사장에는 귀여운 발자국들이 또렷이 찍혀진다. 《와—》하고 유원지쪽에서도 즐거운 환성이 일어났다.

아직 철이 일러 물에는 들어선 사람이 없고 바다가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그리 많지 않으나 유원지만은 그래도 왁자한 맛이 제법 노는곳다왔다. 서울의 유력한 실업가, 재산가들을 주주로 한 ××회사가 P온천에 크나큰 욕탕과 호텔을 짓고 다시 그 자매사업으로 이곳에 해

수욕장을 꾸리고 유원지까지 설비한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8만원을 들여 만들었다는 이 유원지도 다른 곳들과는 비교도 안될만치 그 규모와 설비가 제법 훌륭해보였다.

기호는 모래밭에 앉아 그대로 그 천진란만하게 뛰여노는 애들을 바라보고있었다.

어느새 두놈도 경주했던것은 잊은듯이 캬라멜 달랠 생각조차 잊어먹고 같은또래의 조무래기틈에 끼여 장난에 열중이다. 큰놈은 그네에 매달려 흔들대며 돌아가고있고 작은놈은 썰매를 타느라고 눈이 부옇다. 안해도 어느덧 썰매밑으로 가서 작은놈이 미끄러져나갈 때마다 손바닥을 치며 어린애처럼 날뛴다. 그네에도 두어명의 소녀가 매달려 해죽거리고 저쪽 목말 있는데선 《말탄 놈두 꼇떡꼇떡, 소탄 놈두 꼇떡꼇떡.》하고 연해 같은 소리가 합창하듯 크게 들려온다.

유심히 바라보고있느라니 그것은 합창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시간을 헤는 암호였다. 같은 소리를 스무번 또 서른번쯤 외우고나선 이내 탔던 아이는 내리고 새 아이가 다가든다. 그는 한참이나 그 목말에 눈이 달렸다가 작은놈쪽을 바라보니 어느새 안해는 큰놈쪽으로 가버리고 성구놈 혼자 이제는 썰매도 지친듯이 목말 있는쪽을 멀거니 바라보고있었다.

목말이 부럽긴 하나 감히 가볼 용기가 나지 않아 아쉬운대로 남이 노는것이나 구경하는 눈치였다.

기호는 그 꼴이 보기 싫었다. 남축에도 끼지 못하는 잔망스러운 놈의 골통을 좇아가서 쥐박아주고라도싶었다.

그리로 걸어갔다.

《말이 타구싶지?》

《응.》

작은놈의 두볼에는 눈물이 어린다. 말을 못하고있다가 그의 말이 너무 반가왔던 모양이다.

기호는 그놈을 데리고 목말쪽으로 가서 다섯놈이나 서있는 맨뒤에 세워주었다.

그러자 《장선생!》하고 갑자기 어깨를 치는 서슬에 돌아보니 넙데데한 붉은 얼굴이 웃고있다. 뜻밖에 아침에 꼭 떠난줄로만 알았던 옆방친구였다.

(흥, 꽤 걸려댄다.)

그러나 그 역시 반가운체 손목을 잡으며 《웬일인가?》하고 물었다.

《자넨 또 웬일인가?》

《아침에 떠난다드니?》

《흥, 자넬 두구야 어디 떠나겠든가?》

친구는 어디서 걸쳤는지 도마도처럼 빨갛게 익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호기있게 껄껄껄 웃는다.

《하여튼 잘 만났네. 저리 가세.》

그를 한쪽으로 끌고갔다.

아침에 떠나려고 정거장까지 나가긴 했으나 게서 우연히 자기 매부를 만나 다시 이곳까지 불려왔다고 하며 매부란 사람이 작년에 가격이 폭등하는통에 고무신에서 몇만원 단단히 생겼다는것을 자랑스레 한창 떠벌이고는 그러니 남도 아닌 매부를 외지에서 만났으니 어찌 되겠나, 그냥 보내버릴 시러베아들놈 없지 하고 뻘겋게 익은 제 얼굴을 몇번이나 쿡쿡 찔러가며 이렇게 된걸 용서해달라고 멋없는 소릴 한참이나 되뇌이다가 《그야 혼자 먹었으니 내가 벌주로 한잔 내지.…》하고 기호를 이끈다.

자기 매부도 저기 있는데 모르면 자기가 소개할테니 우리 셋이서 한잔 더 먹어보자고 하며 《여보게, 장선생! 교단두 필요하지만 좀더 넓은… 말하자면 사회란 넓은 교단을 무시해선 안되네. 때에 따라서는 우리 같은 시정배두 알아둬야 하느니…》하고 주절거렸다.

기호는 현의 이 말에 갑자기 가슴이 뿌듯해지는것을 느끼며 교육자도 시정배도 못되는 지금의 자기를 생각하자 뒤미처 일어나는 우울한 마음을 걷잡을수 없었다. 그러나 남달리 친구를 좋아하는 현의 호의만은 고마와 좋게 말해서 간신히 떼버렸다.

따분한 기분을 어떻게 버려볼지 알수 없어 기호는 혼자 조용한 모래언덕을 찾아 해변과는 반대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머리가 무겁다. 모래주머니같이 무겁다. 오슬오슬하니 차디찬 오한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눈들이 없다면 금방 모래밭에 숨통을 박고 쓰러지고만싶다.

그러자 갑자기 등뒤에서 와— 하고 고함소리가 일어났다. 피뜩 정신을 차려 돌아보니 유원지 저편 모래밭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떠

들고 야단들이다.
무슨 일인지 알수 없다. 안해와 두놈의 그림자도 눈에 안 띈다.
기호는 그리로 뛰여갔다. 사람틈을 비집고 들어서니 마침 성칠이가 같은또래의 놈과 맞잡아가지고 씩씩거리며 돌아간다. 씨름판이다.
기호는 어느덧 기운이 솟았다. 마치 자기자신이 씨름판에 들어서기나 한것처럼 기운이 벅차올랐다. 판은 벌써전부터 벌어진듯 주위에는 이미 씨름을 하고나서 땀을 들이는 아이가 몇명 보였다.
《작은 놈 잘한다. 한놈만 더 넘겨라.》
《용타, 용타. 조금만 더 참아라.》
성칠이를 응원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지금 성칠이와 맞붙은 놈이 딴은 성칠이보다 덩지가 크기도 하나 말소리를 보아 자기가 오기 전에 성칠이는 벌써 서너놈쯤 꽂아넘긴 모양이였다.
《잘한다, 우리 놈 잘한다.》
성칠이가 자기보다 큰 놈을 앞낚시를 걸어 꼬나메고 빙글빙글 두어바퀴 돌아갈 때 그는 아찔아찔해 주먹에 땀이 났다. 마침내 쾅 하고 두놈이 다 쓰러졌다.
《와—》
우렁찬 환성과 박수소리가 귀가 멜듯이 요란스레 일어나며 《또 이겼다.》, 《용타, 참말 장사다!》하고 여기저기서 성칠이를 칭찬하는 소리가 우뢰같이 일어난다. 딴은 같이 넘어졌으되 성칠이는 큰 놈을 이겨낸것이다.
《용타, 참말 용타!》
그도 어느덧 이렇게 소릴 지르고 안으로 뛰여들어가 성칠이를 업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싶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형언할수 없는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였다. 이기기는 성칠이가 이겼으되 그는 마치 제자신이 이긴것보다 더 기뻤다. 온몸이 찌르르하며 두눈에선 눈물이 콱 쏟아질것 같았다. 안해와 성구도 저쪽에 끼워 박수를 치며 신이 나서 떠드는게 뵌다.
《할테면 또 나서라.》
《누구든 이겨볼테면 나서라.》
한 사내가 이렇게 웨쳐도 이번에는 한 아이도 나서질 못한다.
씨름판은 결국 성칠이가 판을 잡은채 막을 닫았다.

그는 성칠이를 데리고 한쪽으로 물러서며 그처럼 재미스런 구경을 전부터 보지 못한게 자못 섭섭해서 (괜히 따라댕기며 성화를 먹여.) 하고 성가신 객설로 한참이나 자길 괴롭히던 친구가 또 한번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지금 그의 마음은 결코 아까처럼 우울하지 않았다. 승부를 겨루던 때의 그 아슬아슬한 흥분과 남을 이겨 넘어뜨린 때의 그 벅찬 기쁨은 그대로 한개의 억누를수 없는 크나큰 감격이 되여 그의 혈관속을 기운차게 돌고있었다. 안해와 성구도 그의 뒤를 따라오며 좋아들 한다.

그들은 저쪽 조용한 풀언덕을 찾아가 그곳에 자리를 잡고 려관에서 가지고온 주먹밥으로 점심을 먹었다. 점심후엔 애들에게 과자를 나누어주고 기호는 풀베개를 벤채 잔디밭에 누워 푸른 하늘과 바다를 혼자 즐겼다.

그러다가 어느새 깜박 잠이 들어버렸다.

안해의 흔드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에는 해도 퍽 기울었다.

해변가도 어느새 조용해지고 유원지에 오는이들도 헤일수 있으리만치 수효가 몇 되지 않는다.

《무슨 잠을 그렇게 자요?》

《오래 잤나? 깨우지?》

《그새 우린 조갤 준걸요.》

성칠이와 성구가 자랑스레 흔들어보이는 주머니속을 들여다보니 잘다란 조개딱지가 그득차있다.

《자— 이젠 돌아가자.》

그는 일어서 안해와 애들을 데리고 모래밭을 지나 뻐스정류소가 있는 마을쪽으로 걸었다.

그렇게 들끓어대던 해변가도 이제는 굿해먹은 뒤처럼 쓸쓸하다.

여기저기 흩어진 종이부스레기가 바람에 날려 조금씩 공중으로 떠오르다간 다시 너울너울 땅우에 가라앉고 한다.

그는 이따금 발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보았다.

바람이 일려나부다. 모래언덕을 핥는 파도소리가 한결 거칠게 들렸다. 두어마리의 갈매기가 물우를 낮추 떠돌며 울고있다. 기호는 어느덧 안해와 애들보다 두어간이나 뒤떨어져 앞서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걷고있었다.

《엄마, 집엔 언제 가?》

《이따 밤에…》

《그럼 또 차타구?》

《암, 타구말구.》

《아유, 좋아라!》

성구놈은 모래밭을 망아지새끼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뛴다.

그러자 기호는 어느새 두볼을 적시는 뜨거운 눈물을 깨닫고 흠칫 발길을 멈췄다. 즐거이 걸어가는 그들의 뒤모양이 어쩐지 갈매기보다 슬프게 보였다.

마을쪽에선 뿡뿡— 하고 떠나려는 뻐스의 경적소리가 들려온다.

《조광》 1940. 4, 5.

락 일 홍

김 정 한

1

박재모는 변소에서 돌아오는길에 무심코 복도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였다.

아이들이 말끔하게 닦아둔 거울면에는 재모의 파리한 얼굴이 뚜렷하게 비치였다. 쑤욱 불거진 광대뼈, 면도자리가 푸르죽죽한 턱주가리 그리고 움푹 꺼진 눈자위모두가 까칠까칠한 껍데기에 싸여있다.

머리는 물론 박박 깎은 중대가리이다. 중대가리임에 불구하고 흰털이 반이나 되는것이 환하게 보이는데 그의 손가락이 가볍게 부딪치자 허연 지게미(비듬)가 무덕지게 일어난다.

재모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두어번 썩썩 긁어대다가 결국 갈망(일을 수습하고 처리함.)을 못할것을 깨달은 모양으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머리꼭대기부터 어깨까지를 문대여 털어버리고는 직원실로 쑥 들어가버렸다.

그는 직원실안을 둘러보는 법도 없이 조심조심 제자리에 가앉았다. 그의 퇴색된 관리복에 비해서는 의자든지 테블이든지 어울리지 않게 새로웁다.

아직도 광채가 날지 않고 번들거리는 테블우에는 모든것이 반듯하게 잘 정돈되여있다. 다른 동무들도 찍소리없이 그날의 사무정리에만 바쁘다.

이렇게 긴장된 환경속에서 제일 큰 테블을 차지하고 단정하게 앉은 재모를 누가 보더라도 이 지방의 순진한 학부형의 대부분과 마찬가지 생각으로 얌전한 교장선생님으로 알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는 단지 하나의 훈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학교의 터를 닦을 때부터 와서 6년동안 고생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버

젓한 학교로 만들어놓은, 말하자면 이 학교의 공로자인 동시에 착실한 훈도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때껏 누구에게도 자기의 노력에 대하여 한번도 자랑하고저 한적이 없었고 또 자기보다 훨씬 급이 낮고 공로도 없는 량반들이 교장으로서 당당히 행세를 하고다녀도 한번도 자기가 교장 안됨을 두고 두덜거린 일이 없이 사시장철 한얼굴이다.

재모는 오늘도 그러한 얼굴을 하고 묵묵히 앉아있다.

방학때라 아이들이 오지 않기때문에 교내는 지극히 조용하다. 오직 누르스름한 3월의 석양빛만이 고요히 유리창을 지키고있을따름이다.

어느 학교 할것없이 3월달이 되면 교원들의 이동기가 절박한만큼 직원실안이 보매 떠들썩한 법이지만 재모가 수석훈도로 있는 이 S분교만은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미적지근한 공기를 제일 갑갑하게 여기는것은 부임해온지가 아직 1년도 채 못되는 강선생이였다. 나이도 아직 점잖아질 때가 아니지만 그보다도 그는 교통이 말이 못되게 불편한 이 산골에 오던 그날부터 그만 진저리가 나서 엄부렁하게 전근운동을 한다고 해놓고는 짜장 궁금한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 어서 날이 가기를 못내 기다리는 터이기때문이다.

그래서 강선생은 이날도 일을 부리나케 마쳐놓고는 보고싶지도 않은 신문만 괜히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낌새만 보고있었다. 결국 제가 못 참고서 또 먼저 말을 꺼낸다.

《박선생님!》

《네?》

재모는 그때까지 꽉 감고있던 눈을 버쩍 뜬다.

《도에서는 지금쯤 꽤 바쁘겠지요? 교원들의 이동정리바람에…》

강선생은 마치 자기 친형을 대하듯이 례사롭게 묻는다.

《입때 있어, 벌써 다 결정됐을게요. 오늘이 27일이니깐…》

《우리 학교서는 별이동이 없겠지요?》하는 강선생의 말눈치는 《내밖에는…》하는 기색이 빤하였다.

재모는 강선생의 그러한 낌새를 못 알아챈바가 아니였다.

《글쎄요. … 있다면 아마 내가 어디로 밀려나가겠지요.》

《박선생님이야 어디…》
《왜 그래요?》
《선생님이야 이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눌러앉으실텐데 뭐!》
강선생은 아주 그렇게 확신하는듯이 말한다.
《천만에! 그럴 자격이 돼야지요.》
재모는 쓸쓸하게 웃을따름이다.
《왜요, 급도 급이고 또 공로를 두고 말하더라도 그만한 대접은 해줘야지요.》
《공로는 무슨 공로가 있었다구?》
《천만에요. 그리고 또 지방측에서 당국에 대해서 그만큼 탄원도 하고 진정도 했는데 뭐 안될리 있겠어요?》
《별소리를 다…》
《아냐요, 꼭 돼요. …》
강선생은 제일같이 열을 낸다.
《그래도 안되면?》
《그때야…》
차마 집어치우란 소리까지는 안 나왔다.
《아니요. 다 틀렸소. 성이 박쪼가린데 평생 바가지밖에 더 긁겠소.》하고 재모는 그저 장난조로 씩 웃어버리고만다.
강선생은 더 말할 용기가 없어 멍청해할따름이다.
재모는 말은 그렇게 해던졌으나 일루의 희망이 바이 없는바도 아니다.
그는 결코 자기의 급수라든지 공로를 잊어버린것은 아니다. 이 분교가 오는 4월부터는 독립이 되고 따라서 교장도 두게 된다는 당국의 통지를 받고부터는 더욱 그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비록 입밖에는 내여본적이 없으되 그는 자기가 이 학교의 교장이 되여가지고 식날 코트가 없어서 여러 손님들앞에서 얼굴을 붉히는 꿈까지 다 꾸어보았다.
그는 이럼에도 하루에 몇번씩 만약 교장이 된다면 하고 자기의 태도라든가 행동을 반성도 하고 고쳐도 보았다. 언젠가 한번은 변소에 들어앉았다가 교장이 되여서도 이렇게 앉아서 괜찮을가 하는 생각이 문득 났다가는 자기의 그렇게도 달뜬 마음이 짜장 우스워서 혼자서 씩

웃어본 일까지 있다.
그러나 재모는 남의 앞에서도 결코 그러한 데된짓을 애당초 하지 않을만 한 수양을 충분히 쌓은 친구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마찬가지 얼굴이다.
오늘도 그는 마치 감정이란것은 송두리채 거세당한 천치처럼 례의 비석같은 얼굴에 겨우 눈만이 살아서 끔벅끔벅 하고있다. 그러면서도 속만은 강선생보다 몇갑절이나 더 뒤설레고 흥뚱거린다.

2

재모는 다른 날보다 훨씬 일찍 직원실을 물러나왔다. 그가 거처하는 집은 바로 학교구내에 있었다. 교장관사였다.
아직 교장이 없으므로 재모는 림시로 거기 들어있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지나간 6년동안을 오로지 제집같이 드나들던 그 집이 요즘 와서는 어쩐지 들어가기가 퍼그나 힘들었다.
《엄마! 아버지 오셨소!》하고 어린것들이 통통통 달려와서 《아버지!》하며 가방을 받아들어도 어쩐지 전과 같이 그리 마음이 명랑해지지도 않는다.
재모는 마루턱에 올라서자 기둥에 걸린 먼지털이를 끌러들고서 양복바지가랭이를 네댓번 툭툭 털어버린 다음에 방 한구석에 썩 들어앉았다.
《아버지, 다리 아프시죠? 내 또 두들겨드릴께.》하고 둘째딸 혜순이가 고사리같은 주먹으로 허벅살짬을 콩콩 때려줘도 그저 《그러냐? 응.》할따름이다.
《아찌! 아찌!》하면서 단 하나뿐인 아들 경호가 종일 흙판을 밟고 다니던 발바닥으로 무릎을 저벅저벅 사뭇 밟아제쳐도 그는 싫다고도 귀타고도 하지 않는다.
전같으면 의례 가동질도 시켜보고 또는 일부러 울려가며까지 즐기였지만 요즘에는 제 자식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할 용기가 적어졌다. 그러나 아직 세살도 꽉 못 찬것이 애비의 그러한 심사를 알아줄리도 만무하고…
《아찌! 아찌! 으은, 으은…》

혜순이 또 무슨 설음을 보았는지 똑똑치 못한 말을 자꾸 되풀이했으나 《오냐, 오냐. 그렇다, 그렇다.》하고 그저 덮어놓고 고개만 끄덕인다.

재모는 아들을 무릎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그는 더욱 애비의 목에 매달린다.

《아찌! 앰배!》

언제나 쓰는 수단을 또 쓴다. 미상불 재모는 담배도 꽤 피우고싶었다.

《앰배?》

경호는 눈이 탐스럽게 둥그래졌다.

《응, 앰배. 어서 성냥 찾어라.》

경호는 여태까지 버티던것을 불시에 홀딱 잊어버린 모양으로 부리나케 무릎을 썩 내려서더니 이리저리 바쁘게 살핀다.

재모는 그동안에 양복호주머니에서 마코를 한대 꺼내물고는 경호가 가져오는 성냥갑을 얼른 받아든다.

《아찌! 피ㅡ》

경호는 어서 불을 붙이라는 뜻이겠지. 화약타는 흉내를 내고서는 저도 피운다는듯이 여무지게 성냥개비 한가치를 쑥 꺼내물고서 아버지곁에 바짝 들어앉는다.

그리고서 재모가 한모금 길게 빨면 저도 그러고 연기를 후ㅡ 내불면 저도 입을 쩍 벌리고 후ㅡ 한다.

《아찌! 이 바…》

《응, 많이 피워라.》

《아찌! 으은 아, 이바…》

《응, 으은아, 이아!》

재모는 이렇게 벙어리타령을 해서 아들의 구미를 맞추면서도 마음속이 조금도 후련해지지 않는다.

이윽고 큰딸 영순이가 밥통을 들고와서 상을 방가운데 펴놓고 안해는 바쁘게 반찬그릇을 갖다 날라놓는다.

혜순이와 경호는 강아지처럼 허덕허덕 날뛴다.

혜순이는 그래도 다소 누이된 때문인지 얼른 숟가락이나 찾아들지만 경호란 놈은 그짓도 못하면서 그저 욕심만 크다.

《아찌! 빱바, 아찌!》

부리나케 밥을 재촉하면서 고기접시는 모조리 제앞으로 끌어다놓는다. 그럴적에 수저는 방바닥으로 댕그렁 떨어지고 장판에는 된장국물이 철썩 넘치고…

이런 란리가 벌어져도 재모는 그저 손된 사람처럼 신풍(걱정이 많아 사소한 일은 돌아볼 여가가 없음.)스럽게 구경만 할따름이다. 오직 허둥대는건 안해뿐이다. 장판에 행주질을 다시 한다, 어린것들을 이리저리 제자리에 앉힌다, 그리고는 또 칭얼거리는 젖먹이를 돌보러 건넌방으로 쫓아간다.

그러면서도 그는 남편에 대하여 한마디도 불평이라고는 없다. 그는 그러한 녀자였다.

재모는 이러하는걸 보면 짜장 고맙다 안할수가 없다.

입으로는 리해, 리해하고들 떠들지만 사실 소위 신녀성으로서 이처럼 자기 남편을 리해해주는 녀자가 과연 몇이나 될가 하고 생각하면서 재모는 무우김치쪼각을 아싹아싹 씹어본다.

재모는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자기의 등한한 태도를 결코 옳다고 생각한다든가 그렇지도 않다. 다만 지금 와서는 어쩔수 없는 자기의 버릇이라고 여길따름이다. 그리고 녀자란건 남자의 태도가 옳건 그르건 반드시 굴종해야만 된다는 고린내나는 사상을 가진것도 아니지만 자기 안해의 그러한 불간섭주의가 다행이라고 생각 안하는바도 아니다.

젖먹이를 안고서 경호에게 밥을 떠먹이는 안해를 바라볼 때 그는 문득 성모 마리아를 련상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안해를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고싶었다.

하지만 재모와 같은 성격과 처지의 인간에게는 그러한 뜻을 표시할 길이 별로 없고 따라서 그같은 감정은 곧 안해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돌아지고말뿐이다.

(저이도 좀 편해져야 할 나인 됐는데…)

재모는 밥공기에 구수한 된장국을 떠넣으면서 곁눈으로 안해를 불민하게 건너다본다.

안해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두서너술 뜨다말고 남이 먹고난 그릇들을 말끔 챙겨가지고는 어두컴

컴한 바깥으로 나가버린다. 그는 얼떨결에 못다 먹은 밥을 부엌에서 마저 먹는 습관을 일찍부터 가지고있다.
명순이도 지저분하게 어지러워진 방바닥을 진걸레, 마른걸레로 깨끗하게 가시여놓고서 에미의 뒤를 따라나갔다.
《혜순이! 넌 안 나가니?》
재모는 밥술 떼자 곧 누우려는 작은딸년을 보고 묻는다.
《오데?》
《똥싸러.》
《안 똥 매려워—》
말이 아직 서투르다.
《정말?》
《그럼.》
《그러다가 밤에 또 울려고? 똥 똥 하고…》
《안 울어.》
《인젠 울어도 안 데리고 간다.》
재모는 톡톡히 다짐을 받아놓는다. 그는 혜순이를 따로 데리고 자느라고 꽤 단잠을 설치기때문이다.
《울면 안돼!》
《응.》
《울면 뭐가 잡아가지?》
《어머니.》
《아냐!》
《부엉이.》
《옳아, 또?》
《올빼미.》
《옳아, 또?》
《올빼미.》
《응, 그래그래.》
《아부지! 거짓말.》
혜순이는 약삭바르게 앙글방글한다.
《그럼 울텐가?》
《안 울어!》

그는 혜순이를 데리고 제 방으로 갔다. 가나오나 그는 어린애들과 노는것이 제일 유쾌하였다. 설혹 돈은 없더라도 자식들은 결코 영양부족이 아니였다. 혜순이는 콜콜 잠이 들었다. 재모는 자기의 헌 양말로 안해가 깍듯이 줄여서 겹으로 신겨놓은 딸의 통통한 발밑에 조심스럽게 꽁꽁 싼 물주머니를 넣어주고서는 자기도 그곁에 빠듯이 들어가 눕는다.

에미를 닮아서 약간 곱실곱실한 머리카락이 향긋하게 그의 코끝에 부닥친다. 그리고 혜순의 베개맡에는 언제 갖다놓았는지 낮에 가지고 놀던 그의 비단풀각시가 귀엽게 누워있다.

3월은 봄, 나른할 때다. 혜순이는 콜콜 잠이 더욱 깊게 든다. 건너방에서도 명순이밖에는 죄다 잠이 든 모양이다. 일에 지친 안해의 숨소리도 차차 커진다.

그러나 재모는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들지 않는다. 사흘후면 발표될 자기의 운명과 재주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애비된 자기의 돈없는 탓으로 다른 집 아이들과 같이 상급학교에 보내지 못한 명순이때문으로…

그는 불시에 베개깃이 차거워오는것을 깨달았다.

3

재모가 잠이 깨였을 때는 벌써 처마끝에 해가 비치고 참새소리가 부산하게 짹짹거렸다.

언제나 동살이 잡히기 전에 일어나던 그였지만 요즘에는 어쩐지 불면증이 자주 들어서 일쑤 그렇게 되기가 쉽다.

혜순이는 어느덧 눈이 또록또록해가지고 울타리밑에 가있다. 그의 비둘기발같은 손에는 벌써 보들보들해보이는 파아란 풀잎이 몇이파리 꼬옥 쥐여져있다. 아침으로는 아직 싸늘하니깐 어깨를 으쓱하게 웅크리고있다.

《혜순이, 너 춘데 게서 뭘하니?》

하도 기특해서 재모는 한참 구경을 하다가 말을 걸었다.

《암것도 안해요.》

혜순이는 돌아도 안 보고 따라지게 허리를 더 꼬부장하며 울타리밑

만 빤히 들여다본다.
《안 추우냐?》
《안 추워.》
하지만 돌아선 귀망울이 호— 불어주고싶을만큼 빨갛다.
가지런하게 메워선 측백나무울타리에는 별살이 차차 질어온다. 밤새 서리에 젖어서 갈대빛으로 되였던 잎사귀들이 조금씩 생기가 돌아가지고 물기를 반짝인다.
《이야, 이야—》
뒤결에선 경호란 놈의 드센 소리가 들리더니 제 키보담 두배나 더 긴 대막대기를 하나 치켜들고서 제 생일날 잡아먹이려고 사다둔 둥우리같은 수닭을 뒤쫓아가지고 나온다.
추워서 시퍼렇게 된 입가에 코물, 침물을 흥건하게 흘려가지고 둔팍스럽게 뒤룩거리는것이 마치 부룩송아지처럼 어설피다.
《이!— 이!—》
경호는 잘 휘두르지도 못하는 대막대기로써 억척스럽게 맨땅바닥만 툭툭 때린다.
《왜 그러니?》
《아짜, 꼬꼬, 으은, 으은!》
무슨 소린지 알수는 없으나 골이 꽤 난 모양이다.
《그러면 안돼. 꼬꼬 저리 가버린다.》
《앙이!》
고집이 또 보통고집이 아니다. 나무래는것쯤 애당초 듣지 않는다.
《아부지! 이놈, 앙이!》
경호는 제쪽에서 되려 못마땅한듯이 상을 찡그리며 다시 닭을 뒤쫓는다.
겁을 먹은 닭새끼는 공교히 울타리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버린다.
《앙이!》
경호는 골이 나서 상을 찌프려가지고 혀를 쩍쩍 차며 뒤룩뒤룩 사립문밖으로 돌아나간다.
무거운듯이 머리를 앞으로 구부정해가지고 뚱딴지걸음을 치는 꼴이 하도 우스워서 재모가 허허 하고 웃어대니깐 그는 화가 더욱 나서

《앙이!》하고 재모를 흘겨보며 작대기로 금방 칠듯이 한번 겨누고 나간다.

울타리밖에서도 뒤따라 또 닭을 쫓는 소리가 앙칼스럽게 난다.

그러자 저쪽노가지나무 꼭대기에 앉았던 죄없는 까치란 놈이 괜히 제풀에 놀라서 꽁지를 두어번 까딱까딱하더니 깍깍 소리를 치며 그만 날아버린다.

이윽고 울밖이 잠간 고요하기에 이상타 여겼더니 경호란 놈이 뜻밖에 입을 헤 벌리며 돌아왔다.

《아찌! 아찌!》하며 방금 세수를 하고있는 재모앞에 다가선다.

재모는 얼굴에 비누칠을 무덕지게 한채 고개를 든다.

《아찌! 아이아!》

대막대기는 어디다 던지고 어느 돌구멍에서 뜯었는지 경호는 두손에 노랗게 꽃이 핀 애기똥풀을 그득하게 움켜쥐고있다.

애는 여직껏 치밀었던 화가 흔적없이 사라지고 금시에 좋아져서 입이 그저 벙글벙글한다. 이놈은 또 말이 아주 영 간단해서 옷이든 뭣이든 제 맘에 좋은건 모두다 아이아라고 떠든다.

그렇게 숫된 놈을 재모는 또 지부럭거려보고싶다.

《아이아 아냐! 엣페!》

《앙이, 아이아!》

일껏 속이 풀렸던 경호는 또 열을 바짝 낸다.

그러나 재모는 되려 그걸 재미로 여기는터라 골을 더 돋구고싶다.

《아냐, 엣페!》

《앙이, 앙이!》

《앙이, 앙이!》

《아찌, 엣페.》

아버지가 안 좋단 말이다.

《아냐, 경호 엣페!》

《앙이, 앙이, 앙이…》

경호는 그만 또 불똥이 터져서 울상을 해가지고 와락 덤벼든다. 그대로 나가면 꽃이고 뭐고 다 내던지기 시작할 모양이다.

《응, 응! 아찌, 엣페! 경호, 아이아! 그 꽃 참 좋다.》

재모는 생떼질이 무서워서 제가 못이기는체 한다.

《…》

《그 꽃 참 좋다. 아이아! 어디서 끊었지?—》

경호는 그래도 시무룩해가지고 아버지를 잠간 흘겨본다.

재모는 이번엔 골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된다.

경호는 역시 찌뿌둥한채 혀만 한번 쩍 찬다. 소원대로 풀지 못한 골덩이가 불각시 굵다란 눈물이 되여서 얼굴에 두줄기의 금을 짓는다. 그러나 결코 소리를 내서 울지는 잘 않는 성미이다.

재모는 갑자기 가련한 생각이 들어서 와락 그를 껴안으며 《경호야! 아버지 참 잘못했어. 내 인제 다신 안 그러지. 아이아, 참 좋다. 아이아— 아버지 하나 안 주어?》하고 눈물을 고이 닦아준다.

경호는 그제야 상을 좀 편다.

재모는 겨우 맘이 놓인다.

제 어미가 벼락이란 별명을 붙여둘만큼 경호란 놈은 성질이 어떻게 급한지 골을 낼 땐 그만 천불이 나고 풀릴 땐 또 아주 쉽게 풀어진다.

《아찌!》

그는 서슴없이 한묶음 쑥 뽑아준다.

《응, 이 아이아.》

재모는 날큰날큰한 꽃술을 받아들며 짐짓 반가와한다.

《아이아, 어디서 끊었지?》

《아이아, 으은, 으은.》

누구보다도 그와 이야기를 잘하는 재모지만 이놈의 으은이란 말은 도무지 알아먹을수가 없다.

《응, 응, 으은, 으은.》

그저 이렇게 해두는 수밖에 없다.

《아찌! 이 아 코— 으은아.》

《응! 으은아.》

《앙이!》

경호는 갑자기 또 불끈하려고든다. 이쪽에서 말눈치를 얼른 못 알아주기때문이다.

《왜 그래, 응?》

재모는 무슨 죄나 지은듯이 말을 머밋거린다.

결국 또 경호란 놈이 한참 옹고집을 세우고 재모가 실미가 나게 생땀을 낸 다음에 겨우 서로 통정이 된다. 화병에 꽂자는 경호의 의견이다. 재모는 한숨이 다 나왔다.

《응, 인제 알았어. 아찌 세면이나 마자 하고…》

《앙이!》

경호는 급하기가 그저 쌀전에서 밥 달란 격이다.

재모는 막부득이 얼굴에 비누거품을 허옇게 발라붙인채 또 화병을 찾으러 방으로 들어가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귀치않은 생각은 가지지 않았었다.

4

《쌀? 글쎄 팔려거든 팔고 말려거든 마시오. 어떻게 칠지 모르니깐…》

재모는 쌀말을 하는 안해더러 이같이 어리벙벙하게 대답을 해놓고서 집을 나섰다.

교장문제에 대해서 진정을 갔다왔다는 지방유지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군수령감의 대답도 그야 교장이 되고 안되고는 예단키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 그렇게 못될 경우에는 도에서도 당자의 체면이라든가 여러가지 립장을 생각해서 어디로 전근시켜줄는지 모르겠지요 하더라 했고 또 재모자신도 상식으로 판단해서 어쩌면 그렇게 된것 같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저것도 다 틀린 경우가 념려안되는바도 아니기때문이다.

형편이 그러고보니 미상불 쌀을 더 팔기도 주제넘은 일같고 그렇다고 해서 안 팔기도 또 거북한 일이다.

재모는 가만히 장부정리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안해가 쌀을 팔겐지, 안 팔겐지 짜장 궁금하게 여겼다.

그는 자기의 마음이 어째서 이다지 옹졸해졌는가 생각하고 스스로 나무라기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 속이 급작스레 후련해질 일도 아니였다. 팔가? 말가?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소사를 보내서 안해더러 쌀을 팔아두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또 그렇게 한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쳤다. 역

시 안해가 하는대로 내버려두는것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재모는 그렇게 달뜬 자기의 마음을 잠시라도 가라앉히기 위해서 다시금 장부속에 정신을 모은다.
50전＋150전＋15원＋10전…
그는 어느새 차디차게 식어진 차물을 훌쩍 들이마시고 다시 따끈한 놈을 잔에 따른다. 불을 붙여놓고서 잊어버린 담배가 흰 질재털이우에서 파르스름한 연기를 실같이 뽑아올린다.
1원×23＋10원
재모는 암산시험을 받는 학생처럼 정신을 가다듬는다.
특별기부의 장부였다. 자칫하면 의심을 받기 쉬운 성질의 회계장부지만 재모는 지방민의 절대신임을 받아서 결백한 자기자신의 손으로써 처리하고 또 정리한것인것만큼 사실을 그다지 꼼꼼스레 재검할 필요는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일이 금전에 관한만큼 결코 서뿔리 할수는 없는것이고 따라서 골머리 아픈 일이다.
이윽고 그는 정신이 힝 나가고 눈앞이 그만 흐리멍텅해진다. 그는 언제나 하는 버릇으로 고개를 뒤로 제끼고는 양복깃에 목덜미를 두어번 부비적부비적한다.
그리고는 그만 눈을 꽉 감아버린다.
불시에 지나간 일이 생각났기때문이다.
지나간 일— 그렇다. 그걸 좀더 소개할 필요가 있다.
재모가 처음으로 이 시골에 부임해왔을 때는 아직 학교가 서지 않았었다. 따라서 물론 교실도 학생도 없었다.
그는 곧 아동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헐어져가는 동네글방을 빌려가지고 한쪽에는 자기 가족이 들고 또 한쪽을 림시교실로 대치하였다.
천정이고 벽이고 모두 군데군데 매흙이 떨어져서 알맹이가 쑥쑥 드러나고 방바닥은 여간 발라도 철딱서니 없는 아이들의 발길에 단 사흘이 못 가서 먼지가 풀썩풀썩 솟아올랐다.
이런데서 그래도 공부를 시키겠다고 40명이나 되는 아동을 방이 빽빽하게 몰아넣고서 국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 모르게 한참동안 벅적거리고나면 어느덧 백묵가루와 먼지가 자욱하게 들어찼다. 게다가 아이들이나 말쑥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코흘리는 놈, 낯 안 씻은 놈들이 그저 수두룩했다. 그리고는 또 지린내, 비린내까지 내는 놈이

있었다.

이러한 공기속에서 재모는 하루에 몇번씩 숨이 턱 막히고 속이 메슥거리는 경우를 겪었다. 그는 몇번인가 교원노릇을 집어치우고 고향에 돌아가서 남의 땅이라도 파고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흥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자기가 온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또 자기를 어디까지라도 믿어주는 아이들의 솔직한 기대를 저바리지 않았다.

즐거이 그들속으로 뛰여들었다. 그늘에서 핀 호박꽃같이 영양부족한 그들, 오나가나 때물이 질질 흐르는 그들, 무지하고도 어리석은 그들을 재모는 불쌍하게까지 여기였다.

재모는 그러한데서 오히려 교원된 보람을 찾으려 했다.

여가만 나면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로 내려갔다. 아직 물은 좀 차거웠다. 아이들은 조금도 꺼리지 않고 마치 그러한 맑은 내물을 처음으로 발견이나 한듯이 거위새끼처럼 앞을 다투어 풍덩풍덩 즐겁게 뛰여들었다. 재모는 간혹 제 손으로 때를 씻겨주기도 했고 이가 추첩한 놈이 있으면 일부러 자기 집 소금까지 가져와서 일일이 닦이였다. 아이들은 볼 동안에 깨끗해졌다. 때로는 귀구멍까지 후벼주었다.

수업시간에 똥을 싸는 놈이 있어도 그는 별로 불쾌히 여기지 않았다. 곁에 앉았던 놈들이 《야—》하고 침을 뱉으면서 놀리면 《엑, 이놈들. 너희들은 똥 안 싸고 컸니?》하고 나무래놓고는 《이놈! 너 어제 저녁에 차게 잤군? 이담부턴 어머니에게 배를 단단히 덮어달라고 해, 응?》하며 똥싼 놈을 되려 위로하였다. 그리고는 제 손으로 손수 그 똥을 다 쳤다.

집에서는 까딱하면 매맞지 아니하면 꾸중 듣기가 일쑤여서 언제나 진날 개처럼 기를 잘 못 펴는 그들에게 재모는 또 일찌기 제 어머니품에서 듣지 못한 가지가지 재미있는 옛이야기를 자주자주 들려주었다. 그리고 잊혀져가는 고장의 아름다운 옛노래들도…

툭하면 다투기를 일삼는 그들도

동무동무 내 동무
보리가 나도록 살아라

하며 사이좋게 깡뚱거렸다.

재모의 집을 제일 먼저 찾아온것은 동네할머니들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짜고짜로 《노래를 한번 돌려보우.》하는것이 수인사였다.

《네?》

재모는 첨엔 무슨 뜻인지 잘 알아채질 못했다.

《노래통 말이요. 왜 그 날마다 우리 손주놈들에게 들려주는것 있잖우?》

《아, 에— 노래통, 노래통…》

재모는 그제야 비로소 유성긴줄 알고서 노래통이라고 묘하게 이름을 짓는다고 감득을 하며 구미에 맞을만 한것을 많이 불러주었다.

구주 깊은 밤에
하늘이 높고 달이 밝다

하는 노래가 나왔을 때 할머니들은 주름살잡힌 얼굴들을 벙긋거리며 어깨를 들먹들먹하였다.

그들은 오래오래 신을 내가면서 듣고나서 갈 때는 모두 풀이 빳빳한 치마밑에서 때묻은 주머니들을 슬그머니 더듬어내더니 웬 돈을 1～2전씩 방바닥에 꺼내놓았다.

《왜 그러십니까?》

재모가 의아해하니깐 《그럼 남의 노래를 듣고 그냥 가서 돼요?》하였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모는 돈을 도로 넣어보내면서 속으로 웃지 않을수가 없었다.

오후가 되면 아이들의 할아버지들도 더러 놀러 왔다. 그들은 대체로 할머니들보다는 좀 데퉁스러웠다.

더구나 동리안에서 제 땅마지기나 지닌걸 괜히 얼토당토않게 저들끼리서 주사니 참봉이니 하며 소위 산골량반을 뽐내려는 패들이 더욱 그러하였다.

첨에는 《접장 있는가?》하며 재모를 마치 자기들의 아들이나 되는

것처럼 만만히 보고서 말조차 함부로 해던졌다.
재모는 다소 창피스러운 생각이 안 든바도 아니였으나 그저 지방풍속이 그런가보다 생각하고서《예, 어서 오십시오.》하고 우선 반갑게 맞아들이고는 《요새는 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하며 그저 어수룩하게 타일렀다.
《그럼 뭐라고 부르는고?》
저편에선 얼른 눈치를 채기는커녕 말이 연방 더 열퉁적게 나갔다.
재모는 그제야 비로소 교원을 아주 영 시들히 보는구나 하고 깨치고서 《선생이라고들 허잖으우?》하고 팩하게 내던졌다. 실상으로는 왜 빤히 알면서 그렇게 능갈을 치오 하고싶었던것이다.
《응, 그래?》
이를테면 그게 아마 량반의 대답들이라는것일테지. 신청부(너무 작거나 부족하여 마음에 차지 않음.)스럽기 짝이 없었다. 허나 무안한 기색이 바이 없는바도 아니였다.
재모는 그후부터 소위 지방량반들의 그러한 경향을 고치려고 들었다.
비단 접장이란 말에 관해서만이 아니였다. 다만 호통을 치거나 따귀를 갈기지 않는다고서 교원을 만만히 보려는 그 고린내 나는 태도를 옹어리부터 활 들어내치고싶었다.
그러나 그들은 좀처럼 선생이라고 부르려고도 않고 또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았다. 되려 주막집에라도 모여앉으면 《제가 어디 우릴 가르치러 왔던가? 우리 손주놈들의 선생이지.》하고 깎기가 일쑤였다. 그리고 또 무슨 선거때만 되면 그들이 무슨 알맹이가 있다고서 걸핏하면 학교내부에 대해서까지 당치 않은 간섭을 하려고들었다.
그럴수록 재모는 교육자로서의 자기의 몸가짐을 삼가히 하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맞선 일도 많았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차차로 재모를 리해해갔다.
허지만 여사여사한분에게는 한말에 1원 60전씩으로 두말없이 썩썩 져다 드리는 쌀을 재모에게는 꼭 말부대가 축이 나게 해가지고 시세에서 일전도 떨어지지 않게 그것도 반드시 소사나 누구나 가지러가야만 겨우 내주는 법만은 끝내 잊어버리지 않았다.
글방생활을 석달도 더 했을 때 겨우 학교가 섰다.

성대한 락성식이 벌어졌다.

재모는 파아랗게 빛나는 새 기와지붕과 훤칠하게 번쩍거리는 유리창들을 바라볼 때 뱁새춤을 추는 아이들만 못지 않게 기뻤다.

《선생님!》

《선생님!》

《오냐.》

《오냐.》

아이들은 깡충거리고 그는 빙그레 웃었다.

《이게 우리 학교죠?》

《암, 그렇고말고!》

《언제부터 들겁니까?》

《래일부터라도…》

《정말예요?》

《그럼!》

《아이구 좋아!》

어떤 놈은 재모의 손을 마주 잡아당기고 어떤 놈은 그의 양복자락에 매달렸다.

뜰안이 차게 모인 지방민들도 모두 입이 벙긋벙긋하였다.

《이러면 되는걸, 원!》

늙은이들은 텁수룩한 수염에 막걸리칠을 허옇게 해가지고 부산하게 떠들어댔다.

재모도 어느새 술이 얼근히 돌았다. 그러나 그는 한갖 기쁠뿐만이 아니였다. 그에게는 벌써 새로운 념려거리가 머리속에 떠올랐던것이다.

《집만은 됐으나…》

인제부터 어떻게 내용을 충실히 해나갈가가 문제였기때문이다.

물론 당국의 예산이란 보잘것 없는것이다. 그는 어떻게 하더라도 다시 지방민을 움직이지 않을수가 없었다.

이튿날부터 그는 아이들만 가르치고나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밖으로 나돌았다. 면내의 어느 부락, 어느 집사람 할것없이 그의 발자취가 가지 않은 곳이 별로 없었다. 물론 그에게는 일요일도 없었다.

그리하여 첨에는 거죽만 엄부렁하던 이 학교가 오늘날에 와서는 3학급제의 학교로서는 어디다 내놓더라도 짝지지 않을만큼 안팎이 다 오달지게 영글어진것이다.

그렇게 동냥아치처럼 특별기부를 얻으러 다닐 때에 겪은 가지가지 고초중에서 지금까지라도 가장 그에게 인상깊게 남아있는것은 양주사란 사람의 술도가에서 봉변당한 일이였다.

《학교만 지어주었으면 됐지 또 무엇을 그리…》

이것이 그 량반의 첫인사였고 《예산은 군에서 나오는 법이고 당신은 교장선생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저 경리만 해나갈 일이지…》가 그의 두번째 훈계였고《가만히 앉아서 글이나 가르치지 뭘 그리 일장공성 만골고(장군 하나의 공로는 만군사의 전공의 덕택인데 장군만 내세운다는 뜻)란 격으로 당신 한사람 이름내기 위하여 지방사람들 죽는줄은 모르오?》가 그의 마지막명령이였다.

재모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한다. 악패듯 억수가 내려퍼붓던 밤중에 그의 집을 허탕으로 물러나와가지고 산길 20리를 허둥허둥 돌아오던 그날 밤의 광경이 환하게 머리속에 떠올라왔다.

바로 곁의 교실에서 《로오레라이》를 풍당당거리는 강선생의 요란스러운 오르간(풍금)소리도 재모의 귀에는 먼 옛날의 잊어버린 자장가같이 아득하게 울려왔다.

그날 오후에는 분교에서 교장선생이 출장을 나와서 출근부에 괜히 거짓말도장을 수두룩하게 찍어두고 돌아왔다.

5

재모는 짜증이 몹시 솟구쳤다.

《자장, 자장… 요거 왜 요렇게 자진 않고서 줄곧 칭얼거리기만 할가, 원!》

그는 몇시간전부터 젖먹이를 보는중이다.

눕혀도 보고 안아도 보고 또 안고 서도 보고 이리저리 다녀도 보고 막판에는 허다못해 혀를 빨려봐도 이건 뭐 아주 영 억척이다. 상판을 빨갛게 해가지고서 량미간을 잔뜩 찌프리고 뒤로 넌떡 제쳐서는 방금 불에나 데인듯이 빽애소리를 짜내는데는 아무리 속이 너글한 재모라

도 짜증이 안 날수가 없다.
《혜순아! 어서 노래나 좀더 불러봐라, 응?》
그저 만만한것이 혜순이다.
《안해!》
혜순이도 뾰로통하고 토라진다.
《왜?》
《해도 자꾸 우는걸 머…》
사실 그도 인젠 싫증이 안 날리 없으렷다.
《그래도 해야지, 네가 노래를 아주 영 잘만 부르면야 애긴 곧 자버리지!》
재모는 이놈까지 꾀여야 될판이다.
《많이 했는데 뭐!》
《그래도 조곰만 더 해, 응? 너 참 잘 부르더구나.》
《그럼 머?—》
치사만 주면 의례 맘이 솔깃해진다.
《암거나.》
《싫어!》
《그럼 참깨 들깨 오도독… 할가?》
《그거 안해!》
《그럼 가자가자 감나무—》
《거 또 안해!》
《그럼 뭐?》
《새야 새—》
《거 참 좋지, 어디 해봐!》
《아부지부터 먼저 해봐.》
《아부지가 어디 할줄 알아야지. 난 있다 아주 좋은 장수 얘기 해주지.》
《증말?》
얘기라면 또 밥술을 내던지고 덤비는 성미이다.
《아무렴!》
《꼭 해줘!》
재모는 괜히 또 별소리를 했구나싶으면서도 《응.》안할수가 없다.

새에야 새
나아무가 삐
조선나아라
임—금의 집에
무엇하러 갔드뇨
새끼치러 갔더라
몇마리 쳤뇨
다섯마리 쳤다
한마리 주우라
볶아먹고 지져먹고
다아 먹었다

혜순이는 고개를 깐댁깐댁하면서 재롱스럽게 불렀다. 재모는 젖먹이를 무릎우에 안은채 풀무질을 흔들흔들했다.

그러나 혜순이 말마따나 아무리 노래를 들려줘도 애기는 자꾸만 낑낑거렸다.

재모는 어줍잖은 일에 그만 역증이 슬며시 올라왔다.

《혜순아, 네 어머니 어서 데리고 와! 뭘 그리 오래도록 꾸무럭거리느냐고, 아버지 야단났다고 그래라.》

혜순이도 아버지가 골을 내는 눈치를 얼핏 채고서는 그러나 아기자기하게 앙감질(한발을 들고 한발로 뛰여가는것)을 쳐가면서 사립밖으로 간드랑간드랑 나갔다.

안해가 경호만을 떼여업고서 바느질거리를 가지고 남의 집 일을 갔던것이다. 게다가 명순이조차 빨래통을 이고 나간 뒤였다.

한참동안이나 기다렸지만 안해도 안 오고 일부러 심부름을 보낸 혜순이도 좀처럼 돌아오지를 않았다.

어린건 연방 더 목이 말라서 못 견딘다. 사지를 바드등바드등하며 삐액삐액 울어대는 모양이 짜증이 나기보담 인젠 불쌍하게 생각되였다.

양복저고리에 벌써 두어번째나 오줌이 차게 번지였다.

그는 깍듯이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오오냐, 오냐. 네 에미가 소갈

은 년이다.》하며 달래였다.
말경에 어린건 울음소리까지 못 내게 기진해지고 재모는 안해에 대한 불똥이가 극도로 높아졌다.
(오기만 해봐라.)
재모는 뭉클해가지고 부엉이상을 하고있었다.
《뭘하고 인제 돌아와?》
재모는 그렇지 않아도 조마조마하면서 들어오는 안해를 그만 쥐여뜯을듯이 흘겨본다.
《일이 좀 어중 되여서…》
안해는 재모가 사정없이 불끈하는 바람에 더욱 겁을 먹으며 부리나케 어린걸 받아안으려 한다.
《…》
안해는 어마뚝하고 서서 손만 부빌 따름이다.
《혜순이 안 갔소?》
《왔습니다.》
안해는 겨우 기죽은 대답을 한다.
《그럼 오라면 곧 와야지.》
《남의 틀에 너무 자주 다닐수도 없고 해서 일거릴 좀 많이 가져갔더니…》하고 어리뎅뎅하게 해놓는 소리가 재모에게는 왜 여직껏 바느질틀도 하나 못 장만했소 하는 푸념으로밖에 아니들렸다.
《틀에 안 가면 그래 바느질 못하오?》
재모는 속이 더욱 뭉클했다.
《누가 어디 못한다고 하나요.》
《그럼 왜 주접스레 남의 틀에 다니오?》
《어디 가구싶어서 가나요? 이집저집 다녀가며 거지같이 눈총을 맞아가면서!…》
안해는 악다구니라기보담 신세타령 비슷하게 얼버무리더니 뜻밖에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담는다.
재모는 언젠가 안해로부터 자기가 역시 어느 부자댁에 틀을 빌려쓰러 갔다가 웬일인지 그 집 며느리가 자기의 치마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있기에 속상하다 생각하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델 가도 남달리 단속을 한다고 하는 청목치마가 어쩐

지 어설피게 떠들썩해지고 남을 뵈여서는 안될 해여진 속곳구멍으로 허벅살짬이 허옇게 드러나있었기때문에 어떻게 창피스러운지 얼굴에 불을 놓은것 갈더란 얘기를 들은것까지가 얼핏 생각나서 동정은 되면서도 화는 연방 더 북받쳐서 얼김에 안해의 뺨에 손이 그만 찰싹 날았다.

《그런줄을 뻔히 알면서 왜 그런데를 다니오? 아주 영 미쳤지, 미쳐!》

《안 미쳤으면 어떻게요?》

안해는 손자취가 빨갛게 드러난 얼굴에 눈물을 주룩주룩 지으면서 원망스러운듯이 재모를 쳐다본다. 경호와 혜순이도 난생처음으로 이러한 광경을 보고 제풀에 놀래여 에미 등뒤에 붙어서 울어댄다.

《이게 무슨 모양인가.》

재모는 순간에 자기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고선 그만 눈을 꽈악 감아버렸다. 감은 눈속이 불시에 또 더워졌다.

《평생 안 그러시더니 오늘은 어쩐 일인가요?》

우거지상을 하고 앉은 안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귀전에서 뱅뱅 돈다. 그는 한숨만 한번 크게 쉴뿐이다.

《제가 잘못했으니 애기나 어서 이리 주고 저 방으로 가계시세요.》

안해는 그때까지 재모의 무릎에서 깔딱거리던 젖먹이를 빼앗듯이 받아안으면서 《빨리 한다고 한것이 그만 늦어져서…》하고 혼자말같이 어물쩍거린다.

재모는 아무 말도 않고서 왈칵 일어서더니 모자를 찾아쓰기가 바쁘게 밖으로 나가버린다.

(무슨 까닭으로 요즘에는 저렇게 잘 불끈거리는지 몰라.)

안해는 못내 애달파하면서 그러나 남편의 뒤꼴만 우두커니 바라볼뿐이였다.

한식경이나 지난 뒤에 재모는 술냄새를 뭉클거리며 돌아왔다. 눈이 벌겋게 상기되여있었다.

《또 고구마밥인가?》

재모는 선떡 받듯이 상을 받았다. 안해의 해여진 버선코구멍으로 체

면없이 쑥 내민 발가락이 선뜻 눈에 띄였다. 역시 고구마밥이였다. 고슬고슬한 쌀바탕에 노르끼레한 고구마쪼각이 사암(모래가 쌓이고 눌려서 이루어진 암석)속의 장석처럼 군데군데 박혀있었다.

재모는 언짢은 얼굴로 그놈부터 먼점 빼여먹는다. 흰쌀밥에 싫증난 사람이 별미삼아 간혹 먹을 때라야 말이지 허구한 날을 늘 그놈만 처맡기니 골이 아니날수 없다. 그러나 안해를 원망할수도 없다.

수입은 한푼도 늘어나지 않고 란리바람에 물가만은 대중없이 뛰여오르는데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써 처자를 먹여살릴래 고향에 계시는 부모형제를 돌볼래 하자니깐 허덕대다 허덕대다 막부득이 궁리해낸것이 이 고구마밥이다. 자기가 처음에 그런 엄두를 내였을 때 안해는 사뭇 섭섭하게 여기였다.

《그렇게까지 안해도…》

《아냐, 쌀 한말에 2원이 훨씬 넘는데 어떻게 해. 고구마밥을 먹는게 옳지. 그런데 어느 책에서 보니깐 고구마란 놈이 사람에게 썩 좋은 모양이드군요. 더구나 녀자에게는…》

재모는 이렇게 권하였던것이다. 그리고 여적 누구보다도 달게 먹어왔다.

그러한 고구마밥이 요즘에는 갑자기 싫증나서 그날 저녁에도 그만 중둥무이를 하고말았다.

6

마침내 최후의 심판날이 왔다. 오래오래 꿈꾸던 교장이 될가, 못될가? 맘이 달뜬것은 단지 재모만이 아니였다.

그의 안해는 말할것도 없고 동료들이 그러하였고 지방민들도 그러하였다.

재모는 맘이 흥뚱거려서 밤새 잠을 들지 못하고 첫새벽부터 책상을 향해 앉아서 줄담배만 피워대였다.

그는 두가지 길을 생각코 있었다. 만약 교장으로 눌러앉기가 못될 경우에는 하불실(아무리 적어도 적은 그 정도의 희망은 있다는 말) 자식들 공부시키기에 좀 편리한 도회지가까이에 전근이나 되여갈것이라고.

(그것도 저것도 죄다 틀릴 때는…)
그러한 생각은 애초부터 가지기도 싫었다.
(그런 무작한 대우야 안할테지.)
그는 이렇게 부인하려 들었다.
어느쪽이냐 하면 아마 교장이 되겠지 하는 생각에 골머리가 휑해졌을 때 바로 책상 건너벽에 뜻밖에 웬 거미새끼가 한마리 살랑살랑 기여올라갔다.
재모는 마침 피워물었던 담배불로 턱없이 그만 그놈을 지져버리려고 손이 슬며시 갔다가 아서라, 아침 거미를 보면 재수가 있다더라 하는 생각이 문득 나서 그대로 내버려두기로 하였다.
거미새끼는 동그스름한 엉뎅이를 무거운듯이 늘어뜨리고 아슬랑아슬랑 느리게 기여올랐다.
재모는 갑갑한듯이 만년필끝으로 불룩한 엉치를 약간 건드려보았으나 그때뿐이지 역시 게을기 짝이 없었다.
그래도 재모는 끝까지 고놈을 지키고 보았다.
그럴때 마침 건너방에서 《이놈!》하는 경호의 잠꼬대소리가 들린다.
《경호야!》하고 불러보았으나 아무 대답이 없다.
《미친놈!》
재모는 전같으면 의례 쫓아가서 그놈을 또 좀 깨워가지고 지부렁거려볼테지만 그만 허 웃고만다.
그러는 동안에 거미는 《애가 터지게 인간다운 생활을 가르치기 위하여 내스스로 거지와 같은 생활을 했노라.》하는 《페스탈로찌》(스위스의 교육자)의 말을 적어 붙인 쪽지밑으로 쏘옥 들어가버린다.
낮에는 마음이 더욱 흥뚱거려서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더구나 젊은 강선생이 또 제일처럼 체부를 몹시 기다리며 조급증을 내는 바람에 도저히 직원실안에 꾹 배겨있을수가 없었다.
재모는 짐짓 침착한 얼굴로 밖으로 나왔다.
먼저 그는 자기 뜻대로 규모있게 꾸며둔 교재원들을 둘러보았다.
벌써 빨갛게 꽃이 핀 동백나무를 비롯하여 군데군데 심어둔 상록수사이에 아담하고 규모있게 심은 여러가지 초목들, 나날이 따뜻하게 내

려지지는 봄볕을 받아서 어느덧 매화는 무덕진 향기를 내뿜고 개나리는 노오란 꽃잎을 한들거린다. 녹신녹신 부풀어오른 부토를 떠받고서 작약은 자주빛순을, 양귀비는 연두색순을, 붓꽃은 칼날같은 순을 여기저기서 뾰족뾰족 뽑아올리고있다.

재모는 그 귀여운 순들과 봉오리들을 마치 하나씩 하나씩 세기나 하는듯 깍듯이 노려도 보고 만져도 보는 동안에 어쩐지 아까운 생각, 섭섭한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어느결에 그는 조심조심 꽃밭속으로 들어가서 어여쁜 매화가지를 휘여잡았다.

그는 매화가지를 코끝에 휘여대고서 원대로 흠뻑 향내를 맡았다. 향내가 뼈속까지 스미여드는듯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맡아도 흡족하지 않은 심사였다.

그는 코망울에 화분이 노랗게 묻은것도 몰랐다. 양복등덜미에 꽃벌이 수둑하게 앉아있어도 몰랐다.

3월의 석양은 따뜻하게 무르녹았다.

재모는 가만히 교재원을 나서서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네모가 반듯한 운동장에는 조약돌 하나도 눈에 띄우지 않았다. 끝에서 끝까지 보드라운 모래가 다지여져있었다. 어느 모래알에라도 재모의 발 안간 곳이 없는것만큼 알알이 다 정히 새삼스러웠다.

운동장 저편의 황토색실습지는 어느덧 비노리(도처에 흔히 자라는 일년생풀의 한가지)같은 잡초로 파아랗게 아로새겨져서 씨앗을 재촉하는듯 그의 괭이를 부르는듯싶었다.

재모는 뚜벅뚜벅 철봉곁으로 발을 옮겨놓았다. 역시 그의 손때에 미끄러워진 저 철봉들이였다. 그는 제일 높은 놈을 하나 거머잡았다. 그러나 하진 않았다. 손바닥이 점점 차거워졌다.

마침 그때 기다리던 체부가 무거운듯 한 가방을 엉뎅이짬에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교문을 들어섰다.

(인제 왔구나!)

재모는 선뜻 나는 맘으로 부리나케 그쪽으로 두어걸음 나섰으나 강선생이 어느새 먼저 알아채고서 실내화바람으로 쫓아나오기에 그는 그만 무춤하고서 짐짓 자기는 그렇지 않은양으로 마침 땅에 떨어져있는 막대기를 하나 슬며시 주어가지고 쓰레기터로 어슬렁어슬렁 돌아갔다.

그러나 속은 걷잡을수없이 뒤설레였다.
이내 강선생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박선생님－》
재모는 실뚱머룩(마음에 내키지 아니함.)한 낯으로 신풍스럽게 돌아보았다.
《전보왔습니다. 교장 났습니다!》
재모는 가슴이 선뜩했다. 그러나 강선생이 벙긋거리는걸 보고서는 갑자기 천지가 환해지는듯싶었다.
그는 어느덧 뚜벅뚜벅 걷고있었다.
그러나 강선생이 다시 전문을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없는걸 보고서는 불현듯이 또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하였다.
(데된 녀석, 왜 말을 똑똑히 안할가?)
재모는 조바심을 내면서 잦은걸음을 떼였다.
《누가 됐어?》
그는 강선생앞으로 와락 다가간다.
《요다란 사람입니다.》
《요다 뭔가요?》
《요다 사부로요.》
《뭐? 요다 사부로?》
재모는 불시에 뭉클하면서 전보쪽지를 덥석 빼어든다.
손이 사뭇 덜덜 떨리였다.
《아시는분입니까?》
강선생은 민망한듯이 묻는다.
재모는 아무 말도 않고 오직 전신을 부들부들 떨며 앞정문만 뚫어지도록 노려본다. 석삼자가 깊게 파진 이마전에는 어느덧 생땀이 번지르르 내배였다.
《귀교 교장을 배명. 여러가지 잘 부탁. 유일부임 예정. 사택, 기타 지장 없도록. 요다 사부로.》
난생 처음 보는 긴 전문이였다. 재모는 자기의 눈을 의심이나 하는듯이 몇번이나 되씹었다. 받는 쪽은 확실히 《박재모》라고 씌여있었다.
《요다 모노로가… 사택 기타 지장없도록… 허허허… 쳇!》

재모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만 헛웃음을 껄껄거리더니 불시에 또 얼굴을 벌겋게 해가지고 전보쪽지를 접어서 양복주머니에 구겨넣으면서 《신문은?》 하고 강선생을 쳐다본다.

《아 참, 그건 안 봤구먼요. 직원실에 있습니다.》

헐렁이 강선생은 제가 먼저 달린다. 재모도 시무룩해가지고 직원실로 향해갔다.

《요다 모노로가, 칫!》

재모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요다 모노로라고 놀려 부르던 요다 사부로의 과거를 회고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재모가 ××보통학교에서 수석훈도로 있었을 때 이 요다란 사람도 그 학교에 한 훈도로 있었다.

그는 노상 실내화로 학생들의 뺨을 잘 때렸고 주산으로 제반 학생의 머리를 두들겨 동맹휴학을 당했으나 워낙 상관에게 아유구용(남에게 아첨하여 구차스럽게 구는 모양)을 잘하는 놈이라 학생 몇놈만 희생을 시켜놓고 자긴 무사히 나돌아다녔고 그러다가는 말경에 제가 가르치던 녀학생 하나의 신세를 망쳐놓고는 하는수없이 다른 학교로 전근이 되여간 인간이다. 그러는 동안에 동료들로부터 요다 모노로(망나니)라는 별명을 얻었고 재모로부터는 동정도 많이 받았고 또 꾸중도 적잖게 들었다. 말하자면 키는 작아도 꾀는 많은 인간이였다.

(세상사 참 알수 없네. 제一길…)

재모는 뭉클하면서 직원실문을 열어젖히였다.

강선생은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서 제자리에 웅크리고있었다.

《선생님…》하면서 다른 동료 한분이 재모앞에 다가선다.

재모는 입을 짜악 다물고 그저 보기만 했다.

《이 학교도 인제 망하게 됐어요.》

《왜?》

《저도 그만둘가 해요.》

《어째서 말요?》

《선생님께서 갈려가게 됐어요.》

《뭐, 내가? 어디로?》

재모는 갑자기 말소리를 높였다.

《갈고지 간이학교래요.》
《갈고지? 아직 학교도 안 섰는데…》
재모에게는 거짓말 같았다.
《학교 설 자리에 보리가 퍼렇다우.》
《갈고지? 어째 그리 갈 곳이 없어서 하필 갈고지에?》
재모는 신문을 받아들고 보더니《음— 정말이군. 〈보리와 교원〉이란 이야기나 써볼가, 하하하.》
재모는 불시에 또 너털웃음을 웃어댄다. 그러나 그의 뚜렷한 두눈에는 어느덧 알지 못할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다. 마침 그때 경호란 놈이 쑥 들어오더니 《아찌, 엄마 빱바!》하며 매달린다.
《오냐, 빱바 가자.》
재모는 자기의 눈물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당황히 경호를 추켜안으면서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러자 몇자국 안 떼놔서 갑자기 아주 영 뜻밖에 딴 생각이 불쑥 나서 가슴속이 불시에 후련해졌다.
마치 악몽을 깬듯 하였다. 뉘엿뉘엿한 락일에 일찌기 보지 못했을만큼 태양이 붉고 아름답게 빛나보였다.
(좌천이든 뭐든 좋다. 어서 갈고지나 가서 갯놈애들허구 고기나 잡고지내자!)
재모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길다란 그림자를 고요히 끌고 돌아갔다.

《조광》 1940. 6.

실 명

엄 흥 섭

원칠이는 하늘밑에 살면서도 하늘이 푸르고 높은것을 모르며 땅을 디디고 살면서도 땅이 또한 넓고 큰것인줄을 모르고 자라난 청년이다.

산의 높음과 물의 깊음이며 꽃과 녀자의 아름다움과 숲과 바위의 장엄함을 그는 전연 알지 못하는 맹아다.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동천이 밝아올라 태양이 두둥실 떠서 적, 곤, 황, 록, 청, 남, 자지 … 그 눈부신 광채로 대지를 내려비칠 때면 땅우의 모든 생물들, 날짐승과 길짐승은 물론 나무잎에 매달리고 풀뿌리에 붙은 이름 모를 벌레며 하루살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았던 눈을 뜨고 뛰고 날고 움직이며 광명의 하루를 즐겁게, 기쁘게 맞이하지마는 원칠이는 한개의 인생으로 태여났으면서도 광명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가엾은 장님이다.

말하자면 원칠이는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모르고 자라났다.

아니, 그것보다도 원칠이는 자기를 낳은 자기 아버지의 얼굴도,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자라났다. 모르고 자라났으면 알고싶어함이 마땅하련만 원칠이의 가슴속을 파고들어가보면 오히려 그것들이 한없이 미웁고 원망스러운 때가 많았다.

사람이란 무엇이냐! 해란 무어냐! 달이란 또 무어냐! 별이란 대체 어떻게 생긴것이냐! 아니, 산은? 바다는? 나무란? 구름이란것은? 새는? 아니, 붉은 빛이란것은? 파랑빛이라는것은? 흰빛이란것은?

원칠이는 이런 문제들이 자기 일생을 두고 머리를 썩여보아도 해결할수 없는 수수께끼인줄 알면서도 때때로 머리를 썩이고 가슴을 앓다가는 그렇다, 모두 암흑이다. 오직 암흑이다. 오직 암흑이다 하고 머리를 흔들어버리고만다.

그러나 원칠이는 비록 광명은 향락할줄 모르는 불행한 자기라 하더라도 역시 육체와 정신을 가진 한개의 인생으로서 태여났다는데에 저으기 감사하여 자기스스로 은근히 만족해하는 때도 있다.

그는 시각이 없는 대신에 청각과 후각이 몹시 발달되고 사물에 대한 사고력과 기억력이 눈 가진 사람보다는 놀랄만큼 우위에 있다는데에 자기스스로 위안을 얻고 빙그레 웃는것이였다.

그러나 원칠이의 사고력은 언제나 원칠이의 머리를 썩이고 가슴을 태우는데에만 소용되였다.

(왜 내가 두눈이 다 멀었담? 제－기…)

이런 탄식이 하루에도 몇차례씩이나 나왔고(차라리 내가 병신이 되지 않으면 안될 전생에 무슨 죄가 있다면 벙어리나 꼽추나 앉은뱅이나 조막손이를 만들지 않고 왜 하필 광명을 못 보는 소경을 만들었을가? 흥, 빌어먹을것! 전생에 죄는 무슨 죄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잘못 만들었기때문이지! 그렇다. 아버지, 어머니의 큰 실수이였다. 큰 실수이였다.)

여기까지 문득 생각이 내려오다가는 갑자기 이를 부드득 갈며 흥분해본다.

(애비? 내게 무슨 아버지가 있어? 눈먼 나를 낳았다구 식모노릇도 못하게 내 어머니를 쫓아내고만 그 훌륭한 부자집 주인나리가 내 아버지인가? 흥, 내 어머니두 상당히 못 났지! 아무리 식모노릇을 하기로 매독을 가진 방탕한 주인에게 몸을 빼앗기여 처녀의 몸에 결국 나같은 장님을 낳게 되고… 그리고는 왜 그 집에서 쫓겨나게까지 되였을가? 아 아! 내게는 에미두 애비두 없다. 나는 오직 그들의 죄악의 씨일뿐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두눈에서 피와 고름이 나왔다 한다. 그 집 주인마누라에게 쫓겨난 내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고 약 살 돈을 품팔이했다. 그러나 내 두눈은 날이 갈수록 나빠져서 끝끝내 낫지 않고 아주 장님이 돼버리고말지 않았던가. 그 흔한 병원에두 내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한번두 못 갔었다. 첫째 돈이 없어서, 둘째 갈줄을 몰라서, 셋째 부끄럽고 무서워서, 이리하여 완전히 소경이 된 내가 열한살이 되였을 때 내 어머니는 그 어느 행랑방에다 나를 남겨놓고 어떤 무서운 열병으로 서른살도 못된 젊은 나이에 그만 죽고말지 않었던가. 그뒤 나는 거리를 울며불며 먹을것을 찾어 헤매다가 돌담에 이마를 찧기도 하고 개천에도 풍덩 빠져 지나가던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말지 않았던가. 그렇게 이태동안 거리에서 헤매다가 13살 되던 해 봄 어떤 신문사 다니시는 어른의 주

선으로 이 맹아학교에 입학하게 되지 않았는가.)
원칠이는 오늘 밤도 잠을 못 이루고 자기 신세를 되풀이하기에 가슴을 태운다.
가을밤도 이미 깊어 K맹아학교 기숙사안은 씻은듯 고요하고 시들은 풀포기에 벌레우는 소리조차 처량하다.
이따금 위잉하고 불어치는 거센 바람에 나무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바시시 바시시 들려온다.
그는 벽에서 또옥또옥, 따악따악 울리는 기둥시계가 언제나 열한시를 치나 하고 쥐죽은듯 한 고요속에 가슴을 조이며 귀를 기울이고있다.
11시에 그는 기숙사뒤 아늑한 곳에서 명희라는 녀자부에 있는 계집애와 만나기로 약속했기때문이다.
이윽고 시계바늘이 11시 가까왔음인지 《찌르륵》하고 태엽풀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이불을 가만히 박차고 슬며시 일어나 소리 안 나게 밖을 나온다.
기숙사 이 방, 저 방에서는 코고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온다.
그는 발뒤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복도를 지나 신장을 더듬어 누구의 것인지 운동화 한컬레를 닥치는대로 주어신고 벽을 만져 방향을 짐작한 다음 기숙사벽을 붙들고 돌아 한참동안 넓은 잔디밭을 지나 기숙사와는 훨씬 떨어진 교실뒤켠으로 돌아간다.
바람두 잦아들고 오직 씻은듯 조용할뿐이다.
그는 혹시 명희가 먼저 와 기다리지나 않나 하고 일부러 발길을 주춤하고 서서 가볍게 마른기침을 해보았다. 그러나 아무 소리두 들리지 않는다.
《여봐! 명희!》
그는 가만히 입을 열고 나지막하게 불러본다. 그러나 역시 명희는 아직 와있지 않았다.
(아직 11시가 좀 못됐으니까. …)
그는 두손으로 땅을 더듬어 잔디가 깔린 곳을 찾아 가만히 내려앉는다.
명희는 원칠이보다 두살이 어린 열여덟의 처녀이다. 그도 원칠이와 마찬가지로 광명을 모르고 암흑속에서 살아가는 눈없는 소경계집애다.

명희와 원칠이는 이상하게도 8년전 어떤해 봄 한날한시에 이 K맹아학교에 입학하여 한집안식구가 되였다. 그동안 명희는 원칠이를 오빠라고 불렀고 원칠이는 명희를 누이동생처럼 귀여워해왔다.

보통과에서 6년동안을 명희는 바로 원칠이 책상 앞줄에 앉아서 점자서적과 점자신문을 원칠이의 힘으로 많이 배웠고 창가시간에는 누구보다도 맑고 고운 목소리로 원칠이앞에서 꾀꼬리처럼 노래를 잘 부르군 했기때문에 원칠이는 명희를 다른 계집애들보다 더욱더 사랑해왔다.

명희를 은근하게 사모하고 좋아하는것은 원칠이뿐만은 물론 아니였다. 명희는 이 K맹아학교 20세 전후의 사내아이들의 짝사랑의 대상이 될수 있었고 련모와 희망의 향기를 풍기는 한떨기 꽃이 될수 있었다.

원칠이는 명희가 다른 아이들의 련모의 대상이 되는것이 웬일인지 심히 재미없고 싫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혹시 명희의 마음이 다른데로 헛갈리기때문에 자기의 은근한 마음을 영영 몰라주면 어떡허나 싶은 불안스런 생각이 치밀어올라왔기때문이다.

그러다가도 원칠이는 자기자신을 돌이켜 자기 얼굴이 새빨개질만큼 자신을 꾸짖군 한다.

(두 눈깔이 하나두 없는 녀석이 무슨 잡스런 생각이여! 못난 송아지가 궁둥이에서 뿔이 난다구… 그래 네 주제에 계집애 생각을 하면 어떡한단 말이냐?)

원칠이는 어느틈에 몸서리가 쳐진다. 그러나 문득 자기자신에 반기를 들고 생각한다.

(아니다, 나도 인생이 아니냐. 비록 시각은 없을지언정 다른 모든 생리적조건이 어디 하나 빠진데가 있단 말인가. 나도 훌륭한 인생이다. 청춘이다. 녀성을 련모할 권리가 어째서 내게 없단 말인가. 그렇다, 나는 명희를 사랑한다.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한다. 다만 명희의 꾀꼬리같은 노래소리만을 사랑할수는 없다. 명희의 두뺨은 보드랍겠지. 향기롭겠지. 명희의 젖가슴은 벌써 불룩불룩 하겠지. 그리고 허리통은… 그리고 궁둥이는… 아 아, 명희의 살이 한없이 그립다. …)

원칠이는 어느틈에 자기의 두눈알이 휀해지는 불그스레한 분홍색흥분에 잠기여졌다.

어느틈에 명희의 부드러운 두뺨이 포근한 살향기를 풍기며 자기의

뺨에 닫는 감각, 명희의 상반신을 자기의 두팔로 힘껏 껴안는 흥분된 환영, 또렷이 자기의 귀를 울리는 명희의 숨소리, 가슴뛰는 소리… 그리고 코를 찌르는 명희의 살향내.

원칠이는 어느틈엔지 다시 정신이 선뜻해지며 자기로 돌아왔다.

금방 자기의 팔에 안기였던 명희는 간곳이 없다. 금방 두귀를 또렷이 울리던 명희의 숨소리도, 금방 코를 찌르던 명희의 살향기도 모두 꿈속처럼 사라지고 오직 차디찬 잔디우에 청승맞게 쭈그리고 앉은 자기를 발견했을뿐이다.

그는 다시 귀를 기울이였다.

이윽고 발자욱소리가 사뿐사뿐 가까이 들려온다. 명희의 발자욱이다.

원칠이는 반가와 벌떡 일어나며 낮은 목소리로 《명희!》하고 불러본다.

확실히 명희의 발자욱소리였건만 그러나 명희는 얼른 대답을 하지 않는다.

《명희! 왜 인제 와! 글써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고…》

발자욱소리는 원칠이쪽으로 아주 가까와온다.

원칠이는 두손으로 명희의 몸을 더듬기 시작한다. 그러나 좀처럼 잡혀지지 않는다. 어쩐지 어떤 이상한 예감이 선뜻 떠오른다.

《명희! 어디야, 응? 여기여, 여기. 온, 이렇게 만나기 힘들담!》

이 순간 갑자기 철썩하고 원칠이의 뺨을 올려치는 손이 있다.

《앗?》

원칠이는 정신이 몽롱해지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얼굴은 모닥불을 끼얹은것처럼 화끈거리기 시작한다.

《이놈아! 잠 안 자고 나와서 이게 무슨짓이야, 응?》

원칠이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사감 박선생의 목소리인데 더욱 놀랐다.

명희와의 관계를, 비록 아무런 육체관계는 없지만 명희를 자기가 좋아하고있다는 비밀을 박선생에게 오늘밤 들키게 됨으로써 비로소 느끼게 되는 부끄러움과 아픔과 원망!

원칠이는 어느틈에 두눈언저리가 뜨끔해지며 뜨거운 눈물이 빙그르 돌기 시작한다.

《가자! 내 방으로…》

박선생의 어조는 날카로왔다. 원칠이는 박선생에게 끌려서 사감실

로 들어갔다.
《너 학교규칙 알지?》
《…》
《왜 말이 없어, 응? 너희들 불구자들을 이렇게 한집안에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교자선사업회가 거액의 예산을 세워 너희들을 기르는 리유가 어디에 있는줄 아니! 응? 밤중에 자다말구 일어나 후원같은데 나가 계집애 만나서 못된짓하라고 해놓은것은 아니지? 응?》
《…》
《너 이 맹아원에 들어온지가 8년이나 되고 또 고등과 졸업반이니까 이 맹아원 규칙쯤은 다 알고있겠지, 응? 어디 한번 외워봐라! 응?》
원칠이는 가슴을 울렁거리며 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한참 섰다가 입을 열었다.
《새벽 5시에 종이 울면 일제히 일어나 강당에 나와 하느님앞에 기도하고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9시에는 교실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하고 저녁때 공부가 끝나면 잠간 해별을 쏘이다가 저녁밥을 식당에서 먹고 밤에는 점자신문과 서적을 읽다가 10시에 자는 종이 울면 기도를 하고 잡니다.》
《그것뿐이야?》
박선생은 고함을 꽥 지른다.
《맹아부 아이들과 롱아부 아이들은 서로 싸움을 말고 친형제처럼 지낼것. 만일 싸움을 하는자는 벌로 한때이상 밥을 굶을것…》
《또?》
《…》
《또 몰라? 〈남아는 녀아와 가까이 말고 녀아는 남자아이 가까이 말것!〉을.》
박선생은 화를 내며 또 고함을 지른다.
《…》
《그래 명희와 언제부터 친했니, 응?》
《언제부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뭣이 어째?》
《…》
《그래 그 컴컴한 교실뒤에서 몇번이나 명희와 만났니, 응?》

《몇번인진 저두 잘 모르겠어요.》
《뭣이 어째?》
《…》
《만나서 뭐했어, 응?》
《…》
《아, 뭐했어? 커다란 총각 처녀가 밤중에 교실뒤에서 만나 뭐했어. 응?》
《저희들은 다만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고있었을뿐이였습니다. 결코 저는 부끄러운짓은 하지 않었습니다.》
《뭣이 어째?》
박선생의 어조는 갑자기 기가 막힌 발음이다.
《명희는 저를 보통과 1학년때부터 오빠라구 늘 불러왔었어요. 그러나 저는 요새 와서 웬일인지 명희를 다만 누이동생으로서만 사랑할수 없을것 같었습니다. 명희는 제 어두운 일생을 밝게 비쳐주는 별이며 달이며 해라고 생각해요.》
《그럼 너 명희와 결국 결혼하겠다는 말이냐, 응?》
《명희두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혼하려구 생각합니다.》
《결혼? 흥! 이 맹아학교는 너희들의 련애유희장두 아니구 자유결혼실습장두 아니니까 래일 당장 나가! 아무리 너희들 암흑속에서 살어나가는 가엾은 인생이기로… 도덕과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돼. 암흑의 세계에도 도덕과 질서가 필요해! 응?》
《…》
《너 며칠전에두 두사람 쫓겨나간것 알지? 규칙을 어기다가…》
《용서해주십시오!》
《무얼 용서해달라는거냐?》
《앞으로는 기숙사규칙을 잘 지키겠습니다.》
《인제 그따위 소리하면 소용있을줄 아니? 너희들같은 부정한것들은 깨끗한 이 학교에다 놔두면 큰일이 나, 큰일이. …》
《네? 부정한것들이라구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듣기 싫어!》
《선생님! 저는 명희의 손목 하나 까딱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으로 명희와 저는 서로 사랑하고있을뿐입니다.》

《그따위 쓸데없는 말 말구 어서 가 자빠져 자구 래일 아침에 보짐을 챙겨!》

박선생의 말소리는 여전히 랭정하였다. 원칠이는 한참 섰다가 다시 입을 연다.

《선생님!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네, 선생님!》

《나는 용서할수 없어! 나는 오직 사감으로서 기숙사규칙대로, 이 맹아학교 규칙대로 하는것뿐이니까. 어디 할말이 있으면 해봐라, 응?》

《선생님! 규칙도 사람이 만든것 아닙니까. 광명을 모르고 자라난 저의 소경이 오직 이성의 사랑을 찾음으로써 제 령혼을 위로하려 한것이 그다지 잘못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저는 앞으로 다섯달만 지나면 저를 키워주고 가르쳐준 이 맹아학교하구도 리별을 하고 저는 저대로 거칠고 더한층 캄캄한 의지가지없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한없이 슬프고 화만 납니다. 저는 두눈만 없었다뿐이지 육체조직이 멀쩡한 젊은놈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서두 두눈이 없는 소경이기때문에 세상에 나아가면 저와 결혼할 녀자가 없을것입니다. 결혼이 다 무엇입니까? 얼굴만 봐두 침뱉구 달아나겠지요. 만일 저를 불쌍히 여기여 제게 결혼을 청하는 녀자가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겠지요, 성녀이겠지요.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도 저는 단연코 그 녀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 녀자와 결혼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저는 역시 제 처지와 같이 암흑세계에서 헤매는 맹녀와 결혼하는게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칠이의 발음은 어디인지 비장한데가 있었다.

《그래서 명희와 련애를 한단 말인가?》

박선생의 어조는 풀이 좀 죽어졌다.

《뭐 련애를 하고싶어 하는것은 아니예요. 저두 모르는 사이에 명희의 목소리가 귀엽고 사랑스러워진것뿐입니다.》

《좌우간 래일 직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할테니까 들어가! 어서!》

박선생의 어조는 어느틈엔지 또 강경해진다.

원칠이는 더듬더듬 발길을 옮기여 기숙사 제 방으로 돌아왔다.

명희두 만나지 못하고 사감에게 들키여 망신을 당하게 된 오늘 밤의 기분은 한없이 불쾌하고 우울했다.

(명희는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러면 왜 아까 저녁때 식당에서 돌아오다가 제가 먼저 내게 만나자고 약속을 했을가? 아니, 무슨 사정이 생겼을가? 나를 찾아나오다 뜰앞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치고 그대로 들어가지나 않었을가?)

원칠이는 이런 미련을 가지면서 엉금엉금 벽을 더듬어 제자리로 들어왔다. 방안에선 여기저기 코고는 소리가 난다.

그는 살며시 아까 걷어차고 나간 이불자락을 더듬어 덮으며 다리를 뻗는다. 이 순간 곁에서 누구인지 원칠이의 한쪽귀를 말없이 잡아끄는 사람이 있다.

《아야야… 누구여? 동식이여?》

원칠이는 가만히 입을 열고 《아, 끌지 말구 놔아. 귀병나면 어쩔라구 이래, 응? 어서 놔.》하고 은근히 애원한다.

《너 혼자만 살살 피해나가서 뭘 사가지고 들어왔어, 응? 군밤 사왔지? 나 좀 안 줄테야? 혼자 살짝 소리 안나게 먹으면 누가 모를줄 알구? 안 주기만 해봐! 자는 놈들 일으켜 덮쳐버릴테니까.》

남의 속도 모르고 동식이는 원칠이 귀를 그대로 잡아끈다.

《귀를 놔. 어서 귀를 놔야 군밤이구 생밤이구 줄게 아냐?》

귀를 쥐였던 동식이의 손이 슬며시 놓인다.

원칠이는 소리 안나는 웃음이 배속에서 솟아올랐다.

《자, 인제 귀를 놨으니까 밤을 내야지. 어서!》

《내 바로 말하지. 군밤 사러 나갔다 온건 아니야.》

《거짓말 말어! 입에서 군밤내가 나는데 그래? 어서 내. 잔말말구 내여. 조용히 말할 때 내야지 그렇잖으면 재미없어!》

원칠이는 실로 기가 막혔다. 어느틈에 또 귀가 붙들리였기때문이다.

《놔, 놔, 놔, 내지 내.》

《얼른 내. 어서, 용서해주겠으니…》

귀잡은 손이 또 스스로 놓인다.

《사실은 군밤 사러 가다가 사감한테 들켜서 야단을 맞구 도로 오는 길이야!》

《참말이야? 그럼 그 돈을 내. 그 돈을 내. 내가 사올게!》

원칠이는 감쪽같이 제 꾀에 넘어갔다. 허는수없이 머리맡에서 제 닫긴옷양복을 더듬어가지고 속포안에서 십전짜리 한푼을 꺼내여 동식의 손에 쥐여준다.

《그런데 어떻게 또 돌담을 뛰여넘나? 제기— 게다가 다리마저 부러져라. 그렇지만 담 뛰여넘는덴 내가 선수니까 념려없지!》

동식이는 두덜거리며 더듬더듬 벽을 돌아서 밖을 나간다.

동식이가 나간 뒤에 캄캄한 방안엔 코고는 소리가 높았다낮았다 할뿐. … 방 하나에 정원이 여섯명, 누비돗자리가 여섯장 깔리였으니 돗자리 한장우에 한명씩 거처하는셈이니까 녀기숙사보다는 거처하기가 넓은셈이지만 두눈이 없는 그들은 가끔 이마를 맞부딪치거나 발부리들을 걸채이거나 해서 몹시도 협착하고 거북하고 갑갑하다.

원칠이는 누구인지 자기의 배우에 사정없이 다리를 덥석 올려놓는데 깜짝 놀랐다.

그는 가만히 다리를 배우에서 내려놓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가 또 기지개를 켜며 몸부림을 치더니 문짝을 거세게 걷어찬다.

유리창이 드르릉 하고 복도에까지 울린다. 원칠이는 자기도 잠이 들면 그렇게 험하게 자려니 생각해본다.

누구인지 저쪽 벽쪽에서는 이를 부드득 갈기도 하고 입맛을 쩝쩝 다시기도 하고 방귀를 픽 하고 뀌기도 한다. 또 누구인지 코를 드르렁 골던 아이는 갑자기 코골던 소리를 뚝 그치더니 뭐라고 중얼중얼 잠꼬대를 하다가 벽을 툭툭 걷어찬다. 이윽고 동식이가 군밤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원칠이는 군밤을 먹을 생각보다도 래일에 벌어질 자기와 명희와의 문제에 새삼스럽게 머리통을 조인다.

교장선생이하 수많은 직원들이 쫙 둘러앉은 사무실에 불리워가서 질책을 당할것을 생각하면 얼굴이 또다시 확확 달아올라온다.

누구와 싸움을 했기때문에 또는 동식이처럼 밤중에 담을 뛰여넘어가 군밤을 사들였기때문에 또는 한방안에서 누구의 물건이 없어졌기때문에, 장난하다 유리창을 깨였기때문에 불리워가게 되여 질책을 당하게 되였다면 오히려 훨씬 걱정이 가볍고 얼굴도 덜 붉어오를것이 아닐가!

(그러나 내게는 아무 죄도 없지 않느냐! 나도 인생이요, 나도 청춘

이 아니냐! 명희와 사랑을 속삭인들 무엇이 죄며 무엇이 부끄러운짓이냐! 더구나 명희의 젖가슴 한번 만져보지도 않은 깨끗한 내가 아니냐!)

원칠이는 까닭없이 이런 정의감에 흥분되여올랐다.

(그렇다, 나는 아무 죄도 없다. 나에게 죄를 들씌우려는자가 있으면 나는 비록 두눈이 없을망정 그자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여기까지 생각하여 흥분된 원칠이의 귀엔 사무실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비웃는 여러 선생들의 목소리들이 한데 뒤섞이여 들려왔으므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그 소리를 잊으려 했다.

(명희는 이런것두 모르고 잠이 들었을가? 나중에 나갔다가 나를 만나지 못했기때문에 혹시 내가 약속을 어기였나 오해하며 불쾌한 기분이 부풀어올라와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하지나 않을가?)

원칠이의 머리속에는 어느덧 명희생각이 꽉 들어찼다.

(그렇다면 명희는 나를 심히 오해하고 원망하겠지. 래일 명희도 불리워서 나와 같이 질책을 당할는지 혹은 나와 함께 요전 아이들처럼 퇴학을 당할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명희가 심히 가엾고 애처롭다. 자기때문에 다섯달 남은 졸업두 채 못 마치고 이 맹아학교에서 쫓기여나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 집에서(비록 그의 집은 부자라 하지만) 더욱더 학대를 당하게 될것이다. 학대가 심하므로 명희는 날마다 세상과 자기 운명을 원망하고 비관하다가 아아, 혹시 자살이라도 한다면? 하고 원칠이는 자기스스로 머리끝이 쭈빗해지며 진저리가 쳐진다.

(명희를 구할자 오직 나뿐이다. 지금 나는 명희를 구해야 한다. 오늘 밤 나는 명희를 구해내야 한다.)

원칠이는 가슴에서 불길이 확 퍼져올라왔다.

어느틈엔지 원칠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고있었다.

원칠이는 벽을 더듬어가지고 아까처럼 방향을 찾은 다음 사감실쪽으로 갔다.

사감실안에서는 뜻밖에 무슨 이야기소리인지 도란도란 들리기 시작했다.

(자정이 다된 이때 누구와 저렇게 이야기를 한담?)

원칠이는 선뜻 귀를 기울이였다. 녀자의 맑고 고운 목소리다.
(웬 녀자가 밤중에 젊은 남선생을 찾아와 도란거린담?)
원칠이는 사감실 창문밖에 바싹 붙어섰다.
《아, 글쎄 선생님두 참 장하시유. 벙어리, 소경들을 대체 어떻게 가르칩니까? 더구나 온, 게다가 이렇게 밤에까지두 사감노릇을 하시니…》
《원, 천만에요. 벙어리, 장님이라구 깔볼게 아닙니다. 어떤 생리학자 말을 들으면 사람의 신체구조나 어떤 감각기관에 결함이 있을 때는 그 결함있는 반면에 반드시 그 결함있는 부문이외의 감각기관이나 구조의 일부는 그 결함때문에 소모되지 못한 에네르기가 전부 모인다는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애꾸눈의 힘이란 두눈 가진 사람의 한눈의 시력보다 훨씬 강하고 다리병신은 팔기운이 세고 팔병신은 다리기운이 센거라거나 귀머거리가 대개 시력이 좋고 눈치가 빠르고 감각이 예민한거라거나 장님은 청각이 예민한거라거나… 그러나 사실 뭐니뭐니 해두 장님같이 불쌍한것은 없지요.》
박선생의 말이 그치기도 전에 녀자는 《정말 불쌍하구말구요. 어디 말루 이루 다 하겠습니까. 선생님두 잘 아실테지만 내 딸년두 글쎄 그게 인물이야 멀쩡한게 참, 어디 빠진데가 있어요? 오직 그 두눈이 없는탓으로 해서 이 학교에 입학시켜 선생님들 애만 태우게 해드려 뭐라구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는지… 그저 찾아와 뵌다뵌다 하면서두 집안살림이 단순치 못할뿐더러 또 와서 그 두눈두 없는것이 에미라구 반가워 날뛰는양을 보면 제절루 눈물이 흘러내리구 해서 차라리 아주 죽은 자식처럼 잊어버리자구 한것인데 온, 그처럼 걱정까지 하시구 전화를 해주셔서 참, 뭐라구 감사한 말씀을 여쭈어야 할지…》
녀자의 이야기가 그치기도 전에 《온,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잘못해서 따님병을 내여드린것만 같아서…》 하며 박선생의 어조는 저으기 떨리여나왔다.
《아이유! 선생님두… 애당초에 이런 말씀을랑 말어주세요. 그리고 제 딸년이라구 뭐 류달리 특별취급을 마시고 다른 애들과 꼭같이 취급해주세요. 먹는 음식이나 잠자리나 학습시간이나 할것없이 그저 똑같이만 취급해주시면 그저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온, 부인께서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따님이라구 어디 특별히

대접해서 해드리는게 있습니까, 하하하!》

《아니예요! 자는 시간이라거나 일어나는 시간이라거나 먹으러 가는 시간이나 기도시간이나 할것없이 규칙에서 조금이라두 어김없이 훈련을 시켜주세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집에서야 그저 불쌍하구 게다가 성질이 아주 날카로워서… 학교에 있을 동안 좀 엄하게 교육을 시켜주시면 래년에 졸업시켜 집 뒤방에다 처박어두더라두 좀 나아질게 아닙니까!》

《네, 네, 알어듣겠습니다. 그러나 뭐 댁따님이래서 부인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비록 불행하게 광명을 못 볼지언정 역시 일류가정에서 부인과 같으신 현숙하신 어머니의 가정교육을 받은 표가 나드군요.》

《온, 별말씀두… 소경딸년한테 가정교육이 다 무엇입니까. 그저 죽은 자식처럼 내던져 키운걸 가지고…》

《뭐 이 학교 맹아들이 2백여명이 넘습니다마는 품행이며 언어며 례의범절이 댁따님만 같으면 저희들은 그야말로 그저 편안히 앉아 놀고먹겠습니다. 도대체 2백여명 맹아가운데는 심히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난 사생아, 기형아, 고아의 경력을 가진것들두 있는가 하면 한다하는 장안명사, 부호의 자녀로서 그야말로 의식주의 호화스런 생활을 하던 도련님, 아가씨들두 있구 해서 그 성격과 개성들이 하나하나 판이하게 다르기때문에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취급할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들의 개성이니, 성격이니만을 존중시하다가는 이 맹아교육은 못해나갈테니까요!》

《물론 그러실테지요.》

녀자는 나지막하게 별반 흥미없이 대꾸를 한다.

《그런데 참, 마님께 전번에두 말씀드렸지만 따님 약혼문제는 어떻게 생각해보셨습니까?》

박선생의 어조는 약간 부드럽고 무슨 애원에 가깝게 들린다.

《글쎄요. 선생님말씀은 늘 감사합니다마는 벼룩두 낯짝이 있다구 어떻게 약혼을 시키겠습니까? 온, 생각만 해두…》

《천만의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말씀한 청년은 첫째, 따님댁내용을 잘 알뿐만아니라 게다가 따님두 잘 알고있습니다. 그리구 제가 중간에 들면 뭐 그만한것쯤이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어쩐지 병신딸을 가지고서 다만 돈의 힘으로 사위를 사들이는것만 같아서 암만해두 량심이 거북해져요, 호호호호…》

《온, 마님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잠간 두사람은 아무 말이 없더니 이윽고 《그럼 어디 선생께 렴치없는 수고를 끼치도록 해보지요.》하고 녀자가 결심을 보이자 《내 그럼 쉬이 일간 그 청년을 데리구 댁을 찾어가보지요.》하고 박선생이 기쁜듯이 말을 한다.

《뭐 데리구 오시지 않으면 뭐랍니까. 도리여 쑥스러운짓이죠. 남이 알면 웃음거리구…》

《온, 별말씀두…》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온, 병신딸년때문에 이처럼 페를 끼쳐드려서…》

녀자의 이러한 끝인사가 들리더니 《아이참, 이건 혹 실례일는지 모릅니다만 이것 받아주세요. 변변치 못한 상품권이지만 너무두 여러가지로 페를 끼쳐서…》하더니 선물을 내여놓는 모양이다.

《아, 웬걸 자꾸 오실 때마다 선물을 주십니까. 오히려 제가 뵐 낯이 없는데요.》

박선생의 목소리는 더한층 기뻐날뛰는 음성이다.

《온, 천만에… 자,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밤공기가 추울텐데… 좌우간 따님병은 념려마십시오. 뭐 저녁음식에 체한듯 하니까 래일은 나을것입니다. 만일 래일 아침까지 신열이 안 식거나 무슨 병발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시 댁으로 전화해드리지요. 그렇지만 뭐 의사가 약을 먹였으니까 대개는 관계찮을것입니다.》

그들이 사감실 유리창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난다. 이 순간 원칠이는 어름어름하고 그대로 섰을 때가 아님을 깨달았으므로 기침을 한번 조그맣게 하고나서 그들의 발자국소리 가까이 가서 《선생님!》하고 나지막하게 불렀다.

《누구야?》

바깔유리창문이 드르릉 열리면서 박선생의 불쾌스러운 목소리가 들린다.

《왜 왔어? 응? 안 자고…》

《선생님께 꼭 한마디 말씀드릴것이 있어서요!》
《무슨 말이야! 아까 그 이야기지, 응? 래일 아침에 와서 해!》
《아니예요. 지금 선생님께 여쭈어야 할 말씀이예요.》
《그럼 무슨 말야? 얼른 해!》
박선생의 어조는 더욱 거칠어졌다.
원칠이는 나지막한 어조로 가장 침착해지며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용서를 빌러 온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켜야 할 규칙을 어기였으니까 퇴학시켜주셔두 좋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명희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래일 저를 퇴학시키더래도 명희만은 아무 죄가 없으니 그대로 졸업할 때까지 놔주세요, 선생님! 그리구 다른 선생님들에게랑 오늘 밤일은 알리시지 말어주시고 오직 선생님 혼자만 비밀루 해주세요. 래일 선생님께서 직원회를 여신다구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명희를 불러다 질책을 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안에 전부 소문이 퍼지구 그렇게 되면 명희네 집에까지 소문이 알려지게 되여 결국 죄없는 명희에게 해로운 영향이 미칠테니까요. 그리구…》
원칠이가 채 이야기두 그치기 전에 박선생은 듣기 싫다는듯이 《응! 알았어! 어서 가 자!》 하고 유리창을 드르렁 닫고 처마밑으로 나서는 소리가 들린다.
《아 아니, 선생님? 이 청년이 말하는 명희라니요? 제 딸년 이름이 아닙니까? 그래 이 청년하고 제 딸… 년 하구 무슨?》갑자기 녀자의 놀랜듯 한, 의심스러운듯 한 목소리가 바로 원칠이의 귀결에서 나지막하게 들린다.
원칠이는 깜짝 놀랐다. 그 녀자가 간줄만 알고 박선생에게 은근히 이야기한것을 가만히 자기곁에 서서 일일이 엿들었다는 사실과 아울러 그가 명희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사실에 또한 왈칵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아니올시다, 부인! 명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또 있습니다. 댁 따님이야 이따위 사내아이들과 휩쓸려 놀지두 않지만 저희들두 그만한 감독을 하고있으니까요.》
박선생의 이 말에 《네, 그러세요. 선생님께 실례될 말씀만 드렸습니다그려! 그럼 실례합니다.》 하는 녀자의 말소리는 불안이 풀린듯하더니 발길을 옮긴다.

원칠이는 이 순간 웬일인지 갑자기 속에서 불길이 치받쳐오른다.

《마나님!》

원칠이는 녀자의 음성나던 쪽으로 얼른 어깨를 돌리고 서서 경례를 하더니 《명희 어머니 되십니까? 명희가 아픕니까? 명희는 우리 학교에 한명밖에 없습니다. 마나님 따님인 명희 한사람뿐입니다.》하고 흥분된 어조로 발음한다.

녀자는 걸어나가다가 발길을 주춤했다. 《아 아니, 그럼 자네가 내 딸 명희와 뭘 어쨌단 말인가?》

녀자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심히 날카롭고 떨리였다.

《아니올시다. 재가 좀 정신에 이상이 있어 그랬습니다. 걱정마시구 돌아가세요. 원, 밤두 자정이 됐나봐요.》

박선생은 이렇게 변명을 하더니 《가서 자, 이놈아! 뭐야, 되지 못한 놈같으니!》하고 원칠이 귀전에다 대고 굵다랗게 고함친다.

원칠이는 잠간 고개를 수그린채 우두커니 무엇인지 생각한다.

(그렇다. 나같은 놈은 역시 이런 학교에 입학해온것이 잘못이다. 나같은 놈에게는 이런데 입학할 자격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는 어둠을 헤치고 더듬더듬 제 방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새벽 5시 종치는 소리가 들린다.

원칠이는 잠을 깨고 정신을 차렸다.

이방저방에서 아이들 일어나는 소리며 문 열고 닫는 소리며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떤 녀석들은 무엇이 그리두 식전부터 좋은지 깔깔거리고 장난들을 하느라고 툭탁치는 소리두 난다.

원칠이는 자기 방의 실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안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세면할 정신조차 잊어버렸다.

지난밤 밤늦게까지 정신이 흥분이 되여 잠을 잘못이루어 머리속이 뗑하고 게다가 오늘 자기의 일이 걱정되여왔기때문이다.

이윽고 6시반의 기도시간이다. 강당에 모이라는 종이 울린다.

이방저방에서 옷들을 갈아입는 소리, 문을 닫고 여는 소리, 복도를 오가는 소리로 야단스럽다. 원칠이는 한방 아이들과 손목을 잡고 강당으로 들어갔다.

이 강당 바로 정면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초상화가 걸렸다.

그리고 그 초상화앞에 자기들은 무조건하고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해야만 하는것인줄 알아왔다.

강당안에 200여명의 남녀맹아가 꽉 들어찼음인지 사감이 강당에 올라가는 구두발자욱소리가 들린다.

《자, 다같이 고개를 수그리고 오늘 새벽기도를 올리자구!》

사감의 목소리다. 원칠이는 고개를 숙이였다.

《거룩하옵시고 전지전능하옵신 하느님아버지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하루를 무사히 기쁘게 보내고 또다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였나이다. 하느님아버지시여! 이 앞 못 보고 말 못하고 말 못 듣는 이 2백여명의 불쌍한 맹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여 오늘 하루 또다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려주시사 마음의 눈을 틔워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그만치라도 하나님의 뜻에 배반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손톱만치라도 이 속세의 천가지, 만가지의 욕망과 죄악에 발을 못 디디게 해주시옵소서. 잠시 주 예수 그리스도 공로 받들어 비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 원칠이는 다시 손을 더듬어 이웃에 서있는 아이들과 함께 뜰로 나와 기숙사에 돌아왔다.

이방저방에서 먼지 터는 소리, 비질하는 소리, 책상서랍 빼는 소리, 닫는 소리, 코노래로 창가하는 소리, 지껄이는 소리, 웃는 소리, 복도로 쿵쿵 오고가는 소리, 달음질치는 소리들이 한데 뒤섞여 요란하게 들린다.

《야아, 인제는 아주 치운데 이거 어디 홑껍데기 여름샤쯔만 입고 살어갈수가 있나, 제－기.》

동식이의 이 말에 누구인지 쑥 나서며 《너 그따위 양광스런 소리 말어. 너따위나 나따위 소경신세에 홑껍데기, 겹껍데기 투정이 주둥이에서 나오니?》하고 말을 툭 쏘아붙인다.

원칠이는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문득 자기 몸에 걸쳐진 샤쯔가 벌써 입은지 열흘이 넘은것인데에 깜짝 놀랐다. 그는 어느틈에 닫긴옷 양복소매안으로 한손을 들이밀어 샤쯔소매가락을 끄집어댕겨 코에 갖다대고 씨근씨근 맡아본다.

케케하고 시큼한 땀냄새와 때냄새가 흠뻑 절어 코를 왈칵 찌른다.

(아마 오늘쯤은 새 샤쯔를 갈어 입혀주겠지!)

원칠이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기의 오늘일이 께름직하게 걱정되자 (샤쯔를 갈아입으면 뭘해! 내여쫓길는지두 모르는 내 주제에…) 하고 어느틈엔지 서글픈 한숨이 한가락 《휘유―》 하고 흘러나온다.
《원칠이!》
바로 곁에서 동식이가 부른다.
《왜 그래?》
《자네 무슨 걱정이 생겼나?》
《아닐세!》
《그럼 어디 아픈가?》
《아프긴 어디가 아퍼!》
《그럼 왜 숨소리가 그런가, 응? 왜 그래?》
《…》
원칠이는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는다.
《괜히 속썩이지 말게. 이제 새삼스럽게 신세 한탄하면 뭘하나. 난 오늘 새 샤쯔나 갖다줬으면 제일 좋겠네. 도무지 몸이 굼실거려서 견딜수가 있어야지! 우리 방에 누가 옴이 오른 놈이 있나봐. 아마 그렇잖으면 이쟁이가 있거나…》
동식이는 이렇게 말하고나더니 웃입은 우로 몸뚱이를 북적북적 긁어대는 소리가 난다.
《이쟁이는 너지 누구야! 똥싼 놈이 성낸다구 괜히 제 몸에 이가 많으니까 남 핑개여! 힝!》
누구인지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이며 입바른 소리를 한다.
그는 동식이와 사이가 좋지 못한 상만이다.
《상만이 저자식 좀 봐! 누가 절더러 이쟁이랬나. 마구잽이 조기대가리 나스듯 쑤윽 쑥 나스게스리!》
《망할자식같으니! 내가 뭘 쑥 쑥 나서? 너 괜히 잘한체 해두 우리 방에서 제일 추접스런게 누군지 아니? 그게 바루 너야, 이자식아!》
《뭣이 어째, 내가 추접스런게 뭐야?》
《일일이 주어넘겨볼가… 첫째, 우리 방에서 제일 방귀 많이 뀌는 자식이 너지 누구냐?》
《뭐? 내가 언제 방귀를 많이 뀌였어?》
《방귀뿐만이 아니라 밤에 자면서 이를 제일 많이 가는것이 누군지

아니? 그게 너야!》

《이자식 좀 봐. 너는 자지두 않고 남 이가는 소리만 세봤어? 망할 자식같으니. 너는 뭣이 그리 정하다구 그래. 종이에 코풀어 이 구퉁이, 저 구퉁이 처박아놨다가 남 발바닥에 떠억떡 들어붙게 하는 자식은 누군데 그래, 아 누군데 그래! 힝!》

동식이는 의기양양해지며 목소리를 높인다.

《왜 이래, 글쎄 그만들 두어. 그저 날만 새면 상만이허구 동식이허구는 쓸데 없는걸 가지구 말다툼이여, 어린애들처럼!》

원칠이는 자기가 실장의 지위에 있다는것을 인식하자 점잖게 말을 하며 그들의 충돌을 제압하려 했다.

상만이와 동식이는 민망했던지 약속이나 한듯이 아무 말들이 없다.

《도대체 우리는 다같이 광명을 등지고 암흑의 구렁속에서 헤매고있는 은혜받지 못한 인생들이 아닌가. 이중에서 누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누가 못나면 또 얼마나 못난것인가. 누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또 추접스러우면 얼마나 추접스러울가. 속담에 거랭이끼리 밥소랭이 깬단 말이 있지. 그 말을 생각들 해보잔 말야! 인제 올겨울만 지내면 모두다 산지사방 흩어져 일평생 다시 만나지도 못할 사람들끼리.》

원칠이는 여기까지 점잖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발음하다가 식당에서 울려나오는 요령소리에 입을 닫아버리고 기계처럼 일어섰다.

방마다 아이들 나오는 소리가 또 요란스럽게 들린다.

원칠이는 식당으로 내려갔다. 배추를 넣어 끓인 된장국냄새가 구수하게 코를 찌른다.

원칠이는 롱아부 아이들의 인도가 없이도 자기자리를 더듬어 찾아가 앉았다. 롱아부 아이들이 그릇 나르는 소리가 들린다.

고무신 끄는 소리, 숟가락 갖다놓는 소리, 염장무우쪽들을 접시에 갖다놓는 소리, 밥사발 갖다놓는 소리가 차차 저쪽에서부터 가까이 들려온다.

이윽고 원칠이 옆에두 숟가락이 놓이구 접시가 놓이구 밥사발이 놓이는 소리가 난다. 밥에서는 보리와 좁쌀냄새가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원칠이 코를 찌른다. 이윽고 국그릇이 왔다. 된장국에 멸치냄새두 난다.

음식과 그릇이 모두 날라졌는지 잠간 아무 소리두 없다. 이 순간 저

쪽편에서 《기합.》하고 사감선생의 호령소리가 들린다.
《1분간 묵도!》
1분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식당안은 씻은듯 고요하다.
원칠이는 밥을 먹으면서 명희가 왔으면 자기와 여섯사람 사이를 두고 앉았으리라는것을 잘 알고있건만 《명희!》하고 소리쳐 불러보지 못하는 부자유한 자기를 한탄했다.
자기와 같은 암흑세계에 사는 사람도 도덕과 질서가 있어야 하는것인가, 렴치와 체면이 있어야 하는가!
원칠이는 속으로 자기자신을 한없이 비웃으며 식당을 나오고있었다.
누구인지 원칠이의 등과 부딪치는 사람이 있다. 확실히 녀자의 몸뚱이다.
《아니, 원칠이오빠구료!》
《응, 순엽이로군!》
《그런데 원칠이 오빠! 명희언니는 어제 초저녁부터 아퍼 드러누웠다우.》
《음— 그래 지금은 어때?》
《밤새도록 토하고 설사하더니 지금은 아주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우!》
《어떡허다 그래?》
원칠이는 순엽이와 식당을 나와 잔디 깔린 뜰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아, 참말루 심하면 나 좀 가볼가?)
원칠이는 불쑥 이런 말이 나왔으나 입을 앙다물어버린다.
《좀 가보우. 그러지 않어두 아까 명희언니가 날보구 가만히 그러던데…》
《뭐라구?》
《원칠이오빠를 어떻게든지 만나가지고 아프단 이야기를 꼭 해달라구…》
《…》
원칠이는 순엽이를 따라가 명희를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또다시 불같이 솟아올랐으나 자기가 이 맹아원에 있는 날까지는 규칙을 어기여

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순엽과 헤여져 제 방으로 쓸쓸히 들어와버렸다.

뗑뗑뗑…

상학종이 운다. 원칠이는 운동장에 서서 레코드에 맞추어 체조를 하고 교실로 들어갔다.

첫 시간이 지나갔다. 노는 시간에 원칠이는 사무실에서 자기를 부르지나 않을가 했으나 아무 소식도 없다.

둘째 시간두 셋째 시간두 또 점심때두 또 오후부의 시간이 지나가고 아주 하학이 되여두 사무실에서는 웬일인지 자기를 부르지 않는다.

(아마 저녁때 직원회를 한 뒤에 부르려는거지!)

불안과 우울에 싸인 원칠이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교실뒤 잔디밭을 더듬어올라 감나무가 드러난 양지받이언덕으로 기여올라갔다.

감나무밭은 여름에는 그늘을 첩첩히 깔아주고 가을에는 양지받이언덕에 따뜻한 해가 온종일 내려비치여주기때문에 이 맹아학교의 2백여명 맹아들에게는 둘도 없는 산보지대요 또 유원지대요, 휴식장이며 일광욕장이 될수 있다.

원칠이는 등에 따뜻한 해별을 받으며 바람이 세지 않은 아늑한 양지받이로 더듬어갔다.

사방이 조용하다. 원칠이는 더듬더듬 자리를 살핀 다음 해별을 향하여 바로 앉았다. 얼굴이 홧홧해지며 호흡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역시 우리도 태양의 혜택을 입는구나!)

원칠이는 자기도 모르게 제절로 중얼거리며 두팔을 벌리여 훤한 광선을 붙들어보려 한다. 오직 붙잡혀지는것은 허공일뿐이다. 컴컴한 허공일뿐이다.

원칠이는 또다시 자기 신세가 야속한 생각이 들었다. 또다시 빛없는 자기 운명이 보잘것 없음에 한숨이 나온다.

어느 감나무가지에선지 이름모를 새가 《비비 조비비 조비비 비비비.》하고 방정맞게 운다. 어디서 또 한마리가 포르르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에는 《조비 조비 조비비비, 비비 지지지.》하고 새로 날아온 놈이 이야기를 거는 모양이다.

원칠이는 그것들이 혹시 사랑을 속삭이는 암놈과 수놈이 아닌가싶

었다. 이 나무가지에서 저 나무가지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푸른 하늘 높이 떠서 제 마음대로 훨훨 날아다니며 사랑을 속삭이는 한쌍의 사랑의 새!

원칠이는 명희와 자기와의 사랑이 이 새의 사랑만 못한데에 새삼스럽게 허무한 생각이 떠돈다.

한쌍의 새는 원칠이가 앉았건만 날아갈 생각도 않고 《조비 조비 조비비비.》, 《비비 조비 비조조비, 지지 비비비.》하고 아까처럼 번차례로 종알댄다.

마치 눈먼 소경이라고 자기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것이나 아닐가 하고 원칠이는 일종의 노여움과 자격지심이 떠올라오기도 한다.

이윽고 종알대던 새는 어디로엔지 포르르 날아가버렸다. 나무잎이 한두잎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잠간동안 아무 소리두 들리지 않는다. 교실앞마당에서 공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롱아부 아이들이 치는것이겠지. 원칠이는 새삼스럽게 롱아부 아이들이 자기들과는 딴세상에 사는 신선들처럼 부럽게 생각되였다.

이때 감나무우에서 무엇인지 탁 탁 탁 쫏는 소리가 난다. 감을 쪼아먹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까아옥, 까아옥, 까아옥.》하고 까마귀 한마리가 운다.

원칠이는 갑자기 그 소리가 듣기 싫었다. 마치 자기 신변에 불길이 있을 징조와도 같았으므로 (이 망할놈의 까마귀같으니, 누굴 보고 짖는거야!) 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돌멩이 하나를 집어 까마귀소리나는 쪽으로 힘차게 팽개쳤다.

이 순간 까마귀는 놀래여 푸르르 날아갔으나 어디서인지 《와그르르.》하고 질그릇 깨여지는 소리가 난다.

확실히 자기가 던진 돌멩이가 힘차게 날아가 소사 사택 장독대를 맞힌것이나 아닌가 하고 일변 민망한 생각이 불쑥 솟아올랐다.

《아 아니, 대체 누구야? 망할 빌어먹을 두눈깔두 없는 녀석들이 그래 돌을 던져 감을 따먹을라면 될거라구. 그래 이게 무슨 변이란 말이야! 김장항아리 헐라고 새로 5원이나 주고 사다논것을 요모양으로 박살을 내였으니…》

소사 녀편네는 커다랗게 소리지르며 악을 쓴다.

원칠이는 아닌게아니라 민망했으나 일부러 항아리를 깰려는 고의는

물론 아니였으므로 《미안합니다. 댁으로 던지려구 던지지는 않었는데… 어떻게 온, 잘못 나갔나 봐요.》하고 사과를 한다.

그러나 녀편네는 《미안하다구만 하면 제일이야? 그래 나이두 스무살이나 넘어먹었으면 철이 나야지 그래 8년동안 배운게 돌 던져가지구 감따먹기 배웠단 말야? 안돼! 물어놔! 당장 안 물어내면 선생한테 일러서 그대로 두지 않을테니까.》하고 여지없이 원칠이를 꾸짖는다.

이렇게 왁자지껄 하자 누구인지 사람들이 뛰여오는 발자욱소리가 들린다.

《물어드리죠. 래일 아침에 내 꼭 갖다드리죠.》

원칠이는 민망한 어조로 말을 한다.

《헝, 저따위가 돈 5원이 어디 있어? 만일 래일 아침까지 안 가져왔다만 봐! 선생한테 일러바쳐서 밥을 굶기게 할테니까.》녀편네의 소리는 더 한층 표독스럽다.

《제가 밥 굶는건 쉬운 일이지만 댁에서 5원짜리 독을 그대로 손해보셔야 되겠습니까? 념려마세요. 래일 아침까지 갖다드릴테니까요.》

원칠이는 장담을 하고나서 더듬더듬 발길을 돌려 기숙사쪽을 향해 나온다.

그 방정맞은 까마귀때문에 애매한 소사집 김장독이 깨여진걸 생각하면 실없이 우습기도 하려니와 기가 막힌다.

《아 원칠이, 어서 사무실에 좀 가봐. 선생님이 찾아오란지가 오랜데 어디 가서 있었어, 응?》

원칠이 바로 앞에서 급사 호근이가 급하게 말을 한다.

원칠이는 약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받아야 할 질책을 기어이 받을 때가 돌아왔고나 했다.

원칠이는 이미 각오한바 있어 마음을 태연히 가지면서 사무실안을 들어서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암흑을 향하여 경례를 한다. 응당 선생이 있으려니, 자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있으려니 생각되였기 때문이다.

원칠이는 사무실 문턱에서부터 오른편으로 더듬더듬 아홉걸음을 걸어갔다. 거기에는 사감 박선생의 책상이 있기때문이다.

《웨 인제 와? 저쪽 원장선생님앞으로 가!》

박선생은 날카롭게 쏘아붙인다. 원칠이는 가볍게 례를 하고 이번에

는 왼편으로 발과 어깨를 옮겨놓고 더듬더듬 여덟걸음을 걸어가 원장테블앞에 가까이 갔다.
원장선생은 담배를 피우는지 값비싼 담배연기냄새가 구수하게 원칠이의 코를 찌른다. 원칠이는 꾸벅 경례를 한다.
《음, 원칠이냐? 너 오늘 왜 이 자리에 불려왔는지 알겠니?》
《네, 잘 압니다!》
《음! 너는 이 학교에 들어와서 8년동안에 몇번이나 규칙을 어겼는지 기억하고있겠지?》
《네!》
《어디 한번 말해봐.》
《…》
《왜 가만히 섰어, 응? 어서 말해봐.》
교장의 어조엔 노기가 뻗치고 위엄이 풍기였다.
원칠이는 일변 단단히 경을 치나부다 각오를 하고 정신을 바싹 차려 두다리에 힘을 주고 기척을 한채 조금도 움직이지를 않는다.
원장은 테블우에서 무슨 커다란 책장을 넘기는 소리를 낸다. 아마도 자기의 성적부와 학적부를 들추어보는 모양이다.
《응? 잊어버렸니? 말 안하겐?… 너 이놈 보통과때에 두번이나 교실 유리창을 깨고 또 싸움을 세번이나 하구 게다가 군것질을 하구… 그렇게 여러가지루 교내규칙을 어기구 문란케 한걸 몰라? 게다가 어제밤에 어찌고 어째?》
원칠은 잠자코 고개만 수그리고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않는다드니 8년전 이 맹아원에 들어올 때 일을 좀 생각해봐. 에미애비없이 이 골목, 저 골목 짝지를 짚어가며 이집저집으로 거지노릇하고 다니던 그때 일을 생각해보란 말야. 이제 아주 나이가 스무나무살 되니까 그저 늬가 네 덕으로 자라난것만 같이 생각이 되지. 그래 기운이 발름발름허니까 겨우 생각나는게 계집애 생각이냐? 응? 이 못된 놈같으니!》
원칠이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을 안했다.
원장의 질책하는 태도가 너무도 점잖지 못했고 또한 공연히 어린애 다루듯 고함만 지르기때문에 원칠이는 도리여 반발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왜 돌부처처럼 우두커니 섰기만 해, 이놈아! 응? 그래 너 끝까지

사죄않겠단 말이냐?》
《선생님! 퇴학시켜주세요! 어떤 형벌이든지 내려주세요. 저는 사실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리구 규칙을 어겼습니다. 벌을 주세요. 네, 선생님!》
원칠이는 목메인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입을 앙다문다. 이윽고 원칠이는 코날이 시큰하더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두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하고 량볼로 흘러내린다.
《사내자식이 계집애처럼 훌짝훌짝 울어, 응? 보기 싫어! 머리 숙여!》
원칠이는 고개를 얼른 수그리였다.
《네 소위를 생각하면 오늘 당장 너를 퇴학시킬것이로되 첫째, 그렇게 되면 우리 맹아학교 명예에도 관계되는 일이니까 일체 비밀에 붙이구 너를 관대히 용서해주겠다. 그러나 거저 용서해주는게 아니야. 들어봐, 잘…》
원칠이의 눈물에 다소 마음이 약해졌음인지 원장은 약간 목소리가 낮아졌다.
《래일부터 일주일간 점심을 굶길테야. 그리구 누구를 물론하고 또는 어떤 리유를 불구하고 계집애들하구 가까이 하는것이 보이면 그날 당장 퇴학시킬터이니까. 응, 알었니?》
원칠이는 머엉하니 한참 섰기만 한다.
《보기 싫어, 물러가!》
《선생님, 아니올시다. 더 심한 벌을 내려주세요! 저를 퇴학시켜주세요. 저는 용서를 빌고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원칠이는 다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이때에 원장 테블우에서 전화가 따르르 울린다.
《네!》하고 원장이 수화기를 귀에 대니까 저쪽에서 명랑한 녀자의 목소리가 테블부근에 넘쳐흘러 원칠이 귀에까지 똑똑히 들린다.
《나야, 나! 아이유, 나는 오늘 못 나오실줄만 알었지! 전 어제 밤 천행원에서 돌아온길루 게우고 배탈이 나서 이제야 겨우 일어났어요.》
《좀 목소리를 작게 해. 온, 귀가 아퍼!》
원장이 이렇게 말하자 그 다음소리는 귀밖으로 새여흐르지 않는다.
《음, 음, 음, 그럼 지금 가지. 어제 만나던데로 와! 아 아니, 반

도호텔루 말이야. 응, 음!》
원장은 전화를 끊었는지 수화기를 거는 소리가 나더니 놀랜 어조로 《왜 안 나가고 섰니, 응?》하고 혹시 전화통에서 흘러나오던 녀자의 목소리나 듣지 않았나싶은 불안한 어조로 발음한다.
《네, 나가겠습니다.》
원칠이는 경례를 하고 보이지 않는 원장앞을 물러나와 다시 사감 박선생앞에 와서 례를 한 다음 더듬더듬 사무실을 나섰다.
원칠이는 오늘따라 눈앞이 더한층 캄캄하였다.
제밀도 구린 원장에게, 사감 박선생에게 거의 모욕에 가까운 멸시와 천대와 질책과 문초를 당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자기 청춘에 대한 공허하고 무가치한 생각과 아울러 자기 일생을 걸머지고 나아갈 이미 결정적인 암흑의 운명! 그 운명이 가져오는 침울! 원칠이는 그것을 새삼스럽게 되풀이하며 터덕터덕 기숙사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방안에는 갑자기 크레졸약냄새가 난다.
이웃방에서 누가 병이 났거나 또는 혹시 방안이 불결할 때는 의례 크레졸냄새가 난다.
《원칠이야?》
《응!》
《금방 녀자부에 누가 입원했다지?》
동식이의 소리다.
원칠이는 깜짝 놀라서 혹시 그것이 명희나 아닌가 아찔해진다.
《응? 누가? 명희 아니야?》
《명희? 모르지, 누군진. 병두 하두 잘나니까… 벌써 올가을에두 다섯사람째 아니야. 암만해두 그 음식이 나뻐 그런가봐.》
동식이가 두덜댄다.
《만날 보리좁쌀밥에 된장국만 먹으니까… 온, 병 안날 놈이 어디 있어! 보리쌀이 양분이 많네, 비타민 무엇이 들었네 하지만 그것두 이따금 먹어야지 이건 쇠통 꽁보리밥, 꽁조밥이니 원, 배탈이 안날게 어디 있어! 복에 겨운 소린지는 모르지만…》
동식이는 또 퉁명을 부린다.
《괜히 너 그따위 양광스러운 소리 허다가는 점심밥 굶는다! 흥, 지

금이 어느때라구 그런 소리를 해! 이 자식아, 너나나나 눈깔두 없는 녀석들에게 아, 그럼 누가 쌀밥에 고기반찬을 해서 입에 쏘옥 쏙 처넣어줄 놈 있니? 흥! 두눈을 멀거니 뜬 멀쩡한 사람들두 하루에 보리죽 한그릇도 못 얻어먹어 벌벌 편다더라. 세상에서는…》

상만이가 또 말귀를 붙이고 나선다.

《자식은 제기 내 말이라믄 그저 안 앉었지. 말 못허다 죽은 귀신이 점지를 했나, 빌어먹을 자식같으니!》

원칠이는 그들의 충돌이 또 시작되였으나 말릴 용기조차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그저 우두커니 정신을 잃고 앉았을뿐이다.

명희가 S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웬일인지 원칠이에겐 더 쓸쓸하고 무섭고 불길한 예감을 일으켜주었다.

(명희의 병은 대체 무슨 병일가? 무슨 전염병이기에 갑자기 하루두 안 놔두구 데려갔지? 만일 명희가 낫지 않구 죽는다면? 아니, 설마…)

원칠이는 다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조이기 시작한다. 명희가 입원한 뒤로 나흘이 지났다.

원칠이는 금방 뛰여나가 명희가 입원했다는 S병원을 찾아가서 명희를 방문하고싶었으나 기숙사에 있는 사람은 허가없이는 외출을 못하는데다가 여간 필요한 사정이 아니면 외출을 잘시키지 않는 규칙이기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를 얻어가지고 명희를 방문한다는것은 전연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틈을 타서 몰래 빠져나아가면 되느냐 하면 그건 더구나 안된다. 첫째, 정문이 바로 소사실과 마주보이기때문에 몰래 나가다가는 의례 소사한테 들키게 된다. 원칠이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저녁해별을 찾아 뒤산 감나무등산으로 기여올라간다.

며칠전에 따뜻하게 비치던 가을해별도 불과 며칠을 사이에 두고 아주 얄고 으스스했다.

《까아옥 까아옥 까아옥.》

까마귀우는 소리가 또 가깝게 들린다. 원칠이는 이번에는 돌을 던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피해 내려와버렸다.

그는 소리중에 가장 듣기 싫고 기분나쁜 소리가 까마귀우는 소리라고 늘 생각해왔다.

그는 까마귀우는 소리를 듣자 웬일인지 이상스럽게 명희의 병이 혹

시 더하지나 않나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지며 그길로 병원으로 내닫고싶었다.

이윽고 그는 사감에게 가서 외출을 원했다.

《무슨 목적이야?》

《병원을 방문하려구요!》

《누구를…》

《명희를…》

《뭣이, 어째?》

한참동안 사감은 아무 말이 없더니 《그런 건방진 소리 하려거든 오늘 퇴학해버려, 응!》하고 어세를 높이더니 《나가! 보기 싫어!》하고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나고 테블서랍을 열쇠로 잠근다.

물론 박선생에게 거절을 당할줄은 알았지만 박선생의 태도는 상상의외로 랭랭한데에 그는 새삼스럽게 놀랬다.

암만해도 정식으로 박선생에게 외출허가를 얻어가지고 명희를 방문하기는 불가능할것 같고 또한 박선생때문에 명희와 자기와의 사랑은 미구에 깨여지고말 운명에 이른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흥, 박선생이 명희와 약혼시키겠다는 훌륭한 청년이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원칠이는 박선생이 원망스럽고 야속스러웠다.

(대체 무슨 리유로 박선생은 멀쩡한 청년을 명희 모친에게 사위로 중매해주려 하는가? 명희네 집에서 때때로 값진 선물을 받았기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청년을 중매해줌으로써 어떤 더 큰 선물뭉치와 보수와 사례를 받기 위함이나 아닌가? 그렇다, 그럴것이다.)

그는 스스로 흥분되면서 사무실문을 나와 돌층계를 밟고 뜰로 내려섰다.

다시 가을해볕은 따뜻하게 사무실뜰앞을 내려비친다.

그는 뜰사이길을 더듬더듬 걷기 시작했다. 그윽한 꽃향기가 그의 코를 찌른다. 아직도 화단에는 꽃들이 남아있어 향기를 풍기기때문이다.

그의 가슴앞에는 어느덧 꽃나무 한포기가 걸린다.

《앗?》

그는 어느덧 손을 내밀어 나무포기를 만져본다. 코스모스다. 활짝

핀 꽃도 많다. 말랑말랑하고 통통 부풀은 봉오리며 이제 피기 시작한 봉오리며 아주 조그막씩한 봉오리들이 만져진다.

그는 무심코 그 많은 꽃봉오리들을 한아름 안아다가 코앞에 대고 흑흑 향기를 들이마시였다. 꽃이 풍기는 그윽한 향기! 잎과 줄기에서 피여오르는 산뜻한 풀향기! 그는 이 향기를 맡는 순간 어느덧 명희생각이 불쑥 솟아올랐다.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코스모스를 한다발 꺾어다 명희가 누운 머리맡에 꽂아주고싶은 생각이 스스로 부풀어오른다.

그러나 이 뜰앞에 심은 코스모스는 자기와 같은 맹아를 위해 심어놓은게 절대로 아님을 그는 이 순간 또렷이 깨달을수 있었다.

그러나 이 뜰의 꽃 한가지 꺾어들고 명희를 찾아가볼만 한 자유조차 없는 자기라면 금방 죽어버리는것이 나을것 같다.

그는 어느덧 코스모스를 한가지, 두가지 꺾기 시작했다. 어느 틈에 주먹안이 빽빽해진다.

그는 꺾은 코스모스를 들고 태연스럽게 기숙사로 돌아왔다.

《아 아니, 누구여? 꽃나무를 꺾어오는 사람이…》놀랜 어조로 불쑥 나서는 사람이 있다. 동식이다.

《…》

원칠이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제자리를 더듬어 앉으며 머리맡에서 신문지를 한장 꺼내였다. 오톨도톨한 점자신문이다. 그는 코스모스를 싸가지고 그길로 기숙사를 나와 대담스럽게 허가도 없이 교문을 나섰다. 먼저 명희에게 다녀오고 곧 선생들에게 작별을 짓고 벗들과 리별을 하려고 이미 결정해버렸기때문이다.

그는 한참만에 S병원앞에 다달았다.

현관에서 간호부에게 명희의 병실을 안내해달라고 간청했으나 간호부는 랭정한 어조로 명희의 병이 전염병이 되여 면회를 시킬수 없다고 거절해버리였다.

그는 기가 막히였다. 여기에도 역시 규칙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코웃음이 튕겨나왔다.

《그럼 미안하지만 이 꽃다발을 명희씨 병실에 좀 전해주시겠습니까?》하고 원칠이는 최후로 간청을 했다.

《아 아니, 그분이 보니까 두눈이 어두신분이든데 꽃을 갖다드리면

뭘해요? 호호호…》
간호부는 깔깔깔 웃으며 원칠이를 놀린다.
원칠이는 갑자기 화가 치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못 전해드리겠단 말씀입니까?》
원칠이의 음성은 날카로왔다.
《아 아니, 그분 참! 성을 내면 누가 겁낼줄 아우? 공연히 와서 재수없이 그래.》
《어서 가요! 힝, 꿈자리가 사납더니!》하고 딴 간호부의 팩 쏘는 말소리가 들리고는 어느덧 짝짝짝 실내화를 끌고 저편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들린다.
《여보시오!》
원칠이는 고함을 쳐봤으나 간호부두 없구 누구 하나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다.
(명희를 기어이 만나지 못하고 간담? 그리구 꽃두 못 전하구… 명희에게 전하지두 못하는 꽃다발 그대루 들구가면 뭘하나!)
원칠이는 어느 틈에 쥐였던 꽃다발이 푸스스 풀리며 몇가지 힘없이 땅바닥에 떨어져 발길에 밟히는것두 잘 몰랐다. 그는 발길을 돌리려했다.
《여보, 꽃든 청년!》하고 이 순간 랑랑한 녀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원칠이는 그 음성이 어디서인지 귀익은 소리인데 깜짝 놀랐다.
《아 아니,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소. 원칠이가 당신이요? 나는 명희 모친이요!》
《아이유, 그러십니까. 일전에는 너무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명희 병이 좀 어떻습니까?》
원칠이는 명희 모친의 목소리가까이 발길을 옮겨가며 귀를 기울인다.
《무서운 병에 걸렸다우. 열이 40도씩이나 오르내리니 암만해두 죽을것만 같소. 그리구 원칠이를 자꾸 부르고있소.》
원칠이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럼 명희 좀 뵈여주세요.》
원칠이는 발부리에 떨어져 흩어진 꽃송이들을 다시 주섬주섬 걷어

쥐고 명희 모친을 따라 명희 병실로 들어갔다.
명희가 얼마나 아픈 상을 하고 어디에 누웠는지 그것을 두눈으로 볼 수 없는 자기가 새삼스럽게 원망스러웠고 아울러 자기가 아름다운 꽃다발을 쥐고 자기를 찾아온줄두 모르고 누워만 있는 명희가 또한 가엾고 불쌍했다.
《명희야! 명희야!》
명희 모친이 명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명희는 아무런 대꾸도 없다. 정신이 없이 쓰러졌음일가? 잠이 깊이 들었음일가?
《그만두세요, 부르시지 말구…》
원칠이는 명희 모친이 권하는 의자우에 앉았다.
《명희야, 원칠이가 왔다. 정신을 차려라, 응!》
명희는 여전히 대답이 없다.
원칠이는 꽃다발을 들고 더듬더듬 명희가 누워있는 머리맡으로 가까이 갔다. 그리고는 가만히 꽃다발든 손을 뻗어 명희의 가슴이려니 생각되는 곳에 올려놓았다.
그윽한 꽃의 향기, 잎과 줄기의 풀냄새가 원칠이의 코에까지도 스며든다.
이윽고 명희는 잠에서 깨여났음인지, 향기에 취해 혼몽하던 정신이 새 기운이 돌았음인지 《어머니! 웬 꽃향기가 이렇게 나우, 응?》하고 기운없이 말을 한다.
원칠이는 명희의 목소리를 듣자 금방 달려들어 그동안 그리웁던 명희의 손목이라두 만져보고싶었으나 아픈 명희를 흥분시켜서는 안될것 같아 잠간 자기의 충동을 억제하였다.
《명희야! 너 정신 좀 차려라. 원칠이가 왔다.》
명희 어머니는 가만히 명희의 귀에다 대고 소곤거린다.
《아 아니, 어머니! 원칠이가?》
명희는 갑자기 놀랜듯, 반가운듯 말소리가 높아진다.
《명희, 흥분되지 말구 가만히 누워있수! 나는 명희를 주려구 꽃을 꺾어왔수. 냄새나 맡으우.》
원칠이는 침착한 어조로 명희를 위로한다.
《아이유, 어떻게 외출허가를 받았수? 고마워라, 박선생두 어쩌면 오늘은 인심을 썼군!》

《그랬다우, 박선생이 외출허가를 내주구 명희한테 가져오려구 꽃꺾는것두 용서해주었다우.》

원칠이는 명희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꾸며냈다.

《그건 공연히 나를 위로하려는 거짓말이 아니유? 나두 다 알아요. 누가 모르나요. 원칠이는 나때문에 오늘 암만해두 꾸지람을 들을것만 같으우!》

명희는 띠염띠염 걱정스러운듯 말을 띄여하더니 갑자기 숨이 가쁜지 호흡이 급해지더니 숨소리가 그르렁그르렁 거칠어진다.

이때 병실출입문을 누구인지 톡톡톡 치는 소리가 들리자 명희 모친이 대응한다.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면서 누가 들어오는지 《아, 선생님께서 온 또 이렇게…》하고 명희 모친의 인사가 떨어지자 《온, 천만에…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하는 사람은 확실히 사감 박선생의 음성이였다.

《아 아니, 그런데 원칠이 너 웬일이냐, 응?》하고 놀랜 음성으로 박선생은 원칠이를 꾸짖는다.

《선생님, 용서해주십시오. 이따 학교에서 실컷 꾸짖어주세요. 여기선 명희가 불안해할것 같으니까요.》

원칠이는 은근히 박선생을 누르며 침착한 태도로 의자우에 앉은채 고개를 숙이고있다.

《그런데 참, 부인! 일전에 말씀드린 청년을 제가 데리구왔습니다. 마침 기회가 있어서 부인께 미리 인사두 드릴겸 또 따님 병세두 방문할겸…》

박선생은 이렇게 공손히 말을 하고나더니 곧 뒤이어 《원칠아, 넌 이제 돌아가는게 어때, 응?》하고 툭 쏘는 어조다.

원칠이는 잠간 아무 말이 없다가 이윽고 명희가 누운 침상쪽을 더듬으며 《명희, 나는 가겠수. 부디 속히 낫두룩 해주! 그리구 숨이 가쁘고 속이 답답해지거든 내가 꺾어온 코스모스의 향기를 들여마시우. 자, 명희! 나는 가우.》하고 천천히 발길을 돌리기 시작한다.

이 순간 원칠이는 명희의 침상에서 명희가 훌쩍거리며 흑흑 느끼는 소리를 또렷이 들을수 있었다.

원칠이는 울렁거리는 가슴을 짓누르고 명희 모친에게 인사를 한 다음 문쪽을 더듬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순간 원칠이 등뒤에선 《어머니! 원칠이 좀 못 가게 해줘요, 제발 좀!》하고 명희의 숨가쁜 소리가 또렷이 들린다.

원칠이는 머리끝이 찌르르 울리며 발길이 저절로 주춤해진다.

《명희의 소원이니 좀더 있다 가우.》

명희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린다.

이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왈칵 원칠이 앞으로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다.

원칠이는 문득 박선생이 데리고왔다는 청년이나 아닌가 생각되였다.

《자, 부인! 바로 이 청년이올시다.》하는 박선생의 소리와 함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용호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참, 따님께서 이렇게 입원하시게 되여 얼마나 걱정되십니까?》하고 김용호란 청년의 인사가 시작된다. 청년이라구는 하나 목소리를 들어 서른이 다 된 사나이이다.

《고맙습니다, 이처럼 찾어와주시니… 그러나 보시는바와 같이 병이 위독합니다그려.》명희 모친의 말소리는 자못 절망적인 어조였다.

《뭐, 그렇게 걱정하시지 마십시오.》박선생의 말소리이다.

명희는 갑자기 호흡이 급해지며 가래가 끓어오르느라구 그르렁그르렁 소리가 급해진다. 때때로 허튼 소리를 련발하다가 이윽고 《어머니ㅡ》하고 류달리 똑똑하게 발음하고는 두팔을 더듬기 시작하는지 명희 모친은 《오냐! 여기 있다, 명희야!》하고 얼른 침상곁으로 다가가는 소리가 난다.

《어머니! 나 암만해두 못살것 같수! 이렇게 숨이 가쁘구 몸이 더워가지구 어떻게…》

명희의 목소리는 거의 절망상태에 빠진 가늘은 음성이다.

《그런 말 말구 정신을 차려라. 관계찮다드라, 응? 명희야!》

명희 모친은 이렇게 명희를 위로하면서 《의사를 좀 불러다 주세요, 선생님!》하고 목멘 소리를 한다.

박선생은 바쁜 걸음으로 의사를 부르러 나가고 뒤이어 청년도 따라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어머니, 원칠이 갔어요?》
갑자기 명희의 말소리가 또 난다.
《명희! 나 여기 있수. 부디 정신차려주우. 조금두 걱정말구.》
이윽고 의사가 달려오는지 구두발자국소리가 들린다.
의사는 무슨 주사를 놓는지 몸을 만지여보는지 잠간 아무 소리도 없더니 《퍽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가족이 많으시면 지금쯤 통지해두시지요. 암만해두 희망이 없습니다.》하고 가늘은 목소리로 발음하고는 나가버린다.
박선생과 김용호 두사람은 한참동안 아무런 말도 없다.
《명희야! 명희야!》
명희 모친의 소리다. 한참동안 명희는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사이로 《어머니! 나는 기어이 죽나봐요. 어머니얼굴두 못 보구 캄캄한 세상에서만 살다가 그대로 죽나봐요.》하고는 두팔을 더듬는지 허우적대는 소리가 들리다가는 이윽고 심각한 어조로 말한다. 《어머니! 웨 이렇게 캄캄할가? 어머니는 왜 나같은 소경딸을 두셨어요, 네? 어머니,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캄캄하기만 할가… 원칠이, 나 좀 보우. 내손 좀 잡아줘요. 나때문에 학교에서 꾸중당했겠지. 나는 원칠이의 사랑두 못 받구 그만 죽나보우.》
명희의 숨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급해져갔다.
《명희! 정신차리우, 응? 아무 념려없으니, 응? 정신차리우!》
원칠이는 어느 틈엔지 명희의 손목 하나를 붙들었다. 뜨거운줄만 여겼던 손목이 싸늘하게 식어져간다.
원칠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얼마후에 또다시 의사와 간호부가 온 모양이다. 그러나 주사도 놓지 않고 약도 먹이지 않고 그대로 서있는 모양이다.
《선생님! 8년동안 선생께 받은 은혜 하나두 못 갚고 갑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구 선생님, 원칠이를 꾸짖지 말어주세요. 원칠이는 저와 오래동안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금도 부끄러울것이 없는 깨끗한 사랑이였습니다. …》
명희는 여기까지 간신히 말을 남기고는 잠간 숨결이 또 가빠지더니 두팔을 벌리고 허공을 안으며 말했다.
《아, 원칠이! 내 눈이 뜨이나보우. 세상이 훤어원하게 보이는구려.

저것 봐, 저게 원칠이 얼굴이지. 아아, 원칠이두 두눈을 떴구려. 원칠이, 우리는 인제 광명을 볼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였수우. 아아, 이렇게 밝은 세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이때껏 암흑속에서 살었구료. 저게 해구 별인것을… 저게 하늘이구 저게 땅인것을… 어머니, 저 벽에 걸린 거울에 내 얼굴이 보이는구료. 8년동안이나 모르던 내 얼굴! 아아, 어머니! 내 얼굴이 어쩌면 이렇게두 어여쁘우. 내가 공연히 분을 발랐구료. 분을 안 발러두 예쁘기만 한데… 어머니! 어…머…니… 원…칠…이…》

이윽고 명희는 얼굴을 흐리더니 의식이 몽롱해지는지 외마디소리를 한다.

《아, 명희! 아, 명희!》

《야, 명희야!》원칠이와 명희 모친은 놀래여 흑흑 느끼기 시작했다. 명희는 무의식상태에 빠져버리였다.

의사는 명희 모친의 애원으로 최후의 주사를 놓았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마침내 명희는 눈을 떠보려는 최후의 발악이였음인지 이를 앙다물고 눈시울을 두서너번 희번덕이다가 자는듯 숨결은 곱게 꺼지고 말았다.

명희의 시체가 홍제원 화장장에서 한줄기 검은 연기가 되여 푸른 하늘로 흩어져버린 뒤 일주일이 지난 어느날 밤 원칠이는 자그마한 옷보퉁이를 하나 들고 기숙사를 나와 더듬더듬 대문을 나섰다.

8년동안 자기의 몸과 마음을 키워준 이 맹아학교의 대문을 등지고 수많은 동무들과 헤여져 쓸쓸한 가을밤 외로이 떠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자기의 비장한 심경을 그는 또 한번 타진해보기 시작했다.

(광명! 광명! 나는 죽을 때까지 광명을 등지고 오직 암흑속에서만 살어야만 하나? 암흑속에서 살어가는 맹인의 세계에도 도덕과 질서가 필요한것인가? 그렇다, 역시 소경도 인생이니까…)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넓은 길거리를 나섰다. 제법 찬바람이 휘이익 불어때린다.

(어디로 갈가?)

원칠이는 새삼스럽게 이런 생각이 문득 머리에 떠오르자 발길을 주춤하더니 (그렇다! 어디든 마찬가지다. 어디든 나에게는 암흑이 남을

뿐이다!) 하고 다시 지팽이를 휘두르며 걷기 시작한다.

새삼스럽게 오늘 낮에 사감 박선생에게 불리워가 그동안 여러가지 명희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 규칙위반에 대하여 꾸중을 듣던 생각들이 한데 뒤섞이여 머리속이 정신없이 휭 내둘리는데에 더우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좌우간 어디로 갈가? 바깥은 넓고 갈데가 많은줄 알었더니 역시 나에게는 암흑뿐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지 않겠다. 비록 두눈없는 병신일망정 나도 인생이요, 청춘인바엔 끝까지 암흑속에서도 버티여나가자! 나는 눈뜬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아왔다. 나는 지금부터 그 모욕과 그 멸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숙사를 나오지 않았느냐! 내게도 자유가 있어야 할것이 아닌가. 내게두 희망이 있어야 할것이 아닌가. 그러나 명희는 죽고말었구나!)

그는 어느틈엔지 명희 생각을 하고서 발길을 주춤한다. 어디서인지 암마쟁이가 불고가는 피리소리가 들여온다.

원칠이는 선뜻 피리소리나는 곳으로 귀를 기울이였다. 피리소리는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들린다.

원칠이는 피리를 불며 오는 사람두 자기와 같은 두눈이 없는 소경이라고 깨달아지매 어디엔지 동정이 가며 꼭 붙들고 그리운 벗처럼 사정이야기라도 하고싶은 생각이 불쑥 솟아오른다.

암마쟁이의 피리와 지팽이 더듬는 소리가 가까이 들려온다.

《여보오, 암마하시는분!》

《네!》

《누구신지요? 혹시 맹아학교졸업생 아니십니까?》

《왜 그러세요? 당신은 누구요?》

《나는 맹아학교에 다니던 사람이예요.》

《아니요, 나는 맹아학교에 다닌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당신은 집이 어디이기에 보짐을 들고 헤매오, 응?》

원칠이는 (앗!) 하고 놀랐다.

《아아니, 그럼 당신은 장님이 아니시구려!》

《그렇다우, 눈뜬 놈이 장님행세를 하우!》

《왜 두눈을 버젓이 가지시구 궁상맞게 소경행세를 하지유?》

《글쎄요, 다 먹고살기 위한 꾀지요, 꾀!》

《에이, 여보시오! 허다못해 똥구루마라두 끌지. 그래 두눈이 멀쩡한분이 장님행세를 하다니…》
《힝! 여보, 당신은 장님이니까 눈을 뜨고 세상구경을 해봤으면싶으리라만 별수 없수. 두눈 가진 놈이 되려 불행하우. 눈이 있기때문에 죄를 짓구 감옥살이하는 녀석들이 좀 많소! 두눈깔이 있기때문에 도적질을 하구 남의 계집 탐을 내고… 노름을 하고 문건을 위조해서 남을 속이고 하다가 결국 큰 죄를 짓게 되여 제 일생을 망치는 녀석들이 좀 많소! 세상에 장님처럼 팔자 편한 사람은 없는줄 아우. 만일 당신이 두눈을 떠서 세상사람 살림살이를 굽어본다면 〈에이 빌어먹을, 공연히 눈을 떴군.〉 하고 후회할게요. 내가 오죽하면 두눈가진 놈으로서 장님행세를 해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소?》
사나이는 길거리에 행인이 그쳐 조용해졌기때문인지 자기의 비밀을 원칠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는 《당신 아예 장님된 신세를 한탄마우!》하고 다시 발길을 옮겨놓는다.
《편히 가시우. …》
《네, 댁이나 편히 가우!》
암마쟁이가 다시 피리를 불고 지팽이로 탁탁 땅을 치며 더듬어가는 발자국소리가 들린다.
원칠이는 속으로 우스웠으나 다만 웃어버리고말것이 아닌것같이 생각되였다.
(참으로 세상은 하잘것 없는것일가? 두눈이 있기때문에 남의 물건을 도적하고 두눈이 있기때문에 남의 계집을 욕심내다가… 그렇지, 그것은 두눈이 있기때문에 받는 죄다. 그렇다면 두눈이 없는 나는 아까 암마쟁이의 말처럼 오히려 행복하지는 않을가?)
그는 이렇게 자기를 위로해보았다.
어느덧 두주먹에는 기운이 왈칵 솟아오르고 캄캄하던 앞길에 무엇인지 한가닥 광명이 실낱처럼 번쩍인다.
(그렇다, 나는 지금까지 나를 절망에만 끌어넣었다. … 암흑을 너무 슬프게만 생각해왔다.)
그는 이렇게 후회하다가 다시금 머리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역시 광명을 등진 인생, 생활의 락오자다. 나는 나를 소경으로 낳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또 한번 원망한다. 남의

집 하녀인 한 처녀가 고이고이 정조를 지키다가 돈과 지위와 화류병을 가진 방탕한 주인집 사나이에게 정조를 유린당하여 아이를 배게 하고 화류병독이 그 어린 아이의 눈에 들어가 급기야 두눈알에서 피와 고름이 나오다가 아주 멀게 되여버린 사실! 그 어린 아이가 내가 아니였던가! 이 세상에는 지위와 돈과 화류병을 가진 사나이들이 많기때문에 또는 굳세지 못한 계집들이 많기때문에 광명을 등진 소경들의 수요가 자꾸 늘어가는게 아닐가?)

원칠이는 여기까지 문득 생각하다가 자기의 갈데를 발견했다는듯이 길을 다시 옮기기 시작한다. 어디서인지 또 《삐삐—》하고 암마쟁이의 피리부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것두 아까와 같은 거짓장님이나 아닌가 하고 원칠이는 속으로 코웃음치며 큰 골목을 지나 한참만에 어떤 좁은 사이골목으로 들어섰다.

이 골목안에는 암마영업을 내여 다섯식구를 살려나가는 원칠이의 동창생으로 금년봄에 맹아학교를 졸업한 영섭이가 살고있었다.

《조광》 1940. 7, 8.

안달소전

리 무 영

1

권안달도 이 동네의 다른 열세집과 같이 단양댁의 논 몇마지기와 밭 몇뙈기를 얻어부치여 권안달의 말을 빈다면 그 덕으로 거미가 입에 줄을 못 치고있는셈이다.

원래가 크지도 못한 키에다가 량쪽어깨가 좌악 내려앉고 그나마도 상반신에 비해서 하체가 짧은 편이라서 얼핏 보기에는 어딘지 생리적으로 결함이 있는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니 자연 얼굴도 큰편이 못되고 해볕에 탄 황토색살빛과 유난히 노란 수염이 그것도 체면치레로 몇가닥 나서 처음보는 사람한테 무던히 옹졸한 인상을 준다.

만일 그의 눈이 가로 찢어지지만 않았더라도 그 왕방울같은 두눈과 초라한 체구와 옹졸한 얼굴이 주는 인상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받침을 해주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눈이 다 바깥쪽으로 쭉 찢어진데다가 겉눈섭이 까칠하니 곤두서서 푼더분하기는 고사하고 되려 삼한한(순하지 않고 사나운) 인상을 준다. 이런 형의 얼굴이면 대개 코날이 곧고 아래턱이 빠른것이 보통이지만 권안달은 코날도 날카롭지 않고 아래턱도 빠른 편은 못된다. 그의 얼굴에서 좀 푼푼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후덕과 정다움을 느끼는것은 그래도 역시 이 민춤한 턱의 덕분이 많았다.

언젠가 지금은 갈려갔지만 시라가와라는 주재소주임이 년말경계로 이 동네에 왔다가 권안달을 보고는 전형적조선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며 구장과 웃은 일이 있었는데 후에 구장한테서 이 말을 전해듣고는 《거 부장이 잘 봤군. 버젓한 조선량반을 갖다 되놈이나 양인 같으다면 시비두 할만 하지만…》하고 혼자서 온종일 외이고 외이고 했다지마는 역시 부장의 눈은 정확했다. 이모저모 뜯어놓으면 그런줄을 몰라도 권안달을 척 대하면 역시 어딘지는 모르나 조선농군의 냄새가

나는것이였다.

권안달은 이 동네, 좀더 자상히 말하자면 경성에서 백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군 ××면 ×리 (×리는 옛날부터 궁말이라고 불러온다.)에서도 제일 구석진 오봉산기슭에 큰 재더미만 한 오막살이집에 산다. 원래는 이 근방에 흩어져있는 권씨네의 산소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운 묘막이라고 한다. 안방 건너방에 석유궤짝을 모아서 놓은 한칸마루가 있고 이 안채와 마주향해서 뽀뿌라를 찍어 세운 두칸 곁에 외양간이 한칸 붙었다.

칸으로 치면 일곱칸이나 되는셈이나 기실 그들이 거처할수 있는 방은 안방뿐이다. 이 간반턱도 못되는 방에 권안달내외와 열세살난 분이, 열살짜리와 일곱살짜리, 이렇게 다섯식구가 끼워자고 건너방은 지난봄에 맞아들인 새 며느리가 쓰고있다. 그래서 권안달은 여름에는 바깥마당에 멍석을 펴고 자기가 일쑤고 날이 좀 선선해지면 요때기를 돌돌 말아끼고는 구장집 사랑을 찾아간다.

《안달 오나?》

《어— 저녁들 자셨나?》

그는 방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벌써 누울 자리를 눈여겨보는것이다.

《저 사람 또 안달하네. 이 긴긴밤에 언제 자면 못 자리라구.》

《그렇잖으이, 건 자네들이 모르는 소리지. 자식하구 잠하구는 일찌감치 서둘러야 하는 법이니.》

그가 이만한 대꾸를 하는것도 대개 벌써 자리를 잡고 누워서였다. 검정인지 회색인지도 분간키 어려운 요때기를 둘로 접어서 발만 가리고는 드높은 목침을 베고 해별에 마른 새우처럼 꼬부라졌다.

《생원!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구. 밤도 길구 헌데 우리 한케만 늘굽시다요.》

《그래보지, 권안달!》

코흘릴 때부터 같이 큰 친구들의 이런 권면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린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대꾸도 않고 생코를 드릉드릉 곤다. 그러다가 정말 코를 골고마는것이였다.

《에이구, 안달 저 사람이 몇해나 더 살자구 저렇게 안달이라지?》

《몇핸 웨 몇해? 뭐 그 사람 나이 환갑, 진갑 다 지난줄 알든가? 인제 마흔다섯이야!》

《창식이가 몇살인데?》
《아, 그놈이 인제 갓 스물이지.》
《허긴 그렇구머서두 각자가 너무 안달을 해싸니까 얄미워서 온…》
《이 사람! 안달타령을랑 쉬염쉬염 허구 어서 빼게나.》
권안달의 본명이《권중욱》이라는것을 기억하고있는 사람은 이 동네에서는 몇 없기가 쉬우리만치 그의 별명은 오래된것이다. 한동네에서도 젊은 아이들축에서는 그의 본명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일평생 땅만 파먹고 살지 않으면 안되도록 운명지어진 그들에게는 아무개의 성이 뭣이요, 아무개 아버지요, 아무개 할아버지인것을 아는것으로 족한때문도 있기는 했지마는 권안달의 별명은 그만큼 유래가 긴것이기때문이기도 했다.
벌써 20년전 그가 아직 스물대여섯살밖에 안됐을 시절이다. 그 전전해 가을에 그는 지금의 처한테 장가를 들었다. 그제나이제나 남의 땅만 파먹고 사는 그들 처지에 30전에 도령소리를 면한데는 그만한 리유가 있었다.
궁말서 한 30리 떨어진 동네에 혼인한 바로 다음해 남편을 여윈 열일곱난 소녀과부가 있었다.
권중욱의 아버지 권생원은 자기도 이미 년로했고 가세가 하루이틀새로 펴일리는 만무한지라 자칫하면 자식장가도 못 들여놓고 죽을지도 모른다해서 그 소녀과부와 짝을 지어주었던것이다.
《말이 그렇지 열일곱이니 뭘 알겠느냐. 네 다음이라두 아예 딴 생각을랑 말구 네 댁을 아껴주어라.》
권생원은 아들을 불러앉히고 타이르고 타이르고 했다.
권생원은 일자무식이였다. 원래 뼈대를 찾는다면 터무니없는 집안은 아니였다. 생원이란것도 동네사람들이 그의 조상이 한때 리조중엽에 떠들썩하던 권승지였다고 해서 자진해서 지어준 이름이였다. 그러나 그는 그런것을 도리여 싫다 했다.
《몇백년전에 벼슬한것이 내게 하관(무슨 관계)인가. 량반이란 학문을 닦어야 량반이지 낫놓고 기윽자도 모르는 위인이 그런건 찾어 뭣하나. 오히려 부끄러운노릇이지.》
같은 권씨들이 가끔 몇대조가 어떻니, 몇대조는 뭣을 했느니 하면 그는 볼일을 보러 갔다가도 슬며시 돌아와버린다. 그가 젊었던 시절

만 해도 조상만 들추고 먹고살수 있을 그런 시절이였건만 그만은 오히려 숨어살려 하였다.

《제 조상이 잘났다는것만 자랑하는 위인이니 저 못난것 좀 보지. 그건 조상을 떠받치는게 아니라 조상한테 욕을 먹이는게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할뿐만아니라 그자신 그렇게 믿었고 또 처신을 했다. 그는 어떤편이냐면 좀 되바라진 자기 아들도 어려서부터 자기의 소신대로 길렀다.

사람은 제가 잘나야 대우를 받는 법이다, 쓸데없이 조상을 들추는 사람처럼 못난이는 없다, 조상을 들추지 말고 너자신을 들출수 있도록 해라, 제 성명 석자도 못 알아보는 위인이 조상만 들추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권생원은 오직 하나뿐인 아들 중욱을 이렇게 가르쳤다.

그가 남의 땅뙈기를 얻어부치면서도 중욱이를 글방에 보낸것은 그때문이였다. 물론 동몽선습(리조때 나온 책의 한가지)을 겨우 떼고 눈물을 머금으며 사랑하는 아들의 등에 지게를 지우기는 했지마는 권안달이 자기의 성명을 알아보는것은 그 아버지의 덕분이였다.

안달이 처음으로 닳아빠진 낫꽁다리에 목다리지게를 진것은 아홉살되던 어떤 늦은 가을 아침이였다.

그해의 첫 살얼음이 진 이튿날 아침이였던지라 그들 부자의 마음은 더욱 서글펐다. 된서리가 눈처럼 대지를 덮고 밭머리에 선 가지만 앙상한 뽀뿌라나무에 앉은 까치소리도 서글펐다.

자기는 기왕 땅을 파먹고 살았지마는 자식대에만은 아비 한 노릇을 안시키리라고 굳게굳게 맹세했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가며 저 오봉산기슭에까지 따라나오며 아들 몰래 눈물을 닦고있었다.

《중욱아, 치우냐?》

《안요.》

《그래야지. 부리나케 가서 한웅큼만 긁어가지고 온. 그동안에 아버진 얼른 장에 갔다 올께니. 너무 욕심 차리지 말구 조금만 뜯어라.》

《네.》

《넌 어린 속에두 아비가 원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아비 눈에서두 피눈물이 난다. 아빈들 웨 네 등에 지게를 지우고싶으랴만… 하지만 중

욱아! 아비는 무슨짓을 하든지 네게만은 일평생 지게는 안 지우마. 무슨짓을 하든지간에－》

아버지의 말소리가 점점 눈물에 지적지적해가는것을 본 중욱이가 《아버지!》하고 지게를 진채로 털썩 주저앉으며 느껴울기 시작하였다.

나이 어린 중욱에게는 그것이 어떤 설음인지도 몰랐다. 책을 끼던 겨드랑이에 지게작대기를 끼고 붓을 쥐던 손아귀에 낫자루를 잡는 설음이 아닌바도 아니였다.

오늘부터는 자기도 일평생 아버지와 같은 일생을 보낸다는것을 막연하게나마 의식 못한바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설음은 오직 단순한것이였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것을 본데서 온 귀여운 눈물이였다.

《우지 말아, 중욱아!》

권생원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다말고는 그대로 자기도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말았던것이다.

《추한 놈의 세상! 그렇게, 그렇게 별렀더니만 네게다 또 지게를 지우다니… 아버지가, 아버지가 내 등에다 지게를 지우실 때도 이렇게 우셨다드니…》

그는 그만 환장이 된것처럼 마른 잔디를 벅벅 쥐여뜯으며 울었던것이다.

《아니다. … 중욱아! 가자! 내가 네 등에다 웨 또 지게를 지우랴! 자, 그놈의 지게를 이리 다우, 이리!》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기가 무섭게 어린 아들의 등에 졌던 지게를 벗기더니 무서운 증오와 함께 땅에다 메쳤다. 그리고는 마치 그 지게가 자기와 자기 아들의 운명을 뒤틀어놓으려고나 한것처럼 다리를 번쩍 들어서 지게를 짓밟았던것이다. 바짝 마른 지게발은 비명을 울리며 동강이 났다. 그는 아직도 분을 못 풀고 신이 나서 계속 짓밟더니 《자, 가자! 네게다 웨 지게를 또 지우랴!》 하고 말했다.

중욱은 엉엉 울면서 집으로 달려내려왔었다.

며칠후 다시 뚜딱 뚜딱 어린 아들의 지게를 꾸미고있는 권생원의 꼴은－ 그러나 더욱 처참한데가 있었다.

그길로 중욱은 영영 지게를 벗지 못하고말기는 했으나 아버지의 교훈은 뿌리깊이 그의 머리속에 새겨졌었다. 그의 아버지는 손자놈의 백일이 지난지 얼마 안되여 담으로 세상을 떠나고말았었다. 그때도 그는 모들뜨고 가쁜숨을 톺으며 중욱이를 머리맡에 앉혀놓고 《중욱아, 무슨 일이 있던지 창식이에게만은 지게를 지우지 말도록 해라. 너 할아버지가 하실려다 못하셨구 내가 할려다 또 못했지만… 너까지 그 뜻을 저바려야 되겠느냐.》하고 당부, 당부하다가 숨을 거두었던것이였다.

권중욱에게 《안달》이라는 별명이 붙은것도 이 아버지의 산 교훈의 덕택이였다. 중욱은 눈을 부릅뜨고 일을 했다. 소처럼 자고 소처럼 일했다.

그러나 소처럼 먹을수만은 없었다. 먼동이 틀 때부터 밤이 이슥토록 소처럼 일을 하고도 그는 오직 토끼처럼 입만 놀렸다. 일년 가야 떡 한쪼각, 술 한모금 입에 대지 않았다. 손장난하는데는 더구나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그의 말마따나 뭣이 뒤집혀졌는지 한해 여름날 팽이놀음을 했다. 마침 백중이여서 장터에는 씨름판이 벌어지고 난장도 더 있었다.

동무들과 휩쓸려나갔다가 권하는 바람에 일전놓고 오전놓고 하다가 일원 각수나 물리고말았다. 오십전을 찾았다.

그바람에 그는 남은 오십전을 마저 찾을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여 광목 끊으러 갔던 십원을 다 털고말았다. 그것은 분명히 속임수였다. 그러나 다 잃고난 후에야 그것을 깨달은 그였다. 그것은 피땀—아니, 피눈물이 섞인 십원이였다. 한여름동안 밤잠을 못 자고 원두막을 지키여 만든 십원이였다.

그는 그날 난생처음으로 술집으로 들어갔다.

막걸리를 곱배기로 두잔이나 거듭하고 흥분이 되여 《이놈의 손! 이놈의 손꾸락…》하고 눕힌 손가락을 제 주먹으로 콱 콱 조기여댔다. 이마빡을 뚫어도 노랑물 한점 안 나오리라던 중욱이가 십원을 잃었다는 소문이 동네사람들간에 퍼지자 누가 보고 전했는지 손가락을 주먹으로 짓찧던 이야기가 퍼져서 《안달 안달해야 내 고리놈에 안달이라니…》한것이 한입 건느고 두입 건너서 그대로 안달이 되고만 것이였다.

기실 시골사람들에게는 《권중욱》이라는 이름보다는 권안달이 한결 부르기가 쉬웠다.

《남들은 안달, 안달 하구 그른양 말하지만 그래두 그렇게 무섭게 한 덕으로 지금은 훨씬 헴이 날께외다. 아마 땅마지기나 좋이 있을걸…》

서울서 박봉으로 버티다 버티다 못해서 남들이 하듯이 나도 농사나 좀 지어볼가 하고 같이 회사에 있던 김모의 주선으로 이 궁촌으로 옮아온지 얼마 안되던 어떤 날 이상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 정군은 이렇게 말을 맺었다. 정군은 김군과 외사촌간이였다.

《그래 권안달의 아들은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궁금했다. 3대를 두고 이루려던 그 뜻이고보니 손자대에 와서는 이루어지리라 하고 비는 마음도 간절했다.

《딱한 일이나 그저 그 식이 장식이지요.》

《역시 지게를 지고?》

《헐수 있나요. 지금 농사란 옛날과두 달라서 출물은 늘어두 소출은 늘지를 않으니…》

나는 암담해져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필사코 아들에게는 지게를 안 지우려던 일생의 꿈도 헛되이 깨여지던 그날 아침처럼 서리가 오려는가, 차분한 찬 하늘에는 별 한점 없다. 그렇듯 독실한 농군이 3대를 두고 이루려 하고도 이루지 못한 그 꿈을 호미자루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책상물림인 내가 어떻게 이루랴 하는 시커먼 불안이 권씨네 3대가 걸어왔다는 길의 암담과 함께 가슴을 찡하니 내려누르는것이였다.

《그럼 지금 권안달네는 전답이 얼마가량이나 되는가요?》

나는 어디서든지 이 가슴의 암담을 헤쳐줄 실마리를 찾고싶었다.

《일년계량은 되나요?》

《웬걸요! 말하자니 땅이라지 모르면 몰라요. 논이 서너마지기에 밭이라야… 한나절갈이나 될는지…》

《그럼 지금시가로 치면?》

《논두 전답이니까 한 오륙백원어치나 치일가요?》

나는 더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아서 그대로 일어섰다.

어느덧 개소리도 겨울다와졌다.

길은 걸을수록 더 어두워지는것만 같다.

2

그날밤 이후로 권안달의 가족을 대하는것이 내게는 한 공포가 되고 말았다. 안달의 그 퀭한, 어떻게 보면 삼각형으로 보이는 그 눈속에 눈물이 그득히 고여있는것 같이도 보여진다. 그 눈물은 안달 한사람의 눈물도 아니요 그들 일가만의 눈물도 아니리라.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대대로 올라가서 그들 권씨의 승지에 이르기까지의 몇십대조의 눈물이 되여 함께 이 권안달에게 유전이 된것이리라. 아니, 그들 권씨일가문에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남의 땅을 파먹는 궁말 13호의 그리고 모든 그런 처지 사람들도 또한 권안달의 눈속에 고인 눈물과 같은 비극의 주인들이 아닐가.

《저 눈속에 서린 설음은 20년후 또 나의 눈속에 서리고말것이다. 그리고 내 자식의 눈에 꼭같은 설음이 서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고 이 궁벽한 촌으로 기여들었는가?》

비로소 나는 나자신을 이렇게 반성해보는것이였다.

난들 시골로만 오면 모든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한것은 아니였다. 소위 이르는바 흙에의 환원이라든가 로동의 신성이라든가 하는 그런 값싼 명예에 동요된것도 아니다. 시골로 와서 도시에서의 부채를 벗자 한것도 아니였다. 나는 좀더 나자신의 생활을 갖고싶었다. 모자를 쓰고 넥타이를 매고 쓴 차를 비싼 돈을 주고 마시고 남의 눈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쓰여지는 마음과 경제의 여유를 나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쓰고싶었다. 옷 한벌에 백여원씩, 헝겊오래기 한개에 20～30원씩 주고 사느니보다 모두 훨훨 벗어붙이고 등걸잠뱅이에 짚신이나 꿰고 자유롭게 살고싶었다. 남의 이목을 꺼릴 필요도, 남의 눈에 잘 보이게 할 필요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문화인인체 가장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싶었다. 송아지가 아닌바에야 멀쩡한 놈의 모가지에 헝겊끈을 잡아맬 필요가 어디 있으며 옷은 사람이 살을 가리기에 족하면 그만이겠거늘 빛을 보고 천을 보고 모양을 보고 그러기 위해서 월 두푼 내지 서푼의 고리를 물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느냐 했었다.

다 찌그러져가는 오막살이집에서 자고 나오면서도 백만장자인체 해

야만 하는 도시, 허위와 가식과 과장이 가장 훌륭한 생활방법이 되여있는 도시, 거기에 미련을 둘 필요가 어디 있느냐. 가도가도 끝이 없는 무한한 대공을 손바닥만 하게 줄여볼 까닭이 무엇이냐. 앉고싶으면 앉고 서고싶으면 서고 눕고싶으면 또 마음대로 누워서 광망한 대공, 흐르는 구름,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마음껏 즐길수 있는 시골! 호피담요보다도 오히려 부드럽고 향기로운 잔디밭, 우거진 숲과 마음껏 들여마실수 있는 신선한 공기, 무엇에 달리여 이런 대자연을 두고 가로수의 빈약한 그늘밑을 의지해 살랴. …

《생활방편이 불편해서…》라고 도시인들은 말한다. 그러나 도시는 생활방편이 지나치게 편한 페단은 없다는것인가?

언제나 알지 못하는 세계란 아름다운 법이다.

나도 알지 못하는 농촌을 락원처럼 여겼다. 아니, 나의 단순한 성격의 탓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파아란 하늘이 보고싶었다. 흐르는 구름이 그리고 흐르는 별이 보고싶었다. 숲속에 서려진 신비, 백화점의 대창살속에 갇히여있는 그런 새소리가 아니라 울창한 숲과 파아란 하늘과 흐르는 구름을 보고 진심으로 노래부르는 새소리가 무턱대고 듣고싶었다, 미칠듯이. …

그러나 권안달의 얼굴을 대할 때 나의 꿈은 너무나 처참하게도 깨여지고마는것이였다.

종기 앓는 아이가 침쟁이를 피하듯이 나는 내 마음속에 점점 커가는 응어리를 날마다 만져보면서도 기를 쓰고 권안달과 마주치기를 피했다.

그러나 불행히 나는 아침저녁으로 어떤 날은 하루에도 몇번씩 그의 입김이 내 얼굴에 와서 퍼질 정도의 간격을 두고 마주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정군이 내 집으로 알선해준 집은 안달의 집에서 문 여닫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붙어있다. 혹 정군이나 누가 와서 날 찾게 되면 《누가 왔습니다.》 하고 먼저 듣고서 전갈을 해준다.

그러나 하늘을 피해 살수는 있어도 삽짝을 나서면 그의 삽짝이 들여다보이는 이웃사람을 피해 살 도리도 없다. 나는 하루에도 몇번씩 권씨로 해서 가슴속까지 불쾌한 전률을 느끼고야마는것이였다.

《설마… 차차 나아가겠지. 질래 그렇게야 살라구.》

심지어 이런 위안으로 나는 그날그날 지기를 못 펴고 대공과 잔디

밭과 숲을 즐기였다.

그러나 지나면 지날수록에 나의 공포는 커가는편이다. 그후 나는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권안달의 생활을 엿볼수가 있었다. 일년내 고등어꽁댕이 하나 사먹는것을 못 보았다는것이요, 닭을 십여마리나 치면서도 50평생 닭알 단 열개를 자기 상에 놓아본적이 없다는것이다. 한달에 한두번 장에를 가야 국 한그릇 사먹는것을 본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그건 무서우니까요. 기를 쓰고 잔 입으로 보지요. 어쩌다 누가 껄어? 없지요. 경운 밝은 사람잉께. 남의걸 얻어먹었으면 갚어야잖나요? 제 털 베서 제 구멍에 박을 사람이닝께.》

또 이런 말을 내게 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권안달의 안달은 참 유명골자하니까. 보실라우, 박상! 요전에 읍에까지 고칠 바치러 갔군요. 갈 땐 관에 7원만 했으면 젠장 장국밥 한그릇 사먹구 오겠구먼, 가면서 그럽디다요. 안달넨 7～8관이나 땄거던요. 그랬더니 웬걸요. 관에 9원 34전입디다요. 9원 34전! 그래 모두들 막걸리사발이나 생긴다구 그랬거던요. 그랬더니 웬걸, 워낙 배는 고프구 항께 동전 두잎 주고 엿가랠 사먹군 랭수만 들이킵디다요. 에이, 고런 놈의 안달!》

《거 장한 일이요.》 하고 듣다 못해서 나는 석근이라는 그 젊은 친구의 입을 막았다.

《본받을만 한 일이군!》

석근이는 숨이 콱 막혔다는 표정으로 날 멍하니 쳐다보더니 《그래 박상! 돈 모으는것두 좋긴 하지만 그래 사람이 살구 봐야지 공돈이 20여원이나 생겼는데 장국밥 한그릇 안 사먹고 온단 말요?》

《거 괜한 객돈 아뇨?》

《허참, 박상은 인제 박안달이라구 불러야겠수다. 온, 그래 사내대장부로 태여나서 말이외다, 처자를 굶기는것두 죄라는데 제 배때기속에 웅크리고있는 제 창자를 굶긴단 말요? 오는데두 이놈의 창자가 쪼륵쪼륵 지렁이우는 소릴 하지요. 그래두 배가 무슨 큰죌 졌다구 허리끈만 우쩍우쩍 조여맵디다요. 그래, 것두 본받을만 한 일이요?》

《누구든지 그런 본을 받기만 했다간 영낙없이 고택골 가네!》

곰보가 뜨직뜨직한 소리로 툭 한마디 던진다.

인제 남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졌다. 나는 권안달의 생활을 아침 저녁으로 목도할수도 있게 되였다.

내가 궁말로 내려온것은 감나무잎단풍이 한창일무렵이다. 50년래의 대한이라는 가물로 해서 걷을것도 없고 농가에서는 비교적 한산한 시기였다. 그러나 나는 그 감잎이 다 떨어지고 진눈까비가 부실부실 내릴 때까지 또 한번도 권안달이 한가히 쉬는것을 본적이 없다. 동네의 다른 사람들은 거의다 한가했다. 낮에는 팔짱을 끼고 서성대다가 저녁이면 모여앉아서 화투도 치고 밤윷도 놀고 꼬니를 두기도 한다. 그러나 권안달은 거름을 뽕지 않으면 도끼를 들고 산으로 간다. 점심도 안 먹는지 온종일 고주막 캐는 소리가 구슬프게 산복을 울린다. 하다하다 할일이 없으면 마당을 썩썩 쓸고있다.

한번 내가 《원, 마당을 그렇게 여러번 쓰시오? 내가 보기에두 오늘 벌써 두번짼데… 농가란 너무 밝어도 보기 싫답니다.》 이렇게 말을 걸었다.

《모르시는 소리시죠. 우리네나 마당이 깨끗하라구 비질을 하나요!》

《그럼요?》

나는 말뜻을 채 알아채지 못했다.

《농가야 그야말루 좀 어지러우면 어떤가요. 허지만 한번 쓸면 그만큼 밑거름이 생기거던요. 이 나무잎이 거름 삭이는덴 좋습넨다.》

밤에는 이슥하도록 자리를 맨다, 어쩐다 하다가 잠이 안와서 밖을 나서면 고드래가 맞부딪치는 소리가 댈그락댈그락 문틈으로 새여나온다.

반나마 찢어진 달이 감나무가지에 걸려있다. 나는 공포와 함께 말할수 없는 애정을 권안달한테 느끼기 시작했다.

《여태 안 주무십니까?》

《박상이슈! 들어오시오.》

우리는 장시간이나 농사이야기를 했다. 래년봄에 파종할 순서며 여기의 토질을 잔손질하는 묘리 이런것을 두서없이 묻는대로 대답을 하다가 《거 큰일이시오.》 한다.

《뭣이가요?》

《시골이란 제 손으루 꿈지럭거려야 사는 법인데 박상이야 어디 뭐 해보겠다구… 뭐든지 다른 도릴 해야지. 농사란 그렇습넨다. 제 털 베

서 제 구멍에 박아야 하는건데 그게 지금야 어디 그리 쉬운가요. 허구 농사란 제가 제 일하구 저한테 품삯받는셈인데 박상이야 어디 그렇소, 일두 남을 줘야지, 품삯두 남을 줘야지. 거 아닌 말루 배주구 배속 빌어먹는 푼수가 되기 쉬우리다.》

그밖에도 그는 여러가지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런 말은 동네지간에 할말은 아니로되 아무개, 아무개는 사람의 속이 밝지 못하고 또 누구는 사람이 안팎이 다르고 누구는 입이 싸고 누구는 얌치가 없고 하니 내색을 할것은 아니나 그런줄이나 알라고 하고는 말을 이었다.

《권××은 나와도 친분간이 되지만 시비를 가리는데야 척분이란게 하관인가요? 사람이 좀 박합니다. 그 사람이 글자나 배웠죠. 그게 탈이야. 글을 배울 땐 남 모르는걸 튕겨주자구 배운건데 이건 남을 속여먹는데 쓴단 말야. 눈뜬 놈이 그르지.》

한창 봄날처럼 땅구멍이 간질토록 따스한 날 한낮이다. 나는 뒤산부리 전나무가 두어주 선 열공지 앞잔디에 번듯이 누워있었다. 정말 농촌에서 생계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것이 새삼스러이 불안을 가져온것이다. 아쉬운대로 논마지기와 밭뙈기라도 얻었으면 했으나 책상물림한테 전답을 내줄 사람도 없을것 같았다. 몇푼 안되던 퇴직금끄트머리도 이제는 거의 동이 날 지경이다.

《저 무한대한 푸른 하늘만 바라보아서는 배도 안 부른가보구나.… 그렇겠지, 사람은 푸른 하늘을 먹구 사는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고있는데 《뭘 허슈?》 하고 권안달이 나무지게를 내려놓는다.

《살 궁릴 하구있습니다.》

《살 궁리?… 살 궁리를 하자면 사람은 궁합넨다.》

《그럼은?》

《죽을 궁리를 해야지.》

재미있는 말이라고 혼자 감탄하고 앉았는데 그는 주근주근 이야기를 꺼낸다.

듣건대 그의 최대희망은 논 열마지기와 밭 이틀갈이라 한다. 공부, 공부했으나 지금 세상형편 돌아가는것을 보니 공부만으로도 먹구 살수 없고 보니 자식들한테 쫒아먹을것이나 물려주면싶다는것이다.

《정말입넨다. 내 그이상 더 바란다면 죄를 받지요. 아버지두 논 열마지기가 소원이였습니다. 그래저래 그게나 갈아서 연명이나 하면 살죠. 재산이란 덜컥 있어두 걱정이지. 저 단양댁 보시지요. 령감님은 일년가야 동전 한푼 쓰지두 못하면서 어떤 자식이 돈을 훔쳐내나, 어떤 손자놈이 땅문설 빼나 어디 사음이 바가질 안씌우나. 그저 날이 새나 잠이 드나 이게 근심이라오. 속 모르는 사람들은 그더러 팔자가 늘어졌다지? 괜헌 소립넨다.》

《지금 댁에 땅마지기가 있다죠?》

나는 김군이 하던 말이 생각나서 그의 나이를 따져보며 농부의 3대째의 기원이 언제나 이루어질가를 손꼽아보는것이였다.

《말로 닷마지기죠. 허지만 그게 논인가? 천수탑이지. 아예 인젠 생각지두 않소. 내 나이 오십이 가까웠고 세태는 변했어. 뭘루 다 열마지길 채우겠소? 있는게나 안 팔아먹으면 다행이지.》

권안달은 긴 한숨을 쉬며 지게목발에 두어깨를 들이미는것이였다.

3

눈 한점 없는 강추위가 달포를 두고 잇대였다.

나는 내 처와 어린것들과 같이 마치 개구리처럼 방속에서 과동을 했다. 아스팔트바람에 약할대로 약해진 나의 몸은 거의 저항력을 잃고 있었다. 처도 아이들도 가쁘게 기침만 하고 어떤 밤은 거의 새웠다.

나는 권안달의 얼굴을 보는것도 하루에 한번이 고작이였다.

그러다 하루는 날이 좀 풀리는듯 해서 몸이 뒤뚱거리도록 껴입고 여러날만에 정군을 찾아갔다. 양계니 양봉이니 포도, 삼, 약초, 복숭아… 이런 부업의 이야기가 벌어졌으나 결국 내게는 화중지병이였다.

나의 저금통장에는 30원미만의 돈이 남아있을따름이였다.

《에이— 인제 돈얘긴 그만둡시다. 우리 그러다 굶게 되면 또 서울로 기여올라가지.》

무슨 배차기나 하는것처럼 이렇게 무찌르니까 정군도 무색한지 잠시 말이 없더니 《참, 권안달 말요. 잘하면 심평이 좀 될걸.》 한다.

《뭬 좋은 수가 있나요?》

《수랄건 못되지만 그래두 3～4백원 생길걸.》
《허, 그거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군.》 하고 나는 곧 토지중개를 했는게다 했다. 사실 가을이내로 경기일대는 토지경매로 들썩했다. 어차피 풍선경기겠지만 20～30전의 밭이 1원 심하면 2원까지도 호가가 되고 또 매매가 된다. 심한것은 궁말근방의 야산들이 평당 3～4전 하던것이 일약 1원 20～30전에 날개가 돋친듯이 달려나가는 것이다. 궁말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토지소개에 발벗고 나섰다는것은 들어서 아는터이다.
내가 그렇잖느냐고 하니까 정군은 《소갤 한게 아니구 소갤 당했답니다.》 하고 웃는다.
《근방에 권씨네 종중산이 있지요. 그리 큰산은 아니나 전같으면 4백～5백원밖에 못 나갈것이 요번통에 6천여원에 매매가 되지요. 권안달두 권리가 있으니까 아마 한 3백～4백원 몫이 차지될겁니다.》
나는 사실 나자신에게 그만 돈이 떨어진것만치나 기뻤다.
《거 참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다시 이렇게 되풀이하자 《헌데 권안달하구 또 한사람이 몹시 반댈 한다드군요.》 하고 정군이 말했다.
《웬 그럴가요?》
《그 산엔 권씨네 묘들이 많거던요. 그러니 제 조상의 해골을 팔아먹는셈이 아니냐구 펄펄 뛰드래요.》
나는 어쩐지 그이상 더 말을 해서는 안될것 같이만 느껴져서 그대로 함구를 하고말았다.
그러나 그런지 며칠 안 가서 권씨네의 종중산은 드디여 팔리고말았다. 그 소문은 듣기는 했지만 권씨의 심정이 짐작되여 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한번도 비치지 않았다. 그도 종중산에 대해서는 일언반사가 없었다. 그래저래 나도 그 일은 아주 잊어버리고말았다.
다시 달포가 지나자 나는 정말 갈데까지 가고말았다. 음력 정월인지라 해별도 훨씬 따스했고 오후면 온 마루에 별이 들어서 어린것들과 나와 앉기도 했다.
그러나 정말 어떻게든지 타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창망한 대공과 폭신한 잔디밭을 마음껏 즐길수는 있었다. 그러나 석유궤짝으로 짜놓은 쌀그릇은 거의 밑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부처는 어린애들을

하나씩 데리고 마루끝에 걸터앉아서 창망한 하늘을 쳐다보고있었다.
하늘과 같이 공허한 심정이였다. 울고싶은 심정이였다. 아니! 나중에 보니 안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있었다.
《별수 있소. 당분간 당신은 친정에 좀 가있어주.》
《어린것들은?》
《당신 가면 걔들두 같이… 홀아비가 어린것들을 데리구있은들 어찌겠소.》
《당신은?》
《나야 또 서울루 가서 직업을 얻어보는게지, 죽기보다두 싫소만…》
나는 또 원망스럽게 창망한 하늘을 쳐다보는것이다.
안해도 나와 꼭같은 심정이였던지 시선을 멀리로 보내고 앉아있었다.
안해는 어린것들을 데리고 친가로, 나는 다시 서울로— 이렇게 농촌의 꿈이 깨여지자 우리는 서서히 이사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동안에 서로 음식도 나누어먹을만큼 되여있던터라 안해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공부만 해두 쓸데 없다고 권안달이 그러드라고 분한듯이 와서는 한숨만 쉬고 앉았다.
나는 우선 안해 차비만이라도 있어야 할판이라 그날로 몇몇 친구한테 편지를 띄우고 우두커니 회답이 오기만 기다리고있었다.
정말정말 울고싶은 심정이였다.
닷새가 지났다. 친구한테서는 이렇다할 회답이 없다.
인제는 가서 떼라도 쓸밖에 없다. 주섬주섬 집어치웠던 양복을 꺼내입고 신발끈을 매는데 《박상!》 하고 누가 찾는다.
《누구요?》
《납니다.》
권이였다.
나는 안해의 고무신짝을 찔찔 끌고 나갔다.
《우리 걔 어미한테 얘긴 들었소만 거참!》 하고 입맛을 쩝쩝 다시고 섰더니 《랠 오시나요?》 하고 묻는다.
《글쎄올시다. 랠 아마 못 오게 될지두 모르겠습니다만…》
《허, 그럼 안됐는데…》 하고 딱해하는 표정이다.
《웨요? 랠 뭐 일이 있습니까?》
《다른게 아니라요, 랠 내가 잔칠 좀 하기루 하구 돼지를 한마리 잡

았는데 박상이 안계시다면 섭섭해 됐나요.》
《잔치라께요?》
의외였다. 권안달의 집에는 잔치를 할만 한 일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다른게 아니라요. 허, 이걸 어떻게 얘길 한담… 내게 요번 우스운 돈이 한 3백원 들어왔소. 그래서 동리사람들하구 한번 차려놓구 먹어나 보자구…》
도시 알아들을수 없는 소리다.
안달은 창피한 노릇이라구 외면을 해가며 종중산이 팔린 경과를 길게 설명을 한다. 역시 그는 끝까지 반대를 했던 모양이다. 다수가결로 매도증서에 도장이 찍히고 어제 그 분배액이 돌아왔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이만정도의 설명만으로는 잔치까지는 리해키 어려웠다. 그래서 의아해하니까 《기실인즉은 이렇습니다. 이 돈은 어차피 내게 당한 돈두 아니구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돈이거던요. 조상의 뼈를 판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난 생각다 못해서 내 몸엔 안 지니기루 했지요. 얼마 떼서 같이 코흘리구 자란 친구들과 돼지나 한놈 잡아서 술이나 받아서 먹구 나머진 정상하구 의논껏 해서 좋두룩 하기루요.》
《거 그 큰돈은 그렇게 재룡이 헌칼 쓰듯 하시려오?》 하고 나는 억지로 롱담을 꾸미려 했으나 나자신이 지금 궁한 나머지 비굴한 방법을 생각하고있던차니만큼 그것은 롱담도 되지 못했다.
《잘 쓰는게죠, 잘! 내가 친구들한테 신세를 졌으니 갚아야 하고 동리덕으로 살았으니 그 은공도 잊어선 안되고… 내 아버지 말씀이 늘 그랬죠. 의아닌 돈을 몸에 지니면 사가 붙느니라고… 그럼 랠 꼭 내려오시겠지요?》
《네, 꼭 오겠습니다.》
《암, 와야지. 하루밤에두 만리성을 쌓는다는데 행인처럼 그대루 헤져서야 되겠소.》
나는 친구를 찾아갈 용기도 없이 며칠을 딩굴고만 있었다.

《조광》 1940. 10.

하 복

김 영 석

《천만에요. 괜한 말씀이올시다, 손님.》

점원은 윤오의 주제꼴을 훑어보면서 말했다.

《괜한 말씀이올습니다. 저이는 에누리라곤 없습니다. 스프가 섞이거나 물건이 수한거면 몰라도 이건 진짜 인조아사 옳습니다. 손님, 만일 다른데서 제대로 마치신다면 백원 하나 덜주시고는 안되실걸요.》

윤오는 다시 두말을 못하고 꽉 움켜쥐고있는 십원짜리 지폐 석장을 그대로 내주고말았다. 비록 기성복이나마 하얀 여름양복을 사들자 그는 날개가 돋힌듯이 가슴속까지 거뜬했다. 그래 윤오는 집에 돌아오기가 급하게 입었던 양복은 마치 흉한 껍질이나 벗듯이 벗어버리고 새양복을 입어보았다. 기성복치고는 제법 어상반하게 몸에 맞는게 신통하고 기쁘기까지 했다. 이동안 자기의 아래우를 훑어보며 흡족한 낯빛을 띠우던 윤오는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좁은 방에서 오락가락하며 그는 《이만하면 나도 어엿한 신사의 한사람이요. 우리 회사 사무원들과 비한데도 그리 부끄럽지 않겠지.》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려보는것이였다.

한동안 방안을 거닐다가 윤오는 여름양복을 벗었다. 행여 손때가 묻을가 보아 아주 조심스레 마치 신주 바라보듯 공중을 쳐다보기만 하나 차차 비발은 커져서 뚝딱 생철차양이 울리고 윤오의 이마와 코에도 떨어졌다.

《이런, 제애기―》

그는 울상이였다.

《하늘까지 나를 놀리나!》 이같이 중얼대기만 했다.

출근시간이 되자 비는 본격적으로 쏟아졌다. 쭈르르 내리는 락수소리가 그대로 모두 그의 가슴속으로 흘러드는듯 하였다. 할수없이 그는 벗어버렸던 그 무겁고 투박한 겨울양복을 모두 찾아입었다. 그러

지 말자고 하면서도 그는 대단히 서글퍼졌다. 잡힐 물건이 없을만치 어려운 윤오에게 주제넘게 웬 덧구두가 있고 더구나 비옷이 있을리 만무했다. 석쇠(쇠줄로 그물같이 뜬 기구)같이 구멍난 종이우산을 펴들고 윤오도 러쉬 아워(출퇴근으로 붐비는 시간)때 몰려가는 군중속에 한사람이 될수밖에 없었다.

그날도 이래저래 숱한 놀림을 받았지만 현관에 감추어둔 윤오의 종이우산을 끌어내는데는 참 질색이였다. 우산에다 떡 《윤오의 소유》라고 써놓고들 킬킬대는것을 보자 그의 가슴속은 또 부레도가니처럼 끓었다.

《고까짓 무안이나 놀림에 그렇게 분을 돋구고 속을 태우면 전도를 망친다, 망쳐버려!》

그는 생각한다.

《큰데를 보아라! 대범해져라!》 이렇게 몇번이고 스스로 타일렀다.

오후 2시쯤 비가 멎고 구름이 몰려가는듯 했다. 윤오는 유쾌해졌다. 얼마후 볕이 유리창에 들었다. 그는 볕이 반가왔다. 마음대로 해서는 집으로 가서 여름양복을 입고 왔으면 좋겠으나 어떻게 빠져나갈수가 없었다. 그러나 정말 날이 개이지는 않았다. 다시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렸다. 하늘모양에 따라 그같이 우울했다가 명랑했다가 하는 자기의 용렬함이 조삼모사(눈앞의 차이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은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두고 나온 고사)에 날뛰는 잰내비 흡사해서 윤오는 지독히 자존심이 상했을뿐더러 대체 자기가 어느틈에 무엇때문에 요렇게 소인이 되였는지 자기 무릎을 때리면서 탄식할밖에 없었다. 자기가 여직껏 극히 소인으로 돌리는 그런 오사리 잡놈보다도 더욱 자기자신이 작지 않은가 하고 생각했던 까닭이다.

《내가 어느틈에 요렇게 됐나!》 하고 그는 거듭 탄식하는것이였다.

그 이튿날도 윤오는 일찍 눈을 떴다. 눈을 뜨자 인해 미닫이를 열어보았으나 보통비가 오는게 아니였다. 하늘이 무너질듯이 억수로 퍼붓는판이다.

그래 윤오는 그날도 여름양복을 입을수 없었다. 따라서 B씨나 만수에게 《동복》이라는 별명을 받아도 하는수 없었다. 그 다음날도 비는 개이지 않았다. 아주 장마로 들어서서 비는 어느때나 그칠는지 공

연히 윤오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느라고 간혹 멎을듯 하다가도 다시 더욱 극성스럽게 퍼붓고 했다.

다행히 나흘되던 날 아침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저녁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입어보고 입고 거닐어보고 가보 모시듯 벽에다 걸었다. 그리고는 윤오는 벌떡 누웠다. 몇달동안 쌓인 피로가 일시에 탁 풀리는듯 했다. 단지 여름양복 한벌때문에 받은 정신의 고통, 단돈 30원이 없어서 여직껏 투박한 겨울양복을 입고다니며 애를 쓰던 자기의 꼴이 마치 심청이 아버지처럼 불쌍하게 생각되였다. 삼복에 들도록 튼튼히 겨울옷을 입고 다니기란 첫째 무겁고 더워서 견디는 재주가 없었다. 또 체면을 차린다든지 몸맵시를 낸다든지 하는 졸망한 마음은 개 주어버린지 오래였지만 윤오도 사람가죽을 썼거늘 때로는 정말 창피한 경우가 있었다.

그것은 회사로 들어가면 《오하요(아침인사)》라던지 《윤오》라고 보통대로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그저 《동복상》이라고 하는판이다. 그래 요즈음 입사한 사람들은 《동복》이라고 해야 알아듣지 《윤오》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지 못한다. 허다못해 소처럼 점잖은 B씨까지도 《여보, 동복상!》 하며 부르니 기막히는 노릇이다. 모르는새에 자기 저고리에다 매품(팔 문건)이라고 꼬리표를 달기는 례사요 백묵으로 등에다 글씨를 쓰기도 했다. 그건 만수가 극심해서 그는 B씨의 말이라면 소금을 물로 씻으라 해도 네네하지만 윤오는 제발 그만 놀리라고 빌듯 하나 그건 막무가내다.

그러나 윤오는 지금 퍽 유쾌해졌다. 래일부터는 자기도 여름양복을 입을수 있는게 떳떳했다. 아무리 눈이 동태같기로서니 래일부터는 자기를 《동복상》이라고 부르지 않으리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서 래일이 돌아오십소서.》

그는 누워서 중얼댔다.

《얼른 이밤이 밝아서 아침이 오십소서.》

그러나 윤오는 날래 잠들수 없었다. 벽에 걸려있는 여름양복에 정신이 가고 그 하얀 양복을 입고 기운있게 회사로 들어가는 자기의 모양이 자꾸 머리에 떠올랐다.

얼마동안 누워있던 윤오는 주섬주섬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벽에 걸린 양복을 내려 또 입어보는것이다. 먼저처럼 방안을 거닐어본다. 그

려자 윤오는 B씨앞으로 가는셈치고 나 보라는듯이 쑥 버티고서서 《저도 사람이외다!》 하며 중얼거렸다.

이튿날 새벽에 눈을 뜨자 윤오는 우선 어제 저녁에 사온 양복에 눈이 갔고 짐짓 일어나서 만져보기까지 했다. 그같이 희망을 가지고 아침을 맞이한 일은 근래에 없었다. 다시 누웠으나 그는 여느날처럼 졸음이 오지 않았다. 출근시간이 아직 멀었으나 일어났다.

세면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자 그는 한참이나 하늘을 쳐다보고 서있었다. 응당 떠야 할 해가 보이지 않았다. 그대신 먹물을 풀어놓은듯한 구름이 지붕을 덮었고 벌써 한방울, 두방울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 않는가! 모처럼 명랑했던 그의 마음이 단번에 하늘모양처럼 흐려지고 우울했다.

세면을 할 생각도 않고 원하던 여름양복을 처음 외출할 때 입게 되였다. 윤오는 혹시 또 비가 내리면 하는 조급한 마음으로 비발이 떨어지기 전에 회사까지 가려고 여느날보다 일찍 그 새옷을 떨쳐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사실 때때옷을 입은 어린이처럼 기뻤다. 비록 넥타이는 기름항아리에 잠갔다낸듯 했고 하얀 양복에 검정구두가 결코 어울려보이지 않았으나 그런데까지 머리를 쓸수 없었다. 동복을 면한것만 시원하고 거뜬했다. 그러나 윤오는 불행했다. 집을 나서서 채 큰길까지도 나가지 못했을 때 윤오는 《이런 망할놈의 하늘!》 하며 이를 부쩍 물었다. 비가 또 오기 시작하는 까닭이다.

《올테면 암만이라도 퍼부어라. 집이 모두 떠내려가도 좋다!》 하면서 그는 무작정 걸어갔다. 허나 다음순간 그는 두주먹을 쥐고 집으로 뛰여와 억수를 피할수밖에 없었다.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여름양복을 산지 꼭 여드레가 되는 날 비로소 그는 제대로 새옷을 입고 출근할수 있었다. 하늘은 씻은듯, 부신듯 맑게 개이고 해가 떠있다.

윤오가 하얀 여름양복으로 변장을 하고 나가자 회사안은 과연 센세이션이 일어났다. 만수는 희게 단장한 윤오를 보자 한참 입을 벌리고 서있었다면 그만이다. 일일이 와서 인사를 했다. 통 한번도 윤오와 말을 주고받은 일이 없던 지배인까지 《자네 아주 스마아트(몸가짐이 단정하고 말쑥함.)하게 됐네그려!》 하며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만수는 잠자코있다가 모두 인사가 끝난 다음 쑥 윤오의 옆으로 오

더니 유심히 그 양복천을 구경했다. 그러더니 《동복상! 이거 야시에서 샀지?》 하며 묻는것이다. 그러자 모두들 킬킬했다. 만수는 더욱 기세를 얻어 《15원? 아니, 한 12원 줬을가? 허나 사긴 잘 샀어.》 하면서 넉살을 떠는 꼴이 참 미웠다.

《뭐? 알돈 30원을 내고 로씨야양복점에서 샀다!》 이같이 대들려다가 윤오는 꾹 참았다.

그날 윤오에게 퍽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오정이 넘어서 그는 B씨의 명령으로 ××공장까지 가야 했다. 그 명령은 매우 기뻤다. 첫째 회사안에 있으면 놀림받을것을 면하니 좋고 둘째로는 새옷을 입고 외출하니 기뻤다. 그가 공장까지 가서 무사히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였다. 일년가물에 비 안온 날이 없고 팔년 장마에 볕 아니난 날이 없다는 말이 정말인상 싶었다. 윤오가 막 공장에서 나오자 그렇게 청청하던 하늘에 험상한 구름이 모여들었다.

그러더니 불과 1～2분이 못되여 비가 소리를 치며 쏟아졌다. 어디 들어설 곳도 없었다. 사탕공장과 세멘트공장의 담이 길게 뻗어있는 길이였다.

윤오는 뛰였다. 마치 쳐들어오는 비발과 싸우듯이, 그 많은 적을 물리칠듯이 전력을 다해서 뛰였다.

물독에 빠졌던 쥐처럼 쪼르르 머리서부터 발뒤꿈치까지 젖어서 윤오는 회사로 돌아왔다. 그 꼴을 하고 바루 사무실로 들어설수는 없었다.

지하실부엌 가마있는데로 내려가 가마앞에서 양복을 말렸다. 하루밤에 몇번씩 입어보고 만져보고 하던 하얀 양복이 쥐여짜게 되였으니 기막히지 않을수 없었다.

꾸덕꾸덕 거의 양복이 마르자 그는 사무실로 올라갔다. 심장이 그때까지도 뛰고 사지는 얼얼했다. 회사가 파할무렵이였다. 그는 자기몸이 별나게 거북하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음을 느꼈다. 자세히 아래우를 훑어보니 바지가랭이는 마치 중세기의 서양무사들이 입던 바지처럼 훌쭉해지고 소매도 잔뜩 오그라들었던것이다. 그는 손으로 자꾸 잡아늘궈보았으나 소용없었다. 양복에 아마 무슨 마가 낀듯이 졸아드는거다. 업무시간이 끝나자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양복을 벗어들고 힘을 주어가며 늘궈보았다. 허나 늘어

나지는 않고 나중에는 천이 흐늑흐늑해졌다. 또 한번 늘궈보려고 힘을 주었을 때다. 푸드득하더니 무참히도 새로 산 여름양복은 찢어지고마는것이였다.

풀죽고 찢어진 새로 장만한 여름양복을 마치 죽은 자식 지키듯이 앞에 놓고 한시간이나 앉아있던 윤오는 그 양복을 헌 신문지에다 쌌다. 저녁을 들 생각도 않고 그는 신문지에 싼것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비를 맞아가며 한시간이나 걸었을가. 그는 신문지로 싼 여름양복을 대동강물우에 던졌다.

《내내 동복을 입고 다니리라. 내 너무 소인이였다!》 이렇게 생각하며 윤오는 한동안 강물우를 내려다보다가 돌아섰다. 그는 비를 맞으며 어두운 속으로 사라졌다.

《조광》 1941. 9.

물오리섬

김 사 량

1

유연한 대동강의 물흐름을 따라 평양 련광정아래의 강기슭으로부터 하루에 한번 썰물을 타고 증기선이 하류인 요포, 고봉산의 기슭까지 내려간다.

의사로부터 전지(다른 곳으로 옮김.)치료를 권고받고있는 량은 같은 값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동강하류의 어드메인가 아름다운 언덕이나 혹은 아담한 작은 섬에 가서 살고싶다는 생각에서 우선 밑조사를 위해서 이 증기선에 몸을 맡겼던것이다.

어느 사이에 배는 뽀뿌라숲이 산뜻한 반각도 옆 좁은 여울로 기관소리를 새겨넣듯이 울리며 통과하고 평양 옛성안을 뒤에 바라보게 되였다. 고노섬, 쑥섬에 반월섬 등의 그림과 같은 작은 섬들을 바라보면서 평천리의 버드나무가 어슴푸레한 긴뚝앞을 30분정도 내려가면 이번에는 오른편 기슭에 옥별산과 우의암 등이 경사와 절벽을 이루고 성긴 소나무숲을 여기저기에 벌려놓아 마치 북화의 산수도 병풍이라도 서서히 펼쳐가는것 같다. 강 왼쪽으로는 가늘고 긴 두루섬이 흘러가는듯 모로 누워있고 박넝쿨에 뒤덮인 노란 벼짚지붕들이 밭속에 여기저기 배겨있다. 밭에는 흰 의복을 입은 농부들의 모습이 구부정하게 보이고 강가 푸르른 초원에는 암소와 송아지가 한가하게 풀을 씹으면서 때때로 생각난듯이 꼬리를 젓고있었다.

물흐름의 풍요함, 강안의 밝은 아름다움, 섬들의 아름다움에 있어서 역시 대동강과 나란히 설자는 없으리라고 그는 새삼스럽게 생각하는것이였다. 갑판에 서서 그는 시원한 바람에 샤쯔깃을 열어제끼면서 이 작은 배를 타고 하는 려행을 점점 더 행복하게 느끼는것이였다. 특히 그에게는 어렸을 때 고모의 집을 찾아서 대동강하류인 벽이섬으로 내려가서 한여름을 꿈과 같이 즐기던 오래된 아름

다운 추억이 있다.

헤염 잘치는 장난꾸러기아이들과 함께 강밑을 파고들어 조개를 파내기도 하고 버들피리를 만들어 삘리리삘리리 불기도 하며 해저물녘엔 등 가득히 저녁해빛을 받으면서 송아지를 타고 돌아오군 하였다. 밤이 되면 섬처녀들은 봉구네집 사랑에 모여서 등잔불밑에 작은 토끼들처럼 머리를 모으고 여러가지 색실로 수놓이를 하면서 천진한 옛말을 들으며 밤이 새는것도 몰랐다. 랑은 밤에는 또 그 녀자들의 옆에서 딩굴면서 옛말을 들으며 홀딱 반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좋았다.

그녀들이 만들어낸 자수품, 례하면 화려한 봉황새문양의 베개마구리, 아이들의 꽃모자, 색염낭의 그림무늬들은 그의 어머니들이 평양이나 읍들의 장날에 찾아가서 돈하고 바꾸어 그 일부로 눅거리 백분과 거울을 사온다. 나머지는 오래동안 모아서 그녀들의 시집갈 준비로 씌여진다. 그중에서도 자수는 순이가 제일 잘하고 빨라서 이 섬에서는 누구보다도 시집갈 준비가 넉넉히 되여있다는것이였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녀들도 랑이 마음에 들었는지 사슴을 작은 천에 수놓아주기도 하고 또 졸고 누워있는것을 일으켜서 실끝을 잡게 하여 재미가 났다. 생각하면 어느 의미에서 그는 도시의 도련님이라 해서 그들사이에 인기가 있었다고도 말할수 있다.

6～7살경에는 서양식으로 머리를 가르고 쎄라복과 제낀깃양복에 반바지를 입고 소학교에 올라가서도 양복을 입고있었다. 그래서인지 그녀들은 그를 신기하게 여기며 순진한 애무의 정을 경쟁적으로 서로 겨누고있는듯 하다.

순이의 어린 고기와 같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눈길, 갸름한 얼굴에 눈섭이 새까만 칠성녀의 방긋 웃는 입가, 눈길이 마주치기만 하면 곧 빨개지는 서분네의 동실한 얼굴, 게다가 살결이 매끈한 봉구네가 때때로 락화생을 쥐여줄 때 그 따뜻한 손의 촉감, 그런것이 눈앞에 삼삼하고 또 피줄에 전해와서 그는 저도 모르게 볼이 달아오르는듯 하여 미소를 지었다.

언제였던지 달빛이 몹시도 밝던 밤 그때는 무슨 영문에서였던지 칠성녀가 별안간 혀를 널름 내밀어보이면서 《나같은 새각시는 성안에서 데려가지도 않는다누.》라고 말하며 머리를 쑥 내밀었던것이다. 그러자 일제히 와와 딩굴며 웃었는데 쑥스러워서 옴질옴질하고있는 그

를 별안간 장난질하듯 끌어당겨 안아올리며 《좋아, 내가 색시로 데려가 받겠다.》고 웨치면서 볼을 비벼준 처녀가 있다. 그가 순이였던것이다. 랑은 어린 마음에도 별로 부끄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져 눈을 반짝이였다. 그것을 보고 처녀들은 한층 기뻐하며 배를 그러안고 고아대였다.

《그렇게 되면 미근이 울겠다야.》라고 봉구네는 웃으면서 쳐다보며 일어선다.

《미근인 내가 대신 받아버릴가. …》

그러자 순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랑을 밀어놓고 봉구네를 수틀로 때리는척 하면서 양양 쫓아가던 광경이 이상할 정도로 아직까지 삼삼히 떠올랐다. 순이의 눈부신 인상은 그의 작은 가슴속에 그 어딘가 모르게 배겨있었던지. … 그도 정직하게 말한다면 순이가 제일 좋았던것이다. 때문에 미근이와 순이사이를 봉구네의 입에서 듣는 순간 그는 웬일인지 가슴이 두근거리던 일을 기억하고있다. 그때 역시 그의 가슴속에는 미근이라는 존재가 일종의 이상한 울림을 배겨넣었음이 틀림이 없다.

미근은 고모의 마을에 살고있는 몸이 름름한 말없는 젊은 사나이였다. 밭일도 태연하게 남의 배를 해제낀다고 한다. 게다가 씨름 잘하기로 이 근처에 있는 섬들에 널리 이름이 알려져있어 씨름대회때 상으로 탄 소도 한마리 기르고있었다.

랑은 그를 남몰래 두려워하며 동시에 좋아하였다. 대회때 등은 아주 열렬한 미근지지자로서 그가 발차기와 손공격으로 상대의 큰 사나이를 넘어뜨릴 때마다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그런 때에 순이는 그 어디엔가 사람눈을 피해 서서 내놓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던것을 랑은 이 처녀들의 소동속에서 문뜩 상기했다. 그리고 그후부터는 미근이 그저 좋기만 하지는 않아졌다. 특히 그 며칠후의 저녁때 마을끝 한 오막살이앞에서 고기그물을 깁고있던 곰보 리서방이 지나가는 미근을 보고 《자네도 바다로 가지 않겠나? 젊은치들이 모두 간단 말이네, 히히… 아닌게아니라 순이에게 벌레가 붙는게 무서운게지. 그렇지 않으면 봉구네네가 시끄럽게 달라붙어서 가지 못하는가.》라고 롱담을 한 때문에 등어리를 잡혀서 들어올려져 대여섯번이나 빙빙 돌아가는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유쾌하게들 웃기는 했지만. …

고기잡이를 퍽 잘한다고 일러주는 그가 어째서 바다로 가지 않는지도 또한 봉구네가 미근을 짝사랑하고있다는것도 모두 알게 되여 랑은 적지 않게 새암이 나기도 했다. 그런 덧없는 일을 추억하면서 랑은 혼자서 소리없이 쓴웃음을 지었다. 생각해보면 그후 벌써 이래저래 20년이 된다. 그 섬의 그리운 사람들과 어린때 동무들 또는 순이, 칠성녀, 서분네, 봉구네 등 모두 어떻게들 살고있을것인가? 그가 10살때 고모가 북간도로 이사간 후 또다시 그 섬으로 찾아가본 일은 한번도 없었다. 저 강기슭에 우뚝 솟은 높은 뽀뿌라나무숲도 지금껏 꺾어지지 않고 저녁바람을 받아 빨간 하늘밑을 비자루처럼 흔들흔들 흔들리고있을것인가.

도중 두루섬의 중단리에서 한번 손님을 내려놓고 증기선은 다도하라고도 불러야 할 곳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점점이 떠있는 섬들의 경치도 각각이여서 혹은 곤유섬 혹은 복섬, 혹은 벨쨩섬 혹은 추자섬 멀리에 장광섬, 두단섬, 문발섬 그리고 이름도 없는, 사람도 살지 않는 물새와 같이 아름다운 섬들의 오른쪽에는 옛날부터 흔히 시가에 절경으로 노래불리운 만경대의 절벽이 길게 늘어져있다. 몇척인가의 범선은 유연히 오가고 작은 화물선과 매생이는 증기선이 뒤흔들어놓는 파도를 받아서 흔들리며 움직인다. 옛날 미국해적선(《셔먼》호)이 용감한 우리 인민들과 군사들에 의해 좌초된것도 바로 이 부근이다.

만경대가 바로 아래로 내려다보는 곤유섬의 물가에서는 아이들(아마도 두루섬에서 헤염쳐건너온 애들일것이다.) 네댓명이 해오라기마냥 꼼짝않고 게구멍을 들여다보는가 하면 별안간 손을 들이밀고 발로 짓누르기도 하고 또 거꾸로 서기도 한다.

증기선은 만경대의 남단에서 다시한번 멎고 승객을 3～4명 내려놓고는 또다시 기관소리를 울리면서 강복판으로 나아왔다.

두루섬끝 락덕면도 어느결에 지나치고 유채꽃 피는 넓은 추자섬의 밭들을 오른쪽에 바라보면서 마침내 바다와 같이 펼쳐지는 대하 한복판에 활모양을 그리면서 백조와 같이 나아간다. 이렇게 또 30분쯤 흘러가서인지 별안간 왼쪽편에 마치 자그마한 오리가 두발을 날개속에 감추고 수그리고있는듯 한 가지가 휠 정도의 백양나무로 둘레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온섬이 능수버들과 뽀뿌라의 숲으로 뒤덮여진 작은 섬이 눈부실 정도로 선명하게 나타났다.

오색령롱한 물구슬을 날리면서 방금 그곳을 날아오를듯도 하고 또 작은 물고기와 같이 이제라도 곧 강바닥속으로 쑤시고 들어갈듯 하기도 하다. 잔파도치는 명주같은 물은 마치 이 작은 섬을 록옥으로 갈아서 맑게 하려고 하고있는듯… 어째서인지 소년시절의 기억속에는 이 섬이 빛을 뿌리지 못하고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섬이군요.》

그는 완전히 이 섬의 아름다움에 현혹을 느끼고 저도 모르게 옆사람을 향해서 물었다.

《뭐라는 섬입니까?》

《물오리섬.》하고 꺼질듯 하게 툭 한마디 대답하는 목소리의 주인은 키가 큰 시골사람모양의 중년부인으로서 3살정도 되는 눈이 크고 해별에 얼굴이 탄 아이를 업고있었다. 그러자 그 녀자는 조심하듯 몸을 좀 움츠리며 훌쩍 그를 훔쳐보았다.

하긴 어째서인지 그 녀자는 아까부터 그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듯이 자기의 얼굴을 흘끔흘끔 보고있지 않는가. 랑은 슬며시 졸린듯이 그 녀자의 얼굴을 한참 주시했다.

그 녀자는 확 얼굴을 붉혔다. 눈을 내려깐채 《물오리가 겨울부터 이른봄까지 무리지어 놀러오기때문이지요. …》하고 속살거렸다.

《아! 당신은…》

그는 문득 그 순간 황막한 망각의 바다로부터 기억을 퍼낸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벽이섬의 칠성녀씨가 아닙니까?》

《당신은 성안의 꼬마도련님이지요.》

역시 그 목소리는 꺼질듯이 가늘기는 했지만 《꼬마》라는 당시의 랑의 별명을 저도 모르게 웨쳐버린게 미안했던지 점점 더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 코마루옆에는 옛날에는 볼수 없었던 주근깨가 붙어있어 한층 인상적이였다.

《정말 뜻밖입니다. 거의 20년만에 게다가 이런 강우에서 당신을 만나다니… 나는 옛날의 아름다운 추억에 이끌리여 배를 탔어요. 벽이섬의 모습도 퍽 변했겠지요.》

《나는 지금 겸이포쪽에서 농사를 짓고있어요. 이 대동강을 내려가는게 몇년만이랍니다. 평양에서 돌아오는 길인데 왜 그런지 꼭 이 강

을 내려가서 집으로 돌아가고싶었어요. …》라고 말하며 그 녀자는 슬그머니 랑쪽을 쳐다보며 좀 말하기 거북한듯 조금 망설이다가 《당신은 옛날의 순이를 기억하고계시나요?》하고 물었다.

《네, 기억하고있습니다.》

랑은 생각탓인지 얼굴이 붉어지는것을 느끼면서 씽긋 웃었다.

《순이씨는 지금 어디서 살고있습니까?》

《저 물오리섬에…》하며 칠성녀는 손을 들어 가리켰다.

《미근씨와 결혼해서 함께 그쪽으로 이사해갔습니다요. 아까부터 순이네 집을 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요. 나도 순이와는 한 10년쯤 만나지 못했다구요. 당신에게도 보이지 않나요? 틀림없이 그 집 한집밖에 없겠는데…》

《허, 그러나 보이지 않는군요.》하며 랑은 점점 뒤쪽에 멀어지는 물오리섬을 키돋움하여 바라보면서 말했다.

《역시 순이씨와 미근씨는 같이 살게 되였군요. 그런데 나무들사이에 숨겨져있기때문인지 사람사는 집은 한채도 없는것 같군요.》

증기선은 오른쪽 추자섬의 한복판쯤 되는 곳에서 두세명의 남녀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흔드는것을 보고 그쪽으로 배머리를 돌려 저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물오리섬도 점점 멀어지는데 랑은 아름다운 그 섬모습을 주시한채 혼자말처럼 중얼댔다.

《아, 저 꿈과 같은 섬에 순이의 부부가 살고있겠군. 그렇지, 추자섬에 내려서 우선 저 섬으로 매생이를 돌리자.》

2

증기선에 몸을 싣고 사라져가는 칠성녀를 잠간 배웅하고나서 랑은 강가에 떠있는 작은 매생이를 빌려서 단신 큰 강을 건너지르려고 노저어가기 시작했다. 강복판으로 나감에 따라 물흐름이 굉장히 빨라서 배머리를 돌려 상류를 거슬러올라가기를 한참이나 하다가 다시 대안을 향해 힘껏 저어 건너가기 시작했다. 배는 나무잎처럼 뒤흔들리며 화살과 같이 하류쪽으로 밀려가면서도 섬으로 다가갈수 있었다.

한낮이 조금 지난 때의 해빛은 수면을 진주보석을 쥐여뿌린 은하와 같이 반짝이게 하여 보는 사람의 눈을 부시게 하였다. 잔물결은 춤추

면서 매생이에게 장난을 걸고있다. 랑은 얼마후 물오리섬 아래쪽 기슭에 배를 댈수 있었다. 섬둘레를 빙빙 둥실하게 둘러싼 백양나무숲 아래, 명주와 같은 물에 씻기우고있는 강가는 백사장이였다. 그우에다 닻을 던지고 내려서서 숲속을 뚫고 들어가보니 갈대가 키만큼 커서 오솔길도 없이 꽉 무성하고있다. 강면을 쓸고 불어오는 바람이 창끝과 같은 그 풀잎끝을 번쩍이는 파도와 같이 춤추게 하고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푸른 잎들에서 물큰물큰 냄새를 풍긴다. 그속을 헤치듯이 헤가르며 나가면서 바라다보니 성벽같은 백양나무숲에 둘러싸인 섬안은 생각던것보다 넓어 대략 3만평정도 돼보였다. 여기저기 뽀뿌라나무숲이 줄지어서고 이름모를 관목이 가득차있었다. 갈대와 창억새와 기타 잡초가 가득 무성하게 자라고 노랑들국화와 수레국화 그리고 그외 여러가지 꽃들이 꽃덤불을 이루어 무지개같이 여러가지 색갈이 흘러가는듯 하였다. 정처없이 돌아가면서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인가같은것은 눈에 띄지 않았고 밭이라는것도 고양이이마빼기만 한것조차 없는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지금은 무인도같았다. 토질이나 어떤가 해서 때때로 뒤져보니 모래투성이여서 그것이 구두앞코에서 부슬부슬 흩어져버렸다. 파리날개 떠는 소리조차 똑똑히 들리는듯 한 고요속에서 얼마간 갑갑함을 참기 어려워 그는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헛되이 휘파람을 불었다.

순이의 부부는 이곳에서 몇년이나 천국에서와 같은 즐거운 생활을 했으며 지금은 어드메로 이사간것이겠는가? 화려한 자연의 혜택속에서 단 두사람만의 아름다운 생활에 꽃을 피우고 얼마 안되는 모래땅을 갈아서 량식을 마련하며 바다가에서 자루그물이라도 둘러쳐서 극히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살았었을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푸른 섬, 얼마나 아름다운 푸른 하늘, 또 얼마나 아름다운 푸른 강인가. 그러나 이미 여기엔 순이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는 가실길 없는 실망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 어디에선지 두세마리의 작은 새의 은방울소리같은 묘한 울음소리가 들렸기때문에 그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뽀뿌라나무꼭대기의 이파리들만이 저녁해를 받아서 금빛으로 펄럭이고있다.

그러자 이번엔 뒤쪽숲속에서 딱따구리가 나무를 쫓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그의 머리우로 고운 작은 새가 아까의 그 방울굴리는듯 한

맑은 소리로 노래부르면서 동북쪽강가로 날아갔다.
그는 그 노래소리에 끌리여 꽃밭속을 가려밟으며 또다시 숲속을 누벼가면서 새들이 파도형으로 선을 그리며 류성과 같이 날아가는 모습을 눈으로 좇았다.
겨우야 강가에까지 왔을 때는 이미 작은 새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게 되고 노래소리도 사라져버렸다.
헛되이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고있을 때 문득 자기곁에 있는 나무가지에 두명의 11～12살정도의 소녀가 작은 바구니를 안은채 웅크리고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그것은 야생뽕나무여서 그녀들은 보라빛 작은 알을 따먹으러 올라가고있었던것이다. 둘이가 다 입가에 오디색, 보라빛으로 귀엽게 물든채 목소리를 낮추고 살금살금 내려다보고있다. 랑은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다.
《오디를 따먹는게로구나. 너희들은 이 섬에 살고있니?》
《아니야요. 저쪽 큰섬에서 왔어요.》라고 눈이 까만 소녀가 대답했다.
(아, 그러니 그쪽에도 또 섬이 있었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섬에는 아무도 살고있지 않니?》
《네, 옛날엔 집 한채가 있었지만 홍수때 흘러내려갔어요.》
《뭐? 홍수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됀?》
이번엔 빨간 댕기를 드린 소녀가 떨어질듯 다른 가지를 휘여잡으며 말했다.
《몰라요. 어른들이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빨간 댕기는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는 어디서 왔나요?》
《평양에서 왔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섬이여서 와서 살아줄가 해서… 어떠냐? 아저씨가 와서 살아볼가?》
《아저씨 혼자서 무섭지 않나요?》
까만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거리며 물었다.
《무서울게 뭐냐?》
《큰물이 나서 집이 떠내려가도 무섭지 않아요?》
그래도 끄덕이는 랑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빨간 댕기가 눈이 동그래졌다.

《그럼 와서 살라요. 그렇지만 아저씨! 우리들이 오디나 고운 꽃을 꺾으러 와도 되지요?》

《아, 되고말고! 우리 사이좋게 친해지자구. 자, 아저씨한테 한알 떨구라구.》

《자아요.》

《또 하나…》라고 그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조금씩 떨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손을 쓰지 않고 입을 딱 벌리고 받아먹는것을 보고 재미있어하며 좋아했다.

《그리고 저…》 깜장눈이 말했다.

《옛말도 해주나요?》

《그럼, 언제든지 해주지. 매일 들으러 와주겠니? 게다가 아저씨는 여기에 포도밭을 만들지도 몰라. 그럼 너희들이 왔다 집에 갈 땐 얼마든지 싸서 보내주겠다.》

《좋지. …》 둘이는 서로 마주보고 히죽 웃었다.

《매일 올래요. 우린 제 손으로 매생이를 몰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옛말을 들려줄래요?》

《그렇구나.》하면서 잠간 생각하던중 랑은 옛날 자기가 이 소녀들처럼 어렸을 때 칠성녀나 봉구네, 순이들에게 옛말을 조르던 일이 추억되였다.

《범이 중이 되여서 마을에 내려온 얘기는 어떠냐?》

《들었어요.》라고 둘이는 보라빛입술로 꼭같이 대답했다.

《그럼 돌신을 신었다는 힘장사사나이의 얘기는?》

《그것도 들었어요.》

《허, 뭐나 다 듣고있구나.》

그는 옛날에 칠성녀와 봉구네나 순이들에게서 들은 옛이야기가 이 근처의 섬들에서 얼마나 많이 되풀이되고있는것인가를 짐작하게 되며 순이에 대한 추억이 더더욱 끓어올라 가슴설레임을 누를길 없었다.

《그럼 소금장사할아버지가 논두렁길에서 팽이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그것도 들었는걸요.》라고 깜장눈이 빨간 댕기를 향해서 동의를 구했다.

《보라요. 저기 멈춰서있는 커다란 돛배의 뚱뚱한 아저씨에게서 들었어요.》

《무어? 어디에 돛배가 있다는거냐?》

《아저씨! 거기서는 안 보이나요? 저기 저 섬끝의 뽀뿌라숲이 있지요?》라고 깜장눈이 동북쪽을 가리켰다.

《그속에 돛배가 흔들리는것이 보일테지요? 그리로 건너가면 우리들의 섬이야요.》

네댓걸음 걸어가서 그쪽을 주의깊이 살펴보니 과연 숲 저쪽에 높은 돛대가 늠실늠실 흔들리면서 보일랑말랑한다. 어떻게 해서 저런 큰 배가 이런 섬에 닻을 내리고있는것일가. 그는 머리를 돌려 쳐다보면서 물었다.

《저 배는 뭘하러 와있는거냐?》

《저 배의 아저씨들은 자주 와요. 한사람은 무서운 아저씨인데 어떠면 물귀신인지도 몰라요.》하며 빨간 댕기는 겁나는듯 입술을 오무렸다.

《말 한마디 하는적이 없는거 뭐.》

《호, 그럼 아저씨가 한번 가보기로 할가.》

그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면서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가는데 따라 그곳은 이 섬에서는 약간 높은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역시 무성한 갈대와 억새풀이 무리져있어 그것을 헤가르면서 나무숲사이로 멀리를 바라보니 정말로 커다란 배가 한척 멎어있으며 그우에 뚱뚱한 번대머리 큰 사나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낚시대라도 드리우고있는듯 하다. 소녀들에게서 소금장사할아버지옛말을 들려준이가 저 사나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는 좀더 높고 풀도 많지 않은 곳으로 지나가려 하였다. 그때 어디로부터인지 향기로운 꽃향기가 저녁바람을 타고 확 풍겨왔다.

(정말 좋은 향기로구나.)라고 중얼거리면서 2~3간(한간은 여섯자) 나아가려니 이상하게도 문뜩 발끝에 채이는 커다란 돌이 있다. 아니, 어떻게 되여 이런 큰 돌이 있는것일가 하고 놀라서 보니 과연 옛날 순이의 집이 서있었던 자리로 보이며 수많은 돌들이 3평정도의 넓이에 이끼가 낀채 묻히여 깔려있었다.

뭐라고도 형용할수 없는 감상이 그의 몸안으로 흘러들었다. 그것을 둘러싼 갈대가 바람에 흔들려 소곤거리고 그 한구석으로부터 한층 더 강렬하게 꽃향기가 뿜어온다. 깔돌을 밟고 그쪽으로 가보니 거기엔 또 굉장히 많은 하얀 꽃이 만발한 넝쿨장미가 그의 눈을 놀래웠는데 그

보다도 한층 더 그를 놀래운것은 그 꽃들의 밑에 곧바로 누워 자고있던 흰옷 입은 사나이가 뭉클 일어난것이였다.

랑은 한눈에 이이가 미근이라는것을 알아보고 전신이 굳어졌다. 자세히 보니 옛날과 조금도 변함이 없이 적동색으로 볕에 탄 이마에 코마루는 우뚝한데다가 골격이 멋있고 듬믐하다. 커다란 눈이 속깊이 쑥 들어가배겨 허옇게 번뜩거리고있다. 미근은 물론 랑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것이다. 한번 슬쩍 그에게 눈길을 돌리고나서 그 소녀들이 이야기하듯 말 한마디 없이 돌아눕고말았다.

그는 조용히 담배를 꺼내서 입에 물면서 그 사나이에게도 정중하게 한대 내밀었다. 미근은 입을 다문채 한번 눈인사를 하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받아들었다.

그리고 불을 나누면서 랑은 사나이를 향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당신은 미근씨지요? 난 어렸을 때 고모네 집을 찾아서 자주 벽이섬에 갔었기때문에 당신을 기억하고있습니다요.》

미근은 그때 받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있었는데 커다란 손을 흔들며 성냥개비를 집어던지면서 깊숙이 패인 눈으로 구멍이 뚫릴 정도로 랑의 얼굴을 주시하였다. 흐릿하게 기억의 안개가 벗겨져 문뜩 그의 얼굴을 기억해내자 잠간 얼굴을 찡그리더니 별안간 적의가 가득찬 보기 흉한 얼굴로 되였다.

《뭘하러 왔소? 내 섬에 무얼 하러 왔는가요? 내 섬에는 그 누구도 들여놓지 않는단 말요.》

이렇게 웨치면서 벌떡 일어선 그였으나 다음순간 또한 말할수 없는 슬픈 빛을 얼굴에 띄우고 맥없이 쓰러지고말았다. 머리를 푹 숙이고 두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혹 옛날에 혹은 순이가 지난날 어린 랑을 고와했던것을 알고있어서 이 순이 열애자가 바로 그라고 인정하자마자 무서울 정도의 질투를 느꼈다는것인가?

그러나 그렇다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순이에게 그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이젠 자기곁에 그 녀자가 없다는것을 생각하면 질투의 발작은 그림자를 감추고 별안간 슬픔만이 그의 가슴속에서 법석거리기 시작했다고 말해야 할것인가?

《증기선을 타고 이 대동강을 내려가고있었는데 너무나도 섬이 아

름다워서 추자섬에서 내려서 매생이를 저어서 왔다구요.》
아닌게아니라 순이가 살고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 와서 만나고싶었다고는 말하지 못했다.
《아까 저쪽뽕나무우에 올라가있는 처녀애들에게 물었더니 이 섬에 집 한채가 있었던것이 큰물에 흘러내려갔다는지…
당신네 부부가 살고있었다는것 같더군요. …》
《묻지 말아달라구요.》
어째서인지 미근은 애원하듯 가련한 목소리를 짜냈다.
《부탁이니…》
그때 배있는쪽에서 아까 낚시질을 하고있던 뻔득뻔득 벗겨진 번대머리 늙은 배사공이 두자쯤 되는 커다란 고기를 안고 허둥지둥 달려오면서 《이봐! 미근이, 미근이! 커다란 숭어가 걸렸다구!》하고 웨쳐대고있었는데 문득 랑을 보자 놀라서 멈춰섰다. 그리고 곧 두사람사이의 어색한 공기를 짐작했던지 껄껄 웃으면서 다가오더니 펄펄 뛰는 몸뚱이로 자기의 배를 탁탁 치는 숭어를 때려누르면서 《이보라구, 이보라구, 아, 이걸 보란 말야! 자넨 또 이 알지도 못하는 손님에게 성을 내고있는게로군?》하고 숨이 차게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랑쪽으로 돌아보면서 참 곤난한 사나이지요라는듯이 선량한 웃음을 히죽 웃더니 《손님, 용서하시오. 이 우리 고집쟁이는 이 섬에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몹시 증이 나서 성을 내는 성미란 말입니다. 복아지귀신에 덧들인 놈이지요, 헤헤헤…》
《가만히 배겨있으라구요, 령감!》하고 미근은 퉁명스럽게 고함쳤다.
《아, 좋아좋아, 가만히 있자구. 어이구, 그런데 이놈이 꿈틀거린다. 그렇다면 제깍 이놈으로 맛있는 회갓이라도 치게 할가? 그런데 밥은 이젠 다 탔는지도 몰라.》하고 말하며 2～3간쯤 앞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과연 그곳 돌우에 남비가 걸려있어 벌컥벌컥 끓고있다.
《자넨 틀림없이 출출할걸. 배속이 비면 거기엔 바람이 들어가서 밸이 더 나는것이야, 허허허… 아무래도 자네가 그런것 같애. 이제 이놈을 가지고 술이라도 한잔 들부어주면서 배속을 달래주겠네.》
그러면서 랑을 돌아다보고 눈을 끔적하였다.

《손님, 이리 오시오.》
숭어료리에 달라붙은 늙은 배사공은 그가 다가가자 다시한번 선량하게 껄껄 웃어보였다.
랑은 혹 이 로인으로부터 미근부부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해도 말을 끌어낼수 없어서 저녁하늘의 새빨간 노을을 바라보면서 혼자말같이 중얼거렸다.
강면을 건너오는 저녁바람은 비교적 강하여 금빛으로 반짝이는 갈대나 억새풀의 잎끝을 춤추듯이 나붓기면서 그의 말을 토막토막 뜯어가버린다.
《저녁노을이 새빨개졌군요.》
《에, 그렇구말구요. 바로 여기가 옛날 부엌자리이니까…》하고 늙은 배사공이 어떻게 잘못 들었던지 혹은 심한 귀머거리인지 전혀 당치 않는 소리를 커다란 거친 목소리로 지껄이기 시작했다.
《저 나의 고집쟁이는 여기서 밥을 짓거나 찔게를 하지 않으면 성을 냅니다요, 헤헤헤… 큰 애기도령이지요.
사랑하는 새아씨하고 여기서 살던 옛날일이 너무도 잊혀지지 않아서지요, 헤헤… 그래서 우린 대동강을 오르내릴 땐 반드시 이곳에 들려 쉬여가는것이랍니다.》
《아바인 할머니가 없나요?》
《응, 나의 아들말인가? 내가 난 아들은 아니지만 저 고집쟁이는 나의 아들로 된것이라네. 미근이! 그렇지?》
미근은 팔속에 얼굴을 파묻은채 공허한 모양으로 아무 대답도 없었다.
《헤헤헤… 옛날꿈을 꾸고있는게지요. 색시가 큰물에 집과 함께 모두 흘러가버려서… 지금 룡궁으로 가있겠지요. 옛날에 여기서 두칸짜리 작은 집을 지어놓고…》
《아니야, 틀려요!》하고 별안간 미근은 몸을 벌떡 일으키고 고아대기 시작했다.
《세칸도 네칸도 달려있는 훌륭한 집이였다구요.》
그것이 깜짝 놀랄 정도의 큰소리였기에 아닌게아니라 늙은 배사공도 틀리지 않게 들었는지 《아, 그렇구말구! 그렇구말구! 세칸, 네칸, 다섯칸짜리…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섬에서 왕님과 같이 무엇 하나 아

수한것이 없이 살고있었다우. 자네 그때 이야기라도 한번 들려주지 않겠나? 난 말야, 옛날에는 어떤 이야기든 한귀로 듣고 한귀로 잊었었지만 이젠 완전히 귀가 절벽이 되여서 귀머거리이니까 이번에야말로 한번 들어두면 결코 잊어버리지는 않을것이야. 자아, 이쪽으로 와서 술잔이라도 돌리면서. 자, 이 손님하고도 사이좋게 주연을 베풀자구.》라고 청하면서 옆에 준비해두었던 커다란 한되들이병을 쳐들어보였다.

미근은 무뚝뚝하게 일어나서 오더니 바위같이 털썩 주저앉았다.

저녁해는 점점 산기슭으로 굴러들고 강변에는 눈부신 새빨간 저녁노을이 가라앉으며 빛나고 각각으로 주변은 보라색과 빨간색으로 물들어 그것이 진해짐에 따라 또 주위는 컴컴해져서 최후의 잔광이 무지개처럼 한번 번뜩이더니 밤의 장막이 먹칠을 하듯이 내려덮였다. 그러자 동시에 동쪽하늘로부터 음력 16일 밤의 달이 둥실 떠올라 섬전체에 황금색을 뿌려주면서 나무초리를 울리고 풀들을 춤추게 하고있었는데 마침내 넓고넓은 강우에 황금의 다리를 걸고 그들의 연회속으로 찾아들어 세사람의 얼굴을 창백하게 그리고 무엇엔가 홀린 사람들같이 비쳐주었다. 살랑살랑 바람은 속삭이듯이 불어오고 때때로 강물우를 달리는 배의 노젓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온다.

굳게 입을 다물고있던 미근은 점차 취기가 들자 멈출길 없는 비장한 감정에 참을길 없던지 뜨직뜨직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3

《나의 아버지는 내가 10살때 어느 가을날 매생이를 타고 황해로 떠나갔는데 그길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소.》하고 그는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그때부터 통채로 바다가 싫어지고말았수다.》

전하는 소식편에 들으면 그의 아버지는 황해의 연평도에서 술집녀자와 함께 산다는것이였다. 그이래 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고난의 생활로 들어가 날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소리로 날이 밝고 졌다. 미근은 어린 몸으로도 어머니를 도와 두사람의 생활을 지켜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하고 매일 아침일찍 어머니와 함께 일어나서는 들판에 나가 어른들에게 지지 않을만큼 일을 해냈다.

아버지가 돌봐주지 않아도 버림받은 어머니와 아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나갈수 있다고 하는 고집스러운 자신이 생겨났다. 그것이 아마 열네댓살경일것이다. 그러나 어릴적부터 그에게는 한가지 간절한 동경이 있었던것이였다. 그것은 소를 한마리 기를수 있는 신분이 되여서 아침일찍 강기슭에 데리고나가 풀을 뜯게 하고 저녁때에는 다른 소년들과 같이 그 등에 타고 풀피리같은걸 불면서 집으로 돌아오는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기에는 너무나도 가난한 집 살림이였다. 그래서 이 소년이 생각해낸것이 (그렇다, 훌륭한 씨름군이 되여 추석날의 씨름대회에 나가서 황소상을 타오자.) 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들판일의 짬짬이 섬의 소년들과 또 나아가서는 어른들까지를 상대로 하여 기량을 련마했다. 이렇게 하여 그가 마침내 2등상의 송아지를 끌고 집으로 돌아올수 있은것은 19살나던 추석명절때였던것이다.

이미 그자신이 소등에 탈 나이도 지나고 또 소의 몸도 작기는 했지만 그러나 얼마나 기쁜 일이였던가. 그는 어머니와 함께 소를 쫓으며 돌아오는 도중 어슬녘의 어둑컴컴한 강가에 나가 송아지몸을 씻어주었다.

《오마니, 좋은 소지요. 이것으로 우린 원래의 3식구가 되지 않았나요. 아버지가 없어두 어머니도 이젠 더 울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난 래년엔 더 커다란 놈을 타올터이니까.》

그러나 사실은 3명가족이 아니라 그무렵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도합 4명의 가족이 살게 되여있었다. 한것은 16살난 순이가 씨름대회이래 그에게 특별한 호의를 기울이고있었기때문이였다. 어쨌든 이 완고하고 자존심높은 소년은 젊은 녀자를 싫어하고있었다. 아버지를 어머니와 자기로부터 빼앗아간자야말로 젊은 녀자가 아니였던가. 그는 용이하게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다. 저녁때 순이가 어린애를 업고 우연인듯 그가 지나가는 길가에 나와 기다리면서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고 서있던무렵에도 또 차차 조금 익숙해져서 슬그머니 곁눈질을 하고있던 때에도 그는 돌아다보지도 않고 《이리야, 이리야.》하며 스적스적 소만 따라갔다.

그런데 어느 달밝은 밤 집밭에 혼자서 외로이 앉아 하늘을 쳐다보

고있을 때 봉구네네 집에서 수놓이를 끝내고 돌아가던 그가 지나가면서 테두리에다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아름다운 꽃을 수놓은 염낭을 자기앞에다 뚝 떨어뜨렸다. 그것을 집어들고 일어섰지만 그는 어찌된 셈인지 다시 부르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였다. 순이는 칭칭 늘인 긴 머리채를 너울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도망쳐갔다.

그날 밤 그는 (과연 이것을 어쩔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돌려주어야 하나?) 하고 생각하며 괴로와했다. 그로부터 수일후 소를 따라오던중 길가에서 뽕잎을 따는척 하고있는 그와 만났다. 그가 차마 말을 못 떼고 모르는체 지나려 하니까 순이가 뒤로부터 자기의 긴 머리채로 소궁둥이를 철썩 치면서 《이리야!》하고 웨쳤다. 그 순간 소가 놀라서 훌떡 뛰는것을 보고 그는 디굴디굴 구르며 웃어댔다. 미근은 홱 돌아다보며 진짜로 성이 나서 웨쳤다.

《망할 년, 무슨짓이야?》

《소! 소가 뭐야!》하고 순이는 머리로 메뚜기 방아찧는 시늉을 하기 시작했다.

미근은 성이 나서 송아지고삐를 꽉 잡고 다가가서 한참 노려보고있다가 똑같이 노려보는 그 녀자의 산뜻한 눈길에 맘이 약해져서 말을 얼버무렸다. 그 녀자는 또 심술사나운듯이 그의 말흉내를 내여서 《이리야, 이리야가 뭐야!》하며 입술을 오무리더니 별안간 《빨리 돌아가라요. 사람들이 보면 어찌겠어.》 하더니 홱 몸을 돌려 뽕나무밑으로 한발 내려섰다. 소는 끼랴, 끼랴 하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는 우뚝 선채 한마디도 못하고 망연히 서있었다. 잠시후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릴 때야 비로소 (아, 생각이 났다.) 하며 다시 발을 멈추었다.

《야, 네가 떨군 염낭 돌려주겠다.》

그리고 자기의 저고리속에 손을 넣어 끈을 잡아당겼다. 끈은 소리를 내여 뚝 끊어지면서 염낭에 붙은채 나왔다. 그날 그는 그것을 어디에 넣어두어야 할지 몰라서 끈을 달아서 가슴에 돌려매고있었던것이다. 그걸 보고 순이는 더욱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뽕밭속을 헤가르고 멀리에로 도망쳐갔다.

그후 그 녀자는 그가 얼마나 소를 귀중히 여기는가를 잘 알았던지 이번에는 그의 집앞을 지나갈 때면 한줌의 부드러운 먹이풀을 치마폭

에 감추어 소우리에 다가가서는 슬쩍 던져주고 도망치군 하였다. 그걸 보는 순간 미근은 기뻐졌고 순이가 퍽 고맙게 여겨졌다. 이렇게 해서 둘이는 점점 친해졌다. 어머니는 은근히 두사람의 사이를 지켜보면서 남몰래 기뻐하고있었다. 순이와 같이 이 마을에서도 평판높고 얼굴생김에 마음씨도 얌전한 처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던중 미근은 순이가 자주 빨래하러 나가는 강변가로 송아지를 데리고 제가 먼저 나가게도 되였다.

《이리야 낄낄— 이리야 낄낄—》

이 소리를 들으면 그 녀자는 바쁜듯이 빨래함지를 머리에 이고 나온다. 그는 강가로 가는 오솔길까지 오면 일부러 송아지의 고삐를 늦추어주고 길을 막아준다. 달음질쳐서 나오던 순이는 길이 막혀 멈춰서고 겁에 질려 옆으로 다가오며 《야단야요, 이런데다 소를 매놓으면…》하고 입술을 뾰족이 내밀고 사방으로 눈길을 보냈다.

《그리 성낼것 없어. 어차피 이 소는 네것이니 지금부터 잘 친숙해지는게 좋지 뭐.》

《빨리 고삐를 당겨요. 멍청히 서서 갈수가 없질 않나요.》

그 녀자는 성난듯이 새침해서 노려본다. 송아지는 길옆 패인 곳에 코끝을 디밀고 풀을 뜯어먹고있었는데 때때로 그 녀자쪽으로 머리를 들어 흔들었다.

순이는 놀라서 뒤걸음쳤다.

《그러지 말아, 송아지야! 바보!》

《그렇게 송아지를 욕하지 말라구. 끼랴— 소야! 비켜라, 비켜.》 하고 말하며 고삐를 당겨주었다.

《자, 어서 가라구.》

순이는 그사이에 꽃과 같은 미소를 뿌리면서 송아지뒤를 돌아 멀리멀리 도망쳐갔다. 미근은 히히히 하고 웃었다.

그 녀자는 2～3간쯤 가다가 돌아다보며 《포구의 아카시아나무밑에 부드러운 풀이 많아요.》하는 말을 던지고 다시 뛰여가듯 강기슭으로 내려갔는데 그런 때 봉구네는 나무밑에 숨어서 보고있었던지 불쑥 나타나 눈꼬리를 쳐들고 순이의 뒤모습을 노려보듯 바랬다. 그 녀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봉구네는 그옆으로 다가오면서 《퍼그나 꼭 잡혔군그래.》하고 허연 이를 보이며 성난 얼굴로 웃었다. 봉

구네는 섬에서도 평판있는 변덕스러운 처녀로 최근엔 그에게 짝사랑을 걸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빙글 돌아 등을 보이고 소에게 손바닥으로 철썩 한대를 먹이고 《끼리야—》하고 웨치는 동시에 달리듯이 소를 끌고 도망쳐갔다. 봉구네는 그 처사가 밸이 나서 흙덩이를 잡고 그쪽으로 마구 던졌다.

순이가 알려준 곳으로 그가 소를 끌고 가보니 역시 말대로 좋은 꼴풀이 주단같이 깔려있었다. 거기서 소를 먹이고있느라니 순이가 또 찾아왔다. 나무밑에 몰래 몸을 숨기고 그 녀자는 《메—》하고 소울음흉내를 낸다. 그러자 송아지는 빙글 돌아서 코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메—》하고 대답한다.

풀숲우에 앉아있던 미근은 벌떡 일어나서 빙빙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순이는 참외를 한아름 그의 앞으로 던졌다. 참외는 디굴디굴 구르면서 나무밑에서 나온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집는것과 동시에 도망치는 그녀를 쫓아가서 아카시아줄기있는 곳으로 몰아넣고 참외를 힘껏 한입 물더니 그것을 그녀의 입앞에 내밀었다.

《먹으라구!》

이렇게 해서 둘사이는 점점 더 사이좋게 되여가고 어느틈엔지 두사람에 대해선 섬안에서 첫째가는 평판거리로 되였다. 여기에는 봉구네의 말퍼뜨림도 크게 도움이 되였다. 두 집사이의 약간한 의론이 있은후 그러면 가을 추수나 끝내고 두사람을 결혼시키자고 하는것까지 결정되였다.

《그렇지만 그 가을이 오기 전에 우리들에겐 슬픈 일만 일어났단 말이요.》하고 중얼대더니 미근은 《쿵.》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코를 훌쩍거렸다. 다름아니고 7—8월에 걸쳐 가물이 계속되여 작물이 모두 타고 섬전체가 가랑잎처럼 시들어버렸다. 7월까지의 농작형편으로 봐서 이것은 도저히 예상도 못하던것으로서 누구 하나 소작료를 바칠만 한 사람이 없었다. 특히 그들의 지주는 평양성에서도 유명한 고리대금업자여서 그가 몇번이나 저택에 올라가서 연기방책을 부탁올렸지만 들어주지 않고 그의 생명보다도 더 중한 송아지를 마침내 사람을 보내서 빼앗아갔다.

그때 미근은 미치기라도 한듯이 도끼를 들어 먹이통을 깨버리고 참기 어려운 분노와 슬픔을 누를길 없어 외양간안을 마구 짓밟으며 날

뛰였다. 순이는 그것을 보고 어린애같이 큰 울음을 왕 터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채 사람들을 부르며 마을안을 뛰여돌았다. 마을사람들이 몰려와서 겨우야 미근을 붙잡아 마당의 큰 뽀뿌라나무에 묶어놓고는 찬물을 끼얹어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정신나간 귀신같이 뒹굴었다. 어떤 로인은 이것은 꼭 제정신이 아닌것이 틀림이 없다면서 복숭아가지를 가져오게 하여 그것으로 그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구 때렸다. 그의 어머니는 치마를 거꾸로 쓰고 통곡했는데 순이는 보다못해 뛰여나가 배도선장까지 달려갔다. 도선이 올 때까지 그 녀자는 송아지에게 풀을 뜯어먹이면서 너무도 애달파 작은 가슴을 들먹이였다.

소는 슬픈듯이 머리를 숙이고 순이의 최후의 고마운 정성인 꼴풀을 꿀꺽꿀꺽 짓씹으면서 때때로 코를 흥흥거렸다. 배에 올라타고나서도 송아지는 다 건너갈 때까지 녀주인이 쓸쓸하게 서서 바래주고있는 강가쪽을 바라다보면서 코를 쳐들고 메— 메— 울고있었다.

미근은 그후 얼마 안되여 그토록 싫어하던 황해로 돈벌이를 떠나갔다. 그밖에는 살아갈 길이 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이로써 끝난것이 아니였다. 춘삼월 배에 번돈을 싣고 이번에야말로 순이를 맞아 어머니와 세식구가 또다시 즐겁게 섬생활을 할수 있으리라고 기뻐서 돌아왔을 때 심한 생활고때문이였던지 혹은 지금까지와 생각이 달라졌던지 혹은 잠간 실수였던지 어머니는 섬에 조개젓을 팔러 온 떠돌이사나이와 함께 행방을 감추어버린 뒤였다.

고집스럽고 완고한데다가 어머니를 몹시 사랑하며 믿고있었을뿐아니라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두사람은 이렇게 훌륭히 산다는것을 보여주리라고 마음속으로부터 다짐하고있던 그였던만큼 미근은 발밑의 대지가 무너지는듯 하였다.

특히 그가 이번에 바다에 나갔을 때 남쪽의 어느 어장에서 뜻밖에 아버지를 만났던것이다. 어망을 좁히면서 무수한 어선들이 서로 밀고 닥치고 하면서 섭조개의 무리를 잡아올리는 소동이 한창때였는데 이쪽에 닿을락말락 접근한 저쪽배로부터 별안간 쉰목소리가 《야, 너 벽이섬의 미근이 아니가?》 하고 소리쳤던것이다.

미근은 놀라서 소리나는 곳을 한두간거리에서 한참 노려보았다. 달

밤이였다. 바다바람에 그을은 쉰쯤 난 사나이의 굳어진 얼굴속에 커다란 눈이 물고기비늘같이 번뜩이고있다. 그때 그의 뇌리에 어린 때의 기억이 불화살처럼 달려왔다. 그는 손에 잡고있던 그물 한끝을 저도 모르게 떨구고 망연히 서있었다.

그러나 곧 그의 가슴속에 뭉클뭉클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다.

《돛을 올려라.》 그는 웨쳤다. 한배의 사람들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 고기를 잡으면서 저마다 욕질을 퍼부으며 떨어져가는 미근의 배를 쳐다보았다. 미근은 또 한번 웨쳤다.

《돛을 올려라!》

아버지가 없어도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만큼 나도 이만큼 컸소, 농사군으로도 어부로서도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만큼 나는 컸단 말야 하는 강렬한 반발심이 그를 그렇게 시켰던것이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그의 마음의 유일한 의지였던 어머니에게서까지 버림을 받아 진짜배기고아가 되고만것이 아닌가.

《난 그이래 녀자란것을 전혀 신용할수 없게 되였던것이요. 이젠 사나이도 녀자도 나에겐 악마로밖엔 생각되지 않아. 인간이란것이 싫어져버렸단 말이야.》

미근은 그렇게 한탄하며 코를 풀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들까지 자기를 버리고 사라지는데 하물며 다른 누구를 믿을수 있겠는가. 그러나 순이만은 그가 없는 반년사이 낮에 밤을 이어 수놓이와 무명낳이를 해서 자기 집 생계를 도우면서 그의 돌아옴을 기다리고있었다.

이른봄, 밭갈이를 앞두고 미근이 무사히 돌아왔을 때 그는 기뻐서 통통 뛰며 그를 맞이하였고 몹시도 불행해진 고집불통의 애인을 진심으로 위로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순이까지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당신이 진짜로 나와 함께 살고싶으면 그 어떤 놈도 살지 않는 물오리섬에 가서 살아야 한다.》

순이는 미근의 심정을 리해할수 있었기에 어린애와 같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가 20살, 그 녀자가 18살때였다.

이렇게 되여 둘이는 마침내 맺어져서 무인고도에서 그들만의 행복한 생활에 들어갈수 있었다. 그의 소에게 향해졌던 열정은 이번엔 이 아름다운 외딴 섬과 순이에 대하여 절절하게 부어졌다. 바다에서 벌

어온 돈으로 사서 섬전체가 자기의것이였으며 순이 또한 오직 자기 한 사람의 사람이였던것이다.

《자그마한 초가집을 바로 이곳에 세우고 순이는 빨갛고 하얀 들장미꽃을 찾아내서는 이곳에 보충해서 심어놓았댔소.》

그것은 곧 꽃이 되고 부드러운 향기를 방안으로 보내주었다. 날마다날마다 아침일찍부터 소에 보습을 메우고 그는 뒤에서 보습의 손잡이를 잡고 안해는 소의 고삐를 끌고 줄기줄기 섬전체를 갈아엎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은 새들이 지저귀는 버드나무아래에서 점심을 펼쳐놓고 또다시 밭으로 돌아오면 멀리 대보산에 해가 떨어질 때까지 밭흙의 풍요한 냄새를 맡으면서 흠뻑 땀에 젖었다. 저녁해가 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미근은 투망을 들고 매생이가 매여있는 강가로 나갔다. 순이는 순이대로 부엌일을 시작한다. 때때로 작은 고기배들이 이 섬둘레로 숭어를 잡으러 올뿐이고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날들이 이렇게 밝고 저물었다.

밤이 되면 안해는 등잔불밑에서 변함없이 수놓이와 기타 바느질에 밤늦게까지 열중하고 미근은 또 미근이대로 문발을 뜨기도 하고 새끼를 꼬기도 하며 때때로 뿌려질듯 한 별하늘을 쳐다보고는 《참 좋은 날씨로군.》 하든가 《구름이 끼니 래일은 비가 올것 같애.》, 《바람이 맑아서 강냉이와 수수가 쑥쑥 뻗어줄거야.》, 《청개구리가 이렇게 합창을 하니 금년에도 또 큰비가 오지 않을가?》 하고 얼굴빛을 흐리기도 하였다.

바깥세상과의 교섭은 일체 그가 맡고있었다.

섬밖으로 나가는 일은 거의 막히다싶이한 순이지만 그래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자기들의 섬을 아름답게 지켜갈 일에만 열중하고있었는데 어째서인지 그무렵에는 해마다 큰물이 계속 났다. 첫해에는 음력 7월말경부터 큰비가 계속 쏟아져서 강이 범람하고 어느 섬이나 다 물란리를 만났는데 그중에서도 비교적 수위가 낮고 게다가 면적이 좁은 이 물오리섬은 통채로 물에 잠겨 집을 남겨놓았을뿐 밭의 작물은 몽땅 빼앗기고말았다.

둘이는 거기서 좁쌀 한알 걷어들이지 못한채 그날그날의 삶에도 곤난하게 되였다. 바다에서 벌어온 돈은 섬을 사느라고 몽땅 털었고 완전히 일전 한푼 없는 빈털터리로 되고말았다.

4

《자아, 이젠 돌아가야겠네. 저렇게 달이 높이 떴으니 물때도 딱 좋을게고 이 바람이면 인차 올라갈듯 하군. … 배군들은 물신선님에 대하여 그다지 불평을 말하는게 아니라구.》 라고 하면서 늙은 어부는 남비와 그릇과 술도꾸리를 걷어안으면서 독촉했다.

《손님은 매생이를 타고 오셨군요. 그건 있던 곳으로 가져다놓고 우리 범선으로 함께 성내로 돌아갑시다. 자, 우리 큰애기도 어서 일어나게나, 어서.》

미근을 따라 랑도 일어나서 이슬에 푹 젖은 풀숲과 갈대덤불속을 헤가르며 그들의 범선에 올라탔다. 둥근달이 동쪽하늘에 둥실 떠올라 섬과 강바닥우에 아름다운 빛의 악보를 연주하고있었다. 멀리의 강기슭과 섬들은 먹화와 같이 밝은 달빛아래 흐릿하게 떠있고 고요속에 잠겨있다. 때때로 멀리에서 개짖는 소리가 가늘게 들려온다. 늙은 배사공이 돛을 올리자 돛폭은 바람을 가득 품고 배를 섬으로부터 떼여내더니 점점 본흐름쪽으로 내몰아갔다.

《매생이는 어디에 매여있었댔나?》라고 묻기에 대답하니 배는 그쪽을 향해서 강기슭을 따라 미끄러져갔다.

늙은 배사공은 돛줄을 놀리면서 혼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서쪽하늘에는 검은구름이 달빛을 받아서 꽃이 피여나듯이 뭉클뭉클 움직이기 시작하고있다. 침묵속에 커다란 눈만을 번득이고있던 미근은 또다시 입을 열었다.

《꼭 이 아근이였소. 나는 구름이 없고 바람도 없는듯 한 새벽녘에는 흔히 순이와 함께 오－리라는 낚시질을 하러 나왔댔소.》

그리고나서 혼자말과 같은 설명이 계속되는것인데 그의 체구나 기질로 보면 이 하류지방에서만 독특한것일지도 모르는 오－리라는 낚시질을 가장 좋아하였던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아무렇게나 만든 두대의 커다란 갈구리를 얕은 곳에 던져놓고 그끝에 매놓은 굵은 끈이 달린 긴 장대를 손에 들고 물가에 서서 수면에 구름그림자도 떨어지지 않고 잔물결도 일지 않을 때쯤 해서 두자, 석자의 길고 큰 숭어떼가 끈우를 지나갈 때를 짐작하여 장대를 두손으로 훽 들어올려 어깨에 짊

어지고 모래불로 곧바로 뛰여올라 배때기쯤에 갈구리가 찔린 숭어를 원시적으로 잡아내는 통쾌한 낚시질인것이다.

순이는 멀리에서 숭어의 행렬을 발견하면 조용히 뒤를 따라 오—리 낚시쪽으로 쫓는다. 숭어의 떼에는 반드시 선두에 커다란것이 있고 량좌우와 그리고 뒤끝에도 큰 숭어가 있어서 새끼숭어들의 떼를 지켜주면서 진군해나가는것이였다. 그것들이 돌아누울 때는 흰 배가 린광처럼 또는 그슬린 은빛같이 번쩍번쩍 번뜩이며 그 장려한 모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수 없다.

때로는 4자나 되는 큰것이 걸려들어 그것이 죽을 힘을 다해서 날치는것을 끌고 달려가던중 끈이 끊어질 때도 있었다. 그러면 그는 부리나케 달려가서 물속에 뛰여들어 숭어의 뒤를 쫓으면서 끊어진 끈을 잡고 서로 물속에서 격투를 하는것이였다. 그런 때 순이는 손바닥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응원하였다. 또 비라도 뿌리기 시작해서 물이 흐릴 때에는 흔히 둘이서 자망의 한쪽씩을 붙들고 물에 몰켜 잠겨있는 백양나무밑으로 끌어간다. 발로 바닥을 휘저으며 몰아가서 입으로 슛슛하고 놀래워주면 망둥어, 은어, 모래무치 등이 굉장히 많이 잡히기도 하였다. 그는 이것들을 등에 지고 순이는 수예품을 가슴에 안고 평양성안으로 팔러 떠났다. 그러나 또다시 이런 즐겁고도 아름다운 생활을 순간에 뒤집어놓은것은 저 저주러운 홍수의 습래였던것이다.

《그래, 우리들이 자망을 끌고 돌아갔다는것은 이 아근이였소.》 하고 중얼거리면서 그는 랑이 타고왔던 작은 배를 보자마자 늙은 배사공에게 소리를 쳐서 배를 멈추고 자기가 노를 저어 매생이의 닻을 올려서 배고물에 걸쳐놓았다. 그래서 돛배는 비스듬히 방향을 잡아 밀물인데도 능숙하게 바람을 잡아타고 추자섬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솔잎을 산더미같이 쌓은 3척의 배가 중류의 밀물을 타고 긴 노의 노젓는 소리로 한가하게 평양성으로 향하고있다. 밤새가 두세마리 강을 건느면서 노래하고있었다. 잠시후 돛배가 추자섬의 기슭에 닿자마자 미근은 매생이의 닻을 그 강가 모래언덕에 던졌다. 매생이는 그 힘으로 강가에 남겨졌다.

그리고나서 마침내 범선은 중류로 돌아와 평양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사이 그는 침묵한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어느틈에 만경대앞을 지나면서 솔잎을 실은 배들을 따라잡은 다음부터는 바람도

황금빛을 안고 돛에 가득 밀려와 점점 더 속도를 높일뿐이였다. 달빛은 강바닥에 떨어져 금과 은, 보석빛으로 흩어져 설레이면서 춤추고 있다. 미근은 조용히 일어서서 배밑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술병과 명태를 꺼내여왔다. 컵에 남실남실 술을 따라서 꿀떡 한잔을 다 마시자 《손님도 한잔, 어떻소?》 하면서 컵을 내밀었다. 랑은 말없이 그것을 손에 들었다.

《자넨 오늘 밤에 또 이 애비를 혼내울 작정이로군그래. 너무 많이 마시면 순이의 혼이 슬퍼하니까 조꼼 하고 누워자는게 좋아.》

《말말아줘요, 아바이!》

미근은 또 컵에 술을 따르면서 성이 난듯 웨쳐댔다.

(아! 그럼 순이는 물에 빠져 죽었단 말인가?)

《오, 좋아좋아. 내 입을 다물지. 얼마든지 마시고 자빠지는게 좋아. 나처럼 나이들어 늙어버리면 그저 무엇이나 다 잊어버리고말아서 무엇 하나 말할것조차 없어지는것이니까.》

그리고나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어기야 어기야 어기여차
대동강은 150리
평양성은 70리지만
당신 그리는 가슴은 세치
어기야 어기야 어기여차
순풍에 돛을 올리자

《섬이 물란리를 만나 작물이 흘러가버리니 우리부부는 우선 그날부터 먹을것의 곤난을 당했소. 난 이를 악물고 생각했댔소. 송아지를 빼앗긴 원한이 뼈에 사무치고있는 이런 지주집으로 가서 또 돈을 꾸자고 부탁하지 않으면 안되였소. 그것은 죽기보다도 괴로운 일이였었소. 설사 굶어죽는다 해도 그놈앞에 또다시 머리를 숙일수는 없다고 몇번이나 멈춰서는 다리를 쫓듯이 하면서도 저 만경대를 넘어서 평천리의 외성엽을 누벼서 대동문안에 있는 그 지주집으로 갔던것이요.》

거기서 그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쉬였다. 눈에서부터 하얀것이 멈출새없이 흘러나와 달빛에 구슬과 같이 반짝이면서 쏟아져 떨어졌

다. 그는 그것을 한두번 주먹으로 훔쳤다. 이윽하여 그의 목소리는 비통한 울림을 가지고 이상하게도 랑의 가슴속으로 우벼파듯이 먹어들어왔다.

점점 미근은 취기가 돎에 따라 감정이 고조되고 마침내 자기의 슬픈 심정을 스스로 걷잡지 못하는 모양이였다.

그런데 그가 옛날 지주의 집 사랑에 들어갔을 때 무엇보다 그의 눈을 놀래운것은 하얀 염소수염을 기른 너구리상의 지주령감옆에 뜻밖에도 벽이섬의 어린 때 동무였던 봉구네가 오뚝 앉아있는 사실이였다.

그 왕가물의 해 그는 이 지주의 집 하녀로서 불려들어가서 지금은 세번째 부인으로 이 늙은이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있었던것이다. 그 녀자는 부끄러운듯 한 쓸쓸한 웃음을 억지로 지어보였다.

섬의 밭과 소를 빼앗는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자기들의 녀동무까지 빼앗았는가 하고 생각하니 미근의 가슴속은 저절로 얼어드는듯 하였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또 자기들의 오랜 원쑤라고 말할수 있는 지주의 첩으로 태연하게 앉아서 처참한 자기들앞에 나타나 밉살스럽게 웃을수 있는것인가 하고 그 녀자까지 저주로와 가슴이 떨렸다. 그는 그 녀자가 자기에 대해서 모멸의 조소를 보낸것으로만 생각하며 놀라움과 분노의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그 누가 알랴. 봉구네는 지금도 아직 미근이를 열렬히 사랑하고있는것이였다.

지주와의 교섭은 역시 잘되지 않았다. 돈 한푼 없는자에게 담보없이 1년농량과 비료대를 마련해줄 사람은 없다는것이였다. 그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저 물오리섬 2만 5천평이 자기의 소유임을 알리고 그것을 저당해서 빚돈을 겨우 성립시켰는데 왜 그런지 별로 무서워져서 몸이 떨렸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수 없는 신세, 또다시 봄이 돌아오기까지 강고기잡이를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잔돈을 모아서 빨리 섬을 되찾으리라, 결코 빼앗기지는 않으리라고 마음속으로 고아대면서 사랑을 부랴부랴 뛰여나왔는데 봉구네가 쫓아나와서 바로 포도넝쿨아래까지 왔을 때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미근은 지주와 그 녀자에 대한 증오의 일념에 불타서 소매를 잡아챘다.

《그렇게 성내지 말라구요. 나도 그다지 도와주지 못할것은 없어요.

풀이 죽을것은 없어요. 당신의 섬을 되찾을만 한 돈은 얼마든지…》
《필요없어, 더럽다!》
그는 탁 침을 배앝았다.
《내가 여기 와있어서 당신은 성이 났군요. 나도 좋아서 와있는것은 아니야요.》
《바보같다, 더럽다. 내 소를 빼앗고 게다가 섬사람들로부터 밭과 돈을 몽땅 빼앗더니 이번엔 또 내 섬까지 빼앗으려는것이지. 너희들 년놈이 둘이서 아무리 침을 흘린다 해도 난 결코 섬을 빼앗기진 않겠어, 빼앗기지 않겠단 말이야!》
《당신은 소와 밭과 돈을 빼앗긴것만 분하다는거야요? 나까지 빼앗긴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요?》
봉구네는 날카롭게 눈꼬리를 치떴다.
《순이는 잘 있어요?》
《그게 어쨌다는거야?》
미근은 어깨를 추켜올리며 성을 냈다.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지 말아요. 물어보는것도 안되나요? 성내는것을 보니 지금도 퍽 사이가 좋은게지. 나야 뭐 단 한번도 당신을 그립게 생각한적은 없으니까 순이보고도 안심하라고 말해줘요. 저 늙다리는 그래도 나에게 홀딱 반했지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나요?》
《그게 어쨌다는거야?》
미근은 큰소리를 줴치자마자 홀쩍 돌아서서 걷어차듯 대문을 열어제끼고 나왔다. 이제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세차게 틀어잡았을뿐이였다. 래년 가을까지 먹을것만은 걱정없다.
래년만 어떻든 하느님과 한편이 되여서 수확을 하게 해준다면 섬은 또다시 완전히 자기의것으로 될것이다. 그들부부는 또다시 각각의 자기 재간에 따라 일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큰 벌이를 노리고 바다로 내려가려고는 하지 않았다. 고집스럽고 의심많은 그는 안해의 일이 역시 걱정이였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그가 수놓은 물건을 평양에 팔러 가는 일은 자기도 바쁘기때문에 여러번 허락하게 되였다.

숭어와 잔고기를 잡을 때마다 그는 자기가 짊어지고 평양에 와서는 3원이나 4원이라도 돈이 되는 족족 지주에게 바쳤다. 처음 지주는 부스럭돈으로써 부분반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봉구네가 사이에서 승낙하게 되였던것이다.

봉구네는 그가 나타나면 표나게 좋아하면서 짬을 만들어 창녀와 같이 미근의 마음을 끌려고 애썼다. 때때로 돈을 주머니에 넣어주려고도 한다. 미근은 그것을 털어버렸다.

그가 자기로부터 소를 빼앗아간 지주의 첩이라는것만으로도 도저히 용서할수가 없었다.

《저 늙은이는 무서운 짐승이야요. 날 구원할수 있는건 당신뿐이야. 날 어드멘가로 데려다주어요.》

《바보! 제스스로가 도망치란 말야, 도망치라구.》

《어디로 가면 좋아요? 인차 따라와서 도로 잡힐걸. 진짜로 난 당신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잊은적이 없어요.》

《짐승같은건 죽여도 돼.》

《당신이 도와주겠다면…》

《흥!》

《당신을 단념할수 없어요. 이봐요, 나도 그리 나쁜 녀자는 아니라구요.》

어깨에 매여달리는 봉구네를 랭담하게 밀쳐버렸다. 그러나 우직하고 완고한 그의 마음에도 점차 요염한 봉구네의 미소를 받는데 따라 사이짬이 생기기 시작함을 어찌하랴. 그는 그것을 자기스스로가 똑똑히 인식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적지 않은 증오가 동정으로 변하고 점차 호의로 변해갔다. 이렇게 해서 겨울도 가고 봄이 오고 여름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와 봉구네와의 사이는 결코 경계를 넘은 일은 없고 변함없이 순이와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즐거운 생활이 계속되였다.

여름에 들어서자 조와 수수, 감자가 혹은 허리높이로 혹은 키높이만큼 혹은 지면을 몽땅 덮을듯이 넝쿨을 달고 밭우에 넘쳐나게 되였다.

이번에야말로 흔치 않은 대풍작으로서 이제 남은 비료대도 반환하여서 섬을 자기들의 손에 돌려받을수 있다고 두사람은 기뻐하며 서로

격려하였다. 이 하류지방의 어느 섬들에도 모두 기쁜 기색이 넘쳐나고있었다.

그러나 슬프도다, 우리들은 이때 소화×년의 무서운 대동강의 대범람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음력 6월 말경이 되자 무서운 저기압이 이 평남일대에 드리우고 대엿새동안 큰비가 계속 내렸다. 별안간 섬들은 크나큰 근심으로 휩싸였다. 섬사람들은 강변에 나와 비를 맞으면서 점점 거품을 일며 불어나는 강을 망연히 바라보고있었다.

이런 상태로 이제 3일만 계속되면 작년과 같이 또 섬들의 작물이 흘러갈것은 뻔한 일이였다. 강은 점점 물이 불어 섬을 핥아내기 시작했다. 미근은 전신의 털이 거꾸로 서는듯 무서워졌다. 만일 이번에도 작물을 몽땅 잃고 기한까지 빚을 반환할수 없다면 이 자기들 두사람의 섬을 그 고리대금업자에게 빼앗기고 다시 소작인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젠 일생동안 다시 일어설수가 없다. 지금 빨리 지주에게로 가서 일단 기한을 연기해달라지 않으면 안될것이리라.

그는 순이만을 섬에 남기고 매생이를 저어 2정～3정(한정은 약 109m)이나 소용돌이치는 탁류에 밀려흐르면서 겨우야 맞은쪽언덕에 저어갔다. 그의 매생이가 폭우속에 희롱당하며 흘러갈 때 강기슭을 따라서 죽을힘을 다해 달려오면서 목청껏 소리지르며 《빨리 돌아와줘요. 빨리 돌아오라구요.》 하고 웨치던 순이의 필사적인 모습이 눈앞에 아물거렸다.

그는 비속을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뛰여가듯 하며 구지주의 저택까지 당도하였다. 지주는 안방에서 봉구네에게 부채질을 해받으며 누워있었다. 그는 맨발로 마루까지 뛰여올라갔다.

《큰 주인님, 도와주십시오.》

이 거만하고 그 누구에게도 비졸하게 도움을 바라는듯 한 말을 입에 올린 일이 없는 미근은 그렇게 웨쳤던것이다. 이미 반미치광이의 형상인 그였다.

《기한이 지나도 섬을 뺏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시오.》

고리대금업자령감은 봉구네에게 다리를 꼬집히여 벌떡 일어나앉더니 에헴 하고 기침을 한번 하고 《섬이 흘러가서… 흘러갈것 같은 섬을 담보로 돈을 빌려간것만 해도 고맙겠는데 돈까지 늦게 갚겠다는 것은 무슨 소리야, 앙? 흘러갈듯 한 섬같은건 너에게도 필요없을게

다.》 하며 훌떡 일어났다.

《큰 주인님! 한번만 들어주십시오.》 하며 그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봉구네는 그때 단 한마디의 역성도 들어주지 않고 눈만 번득번득 빛내면서 몰래 미소를 흘리고있었다. 큰 주인은 미근이 맨발로 뛰여든것을 보고 재빨리 옆문으로 빠져나가 어디론가 숨어버리였다.

미근은 방안에서 성이 나서 이를 악문채 우뚝 섰다. 봉구네는 일어서서 그를 격정적으로 뒤로부터 껴안았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두꺼운 입술이 얼얼하게 경련을 일으키고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때 비는 가늘게 되여있었다.

《미근씨! 쫓아가서 죽인다 해도 저 짐승은 들어주지 않을거야요. 돈이라면 버치 한가득이라도, 쌀자루에 가득이라도 내가 주선해주겠어요.》

《놓아, 놓으라니까.》

그는 고아대면서 그 녀자를 쳐넘어뜨리고 제꺽 벽에 걸린 큰 거울을 쥐여들었다.

봉구네는 놀라서 그의 다리밑에 매여달렸다.

《정신을 차려요, 미근씨! 이제 당장이라도 백냥이든 만냥이든 필요한만큼 줄터이니까 섬에 대해선 걱정 말라요.》

그 녀자는 그에게서 거울을 빼앗고 정면으로 돌아와 안으면서 애원했다.

그러나 그 녀자의 말도, 열성적인 태도도 그의 불타오르는 증오의 념과 넘쳐나는 분노의 불길을 꺼버릴수는 없었다. 그보다도 비가 잔비로 되였다는것이 그에게 약간한 안도의 빛을 주었던것이다.

(아! 멎어다고, 멎어다고… 그렇게 되면 나는 이 악마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이제 두번다시 이런 곳에 오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미근씨! 이제부터는 꼭 개일거야요. 섬같은게 결코 흘러가진 않아요. 당신은 비록 저것을 죽인다 해도 복수로는 되지 않아요. 네, 알겠어요? 당신도 틀림없이 법대로 복수를 당할터이니까. 그래요. 둘이서 도망가자구요. 나를 도와줄이는 당신밖에 없어요. 저것은 거머리같이 나에게 붙어서 빨아먹으면서 떨어지려 하지 않아요.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잠시도 견딜수 없어요. 이봐요, 내가 준비해둔 돈은 퍽 많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당신의 섬도 찾을수 있고 나도 살아날

수 있어요. 알겠지요? 빨리 도망치자요. 빨리 어드멘가 산골로라도 데려다주어요. 비도 가는 비야요. 도망치려면 지금이야요. 자아, 어서…》 하며 그 녀자는 그의 목을 안은채 매여달렸다.

여기서 미근은 또 뚝 말을 끊고 별안간 심한 슬픔속에 붙잡힌듯 얼굴안의 근육이 켕기고 굳어지며 손에 들었던 컵을 뚝 떨어뜨렸다. 나직하게 웅얼거렸다.

《나에게 그때 마귀가 붙었댔수다.》

요염한 젊은 녀자의 요염한 호소가 이 사나이의 마음을 움직였다고도 할가, 아니 결코 그런것은 아니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이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복수의 념이 고조되였던것이다.

그 순간 그가 잡은 복수의 수단은 무엇이였던가? 그렇다! 그는 자기를 향해서 웨쳤다. 내가 지난날 소를 사랑했듯이 그리고 지금 물오리섬을 사랑하듯이 이놈은 이 녀자를 바꿀수 없는것으로 사랑하고있구나. 좋아, 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내가 빼앗을 차례라는 생각이 훌쩍 떠올랐던것이다.

빼앗아주자, 녀자도, 돈도…

그는 불쑥 녀자를 꽉 힘껏 껴안았다.

《그래, 돈을 가뜩 밀어넣고 도망치자. 넣을수 있는껏 넣어라.》

봉구네는 기뻐날뛰며 안방으로 뛰여갔다. 그리고 지페를 산더미같이 주머니속에 밀어넣고 사나이의 옷도 두세벌 꺼내서 보자기에 싸더니 덤비면서 그를 뒤문으로 잡아당겨 밖으로 뛰여나갔다.

미근은 이미 정신이 나간듯 하여 전후를 가려보지 못하고 리성조차 잃고있었다. 두사람은 비속을 헤치고 역으로 달려갔다. 봉구네가 시키는대로 그는 따를뿐이였다. 거기서 그들은 곧 진남포(남포)행 기차에 올랐다.

그러나 기차가 떠나자 곧 또다시 줄대같은 큰 비가 쏟아지고 낮인데도 주변은 캄캄해지고말았다. 번개불은 쉽없이 달리고 우뢰는 당장 굴러떨어질듯 울려퍼졌다.

이 빛, 이 울림에 미근은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는 깜짝 놀란듯 일어섰다. 매생이 하나 없는 작은 섬에 혼자 있는 순이! 물은 더 높아졌을것이다. 섬은 마침내 삼켜졌을지도 모른다. 아아, 난 또 그 무슨

짓을 저지르고있는것인가. 그는 겁나서 굳어졌다가 별안간 출구쪽으로 달려갔다. 봉구네는 비명을 올리며 뒤를 쫓았다.

폭우가 여전히 땅바닥을 때려부실 정도로 쏟아지고있는 속에 멀리 흐릿하게나마 대동강의 범람한 광경이 환영과 같이 얼른거린다. 봉구네는 미근에게 매여달리려 하였다. 그러나 앗 하는 새에 달리는 기차속에서부터 미근은 밖으로 쾌박혀진듯 굴러떨어졌다.

그가 의식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선것은 그후 이삼십분후 마구 쏟아지는 비속의 밭 한구석이였다. 팔을 삐였던지 왼쪽손이 말을 듣지 않고 볼은 째져서 피가 흐르고있다. 휘청휘청 걸어보았는데 발도 성하지 못하여 쑤시고 아팠다. 그러나 그는 악몽에서 깨였다. 한걸음이라도 빨리 물오리섬에 가서 순이를 구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한가지 생각이 그의 전신을 틀어잡고있었다.

발을 끌면서 선로우에 올라서서 비에 자욱한 사방을 둘러보니 무엇하나 알아볼수는 없는데 의외에 만경대에 가까운 태평역 근처같다. 1리정도의 길이라고 그는 자기에게 웨쳤다. 마음은 경종같이 급해지고 불길한 예감이 때때로 그를 질식시키려고 하는듯 하나 몸은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비속을 기다싶이 하여 1시간정도 후에 만경대에 들어섰다.

탁류를 이루고 무엇이나 다 삼켜버릴려는듯 도도히 함성을 올리며 흐르는 대하, 그것이 비안개밑으로 바다와 같이 펼쳐져 곤유도, 벨쨩섬과 같은 작은 섬들은 파란 나무숲을 수면우에 군데군데 내놓고있고 중류는 하얀 거품을 토한것 같은 물결이 일고 떼에서 떨어진 목재가 때때로 생물과 같이 머리를 쳐들고 흘러간다.

돼지가 흘러가면서 기분나쁜 쨱소리로 비명을 지르고있다. 얼굴을 때리는 비방울을 손바닥으로 씻으며 초조해지는 가슴을 가만히 꾹 누르고 참으면서 자기 섬쪽방향을 주시했으나 물오리섬은 멀기때문에 비안개속에 사라져 흔적조차 보아낼수가 없을 정도이다. 아침에 그가 섬을 나올 때보다 비발이 훨씬 강해지고 또 상류쪽이 이곳보다도 더하게 매일 폭우가 왔던지 물량이 늘어나 물높이를 높이고있다.

그는 그것이 오직 자기의 불찰로 순이에게 지은 무서운 죄, 그것에 대한 룡궁님의 노하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야말로 그 노합속에 몸을 던지고 죄를 빌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죽음을 걸고라도

그를 구해내고 그리고나서 자기야말로 죽을 죄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다음순간 그는 벼랑에서 구르듯 기여내렸다. 마침 가까이에 작은 배가 한척 버드나무밑에 매여있어서 그는 거기에 뛰여올라 바줄을 잡아당겼다. 툭 끊어지는것과 동시에 배는 홀딱 뒤집히듯 하면서 거센 물결에 휘말려 흘러갔다.

왼손을 잘 쓰지 못해서 그는 온몸의 힘을 짜내서 한손으로 배머리를 상류쪽으로 돌리고 물오리섬을 향해 노젓기 시작했다.

《룡왕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내여 웨쳤다.

중류를 가로 지나 멋있게 물오리섬에 도착했으면 하고 마음도 팔도 급해지지만 물흐름은 무섭게 빨라 매생이는 와짝 밀려내려간다. 잠시후 중류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두루섬의 아래끝 락덕면의 숲이 어둠과 같이 사라져갔다. 그는 이를 악물고 더욱 팔에 온몸의 힘을 맡겨서 저어갔다. 때때로 급류를 선복부에 정면으로 받으면 매생이가 뒤집힐듯 하여 비칠거린다. 비는 한층 더 억수로 퍼부어 이젠 그만하면 보일듯 한데도 지척도 분간 못했다.

《순이! 순이여!》라고 그는 힘껏 소리쳐보았으나 그것은 소연한 비속에 꼬리도 끌지 못하고 사라져 없어졌다. 그때 배는 소용돌이속으로 들어갔는지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등을 구부리고앉아 노를 꽉 뒤로 찌르고 전신의 힘으로 그곳을 타넘으려 하였다.

(여울이구나, 이제 바로 그곳이다.)라고 그는 속으로 웨쳤다.

언제나 물살이 빠른 여울, 물오리섬의 오른쪽 끝인 그곳이 홍수로 하여 소용돌이를 이루고 콸콸 흘러가는것이다. 운좋게 그곳을 지나갈수 있었다. 그래서 최후의 필사적힘을 짜내여 물오리섬이라고 짐작되는 곳으로 배머리를 돌렸다. 의연히 눈앞은 보이지 않는다. 팔로 한번 눈을 비볐다. 옆으로 호박넝쿨과 잎과 열매를 올려놓은채 지붕이 물결을 따라 화살과 같이 흘러간다. 그 순간 배머리가 그 무엇인가와 닿는듯 한 감촉을 느끼고 그는 환희속에 손을 내밀어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배는 그 서슬에 콱 밀려내려가고 손에는 버드나무초리가 두세개 잡혔을뿐이다. 아아, 섬기슭의 버드나무꼭대기까지 침수되고있는것이다. 그래도 그는 그 무슨 커다란 나무라도 잡아서 섬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순이! 순이여!》 하고 웨쳤다. 그러나 그

와 함께 배는 어느결에 섬을 지나친듯 다시 탁류속으로 들어가버렸다.
《순이! 순이여!》라고 웨쳐도 헛되였고 대답 한마디 없다. 비내려치는 소리와 깊은 안개, 차디찬 랭기만이 대기속에 차넘쳤다. 그의 작은 배를 덮어싸고말았다.

그의 순이는 물에 빠져 흘러간것이였다. 그는 맥없이 그대로 배안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흐름에 희롱당하면서 작은 배에 몸을 맡겼던 것이다.

그는 남포바다에까지 흘러가 거기서 증기선에 의해 구원되였다.

기운이 하나도 없이 섬으로 돌아와보니 집도 돼지도 담벽도 흘러내려가 없어지고 솥과 괭이 그리고 집기초의 돌멩이들만 몇개 남았을뿐 그밖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이래 그는 배사람이 되여 이 늙은 배사공과 같은 배를 타고 평양과 남포사이를 소금이나 물고기를 싣고 오르내리고있다. 그리고 물오리섬을 지날 때마다 그는 이 섬에 배를 대고 순이의 망령과 잠시동안 속삭이는것이였다. 하늘은 고리대금업자에 대해서도 미근의 복수를 해주었다. 그 홍수이후 물오리섬은 모래로 뒤덮여 곡물은 하나도 심지 못하게 되였다.

이와같이 슬픈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 때는 달도 중천에 밝게 걸리고 돛배는 이미 봉래섬옆을 지나고있었다.

섬의 아름다운 숲과 풀덤불의 줄기들과 이파리들이 꽃불과 같이 달빛을 받아 춤추고있다. 강에는 몇척인가 자그마한 고기잡이배들이 등불을 달고 닻을 내려 나무잎같이 흔들리고있다.

잠시 숨막힐듯 한 침묵이 있었다.

늙은 배사공은 벗겨진 머리를 번쩍거리면서 쓸쓸하게 코노래를 부르고있다. 랑은 순이의 슬픈 최후와 이 사나이의 가련한 신세에 대하여 진심으로 불쌍하게 생각하였다. 그야말로 지금 그는 고립무원한 신세가 된것이다. 미근은 또 컵에 술을 따르기 시작했다. 비애로 해서인지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병아구리가 잔에 닿아서 짤랑거렸다.

《그 이후 어머니와는 한번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고 랑은 부드럽게 물었다.

《아니요.》 하고 미근은 격하여 그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다. 늙은 배사공은 미안한듯 머리를 긁었다.

《난 만나지 않아요! 엄마도 내가 가있던 바다가 그리워서 그런 떠

돌이사나이와 도망친게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바다는 쓰레기가 있는 곳, 인간쓰레기들이 있는 곳이라구요. 나는 바다를 저주해요. 물을 저주한단 말야요.》

그리고 별안간 그 커다란 눈에 확 불을 달고 감정이 격해진듯 도전하듯 반신을 내밀었다.

《으응, 난 당신을 잘 알고있소! 흐흥, 순이생각이 나서 찾아왔겠지. 당신얼굴에 그렇게 써있소. 그렇지만 순이는 내 사람이란 말이요. 알겠소? 내 사람이란 말이요. 지금도 나는 순이와 함께 살고있는것이란말야. 룡궁에서 그는 늘 미소를 보내면서 나를 부르고있는것이라구!

그리고 이 대동강우로 언제나 그는 발자국소리를 내면서 나타난단 말이요.》

그리고나서 별안간 푹 고개를 숙여버렸다. 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늙은 배사공은 그때 한쪽돛줄을 잡아당겨 방향을 비스듬히 돌리면서 혼자 씩 웃었다.

《자, 벌써 성안일세.》

《국민문학》 1942. 1.

수 필 편

둔 감 록

정 인 택

20년전 일이다.

2월 중순인지 하순인지 자세히는 기억치 못하나 음력정월 지난지 불과 며칠 안되여서니까 아직도 몹시 추울 때였다.

여러가지 점에 있어서 그때의 내 선배격인 한 친구가 하루는 날더러 불쑥 묻는 말이 《너 요새 봄을 느끼니?》 한다.

무슨 영문인질 몰라 의아한채 대답을 못하고있으려니까 《눈앞에 봄이 와있는데 그게 뵈느냐 말야?》 하고 가히 안타까운 모양이였다.

그때 나는 외풍이 센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책을 읽던 판이라 오돌오돌 떨면서 봄이 무슨 봄이냐고, 2월에 독 터진단 말도 있으니 인제 겨울이 한창이 아니냐고 억지로 웅얼웅얼 그렇게 대답하려니까 그 친구는 금시로 불쾌한 표정을 짓더니 《너 문학 관둬라.》 하고 아주 명쾌한 선언을 던졌다.

《왜?》

《그런 둔한 감각으로 무슨 시인이 된단 말이냐. 새순 돋구 꽃피구 그래야만 봄인줄 아니? 그까짓 봄은 누구든지 다 아는 봄, 시인은 계절에 민감해야 하는 법야. 그래 넌 정말 봄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냐?》

《봄이 벌써 무슨 봄이냐? 난 춰 죽겠다.》

《요 이런 천치가 있나. 아 그래, 이 얼음장밑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봄이 안 뵈여? 가만히 눈만 감아보렴. 눈앞에 아지랑이가 잔뜩 꼈구, 흙내가 물씬물씬 나지 않나? 파란 싹이 얼음틈으로 솟아나오구.》

이렇게 말하며 그 친구는 우울한듯도 하고 명랑한듯도 한 기이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것이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그것이 절실히 느껴지지를 않았다. 사실로 나는 흙내는커녕 돋아나는 싹은커녕 살을 에이는듯 한 추위만을 감득할뿐이다.

그래서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친구는 잠간 상을 찌프리고 몹시 나를 경멸하는 눈치로 다시 말이 없었다.

이때나 저때나 둔감하기는 마찬가지인 나는 아직도 외투를 훌훌 벗어놓을 때가 되지 않으면 역시 정말 봄이 올것 같게는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이 정말 봄인가, 봄인가 하고 봄이 바로 눈앞에 와있어도 좀체로 그것을 믿지 않으려는것이 내 심정인듯싶다.

그때 나를 경멸한 친구는 지금 그 행방조차 묘연타.

완강한 몸이라 아직 죽지는 않았을터이니 지금쯤은 어디서 또 봄을 영탄하고 어쩌면 여름까지 감득하며 여전히 우울한 표정으로 살고있을지도 모른다.

《문장》 1940. 3.

산고양이와 서서방

리 무 영

궁촌에서의 나의 벗이라면 흡과 서군 이밖에 동중의 농군 몇사람뿐이다. 그러나 흡우는 한달중 거의 20일을 서울서 지내고 서군과 가끔 만나서 한담을 할뿐 아직 농군들과는 친할 정도에 자리도 못 가있는터라 아침부터 밤까지 나는 내내 방안에서 지낸다.

《세기의 딸》을 쓰는 일과 약간의 독서, 바로 울뒤산의 산책, 틈틈이 아이들을 보아주는 이것이 군자의 나의 일과다.

해만 지면 모든것이 완전한 정적으로 돌아간다.

양등의 심지타는 소리가 갓난것의 숨소리와 겨눈다. 달이 구름을 헤치는 소리까지도 곧 들려오는듯싶은 정적, 그러나 이 정적은 가끔 내가 《말친구》라고 불러오는 늑대, 여우, 산고양이 이런 짐승들의 소리로 깨쳐진다.

시골이라지마는 경성서 50～60리, 철도로 20～30분밖에 안 걸리는 시골인지라 내가 이런 짐승들을 벗삼아 겨울밤을 새운다고 해도 곧이 듣지들을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여기저기 산재해있는 촌가는 모두 합쳐야 20호다. 이 20호와도 뚝 떨어진 산밑 외딴집 두채중 한채가 내 집이다. 가끔 호군(호랑이)도 산책을 온다는 오봉산뿌리다.

이 험산뿌리와 접한 궁촌에 산짐승들이 닭서리(떼를 지어 남의 물건을 훔치는것.)를 나오는것은 사람들이 내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것과도 같으리라.

《이놈의 산고양이란 놈을 어떻게든지 잡아야겠는데…》

바로 옆집 서서방은 나를 볼 때마다 벼른다. 초가을에 한마리, 바로 최근에는 매일 꼭꼭 알을 낳던 흰 암닭 한마리를 산고양이한테 또 제물로 바친것이다.

서서방은 이 동리에서는 가장 부지런한 농군이다. 나는 지금까지 그가 해뜰 때까지 자는것을 본 일도 없고 잠시라도 손을 쉬는것을 본 일

이 없다. 거름을 치는가 하면 나무를 하고 나무를 하는가 하면 여물을 쑨다.

정 한가할 때면 하다못해 소덕석을 벗기여 비질도 해주고 외양의 짚을 갈아넣고있다.

소작농이기는 하나 비교적 광작인데다가 남의 산을 관리하는터라 끼니를 건느거나 하는 일은 없는 모양이나 전실자식들과 어린것 3남매의 일곱식구를 혼자서 벌어먹이지 않으면 안되는 고달픈 몸이다.

이 서서방에게 두마리의 닭이 얼마나 소중하리라는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지금시세로 닭 한마리에 1원 50～60전, 두마리면 쌀이 한말서되값이다. 쌀말 서되에 잡곡을 섞는다면 5～6일의 량식이다. 그렇기에 그는 흰 암닭을 잃어버리던 날 밤은 한밤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산고양이를 쫓아서 깊은 산속까지 추격을 했다는것이다.

《그래 쫓아가면 붙잡을것 같습디까?》 하고 웃으려니까 《그때에 뭐 그런 생각이나 할새가 있어요! 그양 치가 떨려서 쫓아갔지요.》 하며 분을 삭이지 못해 씩씩거렸다.

《그놈에게 일년 공을 들여 기른 닭을 두마리나 뺏긴 생각을 하면 그양 치가 떨려서!》

《치가 떨려서…》

나는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려본다. 닭 두마리에 이렇게 치가 떨려하는 사람들이 1년동안 지어놓은 곡식을 지주한테 눈 뻔히 뜨고 뺏길 때의 그 치떨려할 심정을 생각하고 나는 우울했다.

며칠후 나는 온종일 서서방을 못 보았다. 나무를 하나 하고 산을 쳐다보았으나 산에도 없다. 내 집을 둘러싼 자그마한 산이 바로 그가 관리하는 산인지라 락엽 긁는 소리까지 방에 앉아서도 들린다.

《서서방이 오늘은 노는 모양이군.》 하고 내가 혼자말처럼 하니까 안해가 있다가 수원에 갔다고 한다.

《수원에?》

《그렇대요. 왜, 요전에 닭 두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늘 분해 죽겠다고 하더니만 여우창을 사다논다구 일부러 갔대요.》

《어지간하군!》

나는 이렇게 가벼이 받아주고 내 방으로 들어갔지만 실상 그때의 내 마음이란 그렇게 간단한것은 못되였다. 나는 밤이 늦도록 생각했다.

내것이란 이렇게 소중한것일가. 이 소중한 내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 찾으려고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물론 나도 그중의 한사람이지마는…

《조광》 1940. 4.

소 문 초

박 로 갑

골목안 아이들이 고양이 한마리를 가지고 놀려대는것을 보았다. 가엾은것을 왜들 놀리느냐고, 그러지들 말라고 좋게 타이르는 말에 서울아이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는다. 어른말 잘 안 듣기로는 어쨌든 서울아이들이 유명할것이다.

이런 심악한 아이들을 물리치고 웬 키 훨씬 큰 사내 한분이 이 가련한 고양이새끼를 집어들기에 나는 그야말로 어지간히 의협심있는 사내로 알지 않았던가.

그랬더니 그는 그 고양이새끼를 가져다가 근처 쓰레기통에다 사정없이 넣어뜨리고 철판문을 소리쳐 닫지 않았느냐 말이다.

과연 놀래였다. 아이들이 이것을 놀려댄것은 이것을 죽이잔 목적은 아니였지만 그 사람은 누구기에 어른체면 불구하고 무슨 까닭으로 이것을 죽이려 들었던가?

나중에 들으니 까닭은 소고기 한덩이때문이였다.

그 사내의 가정은 편안히 지낼수 있는 정도인 모양이였다. 그리 큰 집은 아니였어도 자기네의 집이 있고 나가 별로 벌이를 안해도 량식걱정 않는 모양이였다. 시골말을 하는것을 보니 시골서 몇백하는터에리해타산을 하고 서울살림을 시작한 모양인가보다.

그 집에 고양이를 기르는데 그놈이 새끼를 낳았단 말이다.

밥 많이 주면 쥐 안 잡는다고 밥도 잘 안 주었는지 주었는지, 그것도 내 함부로 판단할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어미고양이 한마리, 새끼고양이 세마리 도합 고양이 네마리가 이 집 울안에 살고있었던것만은 사실이였다.

하루는 저녁때 이 집에서 고기 한근을 사다가 백분의 일도 못 먹고 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이 고기가 송두리채 없어졌다는것이였다.

집안이 온통 야단이였던 모양이였다. 결국 죄목은 이 고양이에게 돌아갔다.

분이 머리끝까지 치민 주인은 어미고양이를 실컷 후려때리고도 그

리고도 분이 풀리지들 않아서 어미는 광에다 가두고 새끼는 셋 다 수채에다 쓸어박았다.

두놈은 죽고 한놈은 요행 살아서 기여나온것을 아이들이 놀려대던것이였다. 죽지 않고 살아나온것을 본 주인은 다시 분이 치밀었던 모양인지 쓰레기통에다 다시 처박은것이였다. 새끼를 이렇게 죽이고는 어미는 광에다 굶겨죽인다는것이였다. 고기먹고 배부른 죄를 요렇게 다스려본다는 수작이였다.

이 이야기가 한집, 두집 건느고건너 골목에 퍼진것인데 누구 하나이 고양이주인의 처사를 칭찬하는 사람을 나는 보지를 못하였다.

어미를 가둔데 대해서가 아니라 새끼를 몽땅 죽인데 대해서였다.

이쯤 된 일에 선악을 애써 판단하려들것이 있는가. 잘못을 가리기에 예서 성현이 필요치 않다.

주인에게 빼앗긴 새끼의 생사를 모르는 어미고양이는 필여 지금도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있을것이다.

결국 그대로 어미마저 굶겨죽이고말든지 어쩔른지 그것은 알수 없는 일이다.

설혹 마음을 돌리여 가두었던 어미를 풀어준단들 한번 죽은 새끼들이 다시 살아날리 만무다.

주인은 고양이를 용서하였어도 고양이의 원쑤는 그의 주인이다.

고양이 제까짓게 원쑤가 되는것을 사람이 무서워하랴마는 사람이고보면 원쑤가 주인이더라도 맘속에 원쑤를 갚을 날카로운 바늘이 솟을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골목안 인정을 타진하고 얻은 나의 결론이였다.

얼마뒤에 나는 이 사건과 관련된 소식을 또 하나 들었다.

고양이새끼가 죽던 그전날 땅거미가 질 때 나의 이웃집 고양이가 벌건 고기덩이를 물고 가더란 이야기였다.

이 소식은 그 주인이 들었는지도 모른다. 만일 듣지 못하였다면 나는 이 소식을 가져다가 그 주인의 귀를 찔러주고 다음은 그의 마음을 찔러주고싶었다.

골목안 누가 반드시 전하였으리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골목안 인정을 믿고싶은것은 오히려 반가왔다.

《문장》 1940. 12.

계절의 감촉

엄 흥 섭

봄이 오면 《춘래불사춘》(봄이 와도 봄같지 않다.)이라고 로맨틱하게 봄을 탄식하고 여름이 되면 록음지대나 해수욕장지대로 피서를 못 가서 배를 앓고 가을이 되면 만물의 조락을 느끼며 센치하게 《추야강탄식》을 노래하는것이 인생이 가지고있는 공통적인 버릇일것이다.

인생은 자연에서 나서 자연의 혜택을 입고 자라면서도 자연을 찬미할줄 모르는 무뢰한들이다.

뿐만아니라 자연을 증오하고 자연을 저주하는자도 있다.

더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더한층 그렇다.

백화점 진렬장에 파라솔과 양산, 맥고모자가 진렬되면 《아아, 봄이 되였군!》 하고 달려가고 아스팔트가 물큰물큰 흰 구두바닥에 고무처럼 탄력을 일으키며 밟히일 때라야 《아아, 벌써 여름이야! 제기—》 할뿐이다.

도시인은 이렇게 계절에 대한 감촉이 둔한것 같다.

계절에 대한 감촉이 둔한 사람처럼 비정서적인 사람은 없을것이다.

거리와 다방에서 담배연기와 음식내에 시달린 열대식물의 분재포기나 감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백화점 옥상 온실에서 자라난 부자연한 화분군이나 바라보고 기껏해야 창경원 덕수궁의 너무나 인위적인 개성미를 상실한 화초를 관상함으로써 계절의 향기를 맡으려 하는것이 도시인의 유일한 계절애의 정열적노력일것이다.

때때로 등산배낭을 짊어지고 근교로 나아가 자연과 친하려 하고 계절의 향기를 들이키려 하는 의욕적인 도시인이 없는바도 아니다.

높은 산, 맑은 물, 우거진 숲, 넓은 들, 새파란 하늘, 밝은 달, 맑은 바람 이런것들의 자연을 례찬하고 노래하는 목가적인 도시인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도시인은 역시 둔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봄날 아지랑이와 잔디밭을 잘 모른다. 진달래와 개나리를 잘 모른다.

앞산과 뒤산, 솔포기밑과 바위틈, 양지받이와 그늘진 곳, 비탈과 골짜기 등 산이면 어디든지 피는 진달래의 향기를 맡을줄 모른다.

이 울타리, 저 울타리, 이 밭뚝, 저 밭뚝우에 노랗게 피여난 개나리꽃의 다발의 아름다움을 느낄줄 모른다.

여름철 울타리에 넝쿨을 뻗치며 대롱대롱 매여달리는 애호박이 아침저녁으로 살이 쪄 커가는걸 모른다.

바닥으로 넝쿨을 마음껏 뻗치며 잎속에 숨어서 단냄새를 풍기는 참외배꼽을 손가락으로 튕겨보는 정취를 모른다.

퉁기여 쇠소리나는 수박을 따가지고 원두막바닥에다 제 몸을 부딪뜨려 쪼개놓고선 두세사람이 둘러앉아 다투어 먹어제끼는 쾌미를 잘 모른다.

살이 쪄 통통한 밤콩사리를 해다가 달밤에 둘러앉아 끄슬려먹는 풍취를 도시인은 전연 모른다.

논배미와 개천과 웅뎅이와 못을 퍼서 잡는 붕어, 가물치, 메기, 자가사리, 뱀장어, 미꾸라지를 새빨간 고추장에 또는 풋고추에 바짝 지져서 논구퉁이 개천언덕에서 탁주 안주를 하는 풍미를 도시인은 전연 모른다.

허물벗은 참게를 나락포기 그늘에서 발견하고 산채로, 실로 산채로 집어삼키는 잔인무쌍한 악취미의 맛을 전연 모른다.

모기불에 옥수수와 풋감자를 구워먹는 맛을 전연 모른다.

가을철 고구마밭을 파다가 생고구마 그대로 덥석덥석 베여먹는 맛을 전연 모른다.

뒤동산 도토리나무밑에 감노랗게 익은 도토리알을 허리 아픈줄도 모르고 바구니에 주어담는 흡족의 쾌감을, 밤나무밑에 수북하게 떨어져 구르는 기름이 조르르 흐르는 살진 알밤을 주어담는 수확의 기쁨을 도시인은 전연 모른다.

날마다 새빨갛게 익어가는 홍시, 잎사귀는 단풍이 들어 거의 반이나 떨어져 땅을 첩첩히 덮었는데 이따금 뚜욱 뚜욱 하고 깔린 나무잎우에 털썩 떨어져내리는 주먹같은 홍시를 쫓아가 주어서는 주은 그 자리에서 속을 조르르 빨아먹고 껍질을 홱 불어내버리는 리기적인 쾌미를 도시인은 전연 모른다.

햇쌀에 햇밤송편, 햇대추송편, 햇콩, 햇녹두송편과 추석도 훨씬 지나 김장배추와 무우가 제법 탐스럽게 무성하고 고추대에 다홍고추가 조랑조랑 매여달릴 때 산비탈 무우밭을 지나던 목마른 길손이 탐스러운 무우몸뚱이에 유혹되여 잠간 허리를 굽히여 실례를 범하고도 그까짓 큰 죄가 아니라는듯이 하이얀 무우몸뚱이를 와삭와삭 잘라먹으며 천천히 산길을 넘어가는 그 유장한 풍취를 도시인은 전연 모른다.

해가 지면 류달리 바람이 차고 된서리가 내리여 새벽녘에 솜옷을 입고나와도 오히려 팔짱이 끼여지는 늦은 가을의 안개낀 새벽 햇쌀뜨물로 끓인 배추토장국에다 홍고추를 다져넣어 얼근하게 해장하는 맛을 도시인은 모른다.

겨울전 들어서 곡식을 모조리 걷어들인 뒤 나무잎도 다 떨어져 뼈만 남아 앙상한데 눈보라치는 기나긴 밤을 마을에서 제일 큰 사랑에 모여 아궁지에 통장작을 덤뿍 들이밀어 개흙바닥인 갈자리밑을 웃아래목 할것없이 뜨겁게 달구어놓고는 소래기높이 이야기책을 읽거나 그렇지 않으면 넉통치기 콩윷을 놀고 술내기 화투를 치고 담배내기 장기를 두고… 그것이 혹시 탈선이 되여 도박으로 변하고 때로는 싸움이 일어나는 농촌의 겨울풍경을 도시인은 전연 모른다.

이상 사계절을 통하여 계절에 대한 감각은 도시인처럼 둔한 사람이 없을것이다.

3월삼질, 4월파일, 6월류두, 7월7석, 8월추석 등 조선의 풍토와 계절의 변화를 특징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볼수 있는 이 전통적인 명절에 대한 감촉조차 현대도시인에게는 점점 둔하여지며 미약해져가는 모양이다.

그도 그렇게 될수밖에 별도리가 없을것이다.

젊은 도시인의 대부분은 근로계급에 속한다. 그들에게는 계절의 변화를 감촉하고 대자연의 조화를 례찬할만 한 정신적여유와 물질적여유가 결핍된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곧 계절에 대한 감촉이 둔해지는 큰 원인이 될수 있는것이다.

매 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을 리용하여 야외로, 농촌으로, 산악으로 나아가 계절을 맛보고 자연과 접촉하는 도시인의 수는 근년에 이르러 일증월가(날과 달을 따라 늘어감.)해지는 모양이다.

그들의 대부분 역시 호화로운 생활층에 속하는 남녀들이다.

새벽 5시나 혹은 6시에 출근하여 밤 6시, 7시 심한 경우에는 자정까지 야업을 하고 돌아오는 류의 생산기관의 근로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호화로운 생활면이 결핍되여있다.

그들이 배낭을 메고 카메라를 든 등산객이나 탐승객의 행렬을 대할때 자기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생활의 향락자라고 단정해버리는 례도 결코 심한 무리가 아닐것이다.

이러한 도시의 근로층에 비하면 농촌,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들 농민, 어민은 도시의 로동자보다 훨씬 빨리 계절의 감촉을 느끼고 자연의 신비를 많이 접촉할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들 역시 계절과 자연에 대한 감각이 둔하지 않은자 많지 못함은 이 무슨 섭섭한 일인가.

등하불명이란 이런 경우에 쓸 말이다. 위대한 자연속에 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스러운것을 느끼지 못한다는것은 이 무슨 자연에 대한 무례함일가!

혹시 느끼지 못함이 아니요, 표현치 못함이랄가.

기쁨을 보고 기쁘게 못 웃는 성격, 아름다움을 보고도 상찬할줄 모르는 머엉한 성격, 슬픔을 보고도 진실로 슬퍼할줄 모르는 성격, 이러한 무표정의 성격에서 온 현상이라고나 할가.

이러한 무표정의 성격, 침묵의 성격을 가진자는 실로 가엾은 존재로밖에 볼수 없다. 그가 없음이 정도를 지나쳐 증오와 경멸로 변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도시의 경박, 저조의 화신, 모던걸, 모던보이(소위 현대녀성과 남성)가 꽃만 피여도 맥고모자를 쓰고나오고 양산을 들고나오고 첫 가을이 못돼서부터 마후라를 걸치고 반코투를 팔뚝에 걸고나오고 가장… 서 계절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다는듯 버티는 류의 꼴불견에 비할바는 아니다.

이러한 도시의 꼴불견이야말로 계절의 모독자로서 넉넉히 증오, 경멸하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자연은 이러한 모독자를 증오하고 경멸한다.

실로 이런 류의 경박배들의 계절에 대한 감촉이란 수박겉핥기식의 복장치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어느 의미로 보아서는 장님만도 못하다.

장님은 계절에 대한 색채적감촉에 전연 혜택을 못 받은자라 할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구들장우에 가만히 앉아서 음식의 미각을 통하여 계절을 넉넉히 감촉한다 할것이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음식이 변하고 미각이 변하기때문이다.

장님이 가진 계절의 감촉이 오히려 실속있는 감촉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살진 봄미나리김치에 봄조개초고추장회를 먹음으로써 봄을 느낀다.

씀바귀, 냉이, 달래, 도라지, 부루, 쑥갓 같은 봄채의 미각을 통하여 봄의 전모를 맛본다.

오이나물, 호박나물, 열무김치, 풋고추졸임, 참외, 수박의 미각을 통하여 비로소 여름의 참맛을 느낀다.

풋콩, 풋팥, 풋밤 까넣어지는 햇쌀밥에 무우생채, 통배추김치를 휘휘 감아먹음으로써 가을의 미각을 느낀다.

청어구이, 동태졸임, 김장김치, 동치미, 김쌈, 곰국(소고기를 푹 끓인 국.)을 먹음으로써 겨울의 감촉을 느낀다.

이러한 미각을 통하여 계절을 감촉받는 사람은 오직 장님뿐만이 아니다.

도시의 유한계급, 중년이상의 남녀가운데는 대부분 이런 부류가 많은것이다.

그들은 눈이 있으면서도 눈으로써 계절을 감촉하는것이 아니라 입으로써 감촉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식도락의 사자일뿐이다.

그들이 온천장으로, 별장으로, 록음지대로, 약수터로 오락가락하는것은 계절의 감각에서 온 숭고한 자연애의 발로가 아니요, 오직 향락적인 생활의 소비인 경우가 대부분일것이다.

인생을 소비하고 다만 향락하는자는 자연의 위대함도, 계절의 감촉이 신비함도 잘 모르는자다.

《조광》 1941. 11.

까 마 귀

권 환

오래간만에 나는 일찍 일어났다. 귀뚜라미가 유난히 시끄럽게 우는때문이다. 잠옷을 입은채 방문을 열어제치고 뜰에 나서니 싸늘한 아침바람이 무슨 자극을 주려는듯 내 볼을 스쳐간다. 가을하늘이 호수보다 맑고 푸르다. 높이 달린 익은 감이 해빛에 싸여 홍보석처럼 새빨갛다. 까마귀가 몇마리 가지끝에 내려다보고 앉았다.

나는 어쩐 일인지 가을철특유의 센치멘탈한 감흥에 사로잡혀 부연 아침연기가 허리를 싸고있는 앞산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이상하지도 않은가. 노래를 첫마디도 다 부르기 전에 어데선지 《그만두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나는 관계할것없이 소리를 더 가다듬어 다음마디를 불렀다. 그러나 그 순간 또 《그만두어요.》 하는 소리가 다시 더 날카롭게, 더 똑똑하게 내 귀에 들린다. 내가 피뜩 우를 쳐다보니 바로 내 머리맡 감나무가지에 앉은 까마귀가 나를 노려보고 또 같은 어조로 더 위엄스럽게 《그따위 노래 그만두어요.》 하지 않는가.

나는 하도 기가 막혀 어안이 벙벙하였다. 내 가슴엔 부끄러움과 분한 감정이 뒤범벅되여 차올랐다. 그것은 그런 당돌한 소리를 한자가 일개 날짐승이란때문이 아니다. 까마귀자체가 누구나 알다싶이 날짐승에서도 가장 졸렬한 가수인때문이다.

만일 그때 그 소리의 주인이 꾀꼬리나 카나리아였다면 나의 분노의 정도는 훨씬 덜하였을지 모른다.

나는 어이가 없어 한참동안 묵묵히 서있다가 《내 노래하는걸 그만두란 말이냐?》 하고 되물었다.

《잘 알아들었군요.》

《그게 무슨 건방진 소리냐? 일개의 날짐승으로… 이러나저러나 내 소리가 네 노래보다도 듣기 싫은 노래란 말이냐?》

《뭐? 내 노래보다도? 흥, 그래도 자존심은… 그 노랜 대관절 무

어란 말여요? 고전주읜가요, 랑만주읜가요? 혹은 또 초현실주의란 말이요? 그렇든저렇든 당신노랜 단 한사람인 당신애인도 울리지 못한 노래 아녀요? 그렇지만 내 노래는 새까만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자면 누구나 다 감동받을수 있는 노래이니까요. 아, 내 노래만 한 노래도 그들한테 들을수 없나?》 하고 까욱까욱하며 날아간다.

아닌게아니라 그 소리가 나자마자 감나무에 앉은 다른 까마귀들이 모두 같이 까욱까욱하면서 따라 날아간다.

나는 한참동안 가을하늘을 뚫고 멀리 힘차게 날아가는 까마귀떼를 바라보고 서있었다. 가을하늘이 호수보다 맑고 푸르다.

시집 《륜리》 1944.

시 편

벌판을 가는것

리 용 악

몇백년 지난 뒤 깨여났음이뇨
나의 밑 다시 나의 밑 잠자는 혼을 밟고
새로이 어깨를 일으키는것

나요
불길이요
쌓여쌓여서 훈훈히 썩은 나무잎을 헤치며
저리 환하게 열린 곳을 뜻함은
세월이 끝나던 날
오히려 높디높았을 나의 하늘이 남아있기때문에
내 거닐은 자욱마다 새로운 풀 하도 푸르러
뒤돌아 누구의 이름을 부를고

이제 넓다란 벌판을 혼자서 가는것
바람도 비도 눈보라도 번갈아 지나가버린 벌판을
저렇게 많은 단 하나에의 길을 가는것
나요
끝나지 않은 세월이요

《춘추》 1941. 5.

내가 만일 왕자이라면

리 찬

내가 만일 왕자이라면
왕자라곤 부르지 않아도 좋다
금실은실 성장보다도
열어제낀 노ㅡ타이(넥타이를 매지 않은 제낀깃옷차림)가
　　내게는 알맞으리

겸손히 허리굽힌 너는 누구냐
내밀어 내 손을 덥석 잡아라
나는 너의 성을 부르려 않고
나는 너의 정명을 알려고 않는다

다만 너는 청년이여야 하고
다만 너는 청년중의 청년이여야 한다

아, 얼마나 화려한 이름이냐
하늘은 다양하고 ××은 피여 흩어지고
정열의 말등에 채찍을 얹어라
대륙을 건너 대해를 넘어
훤히 동터오는 먼 지평선
우리들은 창공을 우러러 철철 넘는 축배를 들자
오호 오래인 인류의 신비여 잊어본적 없다는 꿈이여
저기 만생의 단 하나 아름다운 그는 못 감추어 있나니
무엇이냐 감히 우리앞을 가로막을것
나의 높은 위엄이 그때에 있으리라
《나는 왕자다》

《조광》 1940. 4.

어 머 니

권 환

5년만에 서울 오신 어머니
검은 머리는 다 하얘버렸건만
옛 말버릇은 그냥 가지고계시다

말끝마다 붙은 한가지 말버릇
《조심해라이—》

시집 《자화상》 1943.

언 덕

윤 곤 강

언덕은 늙은 어머니의 어깨와 같다

마음이 외로워 언덕에 서면
가슴을 치는 슬픈 소리가 들렸다
언덕에선 넓은 들이 보인다

먹구렝이처럼 달아나는 기차는
나의 시름을 싣고 가버리는것이였다
언덕엔 푸른 풀 한포기도 없었다
들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날마다
가까워오는 봄의 화상을 찾고있었다

《인문평론》 1940. 6.

밤 차

윤 곤 강

다만 두줄기 무쇠길을 밟으며
검은 밤의 앙가슴을 뚫고
지금 나는 들을 달리고있다

나의 품안에 얹혀가는 가지가지 사람들
남에서 북에서 오고가는 사람들
누가 좋아서만 가고온다드냐?
양초마냥 야위여 돌아오는 가시내
술취한 마음으로 집을 나선 사내

대체 그게 모두 어쨌단 말이냐?
나는 모른다 캄캄한 나의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누가 쓰러지는지
수없이 많은 나의 발길의 망설임

나에겐 비바람 눈보라의 밤낮이 따로 없다
먹구렝이같은 몸뚱이를 뒤틀며 뒤틀며 나는
달려야 한다 논과 밭 내와 언덕 산과 굴속

《문장》 1941. 3.

차 돌

윤 곤 강

지친 발끝에 채이고 밟혀도
눈물 한방울 흘릴줄 모르고
뜻은 쇠날보다도 야무져
끼리끼리 머리를 맞쪼아도
번개처럼 뿜는 불꽃의 별똥
억세고 모진 뜻이 겉에 솟아
네 얼굴은 희고 차구나

시집 《빙화》 1940. 8.

청 자 부

월 탄

선은
가냘픈 푸른 선은
아릿다웁게 구을러
보살같이 아담하고
날씬한 어깨여
4월춘풍에 제비 한마리
방금 문을 박차 바람을 일군다

그러나 이것은
천년의 꿈 고려청자기!

빛갈! 오오 빛갈!
살풋이 음영을 던지는 갸륵한 빛갈아
조촐하고 깨끗한 비취여
가을소나기 마악 지나간
구멍 뚫린 가을하늘 한쪼각
물방울 뚝뚝 서리여
곧 흰구름장 이는듯 하다

그러나 오오, 이것은
천년 묵은 고려청자기!

술병 물병 바리 사발
향로 향합 필통 연적

화병 장고 술잔 베개
흙이면서 옥이더라

구름무늬 물결무늬
구슬무늬 칠보무늬
꽃무늬 백학무늬
토공이는 화가더라
진흙속 조각가다

그러나 이것은
천년의 꿈 고려청자기!

《조광》 1940. 6.

사공의 노래

로 자 영

두무깨나루에서 데여데여 노젓는 동안
상평보화전이 구리돈으로
구리돈이 백동전 은전 지전으로 바뀌고
물 흐르고 사람 가고 50년 세월이 갔소

내 배에 태운 손님 수백만이요
그들은 50년안에 동서로 뿔뿔이 가고
내 얼굴엔 버섯까지 검게 돋았소
물결도 차진듯 소리 구슬프오

새파란 젊은 날을 이 물속에 버리라니
물이야 언제나 한모양
산도 그 빛이지만
슬프다 50년을 웨 살었소?

《문장》 1940. 11.

메 주

주 요 한

메주콩 구수하다 집어먹는 아이들을
설사하리라고 꾸짖으며 빚으시다
빚으신 메주덩이를 가끔 세여보시더라

큰딸네 스무덩이 작은 딸네 열두덩이
남는것 집에 쓰고 이만하면 넉근하고
할머님 허리짚고서 턱짓으로 하시니라

참외보다 훨씬 크고 수박보다 작게 빚어
짚으로 두번 얽어 대들보에 매여달고
자다가 안 떨어질가 걱정하며 자노라

《인문평론》 1940. 10.

우 물

김 동 석

물 한모금 청했더니
그는 물 긷다말고
수집게도 웃었소

나도 드레박줄을 잡고
우물속을 들여다보오

그와 나의 얼굴이
나란히 둘…
내가 바란건 물이 아니요
그의 방실 웃음이였더라오

시집 《길》 1941.

별

김 동 석

눈이 깜빡
입은 방실

아기별들이
엄마별한테
옛날 얘길 듣고있는게지요

둥근달이
두눈을 부리부리
동산너머로 넘겨다보니깐

별이
하나 둘 셋
쏜살같이 뛰여갑니다

아기별들이
숨박곡질을 하는게지요

시집 《길》 1941.

하 늘

김 동 석

나는 죽어 구름이 될게
너는 죽어 종달새 되렴
나는 너를 안고 창공을 날며
온종일 마음껏 노래부르리

나는 죽어 한줌 흙 될게
너는 죽어 맨드라미꽃 되렴
나는 너를 안고 무덤에 누워
해지도록 푸른 하늘 바라보리

나는 죽어 흰 박꽃이 될게
너는 죽어 맑은 이슬이 되렴
나는 너를 안고 지붕에 누워
밤이 들도록 별을 쳐다보리

시집 《길》 1941.

버러지들

김 동 석

새들은 숲속에 잠들고
별이 이슬바다 깃들인 밤인데
잠 이루지 못하는 버러지들이
외로운 등잔불로 몰킨다

창문은 굳이 닫혀있어
몸부림치는 풍뎅이
바르르 떠는 불나비
뺑뺑 도는 하루살이
어둠을 등지고 파락거리는 미물들

낮에는 풀속에 흩어져있어서
존재조차 모르던 그들이
지심을 향하여 떨어지는
총 맞은 새와도 같이
한낱 불빛으로 날려준다

나그네여 창문을 열어주라
그들 미물의 버러지로 하여금
더러운 몸을 불살러
빛나는 찬사를 갖게 하라

시집 《길》 1941.

은 행 잎

김 동 석

책갈피에 끼운 은행잎 하나
일년이 가도 푸른채로 있다

사랑앞에 서있는 은행나무도
잎이 꼭 이만큼 자랐으리니

순이야 고향이 변함없는가
한잎 따서 봉투에 넣어보내라

내 얼굴엔 주름살이 늘어가도
마음은 은행나무잎처럼 푸르련다

시집 《길》 1941.

풀

김 동 석

구두발로 진흙발로 구루마바퀴로
말굽으로 밟히는 풀 밟혀도 밟혀도 죽지 않는 풀

나는 너희들의 의지가 부러웁다
송아지 사슴 토끼를 먹이는 풀
아기네 각시되는 풀
대보름날 장사군들 쥐불놀이 풀
나는 너희들의 덕이 부러웁다

내 지금 깔고앉은 풀
내 죽은 후 내 무덤을 덮을 풀
담뿍 펑퍼짐히 여기도 저기도 돋아나는 풀
나는 너희들의 생명이 부러웁다

시집 《길》 1943.

단 상

김 동 석

나는 처마끝에 매달린 롱안에 든 새
사방 푸른 산골짜기엔 록음이 무르녹고
시내물이 5월을 노래하며 달음질치리니
날개를 가지고도 날으지 못하는 나
창공을 바라보면 마음만 안타까웁다

나는 창턱에 놓인 어항에 든 물고기
바야흐로 훈풍이 못우를 불어오고
수양버들가지는 수면에 6월을 그리리니
지느러미 있어도 자유로 헴 못 치는 나
마신 물을 되마시며 유리만 핥고 또 핥는다

시집 《길》 1943.

경 칩

김 동 석

태양이 막 적도를 넘으려 할 때
온 겨우내 죽은듯 괴괴하던 땅속에서
무수한 생명들이 머리로 지각을 비빈다

개미 지렁이 개구리 두꺼비
씀바귀 질경이 고사리 할미꽃
도롱룡 살모사 오소리 도마뱀

우주의 새봄을 낳기 위하여
최후 심판날 헌신이 부는 나팔에
죽은자 놀라 깨일 때도 이러하려니

잠에서 깨여나 눈을 부비고
태양을 맞으려 기지개치는자에게
꽃피고 새 노래하는 부활이 오리라

시집 《길》 1944.

눈은 내린다

김 동 석

달밤을 대낮이라 우겨가며
술먹고 춤추던 무리들 잠든듯 고요한
서울의 거리 죄많은 거리거리…

달빛을 꾸어온 빛갈인것을
그나마 구름에 가리워 아득한
종로네거리 아스팔트우엔

양놈이 씹다버린 추잉 껌
한갑에 20원 하는 크올리의 담배껍질
어지러운 거리 잔뜩 찌프린 밤거리

인제 진정 눈이 내리려 하느냐
차고도 포근한 너를 기다린지 오래어니
죄있는 놈 잠든 틈을 타서 오려 하느냐

내리라 함박꽃인양 눈은 내리라
너는 리성의 순결한 옷자락으로
짓밟혀 더럽힌 거리를 품에 안어라

흥분한 야망과 욕심을 가라앉히고
눈은 내려내려서 거리거리를 덮고
먼동이 트기 전 오예와 치욕은 숨으라

거리마다 부지런한이들의 얼굴얼굴
그들의 발길이 밟고가는 순백의 길
그 길우에 붉은 태양은 빛갈을 던지리라

시집 《길》 1944.